학/술/대/회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 **임성수**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평택 / **박 범**

경세가 김육과 대동법시행기념비 / **이근호**

학/술/대/회

근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평택역의 설치와 사회경제적 변화 / **허영란**

근대도시 평택과 조선인 유지층 / **김해규**

근대전환기 평택지역 일본인 사회 / **성주현**

특/집/논/문

평택의 민속

해방이후~1960년대 농촌 마을의 공동 활동과 공동체 감각의 변화 / **양선아**

경기도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공연성과 전형성 / **최자운**

일/반/논/문

조선중기 원연의 삶과 의병활동 / **김경록**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 원병의 실체 / **안대회**

한국 근대 기초과학 스포츠 발전과 평택인 안재학 / **황우갑**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우)17901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6.0600 Fax 031.654.8807

9 772713 688004 05
ISSN 2713-6884

평택시

평택문화연구 第4輯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평택문화연구

第4輯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2022

평 택 문 화 연 구

第 4 輯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발 간 사

평택문화연구는 지역 정체성 확립의 '바로미터'

평택문화원 부설 지역학 연구기관인 '평택학연구소'에서는 매년 지역사 관련 학술대회를 몇 차례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사 현안 주제를 가지고 두 번의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평택문화연구 제3집〉에서 '평택의 마을조사'를 통해 마을의 변화상을 조명했다면 이번 〈평택문화연구 제4집〉에서는 조선시대와 근대 평택 지역의 사회와 경제상에 대해 연구한 내용을 실었습니다.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에서는 사료에 기반을 두어 조선시대 평택의 입지와 역할 등을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에서는 근대시기 평택의 경제적 변화상을 흥미롭게 담았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평택의 민속'을 주제로 한 특집 논문 2편과 인물 조사 등을 담은 일반 논문 3편을 통해 평택학 연구의 다양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물 연구는 기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의병장 원연과 과학자이면서 근대 스포츠를 선도한 안재학 연구가 새롭게 조명되어 앞으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평택학연구소는 2019년 〈평택문화연구 제1집〉 발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학술대회와 지역사 조사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물, 역사, 사회, 경제, 민속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해 평택학 연구의 지평을 넓혀나갔습니다. 이 같은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성과에는 항상 '발품'과 '연구'를 마다하지 않은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평택문화연구〉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평택시민에게 지역사를 알리고 지역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도 앞장서겠습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자산을 미래적 가치로 계승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지속적으로 평택학연구소의 다양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2. 12

평택문화원 부설 평택학연구소 소장 **박 성 복**

목 차

학/술/대/회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 **임성수** 09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평택 / **박 범** 35

경세가 김육과 대동법시행기념비 / **이근호** 67

학/술/대/회

근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

평택역의 설치와 사회경제적 변화 / **허영란** 97

근대도시 평택과 조선인 유지층 / **김해규** 115

근대전환기 평택지역 일본인 사회 / **성주현** 145

특/집/논/문

평택의 민속

해방이후~1960년대 농촌 마을의 공동 활동과 공동체 감각의 변화 / **양선아** 191

경기도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공연성과 전형성 / **최자운** 235

일/반/논/문

조선중기 원연의 삶과 의병활동 / **김경록** 259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 원병의 실체 / **안대회** 313

한국 근대 공학과 스포츠의 선구자 안재학 / **황우갑** 347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임성수/평택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평택의 호구와 토지 변화
3. 평택의 경제와 부세 규모
4. 평택의 군역과 군사 편제
5. 맺음말

1. 머리말

평택시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을 거치면서 주변의 여러 행정구역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도시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평택시의 행정구역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대략을 구분하면 현재의 평택시 행정구역에는 경기의 진위현과 충청도의 평택현이 자리하고 있었다. 진위현과 평택현은 서울에서 충청도와 전라도로 내려가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다. 넓은 평야 지대가 있고, 고을을 관통하는 강이 흐르며 바다와도 접해 있는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상 두 고을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지방 고을을 부(府)-목(牧)-군(郡)-현(縣) 등으로 읍격을 구분하였는데, 두 고을은 모두 가장 낮은 읍격인 현(縣)이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앙정부의 큰 관심을 받던 지역은 아니었던 셈이다.

조선시대 군현의 읍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인구와 토지였다. 농경사회에서 토지는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였고, 인구는 농사를 지을 인력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평택현과 진위현의 인구와 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와 토지를 통해 경제적 규모를 파악하고, 평택현과 진위현이 국가 운영에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토지는 조선시대 핵심 세금이었던 전세와 대동세의 부과 기준이었기에 국가재정의 원천이 되었다. 인구는 각종 신역과 군사적 활동을 위해 활용되었다. 인구와 토지의 수치적 변화와 이를 통해 파생된 각종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조선시대 평택시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2. 평택의 호구와 토지 변화

조선시대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단연 인구와 토지였다. 조선은 호구(戶口)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용조(租庸調) 체제를 기반으로 세법을 운용했기에 인구와 토지의 규모는 곧 국가재정과 지역경제의 규모를 결정지었다. 산업구조에서도 농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만큼 농사지을 땅을 꾸준히 개간하고, 노동력을 제공할 구성원을 늘리는 문제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여기서는 조선시대 평택시의 경제 규모를 인구와 토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19세기 중반 평택시의 행정구역



* 출처 : 동여도(東輿圖).

본격적으로 인구와 토지를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조선시대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당대의 호구(戶口) 통계를 통해 추론

한다. 현대 용어로 쉽게 설명하면 호(戶)는 가구, 구(口)는 인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호구(戶口)에 전국의 모든 가구와 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세금이나 군역 차출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호구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무 필요한 가구와 인원만을 통계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호구(戶口) 통계는 실제 가구수나 인구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호구수는 어느 고을의 가구와 인구 규모를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고을의 인구 증감 추이를 추정하는 데는 유효한 자료이다. 또한 정확한 인구와 가구수는 아니더라도 대략의 규모를 짐작하는 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토지 결수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왕조는 토지세 부과에 필요한 토지를 최대한 파악하면서도 고을에서 숨겨놓은 토지, 이른바 은결(隱結)을 세세히 들춰내진 않았다. 고을마다 필요한 재정을 은결(隱結)을 통해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결수도 전체적인 경작지의 규모와 변화, 다른 군현과의 비교에는 유용하다.

우선 조선 전기 세종이 재위하던 기간에 두 현의 인구와 토지는 다음과 같았다.

〈표 1〉 세종 시기 호구와 토지 규모

구분	논(결)	밭(결)	합계(결)	호(戶)	구(口)
진위현	1,420.5	1,420.5	2,841	221	535
평택현	1,340	894	2,234	179	704

* 출처 : 《세종실록지리지》

진위현에는 논 1,420결과 밭 1,420결을 합친 총 2,840결의 농지가 있었고, 호수(戶數)는 221호, 구수(口數)는 535구에 불과하였다. 조선시대 구수(口數)가 지금의 인구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농업 경영을 하기에 매우 적은 수였던 것은 분명하다. 경기 지역의 다른 군현과 비교하면 농지 면적은 당시 41개 군현 가운데 27번째였고, 구수(口數)는 33번째였다. 즉, 구수가 진위보다 적은 군현은 경기에 8곳 밖에 없었다. 평택현에는 논 1,340결과 밭 894결을 합친 총 2,234결의 농지가 소재하였고, 호수는 179호에 구수는 704구였다. 전반적으로 진위현보다도 작은 고을인 셈이다. 충청도 내에서 비교하면 55개 군현 중에 농지는 44번째, 구수는 46번째에 해당하였다. 충청도에서 대읍(大邑)이었던 충주는 농지가 2만 결에 육박했고, 공주의 구수가 1만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군현의 규모가 얼마나 작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 조선은 경작지가 대부분 황폐해지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인구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초반 평택시 지역의 인구와 토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정확히 고증할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일부 서술 자료를 통해 당시의 피폐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평택현은 충청도에서 서울로는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방어상의 거점이었고, 왜란 초기 수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왜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1] 평택을 지나면 진위로 이어졌는데, 서울을 빠르게 점령은 왜군은 한동안 경기 남부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경기좌도 관찰사 겸 순찰사 성영(成泳)의 보고에 따르면, 과천(果川)·용인(龍仁)·양지(陽智)·죽산(竹山) 등은 왜군의 소굴이었고, 진위(振威)를 비롯하여 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금천(衿川)·인천(仁川) 일대는 왜적의 온갖 부대가 나와 날마다 분탕질하고 밤을 타고 습격하여 살아남은 백성들이 흉적의 창칼 밑에서 다 죽어갈 형편이었다.[2] 왜란 발발 이듬해 조정에는 전국 팔도 중 왜군에게 점거된 고을, 침범당했던 고을, 아직 침범당하지 않은 고을, 안전

1) 《선조실록》 권34, 선조 26년 1월 11일 병인.
2) 《선조실록》 권36, 선조 26년 3월 24일 기묘.

한 고을 등을 구분한 보고가 올라왔다. 여기서 진위현은 분탕(焚蕩)을 겪었고, 점거된 적이 있는 고을로 구분되었다. 평택현은 다행히 적이 경내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3]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곧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선조 29년(1596) 충청도 일대에서 역적이 일어나자 승지 유희서(柳熙緖)가 백성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받고 내려갔는데, 평택과 진위 백성들이 길을 막으며 그에게 "온 고을 사람들이 농사일을 전부 폐하고 관아 문 앞에 모인지 지급 반달이 지났는데도 도사(都事)와 선전관(宣傳官)들이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인마(人馬)를 책임 지우며 매질을 하므로 차라리 도망갈지언정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하였다고 한다.[4] 전쟁의 피해를 입은 고을도, 입지 않은 고을도 모두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진위(振威) 이남에는 밥 짓은 연기가 끊어졌다는 보고는 당시 이 지역의 피폐한 실상을 잘 대변한다.[5] 왜란 이후에도 고을이 회복되는 데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했다. 진위현은 남로(南路)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경기 여러 고을 중에서도 탕패(蕩敗)됨이 심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6] 평택현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광해군 14년(1622)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평택현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내용이다.

> "요즈음 수령들은 거의 다 염치가 없는 사람들로서 쇠잔한 고을에서 좋은 자리로 옮기려는 자가 비일비재한데, 그 중 첫 번째는 평택현감 신용휴(申用休)입니다. 평택읍은 땅이 되[斗]처럼 작고 백성도 드물고 적은데, 그나마 지금은 거의 다 유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용휴의 노비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어찌 조그마한 한 고을에 30여 명이나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본도의 감사에게 용휴의 노비가 얼마나 되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여 만일 사실이 아니면 기망율(欺妄律)로 다스리소서"[7]

3) 《선조실록》 권39, 선조 26년 6월 5일 무자.
4) 《선조실록》 권77, 선조 29년 7월 26일 신묘.
5) 《선조실록》 권91, 선조 30년 8월 29일 정해.
6) 《선조실록》 권146, 선조 35년 2월 26일 기축.

양사에서는 평택현감 신용휴의 사치를 고발하면서 평택현의 현황을 설명하였다. 땅은 되처럼 작고 백성도 적은 고을인데, 그나마도 지금은 거의 다 도망한 상태라는 것이다. 조정에서는 평택현이 경작지의 규모 면에서 매우 작은 고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왜란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고을을 떠난 주민이 많았던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정부의 강력한 복구 정책과 농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토지와 인구 규모를 빠르게 회복해 나갔다. 다음 표는 전쟁의 피해를 극복한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평택시의 토지와 인구 규모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조선 후기 호구와 토지 규모의 변화

문헌	군현	면적(㎢)	결수(결)	수전(결)	한전(결)	호(戶)	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여지서 (17세기 후반)	진위	153.49				2,703	11,905	6,218	5,687
	평택	39.8				1,059	4,794	2,470	2,324
여지도서 (18세기 중반)	진위	153.49	2,288.76	1,134.49	1,154.27	1,987	4,814	2,518	2,296
	평택	39.8	1,779.31	1,140.03	639.28	1,395	5,742	2,838	2,904
호구총수 (18세기 후반)	진위	153.49				2,137	7,093	3,484	3,609
	평택	39.8				1,524	5,860	2,884	2,976
대동지지 (19세기 중반)	진위	153.49	2,493						
	평택	39.8	1,779	1,140	639				
각부군결호총록 (1901년)	진위	153.49	1,680.03						
	평택	39.8	436.52						
민적통계표 (1910년)	진위	153.49				3,756	16,548	8,777	7,771
	평택	39.8				1,260	5,476	2,797	2,679

17세기 후반 두 지역 모두 조선 전기에 비해 호구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농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조선의 인구는 자연적인 요인으

7) 《광해군일기》 권178, 광해군 14년 6월 15일 기묘.

로 인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두 지역의 인구 증가도 특이한 점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여지서》에 보이는 진위현의 호구수는 전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토지의 경우는 농지 파악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기에 비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두 지역도 대략 20% 가량의 농지가 감소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등의 시행으로 세금의 부과 대상이 토지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의 감소는 지역 주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감소를 의미하였다. 전기에 비해 세율도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토지세의 규모는 더욱 줄었다.

전기에 비해 큰 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지역은 도내에서 작은 군현에 해당되었다. 18세기 후반 간행된 《호구총수》를 통해 두 지역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보자.

경기					충청도				
군현	호(戶)	구(口)	남자(명)	여자(명)	군현	호(戶)	구(口)	남자(명)	여자(명)
양주	12,465	60,425	30,210	30,215	충주	17,809	87,331	42,994	44,337
수원	15,139	57,660	28,240	29,420	홍주	12,646	52,761	25,802	26,959
광주	10,568	50,508	24,402	26,106	청주	13,558	47,046	23,274	23,772
개성	11,525	49,623	23,827	25,796	공주	16,402	44,438	27,878	16,560
강화	9,801	34,231	18,866	15,365	진천	5,717	30,294	13,552	16,742
중간 생략									
시흥	1,934	7,245	3,360	3,885	평택	1,524	5,860	2,884	2,976
진위	2,137	7,093	3,484	3,609	영춘	1,405	5,654	2,823	2,831
중간 생략					연풍	1,817	5,465	2,768	2,697
마전	1,011	3,605	2,207	1,398	진잠	1,380	5,150	2,874	2,276
양천	802	2,793	1,415	1,378	회인	1,190	4,468	2,332	2,136

진위현는 경기 38개 군현 가운데 31번째, 평택현은 충청도 54개 군현 가운데 50번째에 해당되는 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진위는 도내 가장 규모가 컸던 양주에 비해서 1/9밖에 되지 않는 호구였고, 평택은 충주의 1/15에 불과했다. 평택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가장 호구가 적었던 회인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근대적인 통계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한 대한제국 시기의 인구 통계는 호구수에 비해 당대의 현실에 가까운 자료이다. 1910년경 진위현은 인구 1만 6천 명을 넘어섰다. 조선시대 호구수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 18세기 후반 이래로 급성장한 수원과 바로 인접한 고을이었고, 충청도와 전라도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라는 강점이 부각되면서 급격한 인구 성장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평택현은 1910년경에도 인구가 5,500여 명에 불과했다. 18세기 후반의 호구수보다도 감소한 것이다. 주변에 비교적 큰 규모의 고을이 산재하였고, 주요 도로에서도 살짝 빗겨나간 것이 고을의 성장을 더디게 한 요인일 것이다. 농지의 절대 규모가 부족했던 것도 농민들의 이주를 유도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였다. 요컨대, 조선시대 대부분의 시기에 평택현과 진위현은 매우 작은 군현이었다. 이후에 약소한 두 군현의 통합은 두 지역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평택의 경제와 부세 규모

농업사회에서 군현의 인구와 토지 규모는 경제력과 각종 부세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평택현과 진위현은 규모 면에서 매우 작은 고을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전후 복구가 완료된 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18세기 중반 평택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정리한 강호보(姜浩溥)의 글을 통해 상세히 알 수 있다. 강호부는 연천에서 출생하여 팽택현 평성으로 이주해 89세를 산 인물이다. 종1품 숭록대부에 오를 만큼 관료로서 충실했고, 많은 저서를 남긴 지식인이었다. 그는 팽성에 제대로 된 읍지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

하고 직접 읍지를 증보하였다. 다음은 그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팽성총론의 일부 내용이다.

> 우리나라의 주현(州縣) 360개 중 피폐한 고을로 논하자면 반드시 평택을 이야기하는데, 그 조잔(凋殘)한 것으로는 정말로 조선 팔도에서 제일이다. 사면(四面)의 경계에 10여 리가 되는 땅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고을의 뒤에 있는 주산(主山)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경내의 사람들이 일시에 모두 모인다"라고 하니 이 고을의 넓이와 인원이 작은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하물며 이 읍의 갯벌가는 염분이 높아 곡식이 안되는 땅이고 또한 관개(灌溉)할 만한 것이 없어 조그만한 가뭄을 만나면 그때마다 재난을 입으니 만약 큰 장마를 만나면 사면의 평야가 모든 물이 모여 흐르는 까닭에 회양의 재앙을 면하지 못하니 본현이 자주 흉년을 만나는 이유이다. 또 본현은 경기와 호서 사이에 끼여 있고, 본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큰 길이므로 크고 작은 사신들을 접대하는 일이 있는데, 왼쪽으로는 직산(稷山)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본읍이 있으니, 가히 잔폐한 읍의 책임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8]

평택현은 조선 내 360개 군현을 통틀어 말하더라도 가장 조잔한 고을로 뽑일 정도로 그 규모가 작았다. 고을 뒷산에 올라 사람들을 부르면 모두 모일 정도였다는 말은 고을의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바다와 인접하여 염분이 높아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개시설도 열악하며 가뭄과 홍수가 취약했다. 그런데도 양호(兩湖)로 가는 길목이었기에 사신 접대로 인한 부담은 컸다.

평택은 인구와 농지가 적었을 뿐 아니라 특산물에서도 보잘것없었다.

8) 《팽성지》 팽성총론.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따르면 두 고을은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곳이었다. 진위현은 곡물과 삼베 외에는 별다른 특산물이 없었으며, 단지 약재로 황금(黃芩)이 생산될 뿐이었고, 평택현은 공물로 족제비 털(黃毛)만을 납부하였다.[9] 18세기 중반 《팽성지》에서는 평택이 도갱(稻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였다. 도갱은 벼농사를 말한다. 밭곡식으로는 보리와 콩이 토질에 맞고, 기장 · 조 · 팥 · 녹두 · 목화 등은 모두 토산이 아니었다. 그런데 평택현은 원래부터 논에 댈 만한 물이 나오는 곳이 없으므로 농부들이 벼를 주로 마른 땅에 심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봄에 물이 많더라도 여름에 가뭄이 들면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해 다른 고을보다 가뭄 피해를 심하게 입게 되었다. 또한 앞선 사료에서처럼 바다와 인접하여 땅에 염분이 많아 곡식이 잘 안 되는 곳이었다. 땅의 지력도 전반적으로 낮아서 풍년을 만나더라도 수확하는 곡식이 다른 고을의 산전(山田)에서 나오는 것에 반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에서 땔나무를 구하기도 힘들어서 오직 밭 사이에서 풀을 베어 땔감으로 사용할 뿐이었다. 즉, 농지의 규모도 작았지만, 토질도 나쁘고 관개시설마저 매우 취약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작물을 경작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쌀과 콩 등 기본적인 작물 농사에만 생계를 의지하였다. 그나마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토산물로 황금(黃芩) · 지황(地黃) · 택사(澤瀉) · 나문재[海紅] · 인초(茵草) · 붕어가 있었다.[10]

그렇다면 진위현과 평택현에서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알아보자. 조선 후기 세금은 전세, 대동세, 삼수미, 결전 등과 같은 토지세와 양인인 남성과 공노비가 납부하는 신역가 등이 있었다. 징수한 세금은 서울로 모두 운송하지 않고 중앙정부, 지방감영, 군현 등으로 분배되었다. 진위현에서는 중앙재정을 총괄하던 호조를 비롯하여 선혜청, 균역청, 병조, 훈

9) 《세종실록》 지리지.
10) 《팽성지》 토산.

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어청, 총융청, 공조, 양향청, 경기감영 등의 기관에 세금을 납부하였다. 다음은 《부역실총》을 통해 18세기 후반 진위현과 평택현의 부세 내역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18세기 후반 진위현의 부세 현황

납부처	세목	물종	수량1	수량2	단위
호조	전세	미	246	9.686	石/斗
	전세	태	132	7.836	石/斗
선혜청	대동	미	773	4.57	石/斗
균역청	면세	미	2	10.532	石/斗
	면세	태	5	4.3	石/斗
	대동	미	23	14.496	石/斗
	결전	전	788.39		兩
	선무군관전	전	152		兩
병조	기병전	전	472		兩
	보병전	전	14		兩
	경역보전	전	180		兩
	표하군보전	전	60		兩
훈련도감	포보전	전	102		兩
	군향보전	전	55.2		兩
어영청	군보전	전	144		兩
금위영	군보전	전	136.8		兩
수어청	별파진미	미	29	3	石/斗
	표하군미	미	9	12	石/斗
	부아병양군미	미	14	6	石/斗
	부아병노군	미	42	12	石/斗
	파하양군미	미	1	9	石/斗
	파하노군미	미	2	12	石/斗
총융청	둔장초양군미	미	9	3	石/斗
	둔장초노군미	미	4	12	石/斗
	둔군수보미	미	42	3	石/斗
공조	장인보전	전	60		兩
양향청	둔세	조	174.6		兩
감영	영수미	미	12		石/斗
	순아병보	전	20		兩
	감영상납	태	4		石/斗
	감영상납	진임	1		石/斗
본읍	관수미	미	100		石/斗
	사객지공	미	150		石/斗
	아록	미	16		石/斗
	결역	미	244	1.016	石/斗
	결역	미	14	10	石/斗
	결역	진유		52.7	石/斗
	결역	청밀		29.45	石/斗
	결역	백지	787	10	束/張
	결역	황랍	45		斤
	결역	탄	12		石/斗
	호역	계	1050		首
	호역	생율		40	石/斗
	호역	대조	40		石/斗
	호역	호도		42	石/斗
	호역	홍시	12		貼
	호역	조	80		石/斗
	호역	마철	36		部

주요 세금으로는 전세로 쌀 246석, 콩 132석을 냈고, 대동미로 쌀 773석을 상납하였다. 경기는 병자호란 이후 삼수미를 완전히 감면하여 진위현에서도 해당 세목은 보이지 않는다.[11] 균역법 이후 급대(給代) 재원 마련을 위해 은결에서 징수하기 시작한 면세(免稅) 항목에서 전세로 쌀 약 2석 10두와 콩 5두를 냈고, 대동미로 약 24석을 납부하였다. 역시 급대 재원으로 징수한 결전(結錢)은 약 788냥이었다. 병조를 비롯하여 훈련도감 · 어영청 · 금위영 · 수어청 · 총융청 등 오군영에 소속된 병사들은 입역(立役)의 대가로 쌀과 동전을 각 군영에 납부하였다. 공조에 속한 장인보(匠人保)들이 동전 60냥을 냈고, 양향청에는 둔전세로 조 약 174석을 냈다. 감영에는 영수미로 쌀 12석과 기타 잡세로 동전과 콩, 진임 등을 납부하였다. 농민들의 납부 항목이 가장 많은 기관은 진위현 관아였다. 관수미 명목으로 쌀 100석과 사객지공, 아록 등을 위해 쌀 166석을 냈다. 추가로 각 토지마다

11) 《만기요람》 재용편2, 수세 삼수미.

결역(結役)을 부과하여 쌀 약 244석과 쌀 약 14석을 냈는데, 244석은 관아에서 사용하는 잡물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고을의 토지 457결 62부 7석에 매 결당 8두를 징수한 것이었고, 14석은 아록공수위전 55결에서 면세조로 결당 4두씩 징수하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결역으로 진유, 청밀, 백지, 황랍을 현물로 거두었는데, 각각의 현물마다 부과하는 토지 면적이 달랐다. 진위현에는 호역(戶役)도 있었다. 숯, 닭, 밤, 대추, 호두, 홍시, 조, 마철 등이 여기에 해당했는데, 닭은 1,050호에서 매 호마다 1마리씩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부과 기준이 제각각이었다.[12] 종이나 마철과 같은 물품은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고, 시장에서 구매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다만, 거의 같은 시기에 작성된 《호구총수》를 기준으로 진위현에 2,137호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 매년 모든 호에 호역을 부과하지는 않은 듯하다.[13]

〈표 4〉 18세기 후반 평택현의 부세 현황

납부처	세목	물종	수량1	수량2	단위	비고
호조	전세	미	136	4.47	石/斗	
	전세	미	31	10.42	石/斗	雜費
	전세	태	35	9.1	石/斗	
	전세	태		7.08	石/斗	雜費
	전세	태			石/斗	
	전세	미	3	9.1	石/斗	雜費
	삼수량	미	12	12.48	石/斗	
	삼수량	미	2	10.83	石/斗	雜費
	노공	전	8		兩	
	노공	전	1.2		兩	雜費
	비역가	전	0.6		兩	
	육상궁면세	미	66	0.91	石/斗	
호조	육상궁면세	미	13	6.49	石/斗	雜費

12) 《부역실총》 경기 진위현.
13) 《호구총수》 경기 진위현.

납부처	세목	물종	수량1	수량2	단위	비고
선혜청	위미	미	8	4.25	石/斗	
	위미	미		12.42	石/斗	雜費
	위태	태	7	14.8	石/斗	
	위태	태		11.98	石/斗	雜費
	대동미	미	291	5.72	石/斗	
	대동미	미	46	6	石/斗	雜費
균역청	결전	전	421.08		兩	
	결전	전	8.42		兩	雜費
	선무군관전	전	50		兩	
	선세전	전	14.1		兩	
훈련도감	포수보목	목		31	同/疋	
	포수보목	전	9.3		兩	雜費
	당기승호포수상송지년전	전	31		兩	
	군향보미	미	2	12	石/斗	
	군향보미	미		7	石/斗	雜費
양향청	둔세조	전	100		兩	
	둔세조	전	9		兩	雜費
금위영	보미	미	5	3	石/斗	
	보미	미		13	石/斗	雜費
	별파진보전	전	2		兩	
	별파진보전	전	0.25		兩	雜費
어영청	보미	미	28	12	石/斗	
	보미	미	4	12	石/斗	雜費
	정군자보전	전			兩	
	이획대동미	미	18		石/斗	
	이획대동미	미	1	9.54	石/斗	雜費
총융청	장초군전	전	8		兩	
	장초군전	전	1.2		兩	雜費
	둔군수보미	미	3	9	石/斗	
	둔군수보미	미	1	3	石/斗	雜費
수어청	아병미	미	21	9	石/斗	
	아병미	미	9	14.8	石/斗	雜費
	대장미	미	1	3	石/斗	
	대장미	미		12.6	石/斗	雜費
	표하군미	미		10	石/斗	
	표하군미	미		5.6	石/斗	雜費
	둔아병미	미	16	6	石/斗	
	둔아병미	미	7	9.8	石/斗	雜費
	대장미	미	1	3	石/斗	
	대장미	미		12.6	石/斗	雜費

납부처	세목	물종	수량1	수량2	단위	비고
수어청	표하군미	미		10	石/斗	
	표하군미	미		5.6	石/斗	雜費
	수철아병전	전	30		兩	
	둔세조	조	140		石/斗	
장용영	둔세조	조	180	2	石/斗	
병조	기병자보전	전	20.25		兩	
	수포목	목	1	18	同/疋	
	수포전	전	136		兩	
	수포전	전	34		兩	雜費
	보병목	목		12	同/疋	
	보병전	전	24		兩	
	보병전	전	6		兩	雜費
	금군보전	전	38		兩	
	금군보전	전	4.7		兩	雜費
	경역보전	전	10		兩	
	경역보전	전	1.25		兩	雜費
장악원	악공고가전	전	24		兩	
	악공고가전	전	1.5		兩	雜費
	악생보전	전	2		兩	
	악생보전	전	0.25		兩	雜費
	악공보전	전	12		兩	
	악공보전	전	1.5		兩	雜費
사복시	제원보전	전	12		兩	
	제원보전	전	1.5		兩	雜費
쌍수산성	아병미	미	19	11	石/斗	
안흥진	별신선전	전	12		兩	
	별신선전	전	1.5		兩	雜費
	수군전	전	18		兩	
	수군전	전	2.25		兩	雜費
해미진	토포군관제번전	전	4		兩	
본관	관수미	미	120		石/斗	
	유청가미	미	36	10	石/斗	
	공사지가미	미	9		石/斗	
	사객지공미	미	35		石/斗	
	아록미	미	18	0.91	石/斗	
	아록태	태	4	5.04	石/斗	
	잡역상정미	미	170		石/斗	
	관둔세태	태	10	8.8	石/斗	
	관둔세미	미	19	3.4	石/斗	
	무부목	목		4	同/疋	
	일처장시세전	전	153		兩	

납부처	세목	물종	수량1	수량2	단위	비고
본관	연분문서지지가태	태	8	5.1	石/斗	
	포구어상선세	전				
	염상선세전	전				
	곡상무곡출포시태전	전				
	어교	현물				
	제주출래세공마견군필	현물				
	빙정	현물				
	민부전	전	200		兩	
	식년성적시미	미	30		石/斗	
	식년호적서사조	조	50		石/斗	
	세초시군보잡탈전	전			兩	
	마병보전	전	32		兩	
	마병가급보전	전	32		兩	
	식년개도안시전	전	193.5		兩	
	십년일차대도안시전	전	83.65		兩	
	진상약부보전	전	100		兩	

충청도에 속한 평택현은 진위현보다 2배 이상 부세 항목이 많았다. 고을의 규모는 토지와 인구 모든 면에서 진위현의 2/3 수준이었지만, 부세 항목이 많았던 것은 평택현이 충청도에 속한 고을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는 서울의 배후지로서 각종 잡역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세목에서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평택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충청도의 세목에는 각종 부세의 납부에 소요되는 운송비, 인건비, 행정비용 등과 같은 잡비가 35가지 세목에 추가로 포함되었다. 다만, 세목이 많음에도 전체 세액에서는 토지와 인구가 월등히 많았던 진위현에 미치지 못했다.

평택현은 호조에 납부하는 전세가 쌀 약 136석에 잡비 명목으로 쌀 약 31석을 추가되었다. 콩은 약 35석을 냈는데, 여기에도 잡비 7두가 붙었다. 훈련도감의 급료 명목으로 거둔 삼수미는 인조 12년(1634) 갑술양전 이후에 하삼도 모두 1결당 1두 2두가 적용되었는데, 평택현은 쌀 12석 12두와 잡비 2석 10두를 냈다. 노비에게 징수하던 노공(奴貢)이 동전 8냥에 잡비 1냥 2전이었고, 비역가(婢役價)는 8전이었다. 육상궁의 면세결에서 거두는

지대 쌀 66석과 잡비 13석은 호조가 대신 수납하였다. 선혜청에 내는 대동미 쌀 291석과 잡비 46석은 평택현에서 가장 부담이 큰 세목이었다. 위미태로 쌀과 콩을 약 15석 추가로 납부하였다. 균역청에 내는 결전은 421냥, 잡비 8냥이었고, 선박에 부과하는 선세(船稅)가 14냥 가량 있었다. 양향청에는 둔전에서 나오는 소출로 동전 100냥과 잡비 9냥을 납부하였다. 군사기관으로는 병조와 훈련도감 · 금위영 · 어영청 · 총융청 · 수어청 등 오군영에 속한 병사들이 쌀과 동전을 납부하였다. 장용영의 둔전이 있었기 때문에 둔전세를 별로도 납부하였다. 이밖에 장악원과 사복시에도 소속된 신역자들이 부세를 냈다. 충청도 내 기관으로는 쌍수산성과 안흥진, 해미진에 속한 병사들이 동전과 쌀을 납부하였다. 특기할 점은 감영에 내는 부세가 평택현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고을의 규모가 워낙 작았기 때문이 아니었나 추정된다. 평택현 관아에 내는 부세로는 관수미 120석과 사객지공미 35석, 유청가미 36석 10두, 공사지가미 9석, 아록미 18석 등이 있었다. 충청도는 관청에서 필요한 추가 수요를 위해 잡역상정(雜役詳定)이라는 명목으로 징수하였는데,[14] 이것이 쌀 170석에 달하였다. 잡역상정은 토지에 추가 부과하는 세액이었다. 이로 인해 평택현에는 경기에 속한 진위현과 달리 별로의 결역과 호역이 없었다. 주목되는 부세는 평택현의 포구에 소속된 배들에게 부과하는 선세(船稅)과 염전에서 내는 소금세, 장시에 부과하는 장시세 등이 징수되었다는 점이다. 평택이 바다와 닿고 육상교통의 요지였던 지리적 특성이 세금에도 반영되어 있었다.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평택만의 특별한 세금도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서울로 바치는 말을 지역 내에서 운송하는 책임이 세금과 같이 부과되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말을 타는 마병도 다수 편성되어서 지방관청에서는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도 징수되었다. 이들 모두가 주요 도로에 위치하였기에 생겨난 세금들이었다.

14) 송양섭, 2010, 〈균역법 시행기 雜役價의 詳定과 지방재정 운영의 변화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38, 고려사학회.

마지막으로 평택현 농민들은 한 가지 특별한 물품을 관청에 납부해야 했는데, 바로 얼음이다. 냉동기술이 없던 조선시대에 얼음은 매우 귀한 물품이었다. 따라서 얼음을 받는 관청이 많지는 않았는데, 평택현에서는 매 호당 3장씩 얼음을 징수하고 있었다. 농민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평택현에는 부세에 모두 드러나지 않지만, 고을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각 궁방에서 운영하는 면세전이 많았다는 점이다. 평택현에는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능원대군방(綾原大君房), 김귀인방(金貴人房), 순화군방(淳化郡房), 인성군방(仁城君房), 임해군방(臨海君房), 경창군방(慶昌君房)의 면세결과 충훈부와 수어청 관할의 면세전이 있었다. 이 때문에 《팽성읍지》의 찬자는 총론에서 "온 고을 안에 여러 방(房)의 면세전과 각 관청의 둔전(屯田)의 수효가 심히 많아서 인민(人民)이 세금을 내는 밭은 겨우 그 반이 되니 그 역역(力役)이 심하게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기술하였다.[15] 고을의 토지 규모에 비해 과도한 면세결로 인해 출세실결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두 군현의 부세 부담은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납부하는 모든 현물을 쌀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주요 곡물과 동전, 포목 등은 당시 정부가 규정한 환산가를 적용하여 비교할 수 있다. 진위현은 쌀로 환산했을 때 약 2,343석을 납부하여 경기 지역 내 속한 36개 군현과 군사기관 중에서 17번째로 많은 부세 부담을 지고 있었다. 평택현은 쌀로 약 1,837석을 부담하여 충청도 내 63개 기관 중에 51번째에 해당되었다. 진위는 토지나 인구에 비해 많은 부세를 부담했던 데에 비해 평택현은 몇몇 군사기관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의 부세를 부담하였다. 그만큼 경제력이 떨어지는 군현이었던 셈이다.

15) 《팽성읍지》 제궁가면세질.

평택현과 진위현은 소속된 도는 달랐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운송 방식은 같았다. 두 고을은 육로를 통해 세곡을 고을에서 직접 상납하였다.[16] 진위현부터 한강까지는 막힌 도로가 없어서 수레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경기관찰사 심열(沈悅)의 보고를 통해 볼 때, 진위는 육상 운송에 큰 부담이 없었던 듯하다.[17] 평택현도 진위현의 바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운송 부담은 적은 편이었다.

4. 평택의 군역과 군사 편제

조선왕조는 토지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충당하였고, 남정(男丁)을 통해 군대를 편성·운영하였다. 군현의 구수(口數)는 해당 지역의 군사적 기여도를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여기서는 진위현과 평택현에 속한 군사들의 현황과 군역 부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역실총》을 기준으로 18세기 후반 진위현의 기준으로 군역자는 다음과 같았다.

〈표 5〉 18세기 후반 진위현의 군역자와 납부 세액

소속 관청	신역종	인원	납부 물종	1인당 세액	단위
균역청	선무군관	76	전	2	兩
병조	기병	236	전	2	兩
	보병	7	전	2	兩
	경역보	90	전	2	兩
	표하보	30	전	2	兩
훈련도감	포보	51	전	2	兩
	군향보	23	전	2.4	兩
어영청	군보	60	전	2.4	兩
금위영	군보	57	전	2.4	兩
수어청	별파진	73	미	6	斗
	표하군	49	미	3	斗
	부아병양군	36	미	6	斗
	부아병노군	214	미	3	斗
	파하양군	6	미	4	斗
	파하노군	21	미	2	斗
총융청	장사양군	23	미	6	斗
	장사노군	24	미	3	斗
	둔군수보	211	미	3	斗
경기감영	순아병보	20	전	1	兩

*출처 : 《부역실총》.

16) 《탁지전부고》 부편 상납도표.

17) 《인조실록》 권2, 인조 1년 6월 26일 을유.

조선 후기에는 신역자들이 실제 입역을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진위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배속된 기관은 수어청으로서 별파진(別破陣)에 73명, 표하군(標下軍) 49명, 부아병양군(部牙兵良軍) 36명, 부아병노군(部牙兵奴軍) 214명, 파하양군(把下良軍) 6명, 파하노군(把下奴軍) 21명 등 도합 399병이 1인당 2~6두의 쌀을 납부하였다. 별파진과 부양병양군이 가장 많은 6두를 냈고, 파하노군은 가장 적은 2두를 냈다. 특기한 점은 양군보다 노군의 규모가 훨씬 컸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병조에는 기병(騎兵) 236명과 보병(步兵) 7병, 경역보(京驛保) 90명, 표하보(標下保) 30명 등 도합 363명이 1인당 동전 2냥을 동일하게 납부하였다. 감영에 속한 병사는 아병보(牙兵保) 20명이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중앙아문 소속이었다. 쌀 6두는 동전 2냥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인당 동전 1냥에서 2냥 사이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셈이다 다만, 훈련도감과 어영청, 금위영에 속한 군보(軍保)에게는 1인당 2냥 4전의 가장 큰 부담을 지웠다. 역종마다 납부액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신역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한 신역은 실제 군대에 가지 않는 인원들이다. 《속대전》을 기준으로

진위현은 경기 방어체제에서 경기병사 예하에 별중영장(別中營將)인 수원진에 속해 있었다.[18] 헌종 9년(1843) 간행된 《진위현읍지》를 기준으로 가정초군(駕精抄軍) 322명, 난후아병(攔後牙兵) 218명, 납포팔달대(納布八達隊) 981명, 포보군(砲保軍) 40명, 군향보군(軍餉保軍) 3명이 편성되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방어체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19] 납포팔달대는 화영(華營)에서 관할하는 부대로서 가장 많은 병력이 배치되었다.

〈표 6〉 18세기 후반 평택현의 군역자와 납부 세액

소속 관청	신역종	인원	납부 물종	1인당 세액	단위
균역청	선무군관	15	전	2	兩
훈련도감	포수보	31	목	1	疋
	군향보	7	미	6	斗
금위영	보군	13	미	6	斗
	별파진보	1	전	2	兩
어영청	보군	72	미	6	斗
	정군자보	34	전	2	兩
총융청	둔군수보	18	미	3	斗
수어청	아병	良1/賤106	미	良6/賤3	斗
	대장미	9	미	2	斗
	표하군	4	미	2.5	斗
	둔아병	82	미	3	斗
	대장미	9	미	2	斗
	표하군	4	미	2.5	斗
	수철아병	25	전	1.2	兩
병조	기병자보	9	전	2.25	兩
	수포	136	목	20	尺
	보병	24	목	20	尺
	금군보	19	전	2	兩
	경역보	5	전	2	兩
쌍수산성	아병	74	미	4	斗
안흥진	별신선	6	전	2	兩
	수군	9	전	2	兩
해미진	토포군관제번전	4	전	1	兩

18) 《속대전》 병전.
19) 《진위현읍지》 군총.

소속 관청	신역종	인원	납부 물종	1인당 세액	단위
평택	마병보	16	전	2	兩
	마병가급보	16	전	2	兩

평택현에서는 수어청에 배속된 인원이 2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목되는 점은 진위현과 마찬가지로 수어청에는 천인이었던 노(奴)가 가장 많은 106명이 아병으로 배속되었다는 점이다. 아병 중에 양인은 1명에 불과했다. 징수액도 양천(良賤)에 따라 달랐는데, 양인은 1인당 쌀 6두를, 천인은 3두를 냈다. 동전으로 환산하면, 양인은 2냥, 천인은 1냥이었다. 다음으로 병조에는 193명이 배속되었는데, 포만 납부하는 수포군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병 24명 금군보 19명 순이었다. 어영청에는 106명이 배속되었고, 훈련도감 38명, 금위영 14명, 총융청 18명 순이었다. 지방군사 기관에는 쌍수산성에 아병 74명, 안흥진에는 별신선(別新選)과 수군(水軍) 15명, 해미진에 토포군관(討捕軍官) 4명이 배속되었다. 평택현에는 마병(馬兵)을 보조하는 보인 16명과 가급보(加給保) 16명 도합 32명이 배속되었다. 납부하는 액수는 동전 1~2냥으로 진위현과 같았다.

5. 맺음말

정리하면, 현재의 평택시에 해당하는 진위현과 평택현은 조선시대 내내 매우 작은 규모의 고을이었다. 인구와 토지가 적었기에 경제적인 규모와 세금도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그렇지만 세금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해상과 육상교통의 요충지로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었다. 1894년에서 1895년 사이에 조선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이

평택의 앞바다와 육상에서 격렬했다는 점도 이 지역이 갖는 지정학적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울과 인접하고, 하삼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뻗어나가고, 바다를 통해 청나라, 유럽과 통하는 요충지가 조선시대 평택시였다. 조선 후기에는 이미 경기와 충청도를 잇는 거점에 소사장이 생겨나 활발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평택시의 경제적인 조건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평택시의 지정학적 강점이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형태로 도시에 반영되었는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시대 작은 고을이었던 평택시가 현재의 경제적 성장을 이뤄낸 역사를 찾는 작업은 역사문화 도시로서 평택시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京 畿】

{ 兵使 1(觀察使)
{ 水使 2(觀察使 · 京畿水使)

觀察使	(兵使 · 水使兼)	監營 = 漢城	
兵使-虞侯		兵營 = 漢城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 萬戶	節制都尉
	月串鎭	濟物梁, 寅火堡, 龍津 昇天堡, 草芝梁, 德津	
	楊州鎭 (中營將)	高陽	抱川, 積城, 永平, 交河, 加平
	礪峴鎭		
	喬桐鎭		
	長湍鎭 (防禦使/右營將)	朔寧, 麻田, 豊德	漣川
	廣州鎭 (防禦使/前營將)	驪州, 利川, 楊根, 竹山(後營將)	砥平, 陰竹, 陽智, 果川
	水原鎭 (防禦使/別中營將)	南陽, 富平, 仁川, 安山 安城, 通津, 金浦, 坡州	振威, 陽川, 龍仁, 始興, 陽城
水使-虞侯(統御使兼)		水營 = 喬桐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 萬戶	節制都尉
	永宗鎭(防禦使兼)		
	德積鎭		
	德浦鎭	花梁, 注文島	

【忠 淸 道】

{ 兵使 2(觀察使 · 忠淸兵使)
{ 水使 2(觀察使 · 忠淸水使)

觀察使	(兵使 · 水使兼)	監營 = 公州	
兵使-虞侯		兵營 = 淸州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 萬戶	節制都尉
	忠州鎭(後營將)	淸風, 丹陽, 槐山	延豊, 陰城, 永春, 堤川
	淸州鎭(中營將)	天安, 沃川	報恩, 稷山, 木川, 文義, 懷仁 淸安, 鎭川, 永同, 黃澗, 靑山
	洪州鎭(前營將)	舒川, 瑞山, 泰安 沔川, 溫陽, 大興	德山, 平澤, 鴻山, 靑陽, 庇仁結城, 藍浦, 保寧, 牙山 新昌, 禮山, 海美(左營將), 唐津
	公州鎭(右營將)	林川, 韓山	公州判官, 全義, 定山, 恩津,懷德, 鎭岑, 連山, 魯城, 扶餘, 石城, 燕岐
水使-虞侯		水營 = 保寧	
	僉節制使	同僉節制使 · 萬戶	節制都尉
	所斤浦鎭		
	馬梁鎭	舒川浦	
	安興鎭		
	平薪鎭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과 평택

박 범/공주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18~19세기 평택 지역 장시의 형성
3. 조선후기 소사장과 안중장
4. 20세기초 평택 지역 장시의 변화
5. 맺음말

1.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후기 장시와 장시망의 형성을 현 평택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세기 초반 평택역의 부설로 변화된 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장시의 발달은 경제사적 관점에서 상업의 진전과 상품화폐의 유통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 정체성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1]

선행 연구에 따르면 평택 지역의 장시 발달과 장시망 형성은 주변 지역에 비하여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평택 지역의 동쪽에 자리한 안성 지역의 경우 조선후기 중요 장시를 구성한 안성장이 자리하고 있어서 삼남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서 내륙 유통의 중심지 기능을 담당했다.[2] 평택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아산 지역의 경우 서해안에서 아산만으로 유입되어 내륙으로 연결되는 주요 포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공세창, 백석포, 둔포가 그러한 곳으로 모두 장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평택 지역은 이를 연결하는 길목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 지역의 역사지리적 위상은 작지 않았다. 평택 지역의 대표적인 장시인 소사장은 둔포장과 안성장 사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 독자적인 시장권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으나 18세기 이후 20세기 초까지 장시가 끊기지 않고 존속하였다. '소사'와 관련된 지명 변화는 그러한 사례 중 하나라

1) 군사 시설과 관련된 송파장 연구(김미성, 〈조선후기 한강 송파지역의 군사적 의미와 장시(場市) 개설〉, 《군사》 122, 2022), 철도 교통과 관련된 조치원장 연구(오석민, 이도정, 《철도도시 조치원의 역사와 장시》, 국립민속박물관, 2016), 서교 지역의 장시 연구(최동원, 〈18~19세기 西郊지역 商業發達과 場市의 動向〉, 《조선시대사학보》 43, 2007), 한강 유역의 장시 발달 연구(김종혁, 《조선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 박사논문, 2002) 등을 들 수 있다.

2) 허영란,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 2, 1997.

고 볼 수 있다.[3] 소사장은 평택역의 부설과 더불어 전통 상업 구조가 근대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4]

이상의 관점에서 평택 지역의 장시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고, 평택 지역의 여러 장시 중에서 대표적인 장시인 소사장과 안중장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 부설 이후 평택역이 개설되면서 조선후기 평택 지역의 장시망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여 지금의 평택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상업권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2. 18~19세기 평택 지역 장시의 형성

장시 개설과 관련하여 먼저 살펴볼 것은 전세미와 대동미가 어느 곳에 산적되어 운반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평택지역의 경우 진위현과 양성현을 볼 수 있다. 《여지도서》를 보면 진위현의 전세미와 대동미는 모두 진위의 해창에서 출발하여 수원의 광덕포(光德浦), 아산의 당포(堂浦)를 지나 서해를 거쳐 경강의 군자감에 상납하도록 되어 있다.[5] 반면 양성현의 전세미와 대동미는 양성의 해창인 옹포(甕浦)에서 출발하여 용산에 도착하도록 하였다.[6] 이들 지역은 해당 포구에서 장시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곡 운

3) 지명 확산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순배, 〈한국 지명의 문화정치적 변천에 관한 연구: 舊 公州牧 鎭管 구역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1-3, 2009.

4) 본 연구와 비슷한 사례로 논산장에 대한 연구가 있다(박범, 〈18~19세기 논산의 성장 배경과 시장권의 발달〉, 《조선시대사학보》 75, 2015).

5) 《여지도서》 경기, 진위.

6) 《여지도서》 경기, 양성.

송이 장시 발달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7]

평택 지역의 장시 현황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자료는 《동국문헌비고》이다. 《동국문헌비고》는 1770년(영조 46) 홍봉한 등이 왕명으로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분류하고 정리한 백과전서적인 책이다. 《동국문헌비고》의 시적고(市糴考)에는 장시와 관련된 내역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평택 지역의 장시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

□ 수원
* 안중장 : 1일과 6일
* 오타장 : 1일과 6일
* 석현장 : 2일과 7일

□ 양성
* 소사장 : 5일과 10일

□ 진위
* 읍내장 : 2일과 7일
* 구거리장 : 4일과 9일

□ 평택
* 읍내장 : 3일과 8일[8]

《동국문헌비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의 장시를 확인하고 정리하려는 조선 정부의 최초의 노력의 결실이다. 이것은 정부가 지역에 산재한 장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 장기 개설에 대한 정부

7) 강경의 경우 강경장의 입지 조건으로서 세곡 운송기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었다. 그것은 공세창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최완기, 〈朝鮮時代 牙山 貢津倉의 설치와 운영〉, 《전농사론》 7, 2001; 최완기, 〈조선후기 강경 포구에서의 선상활동 -그 입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79,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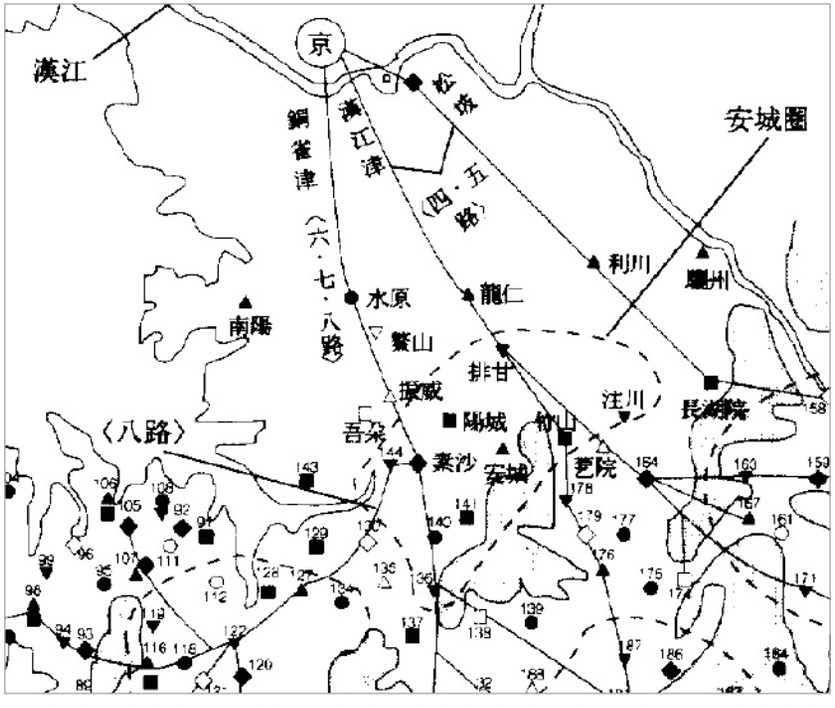
8) 《동국문헌비고》 권72.

의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고 그 개설을 공인하여 나아가서 장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뒤에 살펴볼 《부역실총》의 장시세의 항목이 확인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었다.

이 시기에 장시의 개설에 대한 허가와 장시세의 징수는 기본적으로 각 지방의 수령이 맡았다. 이에 따라 각 군현의 읍지에는 일찍부터 장시 항목이 수록되기 시작하였다. 평택 지역의 장시가 18세기 중반 이후 기재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추세와 함께하고 있다. 《동국문헌비고》에 기록된 전체 장시의 수는 1,062곳에 이르렀다. 경기 101곳, 충청도 157곳, 전라도 216곳, 경상도 276곳, 황해도 82곳, 평안도 134곳, 강원도 68곳, 함경도 28곳이었다. 평택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경우 삼남 지방보다는 적으나 북부 지방 보다는 많았다.

18세기 장시의 수가 천 여 곳이 넘게 개설된 것은 그 만큼 지역 내 상품 유통이 매우 크게 성장하고 17세기 이후 확대된 대동법의 시행으로 국가의 수요 물자에 대한 장시의 의존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장시 개설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정부는 《동국문헌비고》를 통해 당시의 장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다. 아래의 지도는 《동국문헌비고》에 보이는 평택 지역의 장시망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동국문헌비고 단계에서의 평택 지역 주변 장시망



* 출처 : 이헌창,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 1994, 6쪽.

《동국문헌비고》를 보면 평택 지역의 경우 안성권으로 편제된 형태의 장시망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성장은 삼남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시망의 고차(高次)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평택 지역에 존재하던 진위장, 오타장, 안중장, 평택장, 소사장, 양성장은 대부분 안성장의 장시망에 포섭되어 있는 형태였다. 그러므로 안성장의 개시일은 2일과 7일에 개설하는 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2일과 7일에 장시가 개설된 진위장이 이후 《임원경제지》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동국문헌비고》의 평택 지역 장시 구조는 《증보동국문헌비고》 단계에서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장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797년까지 증보 사업이 진행된 《동국문헌비고》에서 그러한 정황을 읽을 수 있다. 이 때 증보하여 간행된 책을 《증정동국문헌비고》라고 불렀다. 그러나 평택 지역의 경우 장수의 수와 개시일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18세기 중반에 형성된 장시 구조가 18세기 후반에도 그래도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역실총》을 통해 장시에서 세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부역실총》은 1794년(정조 18) 전국의 백성들이 내는 세금의 종류와 물품, 수량 등을 기록한 통계자료집이다. 정부에서는 각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각 군현에서 상납하는 모든 물품을 조사하여 정리하도록 하였고 이를 도별로 편집하였다. 평택 지역의 경우에는 경기도의 양성현과 충청도의 평택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부역실총》에 따르면 양성현의 장세전(場稅錢)으로 103냥 3전이 수취되었다. 부기(附記)에 따르면 소사장에서 매삭(每朔) 9냥을 거두는데 5월과 6월의 두 달만은 4냥 3전을 거두었다고 한다.[9] 그러므로 양성현의 장세전 수입의 대부분은 소사장에서 거둔 세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위현의 경우에는 장세전을 확인할 수 없으며 평택현의 경우 1곳에서 장시세전(場市稅錢)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평택장으로 추정된다. 18세기 후반 《평택읍지》에 따르면 "邑市一處三八日開市"라고 언급되어 있다.[10] 부기(附記)를 보면 경각사, 각 영문, 각읍의 공사지자고가(公私之資雇價)를 이 세목으로 마련했다고 한다.[11]

9) 《부역실총》 경기, 양성.
10) 《읍지》 17책, 평택읍지.
11) 《부역실총》 충청도, 평택.

수원부의 경우에는《부역실총》에 수원부 혹은 화성부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자료를 통해 장시 세전을 볼 수 있다. 19세기 전반《화성지》에 따르면 수원도호부 토진면에 석현장(石峴場)과 오정면에 안중장(安仲場)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석현장은 수원도호부 남쪽 70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1일과 6일에 설장(設場)되었다. 장시에서 관청에 바치는 세전(稅錢)은 157냥8전이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장마다 1냥 7전을, 5월부터 7월까지는 매장마다 1냥을, 8월부터 12월까지는 매장마다 3냥3전을 납부하였다.

안중장은 수원도호부 남쪽 80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장시는 2일과 7일에 개시되었다. 세전은 석현장보다 작아 53냥4전이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장마다 8전, 5월부터 7월까지는 매장마다 4전, 8월부터 12월까지는 매장마다 9전을 납부하였다.[12)]

석현장과 안중장에서 납부하는 세전(稅錢)의 규모를 보면 어느 시기에 장시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5월부터 7월까지가 가장 세액이 적었고 그 다음이 1월부터 4월까지이며 가장 많은 세전을 납부한 것은 8월부터 12월까지였다. 그러므로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시기 동안 장시 거래가 매우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전반 각 지방의 상업 상황을 정리한 책으로는《임원경제지》를 들 수 있다.《임원경제지》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서유구가 지은 저서로 19세기 전반 영농 방법과 조선 정부의 농업 정책을 비롯한 어업, 상업, 임업, 의학 등에 대한 농촌의 사회상 전반을 다루고 있다.《임원경제지》는 모두 16개의 지(志)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예규지(倪圭志)는 조선의 사회경제를 두른 것으로 양입위출(量入爲出), 절생(節省) 등을 다룬 것과 무역이나 치산(治産) 등을 다룬 화식(火食)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예규지 안에 수록된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물산(物産)과 장시(場市)이다. 이를 통해 19세기 전반 평택 지역의 상업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12)《화성지》장시.

《임원경제지》예규지에는 팔역장시(八域場市)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각 군현에 개설된 장시와 장시에서 거래되는 물품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전의 자료가 주로 장시와 개설일만 수록했다면《임원경제지》에는 여기에 더하여 거래 물품을 기재하여 더욱 풍부한 상거래의 상황을 읽을 수 있다. 아래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 수원

* 안중장 → 없음
* 오타장 → 없음
* 석현장 → 없음

□ 양성

* 소사장 : 현 남쪽 30리, 구룡면에 있다. 매월 5일과 10일에 개설된다.

□ 진위

* 읍내장 → 없음
* 구거리장 → 없음
* (신설) 신장(新場) : 현 서쪽 10리, 일탄면에 있다. 매월 1일과 6일에 개설된다. 미곡(米穀), 면포(綿布), 생계(生鷄), 인석(茵席), 연초(煙草)가 넉넉하다.

□ 평택

* 읍내장 : 관문(官門) 서장(西場)은 3일과 18일에 설장(設場)
  관문(官門) 동장(東場)은 13일과 28일에 설장(設場)
  관문(官門) 남장(南場)은 8일과 23일에 설장(設場)
  미(米), 두(豆) 맥(麥), 모(粹), 면포(綿布), 마포(麻布), 연초(煙草), 우독(牛犢)이 넉넉하다.

□ 직산

* 안중장 : 읍 서쪽 90리, 안중면에 있다. 매월 1일과 6일에 개설된다. 미곡(米穀), 목물(木物), 면어(鮸魚), 황석어(黃石魚), 연초(煙草)가 넉넉하다.[13]

《임원경제지》에 보이는 19세기 전반 상업 현황은 많은 변화를 읽을 수 있다. 18세기 《동국문헌비고》의 장시와 비교하자면 우선 수원부 내 위치한 안중장, 오타장, 석현장과 진위현 내 위치한 읍내장, 구거리장이 보이지 않는다. 해당 장시가 폐지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 기록에 일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면 기록의 누락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18세기 장시가 그대로 이어진 경우에는 양성현의 소사장과 평택현의 읍내장을 들 수 있다. 두 장시는 개설일자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서술상 특징적인 것은 평택현의 읍내장이 3일과 8일에 개설되는데 개설 위치가 각각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읍치를 기준으로 서쪽, 동쪽, 남쪽에 각각 장시가 개설된 것이다. 그래서 각 장마다 1개월에 2일 개설하여 세 곳에서 5일장이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새로 신설된 장시가 눈에 띈다. 진위현에 있던 읍내장과 구거리장은 사라진 반면 현 서쪽 일탄면에 신장(新場)이 개설되어 1일과 6일에 장시가 섰다. 기존의 읍내장이 2일과 7일, 구거리장이 4일과 9일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장은 사라진 두 장시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설된 장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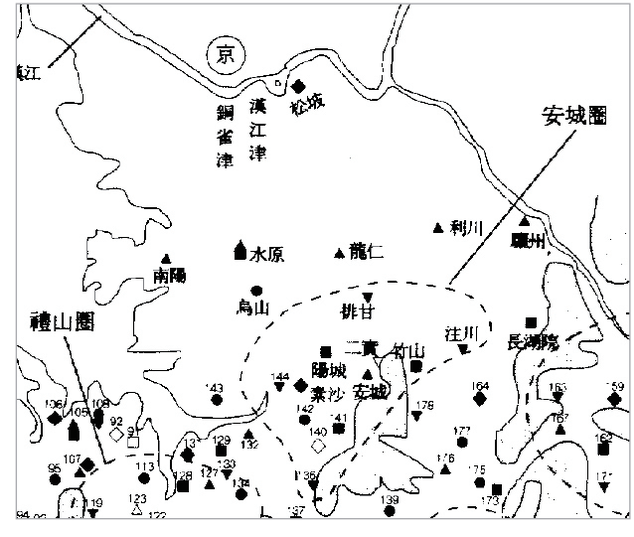
다음으로 눈에 띄는 점은 안중장이다. 본래 안중장은 수원부 관할 구역 내에 개설되었으나, 직산현에서도 안중장이 등장하는 점이 특이하다. 직산현의 서쪽 90리의 안중면에 개설된 안중장은 수원부의 안중장과 사실은 같은

13) 《임원경제지》 권113, 팔역장시.

장시이다. 직산현의 비입지가 위치한 안중면과 수원부의 안중장이 있었던 오정면은 서로 인접해 있어서 같은 곳에 개설된 행정구역상으로만 다른 장시로 보인다. 18세기 중반 수원부의 안중장과 19세기 전반 직산현의 안중장은 개설일이 같다.

《임원경제지》에는 다른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 주요 거래 물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해당 장시에서 어떠한 물품이 유입되고 판매되는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진위현 신장의 경우 생계(生鷄)와 인석(茵席), 평택현 읍내장의 경우 우독(牛犢), 직산현 안중장의 경우 면어(鮸魚)와 황석어(黃石魚)가 특징적이며 나머지 미곡과 연초 등은 공통적으로 거래되는 장시 물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임원경제지》에서의 평택 지역 장시망



* 출처 : 이헌창,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 1994, 28쪽.

위 그림을 보면 평택 지역의 장시망은 여전히 안성권의 장시망 내에 포섭되어 있는 구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평택 지역의 모든 장시망의 안성장시망의 구역 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사장이나 평택읍내장의 경우에는 안성장과의 거리상 영향을 받고 있었으나 안중장이나 진위 신장은 거리가 멀어 독자적인 형태로 장시를 운영하고 있었다.

1842년(헌종 8) 편찬된《경기지》의 내용을 통해 19세기 중반 평택 지역의 장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진위현의 경우에는 '장시' 항목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양성의 경우에만 '시장'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성현의 소사장은 '소사원(素沙院) 동쪽에 있으며 5일과 10일애 개시(開市)한다'고 기록되어 있다.[14]

1840년대 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충청도읍지》를 통해 나머지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 직산현의 경우 안중장이 4일과 9일에 개설된다고 기재되어 있다.[15] 이전까지 안중장은 1일과 6일에 개설된다고 하였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개설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50년대 장시의 모습은《여도비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여도비지》는 1853년과 1856년 사이에 최성환과 김정호가 전국 각 군현의 기록을 정리한 지리지이다.《여도비지》는《동여도지》에서《대동지지》로 넘어가는 중간적인 형태의 모습을 한 지리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여도비지》에 수록된 평택 지역의 장시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수원
* 안중장 : 2일과 7일
* 오타장 → 없음
* 석현장 : 1일과 6일

□ 양성
* 소사장 : 5일과 10일

□ 진위
* 읍내장 : 2일과 7일
* 구거리장 : 4일과 9일
* 신장(新場) → 없음

□ 평택
* 읍내장 : 3일과 8일

□ 직산
* 안중장 → 직산현 기록이 없음

14)《경기지》4책, 양성현 시장.
15)《충청도읍지》12책, 직산현, 장시.

《여도비지》의 기록은 사실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18세기 후반의 기록을 전사했다는 분위기를 많이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전반에 작성된《동국문헌비고》의 기록과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 이후의 상황이 반영된 것인지를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말의 도지(道志)에 보이는 평택 지역 장시 자료는 매우 파편적으로 남아 있다. 1871년(고종 8) 편찬된《경기읍지》를 보면 양성현의 경우 소사장의 내용이 19세기 중반과 다르지 않게 기재되어 있다.[16] 진위현의 경우 앞서와 같이 장시 항목이 기술되어 있지 않다. 1899년에 편찬된《양성읍지》를 보면, 양성현의 장시로, 소사장이 소개되어 있으며 내용은 19세기 중반과 다르지 않게 서술되어 있다.[17] 1899년에 편찬된《수원부읍지》를 보면, 수원부의 장시로, 안중장이 소개되어 있으며 부 남쪽 80리의 오정

16)《경기읍지》6책, 양성현 장시.
17)《양성읍지》시장.

면에 있으며 1일과 6일에 설장한다고 서술하고 있다.[18] 안중장 이외의 수원부 관내의 평택 지역 장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1871년 간행된 《호서읍지》에 따르면 직산현 조에 안중장이 4일과 9일에 개설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19] 직산현 조에 보이는 안중장의 모습은 1894년 간행된 《호서읍지》에서도 마찬가지이다.[20] 1899년에 간행된 《충청남도읍지》를 보면 안중장의 위치가 확인된다. "안중시(安仲市)는 안중면 창리(倉里)에 있으며 4일과 9일에 개시한다"고 기록하고 있다.[21]

그러나 통감부 시기에 간행된 《충청남도읍지》에 따르면 직산현 안중장은 변화를 겪었다. 직산현 내 다른 3곳의 장시는 모두 개시되었으나 유일하게 안중장만은 '금무(今無)'라고 하여 더 이상 개설되지 않은 장시로 기록하고 있다.[22]

20세기 초 지역 장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1909년(융희 3)에 탁지부 사세국에서 작성한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와 1911년에 편찬된 《조선지지자료》가 있다.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의 평택 지역 장시 상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수원군

* 안중면 안중리(안중시장) : 매월 음력 1일과 6일에 정기적으로 개장한다. 집산액은 매시(每市) 500원(圓)이다.

□ 양성군

* 본군의 시장은 구룡동면 소사에 있다. 매월 음력 5일과 10일에 정기적으로 개장한다. 집산 화물의 종류에는 미곡(米穀), 우피(牛皮) 등이 있다. 집산 지역으로는 안성과 진천 방면이다. 집산액은 매시(每市) 700원(圓) 내외로 산정된다.

□ 평택군

* 평택시장 : 집산화물의 종류에는 미(米), 염(鹽), 잡곡(雜穀), 포백(布帛), 어류(魚類) 등이다. 집산 지역은 직산 지방이다. 1개년 집산고는 평균 47,300원(圓)으로 산정된다.[23]

위 자료를 보면 이전 시기와는 다르게 매우 장시의 수가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진위군과 직산군의 경우에는 장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평택군에 자리한 읍내장, 수원군에 자리한 안중장, 양성군에 자리한 소사장이 유일하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시는 소사장이었다. 장시가 개설될 때마다 대략 700원 내외 규모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평택시장이 약 657원, 안중시장이 가장 작아서 500원이었다.

안중시장의 경우에는 물품이 유입되는 지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수원군의 내부 교역의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성군의 경우에는 인근의 안성군과 진천군에서 물품이 유입되었고, 평택군의 경우에는 직산군이 거래 지역이었다. 또한 평택시장이 소사장에 비하여 물품 거래액을 적었으나 종류는 훨씬 많았다.

다음으로 비슷한 시기의 자료로 《조선지지자료》를 들 수 있다.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20세기초 지역의 사회경제 모습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장시와 더불어 주막이 다수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막은 장시와 함께 지역 내 상품경제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18) 《수원부읍지》 장시.
19) 《호서읍지》 직산현 장시.
20) 《(호서)읍지》 직산현 장시.
21) 《(충청남도)읍지》 2책, 직산읍지.
22) 《충청남도읍지》 3책, 직산현지.
23) 탁지부 사세국,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 1909.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24]

□ 평택 읍내면

* 객사리주막(객사리), 정고주막(군물리)

□ 평택 동면

* 없음

□ 평택 서면

* 없음

□ 평택 남면

* 신성리주막(신성리)

□ 평택 북면

* 없음

□ 평택 경양면

* 없음[25]

《조선지지자료》에 보이는 평택군의 장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주막이 몇 곳 소개되어 있다. 읍내면에 자리한 객사리주막과 정고주막, 그리고 남면에 있는 신성리주막이 전부이다. 객사리주막은 읍치에 위치하였고, 정고주막과 신성리주막은 각각 군물포와 신성포가 있는 포구에 위치한 주막이었다. 이들은 모두 상업이 발달한 곳이므로 평택군 지역은 읍치와 포구가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었음을 볼 수 있다.

24) 홍금수, 〈경기도의 주막 연구〉, 《문화역사지리》 32-3, 2020; 조혁연, 《19세기 충주지역 주막의 연구》, 충북대 박사논문, 2015.

25) 《조선지지자료》 15책. 평택군.

□ 수원 오정면

* 안중장(안중리에 있다)

□ 양성 구룡동면

* 素沙市(쇼ᄉᆞㅣ장), 素沙.

* 素沙店(쇼ᄉᆞㅣ쥬막), 素沙.

□ 진위 군내면

* 진위주막

□ 진위 이북면

* 사거리주막(하북리에 있다)

* 가곡주막(신가곡리에 있다)

□ 진위 일북면

* 淸湖店(쳥위쥬막, 청호리에 있다)

□ 진위 이서면

* 深橋酒幕(깁흔다리쥬막, 종복리에 있다)

□ 진위 이탄면

* 新野里酒幕(야리에 있다)

□ 진위 일탄면

* 艾峴酒幕(쓕고개쥬막, 좌동에 있다)

□ 진위 송장면

* 西井里市(대추동에 있다)

□ 진위 병파면

* 삼거리주막(삼거리에 있다)

* 평택역주막(졍거장쥬막, 평택역 앞에 있다)

□ 진위 고두면

* 座橋店(안진다리쥬졈, 좌교리에 있다)

* 栗浦店(밤개울쥬점, 율포리에 있다)
* 海倉店(해창쥬막, 해창리에 있다)
* 江西店(삼구원쥬막, 신리에 있다)
* 乾坤店(삼나무구비쥬막, 건곤리에 있다)

□ 진위 오타면

* 列井酒幕(연우물쥬막, 방축동에 있다)
* 乾坤里酒幕(건곤리에 있다)

□ 진위 여방면

* 七院酒幕(칠원리에 있다)[26]

평택 지역 내에서 장시의 명칭으로 남아 있는 곳은 수원군의 안중장, 양성군의 소사장, 진위 송장면의 서정리장이 유일하다. 서정리장의 경우 경부선 개통 이후에 나타난 장시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결국 대부분의 상품유통 과정에서 주막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용객이 많은 시장 근처의 주막은 오랫동안 유지되었으며 양자의 위치가 일체하는 사례로 소사주막과 소사장, 진위주막과 진위읍내장이 있다.

26) 《조선지지자료》 경기도편.

〈그림 3〉 17세기~19세와와 20세기초의 평택 지역 주막 분포



* 출처 : 홍금수, 〈경기도의 주막 연구〉, 《문화역사지리》 32-3. 2020.

3. 조선후기 소사장과 안중장

조선후기 평택 지역의 장시로 가장 먼저 주목되는 곳은 소사장이다. 18세기 중반부터 시작하여 19세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존속했던 장시였다. 소사장은 양성현 영통면에 위치하고 있었다. 소사장에서 소사(素沙)라는 명칭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

소사의 명칭은 소초원(所草院)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소초원은 양성현의 역원으로 현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27] 양성현에는 한 곳의 역(驛)과 두 곳의 원(院)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소초원은 서울에서 호남으로 내려가는 호남대로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여행자의 숙박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자리했다.

소초원이 소사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17세기 전반으로 보인다. 유형원

2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0, 경기, 양성현.

이 지은 《동국여지지》를 보면 그러한 사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동국여지지》의 양성현 역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1곳의 역과 2곳의 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소사원은 소초원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 남쪽 30리에 있다"고 기록하였다.[28] 또한 《동국여지지》에는 하천의 명칭으로 소사천이 보인다. "소사천은 소초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현 남쪽 35리에 있다"고 하였다. '소사'라는 명칭은 이제 원명(院名)에서 천명(川名)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소사'라는 명칭은 들명으로도 쓰였다. 이러한 사실은 양성현이 아닌 직산현조에 보인다. "소사평은 혹 홍경평이라고도 한다. 현 북쪽 40리에 있다. 서쪽으로 평택현에 이르고 북쪽으로 경기 수원부의 신영장 및 양성현 소사원에 이르는데 평평하고 넓은 땅이 30여 리는 된다. 혹 소초평이라고도 한다. 양성현에도 보인다"고 하였다.[29] 소사평이 소초평이라도 부른 것으로 보아 이 들명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소사원의 지역 내 중심 기능은 유형원이 제안했던 군현제에서도 확인된다. 유형원은 양성현이 진위현과 병합되어야 하며, 통합된 군현은 소초원의 동북 1리 지점에 치소(治所)를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가천역과 갈원 등도 존재하기는 하지면 읍치를 두기에는 소초원의 들만한 곳이 없으며 이 곳에 읍성일 축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다만 수해로 이한 피해의 걱정이 있으나 소초원의 동북쪽 언덕은 이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았다.[30]

18세기 중반에 그려진 《해동지도》를 보면 소사교와 소사주막, 소사대수의 위치가 확인된다.

28) 《동국여지지》 권2, 경기좌도, 양성현, 우역.
29) 《동국여지지》 권3, 충청도좌도, 직산현.
30) 《반계수록 보유》권1, 군현제, 역대제.

〈그림 4〉 해동지도의 양성현지도



*《해동지도》 양성현

《해동지도》는 1750년대 그려진 회화식 지도로 전국의 군현이 거의 모두 작성되어 있다. 군현 지도집으로 가장 완성도가 높고 지리적인 내용을 통일적으로 작성하여 18세기 중반의 지역 지명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위의 지도를 보면 적색으로 그려진 선이 도로를 표시하는 것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적색 선이 바로 호남대로이다.

호남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 하천을 건너는 곳이 소사교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리 명칭으로는 유일하게 소사교가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우 중요한 다리였음을 알 수 있다. 《양성현읍지》 등을 통해서도 읍치에서 소사교에 이르는 도로가 소사로로 표기된 것을 보면 양성현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길과 다리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도 왼편의 무한성이 있는 산자락을 지나는 가운데 주막이 한 곳 확인되는데 이름하여 소사주막(所沙酒幕)이다. 소사주막의 '소사(所沙)'라는 표현은 소사교의 '소사(素沙)'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명칭이다. 《여지도서》

를 보면 양성현의 도로조에 '소사주막(素沙店幕)'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길이 합쳐져 삼남대로와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31]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소사주막은 이전 시기에 이곳에 존재하던 소사원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전기 형식의 원(院)은 조선후기에 대부분 사라지고 그 자리는 주막(酒幕)이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칭만 원에서 주막으로 바뀌었을 뿐 이곳이 '소사'라는 점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사주막과 소사교가 위치한 그 자리에 장시가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후반으로 보인다. 소사장이라는 명칭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동국문헌비고》 단계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며 이후 19세까지 소사장은 명맥을 줄곧 유지하고 있었다. 아래는 1872년 지방지도에서 보이는 소사장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5〉 1872년 지방지도에 보이는 소사장



*《1872년 지방지도》 양성현 지도

31) 《여지도서》 경기, 양성, 도로.

위 지도를 보면 서울에서 내려오는 호남대로가 양성현을 지나 소사교를 통해 남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호남대로 중간을 보면 소사교를 지나기 전에 '소호장기(素湖場基)'를 볼 수 있다. 소호장의 터로 볼 수 있는데 소호장은 소사장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왜 소호(素湖)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불분명하다. 특이한 점은 소호장기 명칭 옆에 점막(店幕)을 표기해 두었다. 점막은 주막과 같은 표현으로 이곳이 《해동지도》에 보이던 소사주막이었다. 그러므로 소호장은 소사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소사장은 소사교와는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 주막 혹은 점막이 위치한 곳에 장터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안중장을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은 18세기 전반 그려진 해동지도의 수원부와 직산현 지역에 보이는 안중 지역의 모습니다. 수원부 지역에는 직산창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직산현 지역에는 안중창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서로 다른 명칭의 두 지도는 실상 같은 창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직산현의 비입지이면서 수원부 최남부 지역으로서 창고가 일찍이 설치되어 운영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시가 개설되는데 창고가 일정한 배경이 된 측면을 볼 수 있다.

〈그림 6〉《해동지도》에 보이는 안중 지역



* 출처 :《해동지도》 수원부와 직산현

아래의 지도는 1872년 지방지도이다. 왼쪽은 수원부의 안중 지역이고 오른쪽은 직산현의 안중 지역이다. 수원부에서는 장시가 보인다. 안중장이 수원부 오정면에 위치해 있다고 하였다. 직산현의 경우에는 이 지역의 명칭이 안중면이며 사창(社倉)이 설치되어 있어서 미(米) 54석이 보관되어 있고 사창은 창리에 위치하였다고 한다. 안중면 창리는 1899년 간행된 《충청남도읍지》 직산현 조에 "안중시(安仲市)는 안중면 창리(倉里)에 있으며 4일과 9일에 개시한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곳에도 안중장이 개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2] 다만 해당 장시가 동일한 장시인지 아니면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각기 안중장이 설치되었던 것인지를 불분명하다.

〈그림 7〉 1872년 지방지도에 보이는 안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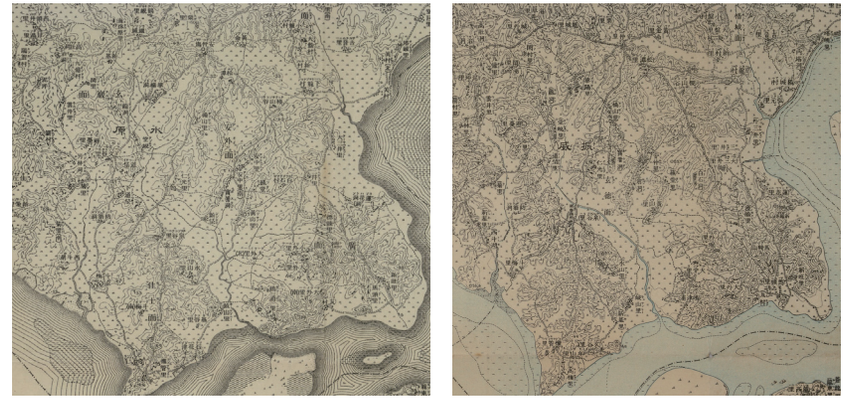


* 출처 : 《1872년 지방지도》 수원부, 직산현

안중에 장시가 개설되어 있었던 요인으로는 안중창 혹은 사창의 존재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리적 입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래의 지형도는 안중을 중심으로 하는 평택 지역의 안중읍과 포승읍 주변을 보여준다.

32) 《(충청남도)읍지》 2책, 직산읍지.

〈그림 8〉 제2차(1910년측도), 제3차(1914년측도) 조선지형도의 안중 지역



*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지도를 보면 현 안중읍과 포승읍을 대표하는 서평택 지역은 안중장(안중리)로부터 방사형의 형태로 도로망이 개설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 창고가 개설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서평택 지역 내에서 18세기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안중장이 이곳에 유일하게 개설되어 규모는 영세하지만 장시 기능을 유지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본다.

4. 20세기초 평택 지역 장시의 변화

평택 지역의 장시 구조는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고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거쳤다. 경부선 철도의 각 역 중에서 평택역의 가장 큰 특징은 서해안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평택의 군문포는 경기 남부 지역과 충남 동북부 내륙 지역의 산물을 서해안의 포구로 운반해 나가는 경로에 위치해 있었다.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과 이후 군문포

는 서해안 각 포구의 상품유통 기지로서 중요성을 가졌던 군문포는 오랫동안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의 상품을 교환하는 중계지였다. 그러나 상품유통구조가 점차 철도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서 평택 지역의 장시 구조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군문포 바로 옆에 부설된 평택역은 그 시작이었다.

19세기 말 평택 지역의 상업권은 1893년 작성된 일본영사관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경기와 충청지방의 상업권은 크게 4개의 권역을 가지고 있었다. 제1권역은 한강상류 지역, 제2권역은 금강 지역, 제3권역은 서해안 지역, 제4권역은 안성과 수원지역이었다. 이러한 권역 구분의 특징은 상품유통구조가 수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보고에 따르면 구 평택군 지역은 제3권역에, 구 진위군 지역은 제4권역에 편제되어 있었다.[33] 즉 19세기 말까지 평택 지역의 상업권은 해안과 내륙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평택 지역의 상업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평택 읍내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 소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 안중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평택 읍내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은 아산의 둔포장의 장시망에 포섭되어 있었으며, 소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은 안성 중심의 전통적인 상품유통구조 아래에 있었다. 안중장은 어느 고차 중심지의 장시망에 포섭되지 않은 독자적인 상업권을 가졌다.

평택 지역의 상업권 중에서 가장 큰 장시는 소사장이었다. 소사장은 안성장의 상품유통망에 있었기 때문에 안성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 안성장은 서해안을 거쳐 인천으로 통하는 해로가 물자 운송로로서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서해안 지역은 해로로서보다는 내륙지방에 소금과 해산물을 공급하는 산지로서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소사장은 바로 그 길목에

33) 〈京畿道及忠淸道地方商況幷ニ農況視察報告〉(1893년 10월 21일자 在京城領事官報告), 《通商彙纂》 제1호 부속, 1893, 3쪽.

자리하고 있었다.[34]

〈그림 9〉 1914년 조선지형도의 군문포와 소사장 부근



*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평택은 안성과 아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상업권 모두와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안성장의 상품유통구조에서 안성을 서해안 포구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상업활동이 대부분 수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평택은 아산의 둔포를 핵심으로 하는 상업권에 속해 있었다. 20세기초 평택군의 보부상 200여 명이 대부분 둔포에 사는 상인의 통솔 아래에 있었다는 점은 이를 재확인 한다.

평택은 안성에서 서쪽으로 40리 거리에 있으므로 안성 지방의 상업권과도 무관하지 않다. 평택에 위치한 군문포는 안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가까운 서해안으로 통하는 포구였다. 당시 평택은 농산물의 산지로 곡물을 매집하고 이출하는 과정에서 충청도 서해안쪽 포구들과의 관계에서 더 중시되었으며 직접 상업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부선 철도가

34) 이중환의 택리지에 경기 남부 지역의 장시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경기도 바닷가 고을은 비록 조수가 통하는 냇물이 있어도 장삿배가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설되고 군문포에 평택역이 들어서면서 이러한 구조가 모두 바뀌었다.

평택역 시가지가 서쪽 지역에 조성된 것은 군문포와의 관계가 매우 중시되었기 때문이다. 동쪽의 내륙평야 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쪽 해안지대에 시가지가 형성된 것은 군문포와 평택역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음을 의미한다. 평택역은 경부선 철도의 역 중에서도 서해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철도가 부설되기 전에는 군문포가 인근 내륙지방의 산물을 서해안의 포구로 실어내가는 포구로 중시되었다.

1893년(고종 30) 11월 8일, 평택현에 보낸 충청감영의 관문을 보면 일본 상인들이 평택에 위치한 군문포에 들어가 장사하여 사들인 쌀 400석을 군문포에 쌓아 두었다가 지방관의 방곡령으로 운출하지 못하여 빈손으로 인천항에 돌아오는 바람에 소장이 올라가게 된 사연을 지적하고 있다.[35] 이미 외국상인들이 들어와 평택 지역의 평야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출하는 포구로 나타나고 있던 셈이다. 같은해 10월 22일, 안성군에 보낸 경기감영의 관문에서도 서울에 사는 안병사댁의 가을 수세 110석을 평택 군문포를 통해 경강으로 운송하고자 하는데 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설명되어 있다.[36]

평택역이 들어선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평택과 아산 둔포의 관계는 계속 강조되었다. 1909년 발행된 《재무휘보》의 보고서에도 평택역을 중심으로하는 신평택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평택과 아산이 가깝다는 사실의 이점을 말하고 있다. "평택은 안성 방면에서 수요되는 아산만 연안 일대의 산출 소금을 공급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안성과의 관계가 밀접하다. 평택에서 안성천의 하류 약 40리에 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둔포라는 시장이 있다. 만약 평택과 아산 방면의 경제 관계를 밀접하게 하여 평택에 있는 화물의 집산을

35) 《충청도관초》 1893년 11월 8일.
36) 《경기도관초》 1893년 10월 22일.

발달하게 하려면 평택과 아산 간의 도로 수축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37]

평택역 일대가 중계상업지로서 발달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평택 평야를 자기 상업권 안에 포괄하고 있던 서해안 지역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철도 운송이 확대됨에 따라서 서부 해안지역과의 연계성은 서부 해안을 통한 화물의 이출이라는 면보다는 동부 내륙 평야와 서부 해안의 양쪽이 각각 필요로 하는 수요품의 상호교환을 매개한다는 의미로 한정되었다. 즉 아산의 둔포를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포구로 보기보다는 주변 지역의 산물이 교역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38]

그렇다면 평택역이 가지는 평택 지역 상업 구조의 변화상은 무엇일까. 《재무휘보》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평택은 안성, 아산 방면의 생산물을 수요지에 공급하는 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성 방면에서 수요되는 아산만 연안 일대의 산출 소금을 공급하는 편이 있기 때문에 그 안성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도저히 성환, 오산과는 비교할 수 없다."[39] 즉 평택의 경우 안성과 아산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쪽을 중계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가장 유리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안성과의 밀접한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 밖에 소금 및 해산물의 산지인 아산 지역과 가깝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재무휘보》는 다음의 설명으로 이어진다. "평택은 이렇게 경제상 중요한 요소를 겸비하였으나, 원래 평택은 결코 생산지가 아니다. 평택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그 부근의 산물이니 평택 자신의 산물이 아니고, 오직 평택을 경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또 평택은 소비지가 아니라 평택에 수입되는 화물은 다시 평택을 통과하여 부근 시장에 산포되는 것이니 평택의 가치는

37) 탁지부, 〈평택지방경제상황〉, 《재무휘보》 9, 1909.
38) 허영란, 앞의 논문, 169쪽.
39) 탁지부, 〈평택지방경제상황〉, 《재무휘보》 9, 1909.

중계지라는 점에 있다."[40] 따라서 지세(地勢)의 이익과 철도의 편리를 모두 갖춘 셈이다. 철도 부설 이후 평택의 상업적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장 잘 묘사한 설명이다.

1910년대 평택역과 연결되는 시장으로는 안성장, 평택장, 둔포장이 있었다. 이 중에서 안성장과 둔포장은 조선후기부터 열리던 시장이었고, 평택장은 철도역이 설치된 이후 기존의 소사장을 평택역 앞으로 옮겨와 개설한 시장이었다. 소사장은 앞 장에서 언급된 설명과 같이 호남대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평택 지역 내 가장 큰 장시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택역이 들어서자 철도를 통한 물류 수송에서 필요한 장시 기능을 소사장으로 옮겨와 이었던 것이다.

소사장을 이은 평택장은 초기에 안성장을 능가하지 못하였으나 서해안 일대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둔포장을 제치고 충남 북부 지역의 서해안을 포괄하는 중요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1910년대 이후 충남 아산만 일대의 서해안 지역의 상권은 이제 평택역과 평택장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권에 완전하게 포섭된 셈이다.[41]

안성과 둔포의 농산물 수집과 이출 역할은 전통적인 상업망 구조에서 벗어나서 철도역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구조로 이전되었고 그것은 평택역과 평택장이 맡게 되었다. 따라서 1910년 경기 남부 지역의 상업 구조 변화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입과 출입의 중계지로 평택역과 평택장이 부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택은 이제 해안 물류의 포구 중심의 둔포장과 내륙 유통의 장시 중심의 안성장을 해체하고 새로운 상업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서울과 원거리 상업 교역을 담당하던 안성은 이제 상품 중계에 대해서는 평택역

40) 탁지부, 〈평택지방경제상황〉, 《재무휘보》 9, 1909.
41) 허영란, 앞의 논문, 175쪽.

에 종속되었다. 안성보다 규모는 작으나 서해안 일대에서 비교적 넓은 상업권을 확보하고 내륙과 해로를 연결하던 둔포 역이 평택역에 종속되었고 1920년대가 되면 둔포시장의 상권은 거의 붕괴되었다. 평택 지역의 상업권은 지역 내에 국한된 시장에서 이제 지역간의 중계 시장으로 발전하였고 그것은 평택의 새로운 부상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다.

5. 맺음말

평택 지역의 장시 발달은 교통로의 입지와 창고 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포구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두드러지게 발달하지 못한 이유로 포구 장시는 거의 개설되지 못하였다. 평택 지역의 장시로 18세기 이래 줄곧 유지되었던 곳은 소사장과 안중장이었다. 소사장은 아산만 지역의 포구와 안성장을 연결하는 도로와 호남대로의 결정지로서, 안중장은 서평택 지역의 창고 입지와 방사형 형태의 도로망이 시작되는 기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내륙 거점 혹은 대포구가 존재하지 않은 평택 지역은 대규모의 장시는 아니지만 소사장과 안중장의 입지조건 때문에 소규모의 형태로 오래 존속할 수 있었다.

평택 지역 장시의 분기점은 경부선의 부설과 평택역의 설치였다. 평택역은 서해안과 가장 가까운 곳이 위치한 역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평택역에는 아산만과 연결되는 군문포가 있었고, 인근에는 둔포라는 대포구가 자리하고 있었다. 평택역은 이들 포구를 통해 물자가 이입되고 이출되는 역할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한적한 곳에 자리한 소사장은 평택역 앞으로 옮겨 설치되었고 지금의 평택시가지를 이루게 되었다. 평택 지역에서 소사장의 역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세가 김육과 대동법시행기념비

이근호/충남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학문적 연원과 출사 이전 행보
3. 出仕와 經世 方略의 실현
4. 사후 추숭 사업과 대동법시행기념비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은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전쟁을 경험한 뒤 17세기를 맞이하였다. 17세기 조선은 벽두부터 대외 정세가 불안정하였다. 정치적으로는 광해군의 '廢政'을 정상화시킨다는 명분 하에 '反正'이라는 격변을 경험하였다. 이어지는 두 차례의 호란은 국가와 사회를 혼돈 속에 빠트렸다. 그토록 믿고 따르던 中華 문명의 擔持者인 명나라의 멸망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北伐을 표방하며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추진하였다. 당대 지식인이라면 이러한 시대의 소명에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김육은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고자 했던 지식인이자 관료 중 한 명이다. 김육은 참담한 정치 현실을 목격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생활하다가 인조반정 이후 다시 정계에 진출, 그가 구상했던 安民益國論을 대동법, 동전의 통용 등을 통해 현실에 구현한 인물이다. 당시 성리학적 명분론이 득세하던 상황에서 현실 문제의 타개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金堉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김육에 대한 연구는 해당 시기 다른 인물에 비해 많은 부분 진행되었다. 김육에 대해서는 이미 1960년대 중반 그를 '민족번영의 경세가'[1]라 평가한 연구가 제출되고, 이후 대동법을 비롯해 그의 동전 통용[2]이나 군사 정책[3] 등을 비롯해 사행록을 비롯한 그의 저술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4] 그러면서 그의 경세적 입장을 富國安民, 民·國兩益論, 安民益國, 安民富國論 등으로 개념화하여 설명하기에 이르렀으며, 근세 실학의 선구자 혹은 18세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제레미 벤담, 제임스 밀 등이 주창한 공리주의자라는 평가까지 제출되었다.[5] 이런 가운데 김육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치 인식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6]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김육의 경세론이 갖는 논리적 구조나 위상을 비롯해 그의 정치사상 내지 정치 인식 등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 아래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김육의 행보를 시간 순으로 따라가면서 경세방략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김육 사후에 이루어진 각종 기림사업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평택시에 소재한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1) 韓榮國, 〈민족번영의 經世家 金堉〉, 《人物韓國史 4 : 試鍊의 隊列》, 박영사, 1965.

2) 동전 통용과 관련해서는 김육의 경세론을 검토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거론하고 있으며, 이를 특화하여 연구한 元裕漢, 〈金堉과 銅錢〉, 《史學會誌》 8, 연세대 사학연구회, 1965 ; 元裕漢, 潛谷 金堉(1580 ~ 1658)의 貨幣思想〉, 《編史》 5, 국사편찬위원회 편사회, 1974 등이 참고된다.

3) 이기순, 〈金堉의 軍事政策論〉, 《韓國人物史研究》 6,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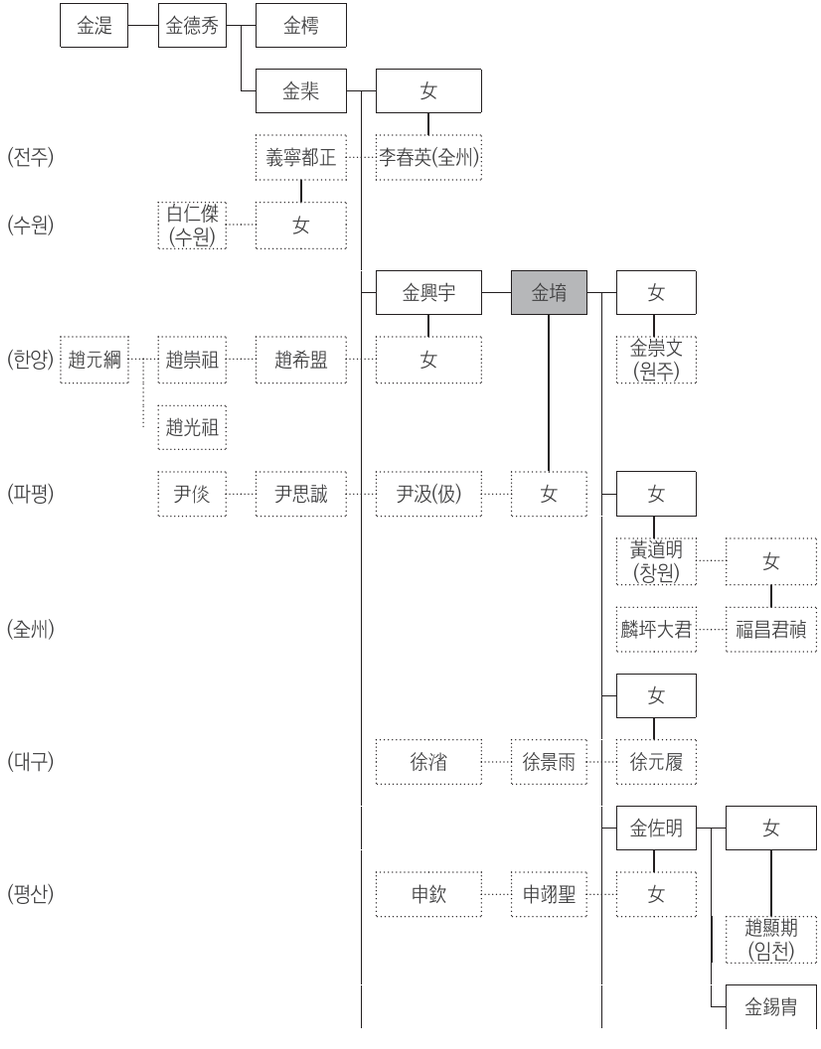
4) 沈暻俊, 〈金堉의 〈朝京日錄〉-特히 丙子胡亂時의 朝明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 21,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9 ; 千惠鳳, 〈潛谷 金堉의 著·編書와 活字印刷〉, 《民族文化》 24, 2001 ; 李迎春, 〈丙子胡亂 전후의 朝鮮·明·淸 관계와 金堉의 《朝京日錄》〉, 《朝鮮時代史學報》 38, 2006 ; 金英淑, 〈明末의 中國社會와 朝鮮使臣의 外交活動 - 金堉의 《朝京日錄》과 《朝天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 《明淸史研究》 31, 2009 ; 우정임, 〈金堉의 《海東名臣錄》·《國朝名臣錄》 편찬과 사상적 의미〉, 《嶺南學》 30, 2016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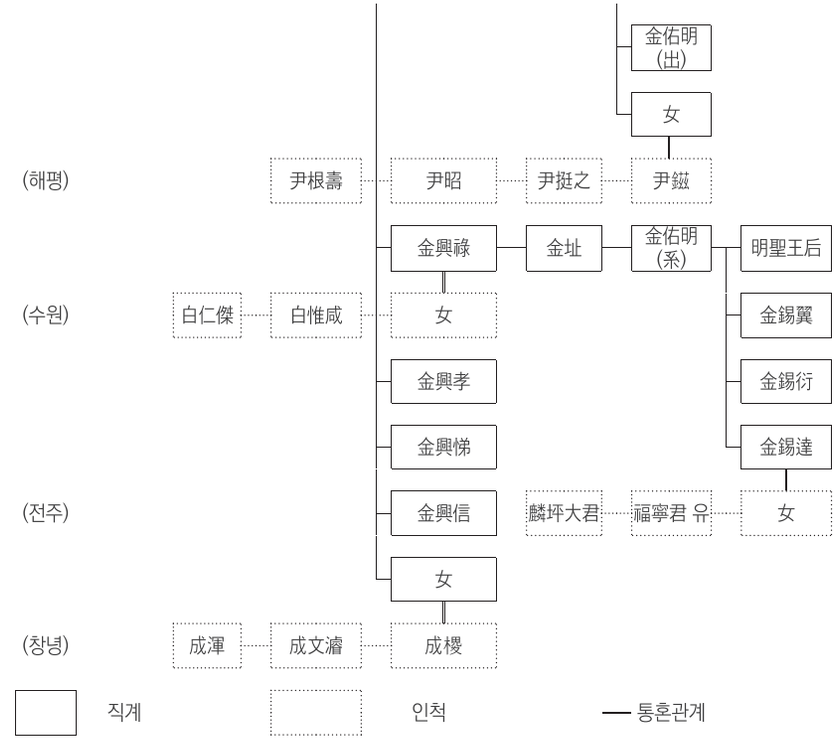
5) 李楠福, 〈金堉의 思想과 그 歷史的 位置〉, 《史學志》 14, 1980 ; 金世奉, 〈金堉의 社會經濟政策 研究〉, 《史學志》 21, 1988 ; 정만조, 〈17세기 중반 한당의 정치활동과 국정운영론〉, 《한국문화》23, 1996 ; 金駿錫, 〈金堉의 安民經濟論과 大同法〉, 《民族文化》 24, 2001,; 李憲昶, 〈金堉의 경제사상〉, 《韓國人物史研究》 6, 2006 ; 박병련·곽진·이헌창·이영춘, 〈잠곡 김육 연구〉, 태학사, 2007 ; 정연식, 〈湖西大同節目 서문에 보이는 金堉의 공리주의적 사고〉, 《인문논총》16, 서울여대, 2007 ; 이헌창, 〈김육과 조선왕조시대〉, 《내일을 여는 역사》 53, 2013 ; 이헌창, 〈근세 실학의 선구자이자 실천자인 金堉(1580~1658)〉, 《韓國實學研究》 33, 2017 등

6) 박병련, 〈조선조 무실론의 전개양상과 김육의 정치 사상〉, 앞의 책, 2007 ; 배우성, 〈17세기 政策論議構造와 金堉의 社會經濟政策觀〉, 《民族文化》 24, 2001 ; 우경섭, 〈潛谷 金堉(1580~1658)의 學風과 '時勢' 認識〉, 《韓國文化》 33, 2004 ; 우경섭, 〈조선후기 《효경》·《충경》이해와 효치론 -김육(金堉)과 영조(英祖)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26, 2012 등.

2. 학문적 연원과 출사 이전 행보

김육은 1580년(선조 13) 외조부 趙希孟의 집에서 부친 金興宇와 모친 한양 조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먼저 김육을 둘러싼 인맥의 흐름을 살펴보자.





김육의 고조는 金湜이다. 김식은 1519년(중종 14) 趙光祖가 주도한 賢良科에서 장원으로 선발된 인물로, 잘 알려진 '己卯士林'의 일원이다. 당시 사림 세력 내에서는 師儒에 적당한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이른바 기묘사화로 인해 趙光祖, 金湜 등이 화를 당한 이후 인종 연간 현량과가 復科되며 이들에 대한 신원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명종 연간 척신정치 과정에서 "조광조는 儒者의 마음을 가졌지만 時宜를 알지 못했고, 그가 신임했던 金湜과 같은 자는 用心이 바르지 못하여 끝내는 조정을 어지럽히다가 모두 伏

誅되었다"[7]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량과가 다시 廢科되면서 신원은 좌절되었다.

선조가 즉위하며 이후 본격적으로 士林政治가 전개되면서, 사림이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조광조 등에 대한 신원이나 추증 작업이 진행되었다. 1568년(선조 1) 4월 조광조에게 관직이 추숭되고 諡號가 내려진 것을 시작으로, 김식의 현량과도 복과되었다. 김식은 이후 생존 시 宗系辨誣를 힘써 주장했다는 이유로 1590년(선조 23) 光國功臣 책훈 시 원종공신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단, 16세기 후반까지 기묘사림을 선양하는 가운데서도 김식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었던 듯하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김식의 손자인 金權(김육에게는 종조부가 됨)이 李珥의 문하에 있으면서 김식의 비문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이이는 이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김권은 친구인 金長生을 통해서 그 사유를 물었는데, 이이의 답변은 "그(김식)가 죽음에 대처한 의리가 매우 온당치 못하였으므로 승낙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는 김식이 기묘사화 이후 선산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1519년(중종 16) 宋祀連 事件으로 絶島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창으로 숨어들었다가 자결한 것을 말한다. 이이의 이 같은 발언은 김식을 보는 당시 일부의 세평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8]

김식의 아들로 김육의 증조인 金德秀[9]는, 부친 김식이 피화된 후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김덕수의 휘하에는 "學者咸趨 名公巨卿 多出門下"[10]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尹斗壽·尹根壽 형제와 元豪, 李樑 등이 말해진다.[11] 김육은 이들 중 尹根壽에게 수학하였는데, 가학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윤근수와 사제의 연을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연간 이후 사림정치가 전개되며 이른바 기묘사림에 대한 존숭의식이 고조되면서, 김식-김덕수의 가계라는 점은 청풍 김씨가 조광조, 白仁傑, 成渾 집안과의 혼맥을 맺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육의 어머니는 한양 조씨 趙崇祖의 손녀로, 조광조는 그녀의 종조부가 된다. 김육의 숙부인 김흥록의 처는 수원 백씨 白惟咸의 딸로, 휴암 백인걸의 손녀가 된다. 백인걸은 조광조의 문인으로, 위로는 조광조와 김식을 잇고 아래로는 성혼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형성한 인물이다.[12] 김육 가문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성혼 집안과도 혼맥을 맺고 있다. 김육의 고모부가 성문준의 아들이고 성혼의 손자인 成楑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육의 선대는 이른바 기묘사림의 정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조광조-백인걸-성혼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보이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김육은 5세가 되는 1584년(선조 17) 千字文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9세인 1588년(선조 21)에는 조부 金棐가 마침 평안도 강동현의 수령으로 나가자, 조부를 수행하면 당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曺好益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당시 조호익에게 학문을 청한 이가 수 백인이었다고 한다.[13] 조호익은 李滉의 말년 제자로, "향리에서 무단하는 토호"로 지목되어 강동현에서 全家徙邊의 생활을 하던 상황이었다. 김육의 표현에 따르면, 조호익의 학문은 "周易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였고" 經史子集과 外家, 兵書, 天文, 地

7)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 7월 17일(무신).

8) 김육은 1638년(인조 16)《기묘팔현전》을 찬술하였는데, 이같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기묘사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 배경이 이같은 당시 일부의 세평을 의식한 때문이 아닐까 한다.

9) 실록 기록에는 金德粹로 표현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4월 23일(경진) ; 《중종실록》 권39, 중종 15년 5월 12일(기해) 등). 아마도 부친이 피화된 후에 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金佐明, 《歸溪遺稿》 卷下, 行狀, 〈高祖贈吏曹判書府君行狀〉.

11) 《朝鮮儒賢淵源圖》. 한편 《조선유현연원도》에서는 김덕수의 문인으로 李彦迪이 말해지는데, 이언적 관련 기록에서는 자취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12) 조남욱, 〈학맥의 관점에서 본 휴암 백인걸〉, 《한국사상과 문화》64, 2012 참고.

13) 曺好益, 《芝山集》 附錄 권1, 年譜, "西土不尙文學 及聞先生風 遠近請業者 殆數百人".

理, 陰陽 등 학업에 통달하였다고 한다.[14]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을 만난 김육은 황해도의 안협, 삼등, 안악 등지를 돌며 피난 생활을 이어나갔다.[15] 그리고 전쟁 와중인 1594년(선조 27) 해주 석담에서 成渾을 만나게 되었다. 성혼은 전쟁 중이던 1593년(선조 26) 9월 마침 서울로 환궁하던 선조의 행재소에 들러 복명한 뒤에 石潭精舍에서 우거하던 상황이었다. 석담정사는 율곡이 지은 건물이었다.[16] 이때 김육은 성혼으로부터 "문리가 크게 통하고 詩語가 맑고 원만하여 몹시 기이하고 雅趣가 있다"라는 평을 받았다. 김육은 이후 성혼에게서 학문을 전수받았다.

김육은 이후 1604년(선조 37) 사마시에 입격하였고, 1605년(선조 38) 별시 초시에 급제하였다. 31세 때인 1610년(광해군 2) 이른바 館學의 '五賢(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 이황)從祀疏'를 올리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오현종사소는 이미 선조 연간부터 유생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것이었으나, 선조는 우리나라의 유현이 중국의 유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다거나, 이언적의 을사사화 당시 모호한 행적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하여 실현되지 않았다.[17] 그리고 다시 광해군이 즉위 직후인 1608년(광해군 즉위) 7월 경상도 유생 李坱 등이 다시 상소를 제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18] 이후 館學儒生 韓惟翔 등을 비롯해 홍문관 등에서 계속된 문제

14) 金堉, 《潛谷遺稿》 卷11, 行狀, 〈贈吏曹參判芝山曹先生行狀〉, "先生之學 最窠於易 至如諸史子集外家兵書天文地理陰陽之說 亦無不通".

15) 전쟁을 만나 김육과 그 가문의 일원들이 안협, 안악 등지 황해도에서 피난 생활하게 된 것은 아마도 선대에 황해도 해주 등지를 중심으로 일정 정도의 경제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김육의 7대조인 金敬文의 묘와 6대조인 金耋 의 묘가 황해도 해주에 위치한 것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16) 成渾, 《牛溪集》 우계연보, 皇明世宗皇帝嘉靖十四年.

17)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 2002 참조.

18) 《광해군일기》 권6, 광해 즉위년 7월 2일(병술).

제기가 있었고, 결국 1610년 7월 16일 종사가 최종 결정되기에 이르렀다.[19] 이 과정에서 관학 유생의 연명소는 대부분 김육의 손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한다.

이때 김육은 5현의 문묘종사와 함께 한편으로 성혼의 모함을 신설하는 상소를 올리기도 하였다.[20] "상의 후대함이 더욱 중하여 부르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21]라는 평을 받기도 했던 성혼은, 그가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601년(선조 34) 연말부터 일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 이유는 성혼이 류성룡과 主和論을 논의하였다는 것과 己丑獄事와 관련한 것이었다. 1601년(선조 34) 12월 경상도 생원 文景虎가 상소하여 기축옥사는 성혼이 개인적인 사감으로 당여를 지휘한 것으로, "형적으로 논하면 성혼의 죄는 가볍고 정철의 죄가 무거우나, 정상을 따져보면 정철의 죄는 작고 성혼의 죄가 크다"[22]고 하였다. 성혼과 관련해서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1602년(선조 35) 윤2월 삭탈관작 되었다.[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혼 집안과 혼맥도 있고, 학문을 배우기도 하였던 김육으로서는 이 같은 성혼의 처벌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더구나 성혼은 당시 서인계 학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신원은 서인 세력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어 다음 해인 1611년(광해군 3)에는 이른바 晦退辨斥疏를 올린 鄭仁弘의 儒籍 삭제 문제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정인홍의 회퇴변척소는 문묘종사에서 스승인 曺植이 빠진 것에 대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남명의 사상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정인홍의

19) 《광해군일기》 권31, 광해 2년 7월 16일(기미).

20) 《광해군일기》 권32, 광해 2년 8월 21일(계사).

21) 《선조수정실록》 권32, 선조 31년 6월 1일(갑인).

22) 《선조실록》 권144, 선조 34년 12월 20일(계미).

23) 《선조수정실록》 권36, 선조 35년 윤2월 24일(정사).

회퇴변척소가 제출되자 조야는 소란스러워지고 결국 정인홍의 유적이 삭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해군은 전교로 사람에 대한 是非與奪은 조정에 있는 것인데도, 유생들이 조정의 擧措에 가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오히려 유생들을 유적에서 삭제하고 종신 금고토록 조치하였고[24] 심지어 처음 주창한 유생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25] 이에 김육은 자신이 상소문을 기초했다고 자수하고자 하였으나, 정치 원로격인 李德馨과 李恒福의 만류로 이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이항복은 장문의 차자를 올려, 유생을 색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광해군의 조치에 대해 부당함을 역설하면서 신랄하게 비판하였다.[26] 이후에도 승정원을 비롯해 李廷龜, 鄭昌衍, 申欽이 김육 등 유생을 옹호하고, 성균관에 空館이 추진되는 등 격하게 대응하면서 이 일은 유야무야된 듯하다. 그러나 이 같은 광해군의 조치와 이어지는 대북 세력의 전횡으로 김육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이후 가평 잠곡 청덕동에 들어가서 생활하였다. "몸소 농사지으면서 먹고 살았던"[27] 시절이었다. 정치 현실에 대한 풍자시인 羸羌詩와 老狐篇을 지어 대북세력을 비난한 바도 있다. 그러면서도 재종조인 金權을 찾아가거나 폐모론 관련 논의로 북청에 유배를 가는 이항복에게 시를 보내 전송하는 정치적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28]

김육의 연보에서 이 시기 최명길과의 현등사 유람을 특서하고 있어 주목된다. 더구나 그 시점이 서인들 내에서 반정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던 시점인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당시 최명길의 경우도 가평에 물러나 생활하고 있을 때였다. 최명길은 1614년(광해군 6) 병조 좌랑의

24) 《광해군일기》 권40, 광해 3년 4월 13일(임오).
25) 위와 같음.
26) 위와 같음.
27) 김육, 《잠곡유고》 연보.
28) 김권이 1618년(광해군 10) 폐모론을 반대하여 제출한 상소를 김육이 작성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趙絅, 《龍洲遺稿》 권14, 지, 〈領議政潛谷金公墓誌銘〉).

관직에 있다가 마침 서울에 온 명나라 사신과 외부 사람의 접촉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삭탈관직된 뒤 관직에서 물러나 가평에서 생활하였던 것이다. 이후 한 동안 최명길은 모친상과 부친상을 당하여 약 6년간을 시묘살이로 보내게 되었다. 최명길의 입장에서 보면, 의도하지 않은 것이나 광해군대 막판의 혼란한 정국 상황에서 일단은 정권 주도 세력인 대북의 눈을 피한 채 후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인다.

1620년(광해군 12)부터 구굉(具宏;인조의 외삼촌)이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李曙와 공모하여 능양군을 추대하기로 작정하고 외사촌 신경진과 조카 구인후와 함께 반정을 계획하였다. 이후 계획이 차차 진행되며 동조 세력의 규합에 나섰다. 반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무인들이었다. 젊은 문신들을 참여시킬 필요성을 느끼던 차, 신경진이 체찰사 張晩의 종사관이 되었는데, 이때 장만의 사위 최명길을 눈여겨보고 반정 모임에 끌어 들였던 것이다. 최명길은 평소 잘 알고 있던 劉靑田의 靈棋占法을 통해 거사일을 결정하는 등 당시 반정 세력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런 최명길과 김육의 만남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3. 出仕와 經世 方略의 실현

인조반정 직후 반정 세력들은 인목대비와 국왕의 교서를 반포하여 반정의 성공을 천명하고, 반정 명분을 대외적으로 알렸다.[29] 한편으로는 새롭게 朝廷을 구성하였다. 조정의 첫 인사 조치는 李光庭을 이조판서에, 李貴를 이조참판에, 金瑬를 병조참판에, 洪瑞鳳을 병조참의에, 李聖求를 사간에, 俞伯曾을 지평에, 李榘과 吳翻을 정언에, 조익과 최명길을 이조좌랑을 삼는 것

29)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3월 14일(갑진).

이었다. 좌의정 朴弘耉와 우의정 趙挺을 통해 卜相을 진행, 李元翼·奇自獻·鄭昌衍·申欽 등을 의망하였고, 이원익을 영의정에 제수하였고, 신흠을 이조판서에, 이정구를 예조판서에, 서성을 형조판서에, 오윤겸을 대사헌에, 박동선을 대사간에, 이수광을 도승지에 제수하는 등 서서히 조정의 인원을 채워나갔다. 또한 山林으로 金長生과 張顯光, 朴知誡 등을 조치하였다.

이어 새로운 정권에 참여할 신진 인물들을 물색하여 발탁하였으며, 이 과정에 김육도 참여하게 되었다.[30] 1623년(인조 1년) 4월 이조에서 '直言被罪儒生'과 '有學行儒生'의 명분으로 다수의 인원을 불러들였다. '直言被罪儒生'으로 趙慶起, 李安眞, 鄭復亨, 權濈, 金孝誠, 洪茂績을, '有學行儒生'으로 成文濬, 柳袗, 金集, 洪百順, 朴應善, 姜鶴年, 趙絅, 金嶷, 李有謙, 李有養, 許啁, 趙恭立, 沈惕, 李榮元, 趙亨生, 金堉, 朴知讓 등을 계청하여 이들을 6품직으로 발탁하였던 것이다.[31] 이때 인사는 이조판서 신흠과 이조참판 이귀가 주도한 것으로,[32] 당초 이조의 명분은 1613년(광해군 5) '上疏直言之士'와 '潔身自守之人'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발탁된 인사들은 대개 수령직에 제수하였다. 예를 들어 洪茂績을 昌寧縣監으로, 李安眞을 靑陽縣監으로, 趙慶起를 軍威縣監으로, 金孝誠을 淸安縣監으로, 權濈을 大興縣監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었다.[33]

발탁 이후 김육의 정치 활동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가 1624년 이괄의 난 때 공주로 파천하는 어가를 수행하다가, 천안에 이르렀을 때 음성현감에 제수되었다. 김육이 음성현감에 제수된 2월 12일은 이괄의 난 발발 이

30) 김육의 경우, 이 시기 발탁에 앞서 義禁府都事라는 직함이 확인된다. 《연보》에서는 "인조가 반정하여 가장 먼저 遺逸들을 등용하여 不次擢用함에 의금부도사에 제수되었다"(김육, 《잠곡유고》 연보)라고 기록하고 있다.

31)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8일(정묘).

32) 《인조실록》 권3, 인조 1년 윤10월 22일(무신), "鳴吉曰 此儒生輩 前日李貴爲參判 右相爲判書時 抄選癸丑以後直言之士及不事科業林下讀書者 請超授六品而蒙允矣".

33) 《인조실록》 권1, 인조 1년 4월 21일(경진).

후 처음으로 승전보가 들렸던 직후이다. 그런 상황에서 왜 이 시기 김육이, 그것도 음성현감에 제수되었는 지는 미궁이다. 음성 현장에서 목격한 바를 바탕으로 제출한 〈陰城縣陳弊疏〉는 그의 경세론이 지향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낸 글로써 주목받고 있다.

>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방도는 백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근본입니다. 백성들이 안정되면 나라 역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신이 어찌 백성들만 사사로이 사랑하고 나라의 軍簿가 급하고 세금이 거두어들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4]

이른바 安民益國論의 대략을 드러낸 상소이다. 여기서 김육은 백성이 느끼는 어려움의 해결을 주장하였다. 장부보다 부족한 군액을 삭제하고, 陳田의 결부를 삭제하기를 요청하였다.

김육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9월 치러진 증광시에 응시, 장원으로 급제한 뒤, 사간원 정언을 비롯해 전적, 사헌부 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청직에 있으면서 부딪친 정치적 과제는 仁城君의 처벌 문제였다. 1624년(인조 2) 11월 사간원 정언에 재직시 집의 朴炷, 장령 權鑊 등과 合司하여 인성군이 "諸賊의 奇貨"가 되었다며 종사의 원대한 계책을 위해 위리안치하기를 요청한 것이었다.[35] 인성군은 선조의 왕자로, 그의 처벌 문제는 인조 즉위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인성군은 광해군대 인목대비의 폐출을 청하거나, 광해군에게 존호를 올리기를 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광해군대 정권에 참여한 이력 때문이다.[36]

34) 김육, 《잠곡유고》 권4, 소차, 〈음성현진폐소〉.

35) 《인조실록》 권7, 인조 2년 11월 16일(병인).

36) 인성군의 처벌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용흠, 〈인조반정의 명분과 정권의 정통성 논쟁 : 인성군 이공 처벌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학연구》27, 2007(《조선후기 정치사 연구 I , 인조대 정치론의 분화와 변통론》, 혜안, 2006 재수록)을 참고하였다.

그에 대한 처벌이 “국가의 공권과 군권의 강화를 강조하는 대북세력의 정치론과 동일한 입장”[37]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후 공신 주도의 정국 속에서 각종 반란이 수 차례 발생하며 불안한 정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후금과의 정세가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戶牌, 軍籍, 量田 사업 등이 제기되었고, 1626년(인조 4)에 호패법 시행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김육은 호패나 양전, 군적 등을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다른 사안에 치중하였다. 바로 내수사와 궁방의 문제였다.

> 일정한 경계가 없는 개펄의 어염이, 어찌 임금이 사사로이 남에게 줄 수 있는 물건이겠으며 私家가 도모하여 점유할 수 있는 땅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궁가가 스스로 편하고 좋은 곳을 골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바람에 해변의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유랑하고 있으며 이득은 사가로 들어가고 원망은 公家로 돌아오고 있으니, 지금의 폐단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38]

즉 궁방이 어염을 임의로 점유함으로써 이익이 사가로 돌아가고 대신 원망은 공가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더하여 김육은 궁방의 免稅와 復戶도 규례가 없음을 지적하며, 궁방에서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법전》 규정을 활용하여 매입한 토지를 내수사 소속이라며 면세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該曹에서 엄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막자고 제안하며, “지금 궁가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폐단을 혁파한다면 어염이 풍족하고 상품이 잘 유통되게 될 것이며 궁가의 전지에 대해 면세하는 규례를 제거한다면 세입이 넉넉하고 민력이 펴지게 될 것이니, 인심을 위로하고 국가 재정을 넉넉히 하는 데에 필시 크게 이로울 것입니다.”[39] 라고 하였다.

37) 김용흠, 위의 책, 2006, 88쪽.

38) 《승정원일기》 12책, 인조 4년 3월 3일(병오), “洋波斥鹵 未有涯限 此豈人主私與之物 而私家圖占之地哉 自擇便好 惟意所欲 濱海之民 失業流移 利入私門 怨歸公家 當今疵瘼 莫此爲甚”.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김육은 세자의 분조에 참여하여 전주로 갔다가 공주를 거쳐 강화도로 들어갔다. 이어 호란이 종식되면서 어가를 호위하여 돌아온 뒤 사헌부 지평 등을 지냈고, 얼마 있어 접반사 이홍주의 종사관으로 발탁되었다. 양서 지역을 순행하고 돌아와서는 〈兩西事宜〉를 제출하였다. 〈양서사의〉에서는 鑄錢을 주장하였다. “물산이 많지 않은데 여러 나라의 物貨를 통하지 않고 단지 쌀과 직물만을 쓰고 있어서 다시는 유통되는 화폐가 없습니다. 국가와 민간이 모두 궁핍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라 하였다.

이후 1629년(인조 7) 김육은 김류의 문제 제기로 門外黜送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공신세력 내에서의 갈등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다. 당시 김육이 이조좌랑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김류가 金世濂을 끌어들여 그를 전랑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김육이 이를 거부하였다. 김세렴이 정묘호란 당시 이원익의 종사관으로 세자의 분조를 수행할 때 마침 조모 정부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 말을 타고 분상한 사실을 들어[40] 거부한 것이다. 더하여 김류는 김육 등이 南以恭과 李景稷을 淸望에 천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을 대사간망에 포함시키자 羅萬甲이 이의 부당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결국 김류는 김육과 나만갑의 행동을 公道를 저버린 것이라 하며 그들의 처벌을 주장하였고, 김육은 국문을, 나만갑은 귀양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李貴와 尹昉, 崔鳴吉, 趙翼, 張維 등이 김육과 나만갑을 옹호하고 나서 끝내 나만갑은 중도부처를, 김육은 문외출송의 처분을 받았다.

39) 《승정원일기》 12책, 인조 4년 3월 6일(기유), “今革橫占之弊 則魚鹽足而商貨通 除免稅之規 則稅入優而民力舒 其於慰悅人心 裕足國用之道 必有所大益者矣”.

40) 金世濂, 《東溟集》 附錄, 神道碑(許穆 撰), “丁卯之亂 上出幸江都 命體相李公元翼從王世子至全州 公以從事在軍中 聞祖母鄭夫人歿而奔喪 體府許以所乘馬遣之 後當路者以爲奔喪不得乘傳 不許銓薦”.

문외출송되어 양근에서 우거하던 김육은 1631년(인조 9) 사면되었고, 1632년 부수찬, 부교리를 거쳐 같은 해 6월에 이조정랑에 제수되었다. 같은 해 11월 당상관으로 승품되어 이후 병조참지, 승지 등을 지냈다. 1634년(인조 14) 3월 동지성절천추하진사에 차임되어 明朝에 파견되었다. 그리고 명조에 있으면서 병자호란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전란이 종식된 후인 1635년 6월에 복명하였다. 외국에서 호란을 보낸 김육은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망하지 않은 명이 조선을 구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나, 내부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41]

김육이 조정에 복귀한 병자호란 이후의 정국은 崔鳴吉의 주도하에 운영되었다. 최명길은 병자호란 직후 이조판서를 거쳐, 1637년(인조 15) 4월 우의정, 7월에 좌의정을 거쳐 1638년(인조 16) 9월에는 영의정에 제수되며 국정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김류 중심의 정치 세력과 반청론자들은 계속되는 공방전에서 모두 조정에서 축출당하였다. 최명길은 "명분만 좋아하는 무리가 괴이한 논의를 주장하여 화친을 주장한 자는 노예로 삼고 화친을 배척한 자는 주인으로 삼아 십여 년 동안 묘당과 대각이 서로 어긋나 오늘날의 화를 초래하게 된 것"[42]이라고 하였다.

당연히 외교의 기조는 친청 노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 안동에 낙향하여 머물고 있던 계암 김령은 1635년 김육이 돌아왔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칙서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는 모문룡이 있는 椵島를 공격한 것이라 탄식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같은 해 7월에는 심양에 다녀온 李聖求가 돌아왔을 때는 인조가 의장을 꽤 갖추고는 맞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육이 가져온 칙서는 마치 흙덩이를 보듯이 했다고 부연하고 있다.[43] 김령은 이를 변괴라고 하고 있으나,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변화된 외교의 지향

41) 이종묵, 〈잠곡 김육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9, 2005, 312쪽.
42)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5월 15일(임오).
43) 金坽, 《溪巖日錄》

점을 확인하게 된다.

최명길은 정국을 주도하면서 金時讓과 張維,[44] 金世濂[45], 申景禛[46], 沈器遠,[47] 金藎國, 沈大孚,[48] 兪伯曾,[49] 李時昉,[50] 南以恭[51] 등을 진용하며, 정국을 일신하면서 독자적인 정치세력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밖으로는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으로는 비등하는 반청론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대의 경장을 이루려고 하였다.[52] 최명길이 우의정에 제수된 뒤 의정부와 전랑권, 대간의 피혐제도를 들고 나와 이의 개혁을 추진했던 것은 이런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53] 兪伯曾의 경우도, "대의에 의거해 분발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과 함께 "민폐를 제거하고 인심을 따를 것"이라며 제도의 변통을 제기하였다. 趙復陽도 '革弊救民'을 위해 '革弊惠民之局'을 운영하면서 대단한 변통과 절손을 요구하였다.[54]

김육은 1638년(인조 16) 6월 충청감사에 제수되었고, 같은 해 대동법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權盼의 餘意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55] 김육이 제기한 대동법의 시행과 관련한 논의는, 발의된 뒤 2달여가 지나서 비변사

44)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 4월 12일(신사).
45)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6월 3일(경자).
46)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7월 7일(계유).
47)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9월 6일(신미).
48)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9월 10일(을해).
49) 《인조실록》 권35, 인조 15년 9월 19일(갑신)
50)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2월 18일(임자).
51) 《인조실록》 권36, 인조 16년 3월 8일(신미).
52) 병자호란 이후 최명길 주도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오수창, 〈인조대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13,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85 참조.
53) 이기남, 〈崔鳴吉의 政治活動과 勸力構造 改編論〉, 《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一潮閣, 1992.
54) 이같은 병자호란 이후 정국 동향에 대해서는 김용흠, 앞의 책, 2006 참고.
55) 《승정원일기》 67책, 인조 16년 11월 6일(갑자), "金堉所爲 大概權盼之餘意".

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56] 그러나 당시 인조의 嘉禮가 진행되고 있어서 논의가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일 冊妃禮가 거행되었고, 12월 21일에 김류가 서용되었으며,[57] 1639년(인조 17) 1월 호위대장으로 임명되었다.[58] 1637년(인조 15) 8월 삭탈관작된 뒤 약 16개월이 지나 다시 서용된 것이다. 김류를 시작으로, 김자점 등이 정계에 복귀하였고, 1640년(인조 18) 1월 洪瑞鳳이 영의정에 다시 임명되었다. 정국은 김류, 홍서봉, 김자점, 이성구으로 이어지는 세력과 최명길, 신경진, 심기원, 강석기로 이어지는 세력간의 대립이 이어졌고, 1644년(인조 22) 심기원의 옥사가 발발하였다.[59] 이 과정에서 최명길은 1638년(인조 16) 9월 18일 심양에 들어갔다. 김육의 입장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청의 심양에 들어감으로써 더 이상 대동법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이명웅을 비롯해 집의 金益熙가 만언소를 올려 대동법의 시행을 요청하였다.[60] 趙錫胤이 대동법을 바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貢案을 개정하자고 요청하였으며[61] 趙復陽이 선혜청의 제도를 모방, 연해 지역에서는 쌀로 징수하자는 논의 등 관련 논의가 간간히 제기되었다.[62] 대동법 관련 논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조 연간에 대동법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대동법이 시행되지 못한 데는 병자호란 이후 청국의 정치, 군사적 압력 때문이었다. 청국의 압력으로 인한 비용을 田結에서 징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동법의 시행을 통해 전결에 공물 부담을 지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 심기원 옥사와 같은 역변과 민심의 원망 등이 주요한 것이었다. [63]

56) 《승정원일기》 67책, 인조 16년 11월 1일(기미) ; 《비변사등록》 5책, 인조 16년 11월 7일 등.
57) 《인조실록》 권37, 인조 16년 12월 21일(기유).
58) 《인조실록》 권38, 인조 17년 1월 16일(갑술).
59) 오수창, 앞의 논문 참조.
60) 《인조실록》 권39, 인조 17년 10월 29일(임자) ; 《인조실록》 권45, 인조 22년 8월 12일(정묘).
61)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5월 28일(기유).
62) 《인조실록》 권46, 인조 23년 8월 14일(계사).

1643년(인조 21) 원손 보양관의 자격으로 원손과 함께 심양에 가서 세자를 알현하였다. 중국에 다녀온 후 김육은 수레의 사용과 동전의 통용 등을 요청하였다. 먼저 중국에서 수레를 사용하는 제도를 따라서 시행하기를 요청하였고, 여기에 더해 沿道에 점포를 설치하여 돈을 쓰게 하자고 하였다. 이 점포에서 使臣들이 왕래하면서 점포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관에서 돈을 점포 주인에게 지급하며, 백성들도 미, 포 등을 대납할 돈 마련을 위해 물품을 점포에서 팔게 하는 등 동전 통용을 주장하였다.[64] 동전 통용과 관련해서는 이후 1647년 12월 개성유수로 재직하면서 〈兩西請用錢疏〉에서 더욱 확대하기를 요청하였다.

1649년 효종이 즉위하면서 김육은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65] 효종 즉위년 9월 金堉이 우의정에 제수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66] 金堉을 중심으로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던 經世官僚들이 漢黨으로 결집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漢黨은 그 중심인물로 金堉과 申冕을 제외하고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漢黨 또는 그에 동조세력으로 분류될 수 인물로는 金堉·申冕 이외에 鄭太和·趙翼·李時白·李時昉·李景奭·李敬輿·沈之源·徐必遠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은 대체로 왕실과 인척관계를 통해서 연결되거나[67] 인조년간 공신세력과 연결되어 국정에 참여한 세력들이었다.

63) 김용흠, 앞의 책, 2006, 381쪽.
64) 金堉, 《潛谷遺稿》 卷4, 疏箚, 〈辭輔養官東還後加資疏〉.
65) 이하는 필자의 〈효종대 집권서인의 부세제도변통론; 정국의 추이와 관련하여〉, 《북악사론》3, 1993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대부분 각주는 생략하고, 논지 전개상 불가피한 내용만 제시한다.
66) 《효종실록》 권2, 효종 즉위년 9월 1일(정사).
67) 왕실과 인척관계에 있는 인물은 金堉·申冕·鄭太和·沈之源 등이다. 金堉은 현종비의 조부이고, 申冕은 부친이 宣祖의 부마인 申翊聖이며, 鄭太和와 沈之源은 각기 효종과 사돈관계였다.

효종대 대동법 논의는 즉위년 6월 延川君 李景嚴이 三南에 大宣惠法의 시행을 제기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 여기서 大宣惠法은 大同法과 같은 것으로,[68] 李景奭·鄭太和는 이 법의 시행을 찬성하였으나 영돈녕부사 金尙憲의 時勢論에 밀려 논의가 중단되었다.[69] 이후 몇 개월이 경과한 11월 金堉에 의해 대동법이 제기되면서 대동법 실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金堉은 1638년 병자호란으로 인한 재정과 민생의 피폐를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동법의 시행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그는 효종대 재차 상소를 올려 대동법의 시행을 말하면서 이 법이야말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계책으로 스스로 평가[70]한 후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토지 1결당 봄에 목면 1필과 미 2두, 가을에 미 3두 등 총 10두의 미를 징수하여 전세외에 進上·貢物·本道雜役 등 모든 잡세를 포함시키자고 하였다. 이어서 그는 효종의 판단을 돕기 위해 시행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였는데, 당시 兩湖의 田結을 총 27만결로 보고 일년에 징수하게 되는 양이 목면 5,400餘同, 미곡 85,000石에 이르게 되어 상하 모두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金堉은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스스로 '均役'과 '便民'에 두고 있었다. '均役'과 '便民'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법령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는 小民의 바램을 따라야 한다고 하여 효종의 결정을 독려하였다.

金堉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趙翼·李時白이 지지하였고 李基祚·鄭世規 등이 반대의사를 보이자, 효종은 富戶와 小民의 이해관계를 살피도록 지시하였다. 즉위하면서 북벌을 계획한 효종이 그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인 대동법의 실시에 이같이 미진하게 대처한 이유는 아마도 당시 향촌사회가 사족

68) 《효종실록》 권2, 효종 즉위년 11월 5일(경신) 및 《비변사등록》 13책, 즉위년 7월 10일조.

69) 위와 같음. "領敦寧府事金尙憲以爲 鮮民生倒懸之急 當如救焚拯溺 而若有窒礙難行之弊 則必有不悅者之謗 請待數月 諒闇後從容面稟以定"

70) 위와 같음, "大同之法 均役便民 實救時之良策"

중심의 지배체제로 구축되고 있었던 대내적인 상황과 청조의 심한 간섭[71]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후 대동법 논의는 일시 중단되었다. 대립의 발단은 효종이 대동법 시행 여부를 이조판서인 金集에게 묻자 金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부터로, 이에 불만을 품은 金堉이 '三不可退論'과 '三不可不退論'을 제시하면서 급진전하였다.[72] 金集과 金堉사이에 반목이 생기자 金集의 제자인 宋時烈은 金集이 물러나려하는 것은 金堉의 비난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효종은 右相인 金堉의 疏에는 金集을 공척하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사직하려는 金集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하였다. 효종의 이같은 발언은 山黨들의 불만을 가져와 金集은 즉시 연산으로 귀향하고 이어서 宋時烈·宋浚吉·金慶餘 등이 낙향하였다.

대동법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효종 원년 6월 사간원에서 均役을 위해 대동법 시행을 요청하자 효종은 이전에도 京外 백성들이 다 불편하다고 하여 정지되었다고 하면서 실시를 결정하지 못하고 朝臣들의 숙의만을 요구하였다.

이후 대동법 논의가 약 1년여동안 중단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三斗收米法 논의가 제기되었다. 李時昉이 제기한 三斗收米法은 李時白·李敬輿와 남인인 閔應亨의 동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651년(효종 2) 6월 수미법 논

71) 이점은 金堉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卒哭之後 卽當議定 而客行適到 尙此遷延 今則客使已過 而廟堂之論 寂然無聞 臣竊怪之"(《효종실록》 권1, 효종 즉위년 11월 5일(경신)). 그리고 대동법이 효종 2년 2월 淸朝내 主戰派인 섭정왕 도르곤이 病死한 후인 8월에 결정되었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72) 《효종실록》 권3, 효종 원년 1월 13일(정묘). 한편 이때 金堉이 제시한 '三不可退論'과 '三不可不退論'은 아래와 같다.
"其後累上疏乞致仕曰 人臣事君之道 明於進退 不變其心而已 可進而退非也 可退而進亦非也 微官尙然 況參於大臣之列者乎 盖不可退者三 不可不退者三 身佩安危 係國存亡者一也 來自山林 德望盖世者二也 年富力强 擔當國事者三也 此則不可退者也 才德不足 自知甚明者一也 年已衰老 病有難醫者二也 受人嗤點 言不合用者三也 此則不可不退者也 今臣寵逾涯分 年過致事 在所當退乎 在所不退乎".

의는 중단되고 대동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73] 균역을 위해서는 대동법과 삼두수미법 가운데 대동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는 종래 三南을 대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자는 것에 비해 지역적인 범위를 축소하여 호서만이라도 실시하자고 하였다. 비변사에서 시행지역을 이전과 비교하여 호서로 축소한 것은, 호남은 호서에 비해 "多富豪"하여 반대가 크다는 점과,[74] 다른 하나는 호남에 비해 호서가 '結小役重'[75]하기 때문이었다. 비변사의 견해를 계기로 대동법 시행이 결정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대동청 당상이 처음에는 趙錫胤이 임명되었다가 元斗杓로 교체되는 문제로 실시가 또 한차례 지연되었다. 趙錫胤은 인조대부터 대동법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안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던 山黨系 인물로 그가 대동청 당상에 임명되었다는 것부터 일견모순된 양상이었다. 어찌보면 그의 사직 요구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후 대동법은 우여곡절을 격으면서 1651년 가을부터 충청도에 대동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1651년 호서에 대동법 시행이 결정된 후 대동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 호남에 대동법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654년(효종 5) 1월 掌令 沈摠에 의해서였다.[76] 그러나 이 시기 대동법 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金堉이었다. 金堉은 沈摠이 대동법의 시행을 주장하자 이에 적극 동조하였는데, 이로 인해 대사간 李行進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을 시행하려는 金堉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56년

73) 《효종실록》 권6, 효종 2년 6월 20일(을축).

74) 《효종실록》 권7, 효종 2년 8월 14일(기미), "大同之法 先祖以民政之不便 不得行矣 結數最多之民 則誠難一時辦出".

75) 《비변사등록》 14책, 효종 원년 6월 11일조.

76) 《효종실록》 권12, 효종 5년 1월 22일(계축), "掌令沈摠上疏 請行兩湖大同之法". 위에서 沈摠은 '兩湖'를 지칭하였으나 이미 효종 2년 8월부터 湖西에는 대동법이 시행되고 있었음으로 湖南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겠다(한영국, 〈호남에 실시된 대동법〉(상) 《역사학보》15, 1961, 33쪽).

(효종 7) 8월 시국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대동법의 시행을 본격적으로 주장하였다. 金堉이 대동법의 실시를 주장하게 된 계기는 1656년 8월 전라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박의 침몰과 이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였다.[77] 金堉은 이에 따라 戰船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대동법의 시행을 주장하였고 결당 미 10두씩을 거두자고 하였다. 물론 이때도 호서의 경우와 같이 民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자고 하면서 전선 복구비용 및 上供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같은 金堉의 주장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효종은 내심 이의 실시를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지 몇 일후 대동법을 호서에 시행할때 金堉과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李時昉에게 호서에 시행된 대동법에 대한 생각을 묻고 있었다. 대동법의 시행논의는 이후 약 1년여가 경과한 1657년(효종 8) 7월 金堉이 차자를 제출하면서 가속화되었다. 이때 金堉은 죽음을 각오로 대동법의 실시를 추진하였는데, 金堉의 이 같은 집요함은 그의 개인적인 성격[78]에서 기인한 면도 있다. 그는 전라도 수령 50명이 반대한다고 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종전 호남민들은 1결당 60두씩을 냈는데 지금 대동법을 시행하면 백성들에게는 다섯 배가 감소되는 것일뿐 아니라 국가재정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십여일 후 金堉의 주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李厚源·鄭維城·李時昉 등은 찬성을, 洪命夏·鄭致和 등은 신중론을 폈다. 이후 동년 9월에 효종은 실시를 전제로 의견을 묻자 이때도 鄭維城 등과 남인인 許積은 이에 적극 동조하였으나, 시행은 결정되지 않고 1658년(효종 9) 2월에 이르러서야 節目講定의 命이 내려졌으며 그해 가을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시행에 있어서 전반부에는 남인이 許積이 주도적으로 참

77) 《효종실록》 권17, 효종 7년 8월 27일(임인).

78) 《효종실록》 권17, 효종 7년 9월 25일(경오), "上曰 金堉執滯之病 死而後已 必無回惑之理也".

여한데 비하여 이때는 金堉에 의해 특별히 추천된 徐必遠이 시행을 주관하였다.[79]

4. 사후 추숭 사업과 대동법시행기념비

김육은 1658년(효종 9) 사망하기 며칠 전 서필원에게 대동법 시행을 맡긴 사실을 비롯해 민폐인 陞戶事와 안면도에 창고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遺意로 진달할 정도로 생애의 마지막까지 經世濟民의 실현에 주력하였다. 김육의 사망 소식을 들은 국왕 효종은 "어떻게 하면 國事를 담당하면서 김육과 같이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얻겠는가?"[80]라며 안쓰러움을 표하였다. 김육의 사망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여 목놓아 울었고, 모든 서원의 유생들이 와서 매우 서글피 곡하였다. 호서의 백성들은 더욱 슬피 울며 弔喪하였다."[81]

김육 사후에는 그를 기리는 다양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조정 차원에서 1660년(현종 1) 5월 '文貞'이란 시호를 내렸다. 당초 봉상시에서는 '文忠'과 '文成', '文貞'을 후보로 올렸고, 이 가운데 '文貞'으로 결정되었다. '文貞'에서 '文'은 "학문에 힘쓰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貞'은 "청백하게 절조를 지킨 것"을 의미한다.[82] 사망 직후에는 국왕과 왕세자의 致祭가 있었고, 1703년(숙종 29) 기로소에서 역시 치제하였다. 단, 효종의 配享功臣에는 선정되지 못하였다. 당초 효종의 배향공신으로는 1661년(현종 2) 4

79) 《효종실록》 권20, 효종 9년 9월 5일(기해), 金堉의 졸기. "湖南之事 臣已薦徐必遠而付之".
80) 위와 같음.
81) 李敏求, 《東州集》 권6, 行狀, 〈議政府領議政諡文貞金公行狀〉.
82) 金堉, 《잠곡유고》, 〈잠곡연보〉, 경자년(1660, 현종 1)조.

월 金尙憲과 金集이 결정되었다.[83] 1676년(숙종 2) 7월 許積은 인조 배향공신으로 최명길이, 효종 배향공신으로 김육이 빠진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최명길과 김육이 누락된 것은 "儒者라 이름하는 자에게 영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였다.[8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집과 갈등이나, 이후 정치권에 김집-송시열로 이어지는 학맥에 속한 문인 다수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해 8월 국왕은 하교를 내려, 김육은 "학문과 도덕이 一世에 높이 뛰어나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百代를 가도 존경"[85]스럽다며 追配를 논의하게 하였지만 끝내 배향공신에 선정되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墓道文字를 통해서 김육을 기렸다. 확인되는 김육에 대한 만사, 치제문, 행장 등의 목록과 찬자를 제시하였다.

〈표 1〉 김육을 기리는 각종의 묘도문자

유형	제목	찬자	출처
挽詞	挽金潛谷	趙絅	龍洲遺稿
	挽潛谷	吳竣	竹南堂稿
	金領相堉挽詞	李敏求	東州集
	金領敦寧堉挽	李景奭	白軒集
	金政丞堉挽	鄭斗卿	東溟集
	金領相堉挽	姜栢年	雪峯遺稿
	潛谷金相公堉輓	申翊全	東江遺集
	潛谷金相國堉挽	宋浚吉	同春堂集
	潛谷金相國挽	兪棨	市南集
	潛谷金領相堉挽	朴長遠	久堂集
	挽潛谷金相公堉	徐必遠	六谷遺稿
	金領相潛谷挽	李殷相	東里集
	潛谷金相公堉挽	李端相	靜觀齋集
	潛谷金相國挽十韻	南龍翼	壺谷集
	金政丞堉挽	沈東龜	晴峯集

83) 《현종실록》 권4, 현종 2년 4월 24일(계묘).
84)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7월 8일(무자).
85) 《숙종실록》 권5, 숙종 2년 8월 2일(임자).

유형	제목	찬자	출처
挽詞	金相堉挽	金南重	野塘遺稿
	輓金相國堉	姜瑜	商谷集
	哭潛谷金相國	李晩榮	雪海遺稿
	挽潛谷金相國堉	洪柱元	無何堂遺稿
	金領府事堉挽	曺漢英	晦谷集
	挽潛谷金相堉	趙龜錫	藏六堂遺集
	挽潛谷	趙龜錫	藏六堂遺集
	潛谷挽章	趙備	桂窩集
致祭文	卒領議政金堉致祭文	趙備	桂窩集
	祭大岳君潛谷金相國文	趙顯期	一峯集
	耆老所祭潛谷相公文	趙絅	龍洲遺稿
	祭金相公堉文	趙絅	龍洲遺稿
	祭潛谷金相國堉文	洪柱元	無何堂遺稿
	大司成金湜 贈領議政金權 領議政金堉淸風府祠宇賜額祭文	金萬重	西浦集
	文貞公金堉墓致祭文	正祖	弘齋全書
묘지명	領議政潛谷金公墓誌銘幷序	趙絅	龍洲遺稿
행장	議政府領議政諡文貞金公行狀	李敏求	東州集
선혜비	領議政金公湖西宣惠碑銘 幷序	李敏求	東州集
신도비	領議政文貞金公神道碑銘	李景奭	白軒集
묘표음기	先文貞公墓表陰記	金佐明	歸溪遺稿

김육은 사후 다수 서원에 배향되었다. 1573년에 건립되어 정몽주를 제향하던 숭양서원에 우현보와 김육, 조익이 배향되었다. 양근군 미원현의 미원서원은 당초 조광조와 김육의 선대인 김식을 제향하던 곳이었다. 1668년(현종 9) 김육을 추가로 제향하고, 1669년(현종 10) 蔡時鏡 등이 사액을 청하며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 근래의 고 相臣 金堉은 바로 김식의 4대손이고, 또한 조광조의 外從孫입니다. 그는 김식과 조광조 두 스승의 가문을 출입하며 독실하게 실천하고 학문에 힘썼으며, 미원과 멀지 않은 곳에 은거하였습니다. 聖代를 만나 중신이 되어서, 두 임금 시대의 훌륭한 신하가 되고, 또한 사당에 배향되었습니다.[86]

86) 《서원등록》 현종 10년 10월 22일조.

즉 김육이 인근에 은거하였을 뿐 아니라. 혈연적으로 김식, 조광조와 관련 인물이라며 제향하고는, 해당 서원에 사액을 요청하였으며 중앙의 허가를 받아 '迷原'이라 사액되었다. 충청도 청풍에 위치한 서원은 김식과 金權, 김육의 본관지라는 이유로 제향하고는 '봉강'이라 사액되었다.[87] 김육이 은거하여 생활하던 경기 가평의 잠곡에도 서원이 건립되어 1703년(숙종 29) '잠곡'이라 사액되었다.[88]

김육을 기리는 작업은 비석을 세우며 진행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비석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과 예산군,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 마을과 익산의 용암면 동헌마당, 고창군 객사 동문 밖, 옥구군 상평, 경상남도 함양군 대덕리 상림 마을 등에 위치해 있다.[89]

〈표 2〉 김육을 기리는 비석

朝鮮國 領議政 金公堉 大同軍役 萬世不忘碑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1659년
相國金公堉 永世不忘碑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1660년
領相金公堉 永世不忘碑	충청남도 예산군	1660년
領議政金公堉 輕徭保民仁德不忘碑	전라북도 익산시 함라마을	1659년
領相金公堉大同仁政後世不忘碑	전라북도 익산시 용암면	1659년
潛谷金堉 大同宣惠不忘碑	전라북도 고창군 객사 동문밖	1668년
領相金公堉 均役便民碑	전라북도 옥구군 상평(-)향교 앞으로 이전)	1659년
潛谷 永世不忘碑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1684년

이상 다수 비석 대부분은 김육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것인데, 이중 평택시의 이른바 대동법시행기념비는 설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김육이 대동법이 시행하게 된 내용을 포함하고 주목된다.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원 명칭은 '朝鮮國 領議政 金公堉 大同軍役 萬世不忘碑' 또는 '湖西宣惠碑'이다. 대동법기념비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내용이 전하고 있다.

87) 《서원등록》 현종 13년 6월 29일조.
88) 《서원등록》 숙종 29년 3월 16일조.
89) 이와 관련해서는 이헌창, 《김육평전》, 민음사, 2020, 450~454쪽을 참고하였다.

이해 2월에 공조 참판 閔應亨이 입시하여 아뢰기를, "조정에서 실제적인 혜택을 받도록 힘쓰면 백성들이 모두들 감격하여 떠받드는 법입니다. 근래에 호서의 사민들이 相臣 金堉의 초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다투어 부의하였는데, 김육의 집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온도에 통문을 돌려 경계 지점에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한 상신이 남긴 은혜도 오히려 잊지 못하는데, 더구나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푼다면, 사람들이 깊이 감동함이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였다.[90]

즉 김육의 사망 소식을 전해들은 충청도민들이 부의를 보냈으나 받지 않자 추가로 기금을 모아 평택에 비석을 세웠다는 것이다. 비문의 내용은 첫째, 均田出賦가 왕도정치의 大經임을 밝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겸병하는 폐단이 극에 달하였음을 기록하였고, 둘째, 任土作貢으로 인한 세금의 증가로 나라의 근본이 쇠락했음을 말하였으며, 셋째, 이원익부터 김육 때까지 대동법 시행 과정을 설명한 뒤에, 넷째로 김육이 효종 때 호서 지역에 대동법을 시행한 내용과 그로 인해 백성들이 편해졌음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김육이 충성스럽고 근면하며 강인한 과단성으로 사업을 완성시킨 내용을 적었다. 말미에는 김육을 기리는 銘을 수록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평택시의 대동법시행기념비는 비석을 세우게 된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대동법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김육을 기린다는 점에서 다른 비석에 비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겠다.

90) 金堉, 《잠곡유고》, 〈잠곡연보〉, 기해년(1659, 효종 10)조.

5. 맺음말

이상에서 김육의 학문적 연원을 비롯해 그가 출사 이후 경세방략을 실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김육을 기리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평택시 소재 '대동법시행기념비'의 의미를 추적해보았다.

김육은 위로는 이른바 기묘사림의 맥을 잇고 있으며, 서인 계열의 윤근수와 성혼 계통의 학문, 그리고 퇴계 이황의 학문을 계승한 조호익을 통해서 학문을 배웠다. 출사 이전에는 강경하게 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출사하여 음성현감에 재직하면서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세 방략을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관직에 있으면서 상황에 따라 鑄錢 문제를 비롯해 수레의 통용 등을 제기하였다. 특히나 17세기 민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공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동법을 제기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주력함으로써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安民益國'을 위한 그의 신념을 꺾지는 못했다. 이 같은 김육의 정책적 성공은 당대 국왕이나 관료, 그리고 일반민에게까지 추앙의 대상이 되어, 사후 다양한 형태로 기림사업이 이루어졌다. 평택시 소재의 '대동법시행기념비' 역시 그 일환이었는데, 특히 해당 비석은 건립 과정을 분명하게 전해주며, 김육, 그리고 대동법의 정책적 성공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타의 비석에 비해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평택역 설치와 사회경제적 변화

- 평택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지역사적 이해 -

허영란/울산대학교 교수

차 례

1. 평택과 서해 포구
2. 경부철도 평택역 설치
3. 평택 시가지 발전 방향과 성장 잠재력
4. 평택과 안성
5. '새로운' 평택 지역사의 모색

1. 평택과 서해 포구

개항 이후 본격화된 외부 세계와의 만남은 한국인들의 호기심과 두려움,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지배층은 위정척사와 개화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충돌했고 그 틈바구니에서 민중들 역시 동학군과 의병 등으로 시대적 과제에 참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은 피할 수 없는 해일처럼 한국을 덮쳤다. 내지 시장으로 일본 상인이 직접 침투하기도 전에 1890년대에는 전국 주요 상업지 '어느 점포에나 외국 상품이 많이 진열되어 있고 토산품은 오히려 적다'고 할 정도였다. 어디서나 금건(金巾)을 필두로 각종 수입 직물과 석유, 성냥, 일본산 도자기 등이 판매되었다. 이 상품들은 판매하는 상인들은 주로 한국 상인과 청국 상인이었다.

그렇지만 러일전쟁 이후 일본과의 직무역 확대, 철도 개통 이후 철도 수송의 본격화, 일본인 이주 증가 등을 배경으로 일본 상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들은 서울 등의 대도시와 개항장, 주요 상업지에 정착하여 상권을 강화했으며, 주로 수출입 관련 무역업이나 도매업에 종사하면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양귀는 화륜선을 타고 오고 왜귀는 철차를 타고 몰려든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한반도를 종관하는 경부철도는 일제의 군사적 대륙 침략에 기여하는 것을 필두로 한국의 사회경제를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변수로 작용했다. 상품유통구조를 재편한 것은 물론이고, 미시적 지역 네트워크와 위계구조를 변화시켰다. 평택은 그런 변화를 전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역이다.

1893년의 일본인들이 작성한 영사관 보고에 따르면 경기 및 충청지역의 상권을 4개 권역으로 나누었을 때 '평택'은 제3권역, 즉 예산을 중앙으로 한 충청도 서해안 일대의 상업권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의 평택은 지금의 평택시와는 다르다. 1895년 지방제도 개편 당시 평택군은 공주부 소속이었다가 1896년 23부를 폐지할 때 충남의 제4등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 지방제도가 개편될 때 팽성면을 중심으로 하는 구 평택군 및 수원군 일부가 경기도 진위군에 병합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위군(1938년에 평택군으로 개칭)이 오늘날의 평택군이고, 새로 통폐합된 진위군의 군청소재지였던 병남면 평택리가 오늘날 평택시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도 부설 이전의 평택은 충청도에 소속된 옛 평택군을 가리키며 군청소재지는 팽성면 객사리였다. 철도가 부설된 뒤에도 1914년까지 평택은 충청도에 속해 있었으며 철도역 부근을 신평택, 군청이 있던 팽성면을 구평택이라 불렀다.

철도 부설 이전까지 평택평야의 생산물은 주로 평택 관하의 군문포와 아산의 둔포를 통해 수운을 이용해 운송되었다.[1] 1900년까지도 그런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쌀, 보리, 콩 등 평택평야에서 생산된 곡물의 이출과 외부 물자의 이입은 모두 군문포와 둔포를 통해 이루어졌다.[2] 서쪽 방면의 수로가 중요한 유통 경로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평택시보다는 서쪽인 팽성읍 일대가 지역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평택은 상업지가 아니라 곡물산지로서 농산물을 매집하고 이출하는 과정에서 충청도 서해안 쪽 포구들과 연결되었지만, 평택이 직접적인 상업중심지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

평택평야에 자리한 수운의 요충지 군문포는 평택에서 40리 거리에 있는 대상업지 안성에서도 가장 가까운 포구였다. 군문포는 안성과 아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요 상업지인 안성을 서해안 포구와 연결시켰다. 당시에는 수운이 상업활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평택은 대상업지이기는 해도 안성보다는 수운으로 연결된 아산 둔포를 중핵으로 하는 상업권역에 소속되었다. 1900년 무렵 평택군에서 내지행상에 종사하는 보부상 약 200여명을 둔포에 거점을 둔 황주연(黃胄淵)이 통솔하고 있었다. 이런 사

1) 〈京畿道及忠淸道地方商況幷ニ農況視察報告〉(1893년 10월 21일자 재경성영사관 보고)《통상휘찬》 제1호 부속, 1893.11.20.발행), 14쪽·16쪽.

2) 池田辰之助·上妻孝八, 〈復命書〉(1900년 7월 16일자)《通商彙纂》178

실을 통해 당시 평택은 둔포를 중심으로 하는 서쪽의 상권에 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

2. 경부철도 평택역 설치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전통적인 주요 운송로들은 보조적이고 배양적 지위로 밀려났으며, 대신 철도가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구조 변화를 추동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새로 건설된 철도역이 지역 거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기존의 지역 질서를 모든 측면에서 동요시켰다.

> 중세적 교통 방법에 따라 粗漫하고 分立的인 江運 중심의 교통은 全土를 남북으로 종관하는 철도의 출현으로 상호 유대가 강고해졌으며, 간선철도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 교통 계통으로 통합되었다. 그 외 종래의 교통기관으로서 철도와 경쟁적 관계에 있던 것은 전부 폐절시키거나 그 효용한계를 저하시켜 필요한 정도까지 감축 정돈되었으며, 겨우 철도에 대해 배양적 관계에 있는 것만 구태를 잔존시키게 되었다. 이런 교통 지리의 대변화에 따라 종래의 산업은 조야한 지방적 자급자족적 상태에서 탈각하여 확대된 시장을 목표로 지방적 특산을 증산하기 위한 맹아를 순치시켰다. 나아가 교통지리적 요소에 새 산업 기획을 도입하여 인구 집결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구래의 요지를 대신하여 古來 무명의 땅이 철도 연선이 됨으로써 갑자기 경제상의 요지가 되고 장래의 번영을 약속받기에 이르렀다. [……] 철도 개통으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거주상의 보안이 증대되어 개척자로서 우리 國人 이주자를 급격히 증가시켜 한인과의 사상적 경제적 접촉이 전면화되었다.[4)]

3) 池田辰之助·上妻孝八, 〈復命書〉(1900년 7월 16일자) 《通商彙纂》178 ; 吉野誠, 〈領事館報告를 통해 본 朝鮮의 內地市場〉《近代朝鮮의 經濟構造》, 1989, 비봉출판사, 155~157쪽

철도부설은 지방에 대한 치안력을 강화시켜 일본인들의 지방이주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역전의 새로운 중심지 조성은 일본인이 주도했으며 일본인 관공리와 상인 등이 그 근간을 장악했다. 철도 정거장은 외지의 사람과 물건, 소식이 들어오는 문화적 관문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기존 중심지는 위축되고 결국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행정, 경제, 사회 등 제반 기능이 재편성되었다. 이런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일제가 구축한 간선 운송망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나타났다. 재편성의 양상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기존 중심지에서 역전 신시가지로 주도권이 옮겨가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기도 했다. 그 사이에는 이질적인 경관과 세력이 공존하고 경합하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병존하며 경쟁하는 이중도시의 양상이 나타났다.

대개는 한적한 농촌에 기차역이 들어서면 기차역 주변에 일본인들이 들어와 터를 잡고, 급기야 읍사무소, 우편소, 금융조합, 각종 검사소와 함께 주재소까지 철도정거장 주변에 설치되면서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신평택' 즉 평택역과 그 주변 시가지는 일본인들에 의해 계획되고 조성된 '식민지형 신시가지'였다.

1914년 이전에 평택군은 충청도에 속해있었고 군청소재지는 팽성군 객사리였다. 그러나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이 '구평택' 대신 철도역이 설치된 '신평택'이 교통요지이자 경제중심지로서 부상하기 시작했다. 철도개통으로 시작된 이 변화는 1914년에 지방제도가 개편될 때 제도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조치로 지역사회의 재편이 완료된 것은 아니었다. 오

4)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史》, 1937, 596~597쪽.

히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일제가 의도했던 지역 재편을 장기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으므로, 1914년의 조치는 철도역 부설로 인한 평택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자 향후 본격화될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1914년 조선총독부는 충남에 속하던 평택군과 수원군 일부를 경기도 진위군에 통합시키고, 군청소재지를 진위군 현내면에서 병남면 평택리로 이전시켰다. 병남면은 병파면과 성남면, 그리고 여방면 일부를 통폐합하여 병파면의 '병'자와 성남면의 '남'자를 딴 것이었다. 또 철도역이 들어선 곳에 평택리를 신설하여 군청청사와 면사무소를 신축했다. 이후 이 '신평택'이 전형적인 철도연선의 신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1926년에 병남면을 평택면이라 개칭하고 1939년에는 평택읍으로 승격시켰다. 또 1938년에는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바꾸었다.

철도역 설치 당시 이 일대는 마을도 없는 농토였다. 철도역사 주변은 말할 것도 없고, 군청 청사가 들어선 곳도 대부분 전답이었고, 변두리에 민가가 몇 호 있을 뿐이었다.[5] 평택은 "경부선 개통 이전에는 인구가 적고 망막한 원야(原野)였으나 정거장이 설치되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고 몇해 사이에 발달하여 작은 시가지로" 성장했다.[6] 구평택 대신에 철도역이 들어선 "신평택이 이렇게 경제상 중요하게 된 것은 완전히 근래의 일"이었지만, 철도역이라는 교통상의 편리 외에도 서해안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징도 여전히 신평택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했다.[7]

5) 平澤郡誌編纂委員會, 《平澤郡誌》, 1984, 297쪽

6) 京畿道, 《京畿道案內》, 1915, 35-36쪽. 1915년에 간행된 《京畿道案內》와 1922년에 간행된 《京畿道事情要覽》에서는 경기도내의 저명한 시가지로 경성, 인천, 수원, 개성, 영등포, 평택, 안성, 이천, 여주, 강화를 들고 있다.

7) 度支部, 〈平澤地方經濟狀況〉 《財務彙報》9, 1909, 56쪽

3. 평택 시가지 발전 방향과 성장 잠재력

1904년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위한 자료로서 간행된 《最新韓國實業指針》에서는 일본인이 이주해서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해 볼만한 조선의 '好望地' '良富原'에 평택을 포함시키고 있다.[8] 흥미로운 것은 당시 경기도 굴지의 대상업지로 일본 상인들이 주요한 공략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마지 않던 안성은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다.

당시 신평택으로 이주해온 일본인들 사이에는 평택 시가지 조성 방향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되어 있었다. 서해 포구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측에서는 평택역 서쪽에 시가지를 조성할 것을 주장한 반면, 철도 교통을 중시하는 측에서는 평택역 동쪽으로 시가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시가지는 평택역의 서쪽으로 조성되었다. 당시의 의견 대립은 평택이 철도교통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수운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평택역 서쪽지역이 시가지로 조성된 것은 동쪽의 내륙평야지대 못지않게 서쪽해안과의 연계가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9]

평택역은 경부철도 연선에서 서해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한 역이다. 전통적으로 평택 군문포는 인근의 산물을 둔포 등 서해안의 포구로 실어가는 중요한 포구였기 때문에, 평택역 설치 당시에 서해 수운과 동쪽 내륙 상권의 연결은 중요한 고려대상이었다. 그래서 평택역이 들어선 뒤에도 평택과 아산(둔포)과의 관계는 계속 강조되었으며, 동쪽 내륙과 서쪽 해안의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었다. 병남면 평택리를 신설하고 군

8) 岩永重華, 《最新韓國實業指針》, 1904, 寶文館, 31쪽

9) 당시의 의견 대립을 소개한 《平澤郡地》에서는 서쪽으로 시가지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던 일본인 이시카와(石川)가 士族이었기에, 동쪽을 주장했던 평민 다카사키(高寄)의 주장을 누를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297~298쪽) 하지만 이것은 철도역이 설치될 무렵 평택의 물자유통관계 등 객관적 조건이나 구조가 아니라 일본인 사회 내부의 신분적 위계를 핵심 요인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다소 단선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청 및 면사무소를 신축하여 이전하기까지 진위군청을 임시로 군문포에 두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였다.[10)]

1909년 탁지부에서 발행한《재무휘보》9호에는 평택지방의 경제상황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실려있다. 이 보고서도 경부선 철도역이 '신평택'에 들어서면서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전제하되, 평택이 아산과 가깝다는 사실 또한 커다란 잇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평택은 [……] 안성 방면에서 수요가 있는 아산만 연안 일대 산출되는 소금을 공급하는 편리가 있기 때문에 안성과의 관계가 밀접 [……] 평택에서 안성천의 하류 약 40리에 아산으로 가는 도중에 둔포라는 시장이 있다. 아산 부근에서 산출되는 쌀은 질이 양호하고 연안에서 소금을 생산하여 안성과 죽산 방면은 물론이고 경부선 연선 옥천, 김천, 추풍령 방면으로도 분배 [……] 평택과 아산 사이를 안성천을 이용하여 하천을 오르내리는 범선은 쌀 50석에서 100석을 실을 수 있지만 간조 때는 배를 전혀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평택과 아산 방면의 경제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어 평택에 있는 화물의 집산을 발달하게 하려면 평택과 아산 사이의 도로 수축이 필요[11)]

평택은 철도역이 들어서면서 상품중계지로서 발달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서해안 지역과의 관계도 여전히 중요했다. 하지만 철도 운송이 확대됨에 따라서 서부 해안지역과의 연계성은 서해포구를 매개로 하는 화물 이출입의 측면보다는, 동쪽과 서쪽 양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품의 상호교환을 매개한다는 의미로 한정되어 갔다. 위 사료에서 보이듯 아산의 둔포는

10) 平澤郡誌編纂委員會,《平澤郡誌》, 1984, 297쪽

11) 度支部,〈平澤地方經濟狀況〉《財務彙報》9, 1909, 58쪽.

화물을 운송해 나가는 포구로서보다는 주변 지역의 산물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에 반해 1912년에 간행된《朝鮮鐵道沿線市場一斑》처럼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변 상업 상황을 파악하여 정리한 자료는 철도 운송의 중요성과 비중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경찰과 헌병의 조사와는 달리 새로 부설된 철도와의 연계를 염두에 둔 시장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철도 개통을 계기로 전국적으로는 물론이고 철도역이 부설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유통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그것은 식민 당국의 추구하는 변화였는데, 그것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밑바닥의 상품유통을 철도 운송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다.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각지의 철도역장에게 철도 연선에 있는 개별 시장에 대해 화물 집산 상태, 운송관계, 시장 부근의 생산물, 기타 관련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철도와 철도역이 상품유통의 간선이자 상업의 거점으로 제대로 기능하는지 파악하려는 것이었다. 이 때의 조사 내용은 철도역을 거점으로 각지에 정착하고 있던 일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전통적인 상품유통질서를 식민지적 유통체계에 맞추어 재편하기 위한 기초 조사였던 것이다.[12)]

그래서 철도국이 제작한 보고서에는 물자가 대부분 평택역을 매개로 이동하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어 1910년 이전의 보고서류와는 뚜렷하게 구별된다. 1910년 무렵까지 대단히 강조했던 서해안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거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는 철도를 위주로 운송 체계가 확립되면서 평택(역)은 주변에서 생산된 산물을 이출하고 철도로 운반되어 온 이입 상품을 주변 시장으로 공급하는 중계지로서 자리잡게 된다.

12) 정재정(1999),《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248쪽.

그런데 경기 남부 및 충청 북부 지역에는 경부선을 따라 오산-서정리-평택-성환에 각각 철도역이 설치되었다. 서해안과의 거리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역들도 평택역과 마찬가지로 중계역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은 있었다. 그런데 동일한 경부철도 연선의 철도역과 시가지가 차별화된 발전 양상을 보이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배후지와의 관계로 보인다. 상업적 중계지의 발전은 유력한 배후지의 존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평택역이 중계지로서 성장하는데는 경기 남부 일대의 대상업지인 안성을 배후지로 두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및 충청도 주요지, 심지어 강원도의 물산이 집산될 뿐만 아니라 안성천 유역의 평야를 끼고 있는 안성은 조선 후기에 대상업지로 성장했다. 경부철도의 부설 이후 철도역이 들어선 성환, 평택, 오산은 육로로 안성과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안성시장으로 집산된 대량의 화물은 성환, 평택, 오산 방면으로 반출되었다. 또 안성장을 매개로 공급되는 주변 일대에서 수요가 있는 화물도 성환, 평택, 오산을 경유하여 이입되었다. 다시 말해 철도가 부설된 뒤에도 안성은 대시장으로서 여전히 성황이었기 때문에,[13] 철도부설 이후 성환역, 평택역, 오산역 등의 성장 잠재력은 안성과의 연계 정도에 상당히 좌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환역, 평택역, 오산역은 모두 안성 방면의 경제를 장악하고자 애를 썼는데, 가장 우위를 차지한 곳이 평택이었다. 안성에서 오산까지는 60리, 평택 및 성환까지는 각각 40리였지만 새로 만들어진 철도역들의 상업적 승패를 결정지은 것은 안성과의 거리만은 아니었다.

> 성환과 안성간 도로는 다소 광활하고 평탄하여 운반의 편리가 있으나 안성 경제를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인지방과의 거리가 평택이나 오산보다 멀어서 철도운임의 관계로도 도저히 평택, 오산에 대적할 수 없다. 작년에 성환에 새로 시장을 개설했지만 지금까지 세력이 미미한 것도 하나의 증거이다. 물론 성환의 시장 개설은 당초 직산금광 방면의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지금 금광산업은 매우 부진하여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다. 오산과 안성 사이의 거리는 성환이나 평택 보다 멀지만 오산은 경인에 가장 접근해 있어서 철도 운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진위군 북부의 경제를 지배하여 고래로 그 시장이 유명하다. 또 서쪽 남양, 안중, 발안 등의 소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 그러나 평택은 안성, 아산 방면의 생산물을 수요지에 공급하는 편리가 있을 뿐 아니라 안성 방면에서 수요되는 아산만 연안 일대의 산출 소금을 공급하는 편리가 있기 때문에 안성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도저히 성환이나 오산과는 비교할 수 없다.[14]

이 기술을 통해 알 수 있는 바, 세 철도역의 성장 잠재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첫째, 안성시장과의 연계성, 둘째, 주변 기타 배후지(주로 경부선 서쪽)의 발달 여부, 셋째, 서울과의 연계성이다. 그런데 오산과 성환을 비교해 보면 안성시장과의 연계성이라는 점에서는 성환이 더 유리하지만 나머지 두 요소, 즉 주변 배후지의 발달 정도나 서울과의 연계성이라는 기준에서 오산이 훨씬 앞선다.[15] 이 요소들을 비교하면 오산의 성장 잠재력이 성환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국내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원거리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전국 최상위이자 최대 규모의 상업지로 성장한 서울과의 연계성이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과의 연계성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철도 운임이다. 철도가 통과하는 지방에서는 지방간 운송수단이 철도를 위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13) 度支部, 〈平澤地方經濟狀況〉《財務彙報》9, 1909, 57쪽.

14) 度支部, 〈平澤地方經濟狀況〉《財務彙報》9, 1909, 57쪽.

15)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沿線市場一班》, 1912, 87쪽에서는 "안성에서 성환으로 통하는 도로가 있지만 험악하여 운송이 불편"하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 부설 이후에는 지방경제의 승패가 철도 운수의 경제성 여부에 의해 판가름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택의 가장 유리한 점은 안성과 아산의 중간에 위치하여 양쪽을 증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다. 안성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특벌히 강조하고 있고, 그밖에 소금이나 해산물 산지인 아산지역과 가깝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평택은 철도에 의해 서울 및 다른 원거리 지방과의 연계성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여러 요인들에 힘입어 평택은 유력한 중계지로서 성장해 갈 수 있었다.

> 평택은 이렇게 경제상 중요한 요소를 겸비하였으나 원래 평택은 결코 생산지가 아니다. 평택에서 수출되는 물품은 그 부근의 산물로 평택 자신의 산물이 아니오, 오직 평택을 경유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평택은 소비지가 아니라 평택에 수입되는 화물은 다시 평택을 통과하여 부근 시장에 산포되는 것이니 따라서 평택의 가치는 중계지라는 점에 있다. 따라서 지세의 이점이라 함과 철도의 편리라 하는 것이 모두 이런 원인이 된다.[16]

철도 부설 이후 평택을 경유하는 화물량은 점차 증가했다. 심지어 철도역 설치 당시 평택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기도 했던 배후지 안성의 '중계상업지'로서의 역할까지도 상당부분 넘겨받게 된다. 그만큼 안성장의 화물 집산 기능은 약화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안성은 일용품의 소매상업 권역까지도 평택에 분할하기에 이른다.

> 미곡산출지로 저명한 평택은 경기도 남단 충청남북도 추요지에 인접하여 동서 백여리 남북 삼십여리에 亘한 광양 중앙에 위치하여 인구 약 15만으로서 근래 제 물산의 생산 병 집산이 日增함은 공지하는 바이라.

16) 度支部, 〈平澤地方經濟狀況〉《財務彙報》9, 1909, 58쪽

> 특히 미곡의 반출로 논하면 전조선 제일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지며 [……] 평택역에 특급열차의 정차치 아니함은 그 이유를 양해키 難하며 일반 여객의 불편이 불소함으로 작년 4월 중 당지 발전회에서 此의 진정서를 제출함도 有하되 우금 실현을 見치 못함으로 유감천만이라고 일반은 불평을 唱하더라[17]

위의 기사처럼 1920년대 전반이 되면 인구 15만의 대상업지이자 전국에서 미곡이 가장 많이 반출되는 철도역으로 위세를 떨치는 평택역에 특급열차를 정차하지 않는 현실을 개탄하기에 이른다.

4. 평택과 안성

조선후기에 전국 규모의 대시장으로 성장한 안성은 지방 사이의 광역 상업을 중계했다. 그러나 경부철도로 대표되는 식민지 간선유통망에서 배제되면서 그 위상이 약화되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걸친 내륙의 지역내 교역은 여전히 안성장이 주도했지만, 철도 연선에서 배제된 안성 주민들은 전통적인 상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약화된 위상을 되찾고자 부심했다. 그것을 위해 마련된 방안이 철도 부설 운동이었다. 상업지로서 안성의 옛 명성을 찾아오기 위한 방안으로 간선철도와의 연결은 숙원사업이 되었다. 결국 지역 주민의 철도부설 운동이 성과를 거두어 1925년 11월 1일에 안성과 천안을 연결하는 안성선이 개통되었다. 안성에서는 철도 부설과 새로운 철도촌 건설이 평택처럼 일본인 상권 확대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구개정사업까지 추진했다. 이런 움직임은 평택 주민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17) 〈평택역 현상과 불평〉《동아일보》 1923.2.15

진위군 평택발전회의 발기로 거 11일 오후 7시부터 평택연무장에서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발기인측으로 본 대회 취지를 듣건대 진위지방은 2만여정보의 畓으로 年産 40만석의 곡물집산지인 평택은 본도 뿐 아니라 전선의 우수한 지위를 20여년 래 점득하였던 바, 금번 경남철도회사에서 천안아나성간 철도부설공사를 昨冬부터 착수하고 今秋 신곡출회기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착착 진행중인즉 운수개통되는 시는 안성서 평택으로 운반되는 곡물 급 제반 화물은 우마차와 기차의 운임고저 관계로 전부 천안으로 운송되고 평택은 차로 인하여 경제상 다대한 타격을 蒙하여 발전을 수로에 歸할 터인즉 평택시민의 사활문제인데 차 대책으로 평택안성간 도로 중 안성군 공도면 구내에 있는 3개소의 고개를 개통하여 평원한 도로를 成케 하면 안성물화의 천안을 경과하여 수송함과 우마차로 평택에 수송함과 비하여 임금으로는 천안 경과가 低하나 시간으로보아 수일이 신속하고 又는 안성화물이 대부분 인천경성 방면에 수송될 터인즉 도로만 완전히 수선되면 별로히 영향이 없을 것이라 하며 류창근 씨 사회 하에 의사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다고.

일. 경기도청에 진정하고 지방비 보조를 청구할 건

일. 안성 평택간 도로 수선의 건

일. 안성군 당국에 양해를 구할 건[18]

1925년 3월에 열린 시민대회는 철도 부설 공사를 시작한 안성과의 경쟁보다는 안성과 철도로 연결되는 천안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결의했다. 이미 상업중계지로서는 안성보다 우위에 있지만, 배후지 안성의 물자를 천안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것이 핵심이었다. 천안과의 경쟁에서도 평택이 전국 수위 시장인 서울에 더 가깝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

18) 〈평택시민회〉《동아일보》1925.3.14.

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평택발전회는 평택의 지역 유지 즉 민족별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역간 상권 경쟁은 일본인과 조선인 상인이 협력하며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성 상권은 조선인들이 장악했고 평택 상권은 일본인들에게 있었다는 점, 안성은 조선후기 이래 전통적인 장시상업의 중심지였던 반면, 평택은 철도역을 매개로 급성장한 근대적 중계상업지였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1920년대에 접어들어 안성과 평택 사이의 경쟁 및 의존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시기에 새로 구축된 식민지적 유통체계는 민족간, 지역간 배제와 경쟁 관계를 기축으로 하면서도 상호 경쟁적 의존 구조를 형성했던 것이다.

그런 구조는 개별 지역 안에서도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철도와 신작로가 지나는 요충지 평택에는 근대적인 상업 및 금융 기능이 집중되었고, 군청, 경찰서, 우편소, 법원출장소, 미두검사소, 전등과 전화, 학교와 상업회사, 상설점포, 요리집 등 유흥업소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평택역 일대의 발달과는 별개로 조선인들 대다수는 여전히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에 의존하고 있었다. 평택역이 신시가지로 발달하게 되자 조선인들이 이용하는 장시가 새로 개설되었다. 농업이 상업화되고 농민이 상품경제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었지만, 여전히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농촌 장시를 이용했다. 장시를 거치지 않고 철도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품의 이출입 규모가 점점 커졌지만, 장시는 여전히 지역주민들이 생활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다. 장시는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구까지 실현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네트워크로서 여전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택역을 중심으로 평택은 경기 남부의 주요 중계상업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대시장으로서의 안성장을 대체할 수는 없었다. 평택에서도 1910년을 전후하여 평택장(5.10), 서정리장(2.7), 안중장(1.6)이

개설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이용되었는데, 평택역의 눈부신 성장에도 불구하고 안성장(2.7)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5. '새로운' 평택 지역사의 모색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평택 시가지가 전부 파괴되자 전쟁 뒤에 평택역의 동쪽 지역이 시가지로 새로 개발되었다. 해방 이후 형성된 분단구조와 냉전체제 하에서 서해안과의 연결성은 중요성을 상실했다. 일제시기에 조성되었던 원평동 일대의 시가지가 파괴되자 지금의 평택시, 즉 평택역 동쪽 일대에 '신평택'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서쪽으로 향해있던 역이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었고, 역 앞에는 방사형 도로가 개설되었다. 이렇게 해서 조선후기 이래 일제시기까지 주목받았던 내륙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중간 교역지로서 평택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의미를 잃어버렸다.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그러한 경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고, 팽성읍과 원평동 일대의 구평택'들'에 대한 기억은 역사 속으로 가라앉았다.

평택의 근대는 그렇게 기차와 함께 왔다. 평택에는 적어도 두 곳의 '구평택'과 한 곳의 '신평택'이 있다. 오늘날 평택의 중심지는 평택역을 끼고 있는 평택동이고, 시가지는 평택역 동쪽에서 경부고속도로 방향으로 팽창해 왔다. 근대 평택의 역사는 신평택이 평택이 되고, 그곳이 구평택으로 쇠퇴하면서, 또 다른 중심지가 부상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방향은 동쪽 내륙을 향했다. 그러한 도시 발전의 연장선에 있는 상업사 역시 구평택과 신평택의 세력 교체, 그 성쇠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동쪽으로만 향하던 평택의 상업사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 평택항의 개항과 한국 최대 자동차 수출항으로서의 성장은 평택이 다시 한번 육운과 해운을 연결하는 교역거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세기의 사회변동 속에서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인구 팽창과 공간 확장으로 인해 새로 조성된 신도심으로 도시 기능이 집중되고 구도심(원도심)이 낙후되는 등 공간적 변화가 나타났다. 평택 역시 평범한 농촌에서 철도 연선의 상업중계지, 국제무역항으로 변해왔다. 21세기 접어들어 고속철도가 부설되고 기존 평택역의 북쪽에 평택지제역이 설치되었다. 평택이라는 도시는 또다시 지각 변동의 계기를 맞이했으며, 멀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신평택'의 등장이 등장할 수도 있다. 교통망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평택에서 도시 기능이 집중되는 거점 지역은 널뛰듯 바뀌었으며 그것은 지역정체성과 도시의 발전 전망에도 영향을 끼쳤다. 근대 이후 평택의 시장과 상업, 지역 문화는 식민지 경제구조의 재편, 한국 경제의 교역구조 및 운송 네트워크의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되었다.

도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로운 거점을 만들어낸다. 앞으로도 또 다른 '신평택'이 등장할 것이고, 주민과 문화가 달라지고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기억이 변화함에 따라 평택의 지역정체성 역시 거듭 재구성될 것이다.

일제의 침략과 더불어 철도촌으로 출발한 근대 평택이라는 장소에는 다층적 시간대와 혼성적 문화가 중첩되어 있다. 그것들을 읽어내려면 철도가 매개했던 여러 차원의 변화를 각각 또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택 지역사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구조적 주름이 아로새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면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 일상의 장소와 미시적 삶의 변화가 역동했다. 평택의 역사적 변화를 다원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평택이라는 장소를 복합적인 삶의 역동을 관찰할 수 있는 지역사의 공간으로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19]

19) 허영란, 〈지방사를 넘어, 지역사로의 전환〉《지방사와 지방문화》20-2, 2017, 347~379쪽.

근대도시 평택[1]과 조선인 유지층

김해규/평택인문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평택역 설치와 근대도시의 발달
3. 1920년 전후 조선인 유지층과 성격
4. 1930, 40년대 조선인 유지층과 동향
5. 맺음말

1) '근대도시 평택'의 범주는 1905년 경부선 평택역이 설치되면서 철도역 앞에 발달한 근대도시만을 의미한다.

1.머리말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전면 개통되면서 평택역전에는 '평택(平澤)[2]' 또는 '평택리'라는 근대도시가 발달했다. 평택(平澤)은 이전의 행정과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조선시대 도시와는 달리, 상공업 중심의 근대도시였으며 행정과 교통,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었다. 또 일제의 침략과 지배, 수탈적 목적이 반영되어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 공간이나 상공업활동 공간이 구분되었으며, 사회·문화적으로도 일정하게 구분된 양상을 보였다.

근대도시가 발달하고 평택지역의 중심이 철도역 앞으로 이동하면서 평택(平澤)에는 일본인 유지층과 함께 상공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조선인 유지층(有志層)[3]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사상적으로도 전통의 양반층과 구별되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다른 성격을 보였다.

일제강점기 평택(平澤)의 유지층(有志層)은 상공업활동을 통해 부(富)를 축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사업이나 기관에 기부하거나 빈민구제를 통해 사회적 신망(信望)을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진출하여 식민당국의 신용을 획득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192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인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전개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는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자본을 유치하거나 합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식민당국의 신용(信用)을 획득하고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시체제기 적극적인 친일부역을 하는 것도 공통된 양상이다.

2) 이하 '평택(平澤)'은 평택역 앞에 새롭게 형성된 근대도시만을 지칭하는 용어임을 밝힌다.

3) 지수걸은 일제강점기 지역 유지(有志)의 기준으로 일정한 경제기반과 함께 식민당국의 신용(信用), 사회적 신망(信望)과, 인망(人望)을 꼽고 있다.

일제강점기 유지층(有志層) 연구는 지수걸[4]이 선구적이다. 지수걸은 일제강점기 식민당국의 신용(信用)과 사회적 신망(信望), 인망(人望)을 갖춘 인사들을 유지층(有志層)으로 분류했으며, 일제는 이들을 매개로 식민지 지방지배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유지층(有志層) 연구는 많지 않았다.[5] 2021년과 2022년 본인이 이성열, 안종철, 이민훤에 관한 소논문을 발표했고, 장연환은 대한제국시기의 이범창과 이범철을 연구한 사례가 있지만 조선인 유지층의 성장배경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근대도시 평택의 유지층(有志層)에 대한 연구다. 본인은 근대도시 평택(平澤)에서 유지층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성격은 무엇인지 밝히려고 한다.

2. 평택역 설치와 근대도시의 발달

경부선 평택역 앞에 발달한 근대도시 평택은 식민지 근대도시다. 식민지

4) 지수걸,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1930.11~1932.10)〉,《역사와 현실》20, 한국역사연구회, 1996; 〈日帝下 公州地域 有志集團 硏究 –事例1 徐悳淳(1892~1969)의 '有志 基盤'과 '有志 政治'〉,《역사와 역사교육》1, 웅진사학회, 1996; 〈日帝下 公州地域 有志集團 硏究 –事例 2 : 金甲淳(1872~1960)의 '有志基盤'과 '有志政治'〉,《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 II 한국민족운동연구》, 나남, 1997; 〈日帝下 公州地域 有志集團 硏究 –事例3 池憲正(1890~1950)의 '有志 基盤'과 '有志 政治'〉,《역사와 역사교육》2, 웅진사학회, 1997; 〈일제하 충남 조치원 유지, 맹의섭(1890~?)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역사와 역사교육》3-4합본, 웅진사학회, 1999;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역사비평》90, 역사비평사, 2010

5) 김해규, 〈안종철의 생애(生涯)와 식민지적 삶〉,《평택문화연구》제3집, 평택문화원, 2021; 김해규, 〈이성열의 생애(生涯)와 식민지적 삶〉,《평택인문연구》 제1집, 평택인문연구소, 2022(발간 예정); 장연환, 〈이범창과 이범철의 행적〉,《평택문화연구》 제3집, 평택문화원, 2021

근대도시는 외압적 지배 세력이 식민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6]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지배와 수탈이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도시는 상업적 화물집산지와 식민본국 사이를 경제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계지에 건설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제 시기에 건설된 식민지 근대도시는 공간적, 사회경제적으로 양분되었으며, 도시의 여론을 일본인이 주도하거나 일제에 협조적인 조선인들을 도시경영에 참여시켜 운영되었다. 공간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거주지와 사회·경제활동 공간이 일정하게 구분된 것이 특징이다. 식민지 행정에 있어서도 일본인이 주요 관직에 포진하면서도 조선인 유지층을 하부조직에 배치하여 지배층을 포섭하고 이들을 매개로 지역민을 지배하고 수탈하였다. 이 같은 이중적 공간구조와 사회경제구조를 통해 일제는 조선인들의 저항과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식민 지배와 수탈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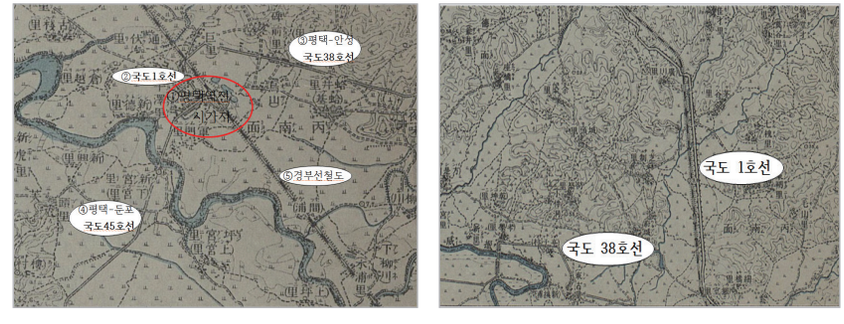
평택(平澤)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 철도가 전면 개통되기 전부터 유망(有望)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1904년에 간행된 《최신한국실업지침(最新韓國實業指針)》에는 일본인이 이주하여 농업이나 상업에 종사할만한 유망지로 평택[7]을 꼽았으며, 1911년에 편찬된 《조선철도선로안내》[8]에도 "평택역은 통복포와 안성천 변에 있고, 충청도 평택군과 인접했으며, 동서(東西) 5리 이내가 비옥한 평야지대이고 한반도 유일의 곡산(穀産)지대다.(중략) 이밖에 군문포가 가까워 백화(百貨)와 곡물(穀物)의 운송이 편리하며 철도의 편리함을 이용해 경성, 인천을 통해 외국으로 운송하기에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다.[9]

평택역 설치 후 평택역 앞은 빠르게 근대도시로 발전했다. 우선 평택역을

6) 현재열, 김나영, 〈비교적 전망에서 본 식민지도시의 역사적 전개와 공간적 특징〉, 《석당논총》 제50권,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2011, 655~689쪽
7) 허영란, 〈1910년대 경기남부지역 상품 유통구조의 재편〉, 《역사문제연구》제2호, 1997, 167쪽
8) 조선총독부철도국, 《조선철도선로안내》, 1911
9) 조선총독부 철도국 편, 《조선철도여행안내》, 1915, 38쪽.

중심으로 근대도로망이 조성되었다. 평택역 중심의 근대교통망 가운데 가장 먼저 건설된 것은 국도 45호선 평택역-둔포장 구간과 국도 38호선 평택-안성 구간이다. 1918년(대정7)에 작성된 지도1)에도 평택-둔포 간 국도 45호선과 평택-안성 간 국도 38호선은 건설되었지만 국도1호선은 아직까지 평택역을 벗어나 안성천을 건너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국도1호선 건설이 늦어진 것은 안성천교량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1922년(대정11)에 작성된 지도1)의 좌측 지도에는 오산-평택역 사이의 국도1호선이 잘 정비되었고, 국도 38호선도 평택역전을 벗어나 고덕면 방축1리(효학동)에서 아래소청교를 건너 오성면 신리 방면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 1918년 지도에는 평택시가지가 평택역 앞과 서남쪽 국도 45호선 좌우에 집중적으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을 '본정통'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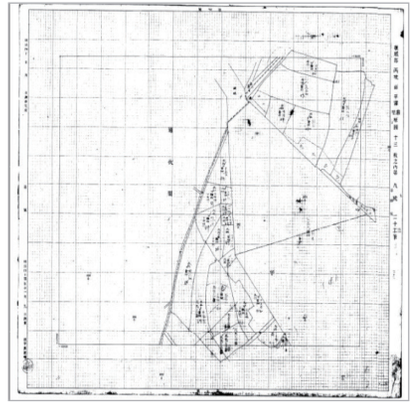
〈지도 1〉 대정 7년(1918) 및 대정11년(1922) 평택역 부근 지도



반면 1939년 평택시가지도는 1918년 지도와는 판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지도 2〉 1912년 《토지조사부》의 평택리와 1939년 《평택군세일반》의 평택시가지





〈지도 2〉의 우측은 1939년 작성된 《평택군세일반》[10]에 수록된 지도이다. 위와 같은 도시구조가 형성되게 된 것은 1910~30년대 평택지역의 중심이 근대도시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주요 관공서와 공공시설이 밀집했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1920~30년대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1932~33년 사이 시구 개정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시구(市區) 개정은 평택역 앞의 연못을 메우고 도로를 정비하여 시가지를 바둑판 형태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평택리의 시구 개정은 1933년 7월에 완성되었다.[11] 이에 따라 평택역과 국도 1호선, 국도 45호선을 중심으로 바둑판 형태의 구획화된 도시가 형성되었다.

평택(平澤)이 근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인구가 증가했다. 1913년 진위군청 이전운동이 전개되었던 시기 평택리의 인구는 일본인 65호, 조선인 500여

10) 평택군, 《평택군세일반》, 종로도서관, 1939
11) 《조선신문》 1933년 9월 4일.

호라고 하였다.[12] 1926년(대정 15) 《경기도세일반》[13]의 인구는 11,834호 66,204명이었다. 이 가운데 평택(平澤)에는 332호 1,552명이 거주했다.

〈표 1〉 《경기도세일반》(1926)의 진위군 인구

총수		내 역					
		내지인		조선인		외국인	
호수(戶數)	인구(人口)	호수(戶數)	인구(人口)	호수(戶數)	인구(人口)	호수(戶數)	인구(人口)
11,834	66,204	166	642	11,622	65,440	46	122

1924년 인구조사[14]에 따르면 평택(平澤)의 일본은 114호 412명이었다. 그러므로 1,552명 가운데 일본인 수를 제외하면 평택(平澤) 거주 조선인은 1,140명 내외로 판단된다. 그러면 평택(平澤)의 조선인의 직업 구조는 어땠을까. 이것을 명확하게 밝혀줄 사료는 없지만 1929년 작성된 《진위군세일반》의 직업별 인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표 2〉 1929년 《진위군세일반》의 직업별 인구[15]

직업	내지인		조선인		외국인		합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농업, 목축, 임업	44	181	10,759	63,198	11	26	10,813	62,405
어업과 제염업	-	-	24	174	-	-	24	174
공업	16	56	80	412	1	1	94	469
상업과 교통업	47	185	423	2,175	21	76	491	2,436
공무(公務)와 자유업	63	233	401	1,605	1	1	465	1,839
기타 직업	3	7	57	334	-	-	60	341
무직업과 직업으로 신고된 자	2	4	50	196	-	-	52	200

〈표 2〉 가운데 주목되는 항목은 공업, 상업과 교통업, 공무와 자유업이다. 당시 평택지역에서 근대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평택리, 서정리,

12) 조선총독부, 〈군(郡) 청사 이전에 관한 건〉, 국가기록원, 1913년 9월 18일.
13) 경기도, 《경기도세일반》, 종로도서관, 1926
14) 《동아일보》 1924년 7월 4일자
15) 진위군, 《진위군세일반》, 종로도서관, 1929.

안중리 정도였다. 그 가운데 안중리와 서정리는 상설시장이 아니어서 5일장이 아니면 상행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상시 거주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공업 인구나 공무원들은 평택(平澤)에 거주했을 것이다.

3. 1920년 전후 조선인 유지층의 형성과 동향

근대도시 평택에서 성장한 유지층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협력하며 성장한 관료층이고, 다른 하나는 평택장을 중심으로 상공업활동을 통해 성장한 상공유지층이다. 하지만 사료의 한계로 1920년 이전의 상공업 발달 과정과 조선인 유지층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다만 몇몇 사례를 통해 추정해보겠다.

평택리의 유지층들이 집단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1912~14년 사이의 '진위군청 이전 문제' 때였다. 진위군청 이전 운동은 평택리의 일본인 유지(有志)들의 주도와 조선인 유지층의 협조 가운데 이뤄졌다. 1912년 7월에 올린 청원서에는 진위군 병파면 평택리의 일본인 구사가와 가메타로(草川龜太郎), 니히라히사(仁平久庸), 시이타니 게이타로(椎谷慶太郎), 다카사키 후사키치(高崎房吉), 히로이케 사쿠한(廣池作半)을 비롯한 33명이, 평택리의 조선인 김원기(金元基) 27명, 비전리의 권씨 외 9명, 성남면 이장 최씨를 비롯한 7명, 오타면 이장 박씨를 비롯한 10명과 함께 올리고 있다.[16] 이들은 '진위군청 이전' 문제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의 유지(有志)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1913년 8월 27일에도 다시 한번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의 청원서는 1913년 9월 경기도지사를 통해 조선 총독 데라우치에게 상신[17]되었다. 청원서에는 '군(郡) 청사 이전 문제'는 병파면[18] 평택리에 거주하는 일본인 이시카와 타이조(石川耐藏) 외 7명[19]이 진정서를 올리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군청(郡廳)이 교통이 불편한 북쪽(진위군 읍내면)에 위치하여 식민지배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주무로 근대교통이 편리한 평택리(평택역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20] 다음은 〈군청 이전에 대한 청원서〉 다.

군청(郡廳) 이전에 대한 청원서

본 지역은 충청남도 평택군청 부근에 있지만 본래 경기도 진위군에 속하기 때문에 진위군청을 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중에 경기도청에 청원했는데 아직 이전의 결정이 되지 않은 바, 이후 본 지역의 발전에 따라 점점 이전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결정되도록 결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에 삼가 청원합니다.

▶ 주소 : 경기도 진위군 병파면 평택리

▶ 일본인 청원자 대표 : 이시카와 타이조(石川耐藏), 니히라이사(仁平久庸), 시이타니 게이타로(唯谷慶太郎), 다카사키 후사키치(高崎房吉), 히로이케 사쿠한(廣池作半)

16) 경기도, 〈군청사 이전에 관한 건(746호)〉, 1912.

17) 조선총독부,〈군(郡) 청사 이전에 관한 건〉, 1913년 9월 18일 경기도지사 부신

18) 1913년 당시 평택역은 진위군 병파면 평택리에 소재했다. 그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성남면과 통합되어 '병남면'이 되었고, 이것이 1931년 '평택면'으로 개칭되었다.

19) 1913년 당시 진정서를 올린 7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이시카와 타이조(石川耐藏), 니히라이사(仁平久庸), 시이타니 게이타로(唯谷慶太郎), 다카사키 후사키치(高崎房吉), 히로이케 사쿠한(廣池作半)과 조선인 김씨, 조씨 등이다.

20) 조선총독부, 〈군(郡) 청사 이전에 관한 건(746호)〉, 1913년 9월 18일, 국가기록원.

▶ 조선인 청원자 총대 : 정응설, 조필원, 박용태, 이흠(李欽), 노지평, 김낙영

청원서의 조선인 총대에는 1912년 청원서의 조선인 총대였던 김원기가 빠지고 정응설, 조필원, 박용태, 이흠(李欽), 노지평, 김낙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주소지가 평택리인 것으로 볼 때 평택(平澤)에 거주했던 유지(有志)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상공유지층이었다. 1913년 3월 25일《매일신보》에는 "京釜線 平澤驛前에 住居하는 實業家 朴容泰, 趙弼元, 鄭應卨씨 등 20여 인이 本月 19일에 殖産組合을 組織하고 資本을 鳩聚하여 開墾, 植林 등 사업을 발전하기로 목적한다더라"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청원서의 총대였던 박용태, 조필원, 정응설이 실업가(사업가)였고 개간, 식목사업을 목적으로 '식산조합'을 설립했음을 말하고 있다.[21] 이것은 당시까지 근대도시 평택(平澤)을 대표하는 유지층은 대부분 상공업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 3월 25일《매일신문》에는 평택역전 만세 시위 관련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22] 이들은 1919년 3월 11일 저녁 평택역전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검거됐는데 핵심 인물은 이도상, 목준상, 한영수, 검거됐다가 방면된 안종철, 평택공립보통학교 학생 안충수 등이었다. 이도상과 목준상은 비전리 출신으로 평택장의 미곡상이었고, 안종철과 안충수는 숙부와 조카 사이로 1920, 40년대 초 평택(平澤)에서 가장 유력했던 유지(有志)였다.

1920년 전후 평택(平澤)에도 이익단체, 사회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들 단체는 공공사업 후원, 선량한 풍속 배양, 민중계몽을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지층의 단결과 상호 이익도모, 지역사회의 신망(信望) 획득, 식민당국으로부터 신용(信用) 획득이 목적이었다.

21) 《매일신보》, 1913년 3월 25일.
22) 《매일신보》, 1919년 3월 25일.

평택발전회(平澤發展會)는 창립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매일신문》에 1919년 11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보도된 것으로 볼 때 1910년대 후반에 창립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공공사업 장려, 선량한 풍속 배양을 통한 개발 확장'을 목적으로 했다. 1919년 개선된 회장은 한붕석, 부회장 신찬우, 협의원 이성열, 이보선, 유창근, 임화섭, 이학준, 김문환, 이하선, 서병직, 남상은, 최한긍, 서상복, 회계 정학모, 서기 성주한, 김기현이었다.[23] 평택발전회(平澤發展會)는 1923년 1월 28일 소비절약 선전 강연을 개최하기도 했는데[24] 이후 활동은 보도되지 않고 있어 해산된 것으로 보인다.

1910년대 후반에는 미곡수출상회[25], 축산조합[26], 평택미곡매매조합[27] 같은 회사와 이익단체가 설립되었다. 미곡수출상회는 평택미곡상동업조합에서 설립했다. 미곡상동업조합은 1914년 이후 평택역으로 집산(集散)되는 수출용 미곡검사를 위탁 운영했는데 미곡 수출만을 담당하기 위해 미곡수출상회라는 자회사를 따로 만든 것이었다.[28] 평택미곡매매조합은 평택장과 평택역 앞의 미곡 매매가 일정한 장소가 없고 거래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불평이 속출하자 평택역 앞에 매매시장과 창고업을 겸하는 회사로 설립되었다.[29]

1919년 11월 23일에는 '평택진흥회(平澤振興會)'가 조직되었다. 평택진흥회는 '식산흥업(殖産興業)의 발달을 도모하고 운수 교통 등 공익사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익단체다. 이 단체에는 조선인 120여 명이 가입했고 일본인 석천내장(石川耐藏)이 회장을 맡은 최초의 조일합작단체였다. 임원은 회장 석천내장(石川耐藏), 부회장 윤도식, 간사 일강송홍수(一

23) 《매일신보》, 1919년 11월 6일.
24) 《동아일보》, 1923년 2월 6일.
25) 《매일신보》, 1917년 12월 5일.
26) 《매일신보》, 1917년 10월 25일.
27)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
28) 미곡수출상회는 1주를 100원으로 하여 최대 1천 주를 모집하여 설립했다.
29) 《매일신보》, 1919년 11월 5일.

岡松弘樹), 산기언치(山崎彦治)였다.[30]

앞서 소개한 1910년대 후반의 단체와 회사에서 주목되는 것은 참여한 인물들이다. 특히 1919년 11월 1일 창립된 평택발전회의 신찬우, 이성열, 유창근, 이하선, 성주한은 1920, 30년대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유지(有志)들이어서 이 시기를 통해 근대도시 평택(平澤)의 상공유지층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지(有志)들도 영향력에 따라 일정한 층위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역의 공공사업지원이나 구제활동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1920년 5월 개최된 평택연합대운동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평택연합대운동회 평택곡물매매조합이 주최하고 일반시민과 평택공립보통학교와 평택심상고등소학교가 참여했으며, 지역 유지(有志)들이 후원했다.[31] 유지(有志)들의 후원은 개개인의 사회적 위치(位置)나 신망(信望)과 관련 있다. 다음은 후원자 명단이다.

> "李圭泰 100圓, 徐丙稷 90圓, 李成烈 30圓, 鄭鶴謨 30圓, 南泰熙 30圓, 李河善 20圓, 李炯哲 20圓, 金鎭圭 20圓, 徐相馥 20圓, 安鍾哲 20圓, 金文煥 20圓, 成周漢 20圓, 崔漢肯 20圓, 韓禹敎 10圓, 李弘商 10圓, 吳壽泳 10圓 徐相浩 10圓, 韓明錫 10圓, 李晉善 10圓, 鄭成敎 10圓, 李學峻 10圓, 申贊雨 10圓, 未賢吉 10圓 朴○謙 10圓, 南相殷 10圓, 朱榮煥 5圓, 崔華燮 5圓, 睦俊相 5圓, 禹兢夢 5圓, 高崎房吉 10圓, 尹應九 5圓, 尹錫東 5圓, 李德相 5圓, 閔光植 5圓, 韓允敎 5圓, 柳現 10圓, 崔承烈 5圓, 徐丙復 5圓, 徐丙德 5圓, 李時英 5圓, 金商國 5圓, 李鐘九 10圓, 申舜浩 5圓, 朴鳳鎭 5圓, 李漢圭 2圓, 三苦磯介 3圓, 濱田源 3圓, 金熙敬 3圓, 李圭翰 3圓, 梅村由吉 3圓, 柳昌根 30圓 合計 689圓"

30) 《매일신보》, 1919년 11월 30일.
31) 《매일신보》, 1920년 5월 2일.

위 명단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이규태, 서병직과 같은 인물이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재력(財力)이나 신망(信望)이 가장 높았던 인물임에 틀림 없다. 그런데도 1920~30년대 지역사회운동이나 상공업활동, 관료조직에서 이름을 발견할 수 없으며, 1938년 《농지개혁시 피분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32]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1920, 40년대 지역사회 유지로 활동한 이성열, 이하선, 안종철, 성주한, 신찬우, 신순호, 윤응구, 유창근이 상당 금액을 후원했으며, 1919년 3월 11일 평택역전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옥고를 치른 목준상, 이도상의 동생 이덕상이 참여한 것도 이채롭다. 반면 근대 이후 평택지역의 가장 큰 행사였으면서도 일본인은 고기방길(高崎房吉)을 제외하고는 후원자가 없어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인과 조선인의 정서적 거리가 제법 멀었음을 알게 한다.

1921년 일본의 오이타현(大分縣) 오이타시에서 개최된 오이타 공진회(大分共進會)[33]는 1921년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60일 동안 개최되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공진회장에 조선관을 특설하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찰단을 조직하여 관람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 진위군에서도 시찰단이 조직되었다. 진위군청에서 조직한 시찰단원은 인솔자 격인 군청 서무주임과 각 면장(面長), 조선인 유지 2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기간은 4월 15일에서 2주 동안이었다.[34] 공진회 시찰단은 지역사회의 유지층이면서 진위군청의 신용(信用)을 획득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3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개혁 시 피 분배 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1985.
33) 1921년 3월 15일부터 5월 13일까지 60일간 일본 규슈(九州) 오이타현(大分縣) 오이타시(大分市)에서 개최되었고, 공식 명칭은 제14회 규슈 오키나와 8현 연합 공진회이다.
34) 《동아일보》 1921년 4월 6일.

"오까마쓰(진위군청 서무주임), 박원용(군서기), 김교영(오성면장), 서상언(실업가), 이성열(평택리 신사), 김문환(평택리 신사), 김정현(평택리 신사), 유창근(동아일보 평택분국장), 장윤식(매일신보 평택분국 기자), 김봉규(서면 신사), 황학렬(농업), 김학수(부용면 신사), 이두종(고덕면장), 이필성(서탄면장), 원제학(송탄면장), 원제동(송탄면, 농업), 이민화(포승면장), 조길구(포승면, 농업), 이민의(현덕면장), 유지소(현덕면 신사), 청북면 야판농장(野坂農場) 직원 2명"

위 명단에서 주목되는 인물은 1920, 30년대 평택지역의 면장(面長)을 지내며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끼쳤던 박원용, 김교영, 서상언, 이두종, 이필성과 이성열, 김문환, 김정현, 유창근, 장윤식 등 평택(平澤) 유지들이다. 1920년대 초반에서 해방될 때까지 근대도시 평택의 정치·경제·사회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1924년 3월 21일에는 '진위군학교평의원 선거'가 있었다. 학교평의회는 갑오개혁 후 근대교육을 실시하면서 설치된 일종의 학교운영위원회 같은 단체였다. 기본적인 역할은 학교비의 세입과 세출, 예산, 기부금을 심의하였는데 임기는 3년이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교육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관변단체 성격이 강해서 지역 유지층의 정치·사회활동의 통로가 되기도 했다.

진위군학교평의원 선거는 1924년 3월 21일에 실시되었고 4월 1일에 당선자가 발표되었다.[35] 학교평의원에는 각 면(面)의 대표적인 유지들이 당선됐는데 병남면(평택면)의 이성열, 고덕면의 안재봉, 현덕면 이종태, 오성면 정홍섭, 서면 장남진, 서탄면 유인창, 송탄면 홍학유, 청북면 안영균, 포승면 이원서, 북면(진위면) 양계원, 부용면 이한규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 지

35) 《동아일보》, 1924년 4월 7일.

역에 수백 년 세거한 가문이면서 지주였고 일정한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여론 형성이나 주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1921년 청년유지층의 계몽운동단체로 출발한 진위청년구락부와 평택청년회, 진위청년회 창립도 평택발전회, 평택연합대운동회 기부자, 오이타 공진회 시찰단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평택지역 최초의 청년단체인 평택청년구락부는 1921년 5월에 창립총회를 열었다.[36] 당시 주요 임원은 유창근(부장), 신찬우(부부장), 장윤식(간사), 김정현(간사), 이병갑(서기), 박노수(회계), 오맹근, 한우, 정인창, 김경철□최인원□이익래(이상 평의원)였다. 평택청년구락부는 창립 후 논의과정에서 같은 해 6월 11일 평택청년회로 재창립되었고[37], 6월 19일에는 명칭을 진위청년회로 바꾸고 발회식을 가졌다.[38] 이와 같은 과정을 주도한 인물은 신찬우, 유창근, 김학수, 이하선이었고 이익래, 민광식, 김문환, 장윤식, 성주한, 김정현, 이민두도 동참했다.

이처럼 1910~20년대 초반에는 일제의 식민지정책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지층도 일정한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1920년대를 지나면서 근대적 의식과 상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력, 사회적 신망(信望)을 갖춘 인물들이 성장하면서 평택 사회의 유지층을 형성했음을 알게 한다.

4. 1930, 40년대 조선인 유지층과 동향

지수걸은 일제하 지방 유지들은 '근대 이행기의 정치변동 과정에서 재산(토지)과 사회활동 능력을 가진 이들, 다시 말해서 다양한 공직활동을 통해

36) 《동아일보》, 1921년 5월 18일.
37) 《매일신보》 1921년 6월 18일.
38)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

당국의 신용(信用)과 사회적 인망(人望)을 획득한 재지 유력자'라고 정의했다.[39] 유지들은 공직 수행의 대가로 상당한 특권과 지위를 보장했다는 것이다. 광의적으로는 일제강점기 평택(平澤)의 유지층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근대도시 평택의 유지층을 성격에 따라 분류(分類)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토착적 기반은 크지 않지만 평택에서 상공업활동을 통해 부(富)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신망(信望)을 얻어 관직이나 공직에 진출한 자, 둘째는 토착적 경제기반을 토대로 근대도시 평택에 진출하여 상공업에 투자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자, 셋째는 일제 강점 전후의 관료 출신으로 관직 및 공직에 진출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부(富)를 축적한 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 근대도시 평택이 상공업과 물류 유통의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안성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평택 역전으로 진출하여 부(富)를 축적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192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평택장을 중심으로 경제·사회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다가 1920년대 후반 근대교통이 확충되고 근대적 기업이 출현하면서 일본인들과 연대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했다. 부(富)를 축적하고 사회적 신망(信望)을 획득한 조선인 자본가 중에는 1930년대 지방자치 실시를 전후하여 지방 관직(官職)이나 공직(公職)[40]에 적극 진출하고, 전시체제기에는 일제에 협력하며 식민지 지방통치의 매개 역할을 했다.

일부 자본가들은 획득한 이윤을 토지나 광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면 192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의 주요 기업과 이를 통해 성장한 유지층을 살펴보자.

39) 지수걸, 〈지방유지의 식민지적 삶〉,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0, 156~180쪽

40) 여기에서 말하는 공직(公職)은 면협의원이나 도회의원, 학교평의원 뿐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 경제기구인 금융조합(金融組合)이나 농회(農會) 등을 말한다.

〈표 3〉 1920~40년대 초 조선인 기업[41]

회사 명	기업인	비고
평택금융조합	윤종민(조합장), 박원용(조합장), 안종철(조합장), 정우범, 이민호, 박원용, 원제승, 유창근, 성주한, 강대철, 이민훤, 안종순, 조병석, 윤도식, 장윤식, 방칠제, 이두종, 최기승, 이종선, 민인호, 장순규	朝倉一彌, 池田養治 외
평택소매상업통제조합	이연규, 이삼규, 장순홍, 유진,	平原永豊 외
평택주조(주)	박필병(사장), 목욱상, 유진, 김진명, 오맹근, 안봉수, 김수호, 이희영, 안종철, 김택기, 박용복	目良廣 외
평택상업조합	이성열(조합장), 안종철(이사), 성주한(곡물부 주임)	
평택합동운송(주)	이성열(사장), 안종철, 성주한, 신순호, 이민훤, 황경수, 조성하, 윤응구, 이범수, 김형수	
삼익사	조성한	
㈜진흥사	김석규	
평택자동차운수(주)	이종훈, 이민두, 안종철, 송병욱, 오인근, 김종철, 유학근	森賢吉(사장) 외
평택중선운수(주)	안종철, 김종훈, 이민두, 송병욱, 오인근, 김종철, 오학근	森賢吉, 目良廣 외
평택산업	신순호, 이강세, 이강용, 이강현, 김영철	
평택상회	남진우	
평이상회	이학준	미곡, 잡곡 무역
평택하주운송조합	민광식(조합장), 이종구(부조합장), 김홍식(취재역), 정인창(대표자)	
평택미곡조합	성주한(조합장)	
평택연초원매영업소	김진형(주임)	
평택상업은행지점	이종태(지점장), 진간수, 이병갑, 유범열, 이용옥, 윤상준, 김순산	
평택곡물입검사지소	오해영, 차우영, 이덕영	
평택세무서 소득조사원	성주한, 박필병, 윤응구	西村折太郎 외
광업권 소유자	김희경, 조봉행, 안병철, 장순홍, 유진	

김인호는 《한국회사 100년사 DB》와 《한국 은행·회사·조합 요록》[42], 조선총독부 《관보》를 분석하여 '일제강점기 외압(外押)이 강했던 근대도시 평택에서 의외로 조선인 경제인들의 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가졌으며, 조선인 경제인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이를 전문경영인, 제국단위 경제

41)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 《지역과 역사》제42호, 부경역사연구소, 2018 및 일제강점기 일본어 신문이었던 《조선신문》, 《동아일보》 등의 기사 및 광고 등을 참고로 작성되었다.

42) 중촌자양(中村資良), 《한국 은행·회사·조합 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41

인, 전국단위 경제인, 도단위, 군단위, 면단위 경제인으로 분류했다.[43] 하지만 김인호의 분류는 《한국회사 100년사 DB》와 《한국 은행·회사·조합 요록》[44],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추출한 사료로 근대도시 평택의 경제인을 분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유지층(有志層)'을 분류하는 데는 더욱 한계가 많다. 예컨대 지주적 경제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업이나 자본의 규모보다는 여러 지역의 회사에 분산 투자한 인물을 도(道) 단위 경제인, 전국단위 경제인 등으로 확대해석한 점이 그것이다. 자본가들의 사회적 신망(信望)과 식민당국의 신용(信用)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인은 일제강점기 근대도시 평택(平澤)의 유지층을 상·중·하로 구분했다. 상(上)은 경제적 기반, 사회적 지위(地位)와 신망(信望), 정치적 역할과 식민당국의 신용(信用)을 두루 갖춘 사람을 말한다. 중(中)은 세 가지 요인 가운데 두 가지 요인을 갖춘 사람으로 역할이 주도적이지 못한 경우, 하(下)는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갖췄으며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한 부류다.

43)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 《지역과 역사》42, 2018, 447~484쪽.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면(面) 단위 경제인	면(面) 단위 합자회사, 상점, 금융조합 임원, 면장, 면의원
군(郡) 단위 경제인	2개 지역 이상에서 주식회사 및 금융조합 임원, 군수, 도의원
도(道) 단위 경제인	2개 지역 이상에서 주식회사 및 금융조합 임원, 도지사, 도의장
전국(全國) 단위 경제인	2개 도(道) 이상에서 주식회사 및 금융조합 임원, 장관급
제국(帝國) 단위 경제인	조선 및 외국에 지점이나 자본을 투자한 경우
전문경영인	금융조합연합회 직원이나 각 지점 이사, 부이사, 중역, 특정 전문직

44) 중촌자양(中村資良), 《한국 은행·회사·조합 요록》, 동아경제시보사, 1941

〈표 4〉 1920~40년대 초 근대도시 평택의 유지층 분류

분류	이름	주요 경력	기타
상(上)	이성열-이삼규	지주(논 32정보, 밭 9정보), 대성상회 주임, 평택상업조합장, 평택합동운송(주) 사장[45], 평택상사(주) 설립[46], 평택발전회 협의원(1919), 진위군학교평의회 회장(1924), 진위군 농회 특별의원[47], 평택금융조합 감사 및 평의원[48], 평택면협의원(1931,1935), 국방헌금 납부(1937,1940) 외, 평택상공회 상임위원(1938), 평택군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1942), 다수의 빈민구제 및 기부. 평택읍회 의원(1939, 이삼규), 평택군 생활필수품 소매상업조합 이사(이삼규). 평택상업조합 사장(1957), 평택방학소주 사장(1959)[49]	부자 관계 비전리 어인남리 출생 평택리 158
	안종철-안봉수	지주(논 43정보, 밭 14정보), 평택상업조합 이사(1918), 평택역 3.1만세운동검거 뒤 훈방(1919), 평택계인조합장(1924), 진위군 농회장[50], 평택금융조합장[51][52], 진위군 농촌진흥회 회장[53], 평택상공회 부회장[54], 평택상사(주) 사장(1927~1940)[55], 평택상업조합장[56], 평택면협 의원 및 평택읍회 의원(1931~1941), 조선 총독 표창[57],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평의원(안봉수)[58], 평택주조(주) 이사(1941, 안봉수), 평택상업조합 이사[59](안봉수), 진안자동차운수(주) 이사(안봉수).	부자 관계 비전리 522 평택리 522

45) 《조선신문》, 1929년 5월, 30일.
46) 《조선신문》, 1927년 7월, 31일.
47) 《조선신문》, 1929년 4월 19일.
48) 《조선신문》, 1929년 4월 17일.
49) 최재성 외, 《경기도의 재력가》-경기그레이트북스⑦, 경기문화재단, 2018, 259쪽.
50) 안종철, 〈안종철 약력〉, 《선고송종휘집(先考送終彙輯)》, 1941
51) 《매일신보》, 1931년 4월 24일.
52) 《조선신문》, 1940년 1월 24일.
53) 안종철, 〈안종철 약력〉, 《선고송종휘집(先考送終彙輯)》, 1941
54) 《매일신보》, 1938년 7월 12일.
55) 안종철, 〈안종철 약력〉, 《선고송종휘집(先考送終彙輯)》, 1941
56) 《조선신문》, 1932년 1월 30일.
57) 안종철, 〈안종철 약력〉, 《선고송종휘집(先考送終彙輯)》, 1941
58) 《매일신보》, 1938년 7월 7일.
59) 《매일신보》, 1940년 2월 3일.

분류	이름	주요 경력	기타
상(上)	이민훤	평택합동운송(주) 사장[60], 평택상공회의소 역원[61], 평택곡자제조합장[62], 평택곡물협회장, 평택면협의원, 경기도회의원(1931~1945), 진청학원장(1935~1945),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활동(1939), 평택신사조영봉회조회 부회장[63], 평택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64], 다수의 국방헌금. 빈민구제 활동. (祝)皇紀二千六〇〇年 新春광고[65]	통복리 157
	유창근-유진	유창근 : 대한제국 탁지부 재무서 근무, 수인 재무서 주사[66], 진위청년구락부 부장[67], 동아일보 평택지국장(1926), 경기도평의원(1924)[68], 병남면장(1925~1927), 평택금융조합 이사, 유진 : 평택중선운수(주)이사[69], 평택주조(주) 이사[70] 및 최대주주(1941), 평택상업조합 평의원[71], 아산탄광, 평택군생활필수품소매상업조합 이사.	부자 관계, 평택리 116
	황경수	동아일보 기자, 평택합동운송(주) 이사(1939), 평택중선운수(주) 전무[72], 평택면협 의원[73], 평택읍회 의원[74],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평택지부 상무이사, 평택군농회 통상의원[75], 평택군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76]	유천동 출생 평택리 165
	성주한	토지조사사업 측량기사, 평택세무서 소득조사위원[77], 평택발전회 서기(1919), 평택상업조합 곡물부 주임[78], 평택미곡조합장[79], 평택자동차운수(주) 감사역(1930), 평택합동운송(주) 감사역 및 이사, 진위군 농회역원(1933), 평택면협 의원[80](1931, 1935), 평택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 상임위원[81]	통복리 159
	안종순	안성상사(주) 지배인(1927~29), 안성청년회 집행위원, 평택금융조합 이사, 안성자동차운수(주) 이사, 평택면장(1933~1938), 초대 평택읍장(1938~39), 팽성면장(1940~41), 평택상공회의소 이사[82], 평택신사조영봉회 평의원[83], (祝)皇紀二千六〇〇年新春 축하 광고[84]	비전리 563
	민광식	대지주(논 88정보, 밭 24정보), 진위청년회 창립 회원[85], 평택하주운송조합 조합장[86],평택면협의회 의원[87], 평택읍회 의원[88], 국방헌금 300원 헌납[89]	세교리(동)
중(中)	이하선	평택발전회(1919) 평의원[90], 진위청년회 창립 회원(1921),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부형회 평의원(1925), 평택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 상임위원[91], 평택성동국민학교 학부형 후원회 회장[92], 평택상업조합 이사[93], 평택군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94].	
	신찬우	평택발전회 부회장(1919)[95], 초대 진위청년회장(1921)[96], 조선소작인상조회 진위지회 이사(1922), 청북면장(1926~1930), 평택군농회 청북면 통상의원[97].	
	김대경	오성면장, 오성면부인회장, 기원절 기념 지방정화사업 공로자 경기도지사 표창[98].	
	박병석	평택면협의원, 평택읍회 의원(1931~1942), 정신총동원 평택연맹 제1반 담당(1939)	
	이강세	보성전문 졸업. 서평택지역 대지주(논 102정보, 밭 32정보). 평택산업 감사역(1937)	안중읍 덕우리
	신순호	평택합동운송(주) 이사(1939), 평택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 상임위원[99], 평택상업조합 이사[100]	청북읍 고잔리 평택리 164-1
	이두종	임시토지조사국 측지과 기사, 고덕면장, 평택금융조합 이사	
	윤응구	지주(논 33정보, 밭 3정보), 군문동에 대형 정미소 운영, 평택합동운송(주) 이사[101], 평택세무소 소득조사위원, 1937년 7월 30일 국방헌금 300원 헌납	평택리

분류	이름	주요 경력	기타
중(中)	윤종민	1878년 12월 22일생. 지주(논 15정보, 밭 24정보), 1908년 측량과 졸업, 1902년 대한제국 헤민원 주사,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1915~1917), 진위군 참사(1911, 1919, 1920), 1913년 사립 진동학교 교감, 서정리 권농계 총무, 진위농회 평의원, 평택금융조합장(1927)[102]	장안리 477
	정찬근	지주(논 43정보, 밭 7정보), 평택중선운수(주) 대표[103], 평택자동차운수 이사	팽성읍 근내리
	방준용	대추리 일대 지주 및 마름, 평택화신연쇄점 사장, (祝)皇紀二千六〇〇年新春 축하 광고[104]	팽성읍 대추리
	정인창	평택청년구락부 평의원[105], 평택하주운송조합 대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평택지부 상무이사, 평택읍회 의원[106]	
	박원용	부용면장, 팽성면장, 병남면장, 평택면장, 진위군 도평의원(1930)[107], 평택금융조합 조합장[108], 상업은행 평택지점 이사[109], 평택군 농회 특별의원[110], 팽성면장 재임 시 대례기념장 수상[111]	팽성읍 객사리 53 팽성읍 두리40
	이형규	대창상점 사장, 평택군 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112], (祝)皇紀二千六〇〇年新春 광고[113]	
	민인호	경양면장(갑오개혁 직후), 서면면장, 군서기, 군수, 성황금융조합 평의원, 평택금융조합 이사[114]	팽성읍 대추리 3-6
	김택기	진위군청 직원[115], 평택주조(주) 이사 및 제2 대주주(500주 보유)	
	조성하	평택중선운수 이사, ㈜진흥사 사장, 평택합동운송(주) 이사, 평택자동차운수(주) 이사, 동아일보 기자	평택리 97
	이두종	임시토지조사국 측지과 기사, 고덕면장(1919~1922)[116], 평택금융조합 이사	율포리 32
	장윤식	동아일보 기자, 평택금융조합 이사, 평택중선운수 이사	평택리 102
하(下)	정석모, 안병우, 안병철(평택공신상회), 이용옥, 황영재, 홍병렬, 이중화, 변종현, 이병수, 안종옥, 이병갑, 김진형, 이종구, 이학준, 김홍식		
기타	박필병	안성군 대표적인 기업가, 경기도평의원, 경기운송(주)사장, 성남전등(주) 사장, 진안자동차운송 사장, 평택주조 대표(제2 대주주)[117], 평택세무서 세무조사위원	안성읍 동리
	목욱상	경기도회 의원, 진안자동차운송(주) 이사, 성남전등(주) 이사, 경기흥업(주), 이사, 평택주조(주) 전무(제2 대주주)	안성읍 서리 305
	김종철	경기운송(주) 이사, 안성자동차운수(주) 이사, 평택자동차운수(주) 이사	
	유학근	안성군 원곡면장, 평택자동차운수(주) 이사, 진안자동차운수(주) 이사, 평택중선운수(주) 이사	안성군 원곡면

60) 《매일신보》, 1939년 6월 1일.
61) 《매일신보》, 1938년 7월 9일.
62) 곡물협회는 일제의 통제경제정책에 순응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63) 《매일신보》, 1939년 2월 13일.
64) 《매일신보》, 1942년 5월 18일.
65) 《매일신보》, 1940년 1월 11일.
66)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 《지역과 역사》42, 2018, 447~484쪽.
67) 《동아일보》, 1921년 5월 18일.
68) 조선총독부, 《관보》, 1924년 4월 4일.
69) 《매일신보》, 1934년 11월 19일.
70) 《매일신보》, 1934년 6월 2일.
71) 《매일신보》, 1940년 2월, 3일.
72) 《매일신보》, 1934년 11월 19일.
73) 《동아일보》, 1935년 5월 24일.
74) 《매일신보》, 1939년 5월 16일.
75) 《매일신보》, 1941년 5월 16일.
76) 《매일신보》, 1942년 5월 18일.
77)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 《지역과 역사》42, 2018, 447~484쪽.
78) 《조선신문》, 1930년 2월 13일.
79) 《조선신문》, 1930년 2월 13일.
80) 《조선신문》, 1931년 5월 23일.
81) 《매일신보》, 1936년 2월 18일.
82) 《매일신보》, 1938년 7월 9일.
83) 《매일신보》, 1939년 2월 21일.
84) 《매일신보》, 1940년 1월 11일.
85)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
86) 《조선신문》, 1930년 2월 13일.
87) 《조선신문》, 1931년 5월 23일.
88) 《매일신보》, 1939년 5월 16일.
89) 《매일신보》, 1937년 7월 30일.

90) 《매일신문》, 1919년 11월 6일.
91) 《매일신보》, 1936년 2월 18일.
92) 《매일신보》, 1942년 5월 28일.
93) 《매일신보》, 1940년 2월 3일.
94) 《매일신보》, 1942년 5월 18일.
95) 《매일신문》, 1919년 11월 6일.
96)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
97) 《매일신보》, 1941년 5월 16일.
98) 《조선신문》, 1931년 2월 11일.
99) 《매일신보》, 1936년 2월 18일.
100) 《매일신보》, 1940년 2월 3일.
101) 《매일신보》, 1939년 6월 1일
102) 최재성 외, 《경기도의 재력가》-경기그레이트북스⑦, 경기문화재단, 2018, 255쪽.
103) 《매일신보》, 1934년 11월 19일. 정찬근은 중선운수(주)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104) 《매일신보》, 1940년 1월 11일.
105) 《동아일보》, 1921년 5월 18일.
106) 《매일신보》, 1939년 5월 16일.
107) 최재성 외, 《경기도의 재력가》-경기그레이트북스⑦, 경기문화재단, 2018.
108)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 《지역과 역사》42, 2018, 447~484쪽.
109) 《조선신문》, 1929년 1월 22일.
110) 《매일신보》, 1941년 5월 16일.
111) 최재성 외, 《경기도의 재력가》-경기그레이트북스⑦, 경기문화재단, 2018.
112) 《매일신보》, 1942년 5월 18일.
113) 《매일신보》, 1940년 1월 11일.
114) 김인호,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의 조선인 경제인 실태〉, 《지역과 역사》42, 2018, 447~484쪽.
115) 《조선신문》, 1931년 2월 21일.
116) 최재성 외, 《경기도의 재력가》-경기그레이트북스⑦, 경기문화재단, 2018.
117) 《매일신보》, 1934년 6월, 2일.

1920~1940년 사이 지역 유지(有志)로 성장한 가장 주목할만한 인물은 이성열, 안종철, 이민훤이다. 이성열은 1878년생으로 평택시 비전2동 어인남리 양성 이씨 집안의 후손이다. 젊은 시절에는 가세가 넉넉하지 않았지만 1910년 전후 경부선 평택역전으로 이주하여 평택장에서 곡물업을 했던 대성상회의 주임을 맡으면서 기반이 닦였고, 1917년 같은 마을 출신의 안종철, 유창식과 평택상업조합을 설립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사업 종목도 곡물뿐 아니라 비단, 저포, 종이, 어물의 유통과 무역으로 확대했고, 평택발전회, 진위군학교평의회 회장 등을 맡고, 빈민을 구제하며 공공사업에 큰돈을 기부하여 사회적 신망(信望)과 식민당국의 신용(信用)을 획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진위군 농회, 평택농촌진흥회, 평택금융조합과 같은 공공단체와 기관의 임원을 맡았으며, 일본인 자본을 유치하고 안종철과 함께 평택합동운송(주), 평택상사(주)와 같은 근대적 기업을 설립하여 대표적인 자본가로 성장했다. 193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자 이렇게 획득한 사회적 신망과 식민당국의 신용을 바탕으로 평택면협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근대도시 평택 사회를 대표하는 저명인사가 되었다. 1935년에도 평택면협의원에 재선되었으며, 1939년에는 평택읍회 의원선거에 아들 이삼규를 출마시켜 당선시켰다. 전시체제기 이성열은 적극적인 친일 부역했다. 예컨대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지부 창립에 적극 참여했고, 평택상공회를 창립하고 전시체제 하 경제통제기구인 경제통제협력회 창립에도 앞장섰다. 차남 결혼 비용을 아껴 황군장병위로금을 냈으며 수차례 거액의 국방헌금을 냈고, 1939년 대가뭄 때 빈민구제를 위해 1천 원이라는 거금을 쾌척했다. 이성열의 사회·경제적·정치적 특권과 친일 행위는 아들 이삼규에게 승계되어 해방 후까지 계속되었다.

안종철은 1883년생으로 이성열과 같은 비전동 어인남리에서 태어났다. 1901년 18세에 서울로 상경하여 경성관립중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다가 중퇴했다. 안종철은 일찍부터 평택역전으로 이주한 이성열과 달리 어인남리 마을에 거주하며 사회·경제활동을 했다. 1915년에는 평택공립보통학교 학무위원으로 활동했고, 1918년에는 이성열과 함께 평택상업조합을 설립하여 이사로 취임했다. 이처럼 사회적 명성을 얻어가던 안종철은 1919년 3.1운동 때 3월 11일 평택역 만세시위에 조카 안충수(당시 평택공립보통학교 학생)와 함께 참여하여 체포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훈방되었고, 1923년 어인남리 마을에 계인조합이라는 농촌계몽운동단체를 조직하여 조합장에 취임했다. 이와 같은 행보로 볼 때 안종철은 40세 전후까지만 해도 실력양성을 통하여 민족의 독립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근대적 지식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종철이 평택역전에 진출하여 대표적인 유지(有志)로 성장한 시기는 1920년대 후반부터다. 1921년 평택상업조합의 사업이 다각화되고, 1920년대 후반 이성열과 평택합동운송(주)와 평택상사(주)를 설립 운영하면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1929년에는 평택금융조합 감사, 진위군 농회 통상의원에 선출되고 군수 서훈 5등 수서보장을 받으면서 사회적 명성이 높아졌다. 1931년에는 평택면협의원과 평택금융조합장에 당선되고 빈민이나 궁민 구제에 적극 나서면서 사회적 신망과 식민당국의 신용을 획득했다. 면협의원은 1935년에도 당선되었으며, 1939년 평택읍회 의원에도 당선되었다. 이후부터는 진위군농촌진흥회장을 비롯해 평택금융조합장, 평택상업조합장 등 수많은 핵심 직책을 맡았으며, 전시체제기에는 본인뿐 아니라 아들 안봉수까지 나서서 애국기 '경기호' 헌납운동, 국방헌금, 만주황군 애국부인회 위문성금,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참여 등 다양한 친일 부역 활동을 했다. 사후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평택군수, 평택읍장을 비롯해 지역의 저명한 인사들이 조사(弔詞)했고, 비전동 평택여중사거리에는 송덕비[118]가 건립되었다.

118) 안종철 송덕비는 1990년경 도로확장으로 동삭동 모산골로 옮겨졌고, 2021년 모산골 일대의 개발로 경기도 양주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민훤도 근대도시 평택을 배경으로 성장한 대표적인 유지다. 포승읍 방림리 출생으로 청년기에 밭에서 일하다가 집을 나와 평택 역전으로 향했다고 한다. 평택장에 정착한 이민훤은 곡물상으로 성장했다. 어렵게 부(富)를 축적한 뒤로는 1929년 평택자동차운수(주) 이사를 비롯해 주요 기업의 중역에 올랐고, 193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평택면협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35년에도 재선되었으며, 1939년 평택읍회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 1936년, 1939년, 1942년 경기도회의원 선거에도 당선되면서 정치적 전성기를 누렸다. 1930년대 중반부터는 진청학원장(1935~1945)과 빈민구제, 곡물조합장, 곡자재조합장, 평택상공회의소 역원, 평택운송(주) 사장, 평택금융조합 이사를 지냈으며, 전방위적인 친일부역 행위로 식민당국의 전례 없는 신용(信用)을 얻었다. 이에 부응하여 이민훤은 1937년에는 모친 장례식 부의금으로 10여 개 친일 단체를 후원했으며, 1938년에는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1939년에는 평택신사조영봉회 부회장[119], 평택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으로 적극 친일했다. 일제의 전시체제가 강화되던 1937년에는 평택공회당에서 비상시국대비 특별강연을 했으며, 1940년 7월에는 창씨개명(創氏改名)에 앞장섰고, 1940년 1월에는 황기(皇紀) 2,600년 축하 광고를 《매일신보》에 실었다.[120] 1943년에는 '평택읍 읍회 추천 모체의원'에도 선임되었는데, 추천 사유는 '국체본위(國體本位)에 투철해 인격과 식견이 고매하고 진지순정(眞摯純正)해 두터운 봉공심(奉公心)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친일부역행위를 했으면서도 해방 후 청산되지 못했고, 심지어 평택중앙초등학교 교정을 비롯해서 3개 처에 공덕비가 건립되었으며, 1958년 제4대 국회의원선거에도 출마했다.

119) 《매일신보》 1939년 2월 21일. '평택신사'는 3만 5천원을 모금하여 건립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유지(有志)들과 평택군수, 평택경찰서장과 같은 기관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120) 《매일신보》 1940년 1월 11일. 당시 축하광고를 실은 평택지역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金重培(平澤驛前), 李交榮, 安柄哲(平澤 共信商會), 崔容俊(平澤 鐵道醫務室／醫師), 崔鍾完(平澤醫院／公醫), 緖方尙(平澤 五農業 倉庫長), 中村英太郎(平澤 繕吙代行 組合), 方俊容(平澤 和信 連鎖店), 李珩奎(平澤 大昌商店), 李三奎(平澤郡 平澤邑 平澤里), 安炳喆(平澤 金融組合長／平澤邑會議員), 安鍾純(平澤邑長), 安炳瑀(平澤副邑長), 李敏烜(京畿道 會議員／振靑 學院長), 市川周一郎(平澤稅務署長), 佐佐木雄一(間稅課長), 李中和(直稅課長), 通決郎三郎(平澤警察署長), 中川實次(警務主任), 邊宗鉉(司法主任), 森山淸吾(平澤郡守), 李炳璹(平澤郡農會／內務課長), 長井又三(郡農會／勸業課長)

유창근과 성주한, 윤종민 등은 대한제국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초 말단 관료가 되었다가 일제강점기 지방관료 및 기업가로 성장한 경우다. 유창근은 대한제국시기 탁지부 재무서 주사로 근무하다가 1920년대 초 진위청년회 창립을 주도했고, 동아일보 평택지국장으로 지역 언론 발전에도 기여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지역의 신망(信望)과 식민당국의 신용(信用)을 획득하여 1924년에는 경기도평의회 의원이 되었고, 1925년부터 사망했던 1927년까지 병남면장, 평택금융조합 이사를 지냈다. 유창근의 명망은 아들 유진에게 승계되었다. 유진은 평택중선운수(주) 이사, 평택상업조합 평의원 및 주주와 함께 안성지역 유지 박필병 등이 창업한 평택주조(주)의 이사 겸 최대 주주가 되었다. 또 광산업에 눈을 돌려 아산탄광에도 관여했는데 소유주인지 관여만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성주한도 토지조사사업 시기 임시토지조사국 측량과 기수(1910~1917)로 근무했다.[121] 퇴직 후에는 1917년 창업한 평택상업조합 곡물부 주임으로 근무하며 1919년 창립한 평택발전회와 진위청년회 창립에 앞장섰다.[122] 1930년대에는 평택미곡조합장, 평택자동차운수(주) 이사, 진위군 농회 역원이 되었고, 1931년과 1935년에는 평택면협의회 의원에 당선되었다. 성주한은 1936년 민광식과 함께 평택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를 조직하고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비전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121)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직원록 (朝鮮總督府及所属官署職員録)》, 1910~1917.

122) 《매일신보》 1921년 6월 26일.

황경수는 1906년생[123]으로 평택시 유천리(동)에서 출생했다. 동아일보 평택지국 기자로 출발했고 평택과 안성에서 활동했다. 평택역전에서는 1930년대부터 활동했는데, 1934년에는 평택중선운수(주) 전무, 1939년에는 평택합동운송(주) 이사, 평택생필품상업조합장으로 활약했고, 빈민구제와 공공사업에도 기부했다. 이를 배경으로 1935년 평택면협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며, 1939년 평택읍회 의원 선거에서도 당선되었다. 전시체제기에는 국방헌금 납부,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평택지부 상무이사, 평택군 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으로 적극적인 친일 부역을 했다. 해방 후에는 청산되지 못하고 평택중학원(평택중·고등학교 전신) 원장, 경남수리조합장, 대동산업 회장을 지냈으며 제3대 국회의원에도 당선되었다.[124]

안종순은 주소가 비전리 563번지였지만 1920년대에는 주로 안성청년회와 박필병이 창업한 안성상사(주) 등에서 활동했다. 그러다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 평택역전으로 이주하여 평택금융조합 이사와 안성자동차운수(주) 이사, 평택상공회의소 이사를 지냈고, 오랫동안 평택면장과 초대 평택읍장, 팽성면장을 지내며 지역의 대표적인 관료 출신 유지(有志)로 활동했다.

민광식은 평택지역의 대표적인 지주(地主)다. 1921년에는 진위청년회 창립에도 관여했으며, 평택하주운송조합장을 지냈고 각종 공공사업에도 기부했다. 1931년에는 평택면협의회 의원에 당선되었고, 1939년 평택읍회 의원에도 당선되었다. 1936년 성주한과 함께 평택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를 설립하여 거액을 기부했으며 평택공립보통학교의 비전동 이전에도 중심 역할을 했다. 전시체제기에는 국방헌금을 납부하는 등 친일 부역을 했다.

이밖에도 1919년 창립된 평택발전회부터 사회활동을 시작하여 진위청년회 창립회원, 평택공립보통학교 증축기성회 상임위원, 평택상업조합 이사, 평택군경제통제협력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하선, 평택리의 지주이며 수출미를 도정(搗精)하는 대형 정미소를 운영하였고 평택합동운송(주) 이사를 지낸 윤응구, 장안동의 지주로 토지조사사업 때 측량기사로 활동하고 진위군 참사와 평택금융조합장을 지낸 윤종민, 초대 진위청년회장을 지냈고 청북면장을 지낸 신찬우, 1931년 평택면협의원 선거부터 1939년까지 지방의회 선거에서 줄곧 최다 득표를 했던 박병석 같은 인물도 상급 유지층으로 자격이 있지만 근대도시 평택에서의 정치적 역할이나 영향력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중급 유지층으로 분류했다.

평택역전의 유지층 가운데는 농촌지역의 지주적 경제기반을 토대로 1930년대 이후 평택역전으로 진출한 인사들도 있다. 예컨대 팽성읍 근내리 대지주였던 정찬근, 팽성읍 대추리 지주이며 마름이었던 방준용, 안중읍 덕우리 대지주였던 이강세 형제들이 그들이다.

안종순, 박원용, 김대경, 이두종 등은 지방 관료로서 출세한 뒤 평택(平澤)으로 진출하여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의 중역으로 활동한 인물들이다. 박필병, 목욱상, 김종철, 유학근, 등은 안성군의 유력한 유지층이었지만 1905년 경부선 평택역 설치 이후 경기남부의 유통구조가 평택역 중심으로 재편되자 평택(平澤)으로 진출한 인물들이다. 이들은 193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으로는 유지층에 속했지만 정치·사회적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이 안성인데다 평택역전 유지들의 일정한 견제도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인물사료》 (https://db.history.go.kr)

1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한국근현대인물사료》 (https://db.history.go.kr)

5.맺음말

일제강점기 근대도시 평택(平澤)은 기회의 땅이었다. 전통의 신분제나 지주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부(富)를 축적할 수 있었던 도시였다. 또 식민도시적 성격이 강해서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거주지와 상업활동 공간이 구분되었고,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유지층이 형성되었으며, 일본인들이 핵심 여론을 주도하는 특징이 있었다.

평택(平澤)의 상공업은 192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크게 변했다. 근대교통이 정비되면서 평택역이 미곡과 어염의 집산 및 유통지로 크게 성장했으며, 내부 자본들의 기업설립, 외부자본의 유입, 일본인 자본과 조선인 자본의 연대와 협력도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성장한 조선인 유지층은 경제적 부(富)를 바탕으로 사회운동단체 활동을 하거나 기부했고, 빈민구제나 공공사업에도 기부하여 사회적 신망을 높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직이나 공직에 진출하여 경제적 부(富)를 확대 재생산하고 식민당국의 신용을 얻으려고 했다.

근대도시 평택에서 성장한 유지층들이 전시체제기 적극적인 친일 부역을 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해방 후에는 이들의 친일행위가 청산되지 못했고 기득권이 그대로 유지되어 평택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근대전환기 평택지역 일본인 사회

성주현/평택박물관연구소장

차 례

1. 머리말
2. 일본인의 이주와 일본인 사회의 형성
3. 일본인 진출과 농업계 장악
4. 일본인의 평택 상권 잠식
5. 교육기관과 일본인 교사들
6. 군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일본인
7. 일본인 단체와 주요 인물들
8. 해방과 일본인 사회 해체, 그들의 음과 양

1. 머리말

일반적으로 근대 전환기라고 하면 1876년 일본과 체결된 강화도조약과 이로 인한 개항 이후 해방된 1945년까지의 시기를 이른다. 이 시기 한국은 서구문명을 수용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 또는 민족운동 등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체제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하였는가 하면, 일제에 협력하는 세력과 인물들이 나름 활동하였다. 그 과정에는 일본인 사회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한말, 일제강점기 국내 즉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을 일반적으로 '재조일본인'이라고 한다. 용어 그대로 설명하면 '조선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을 뜻한다. 이를 평택지역에 국한한다면 '재평일본인' 또는 '평택 거주 일본인'이라고 칭할 수 있다.[1]

재조일본인의 이주 과정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다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1876년 개항 시기부터 1894년 청일전쟁 시기, 2기는 청일전쟁 시기부터 1905년 러일전쟁 시기, 3기는 러일전쟁 시기부터 1920년대 중반, 4기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시기, 5기는 중일전쟁 시기부터 종전 즉 해방까지이다. 해방으로 인해 재조일본인은 1946년 말까지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재조일본인 사회는 대부분 해체되었다.[2]

어쨌든 한말과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은 식민잔재를 포함해서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재조일본인 사회가 형성된 지역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3] 물론 이 시기 한민족은 해방을 위한 끊임없이 일제 식민통치에 저항하였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평택에 일본인이 정착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평택지역도 한말부터 일본인이 이주하기 시작하였고, 해방을 맞을 때까지 평택지역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크게 미쳤다. 일본인 사회는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일본인이 정착하면서 요소요소에 형성되었다. 평택지역은 부산, 서울, 인천 등 주요 도시나 개항장보다는 늦은 경부선이 개통한 1905년을 전후하여 일본인이 하나 둘씩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1910

1) 재조일본인 관련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재조일본인 정보사전 편찬위원회, 《개화기·일제강점기(1876~1945) 재조일본인 정보사전》, 보고사, 2018; 이동훈, 〈재조일본인 사회의 '발전사(發展史)' 간행과 식민자들의 창조된 '향토'〉, 《비교일본학》 52,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1; 이가혜, 〈조선인 작가 문예물의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의 표상〉, 《일본학보》 128, 한국일본학회, 2021; 엄승희, 〈일제강점기 요업활동 주체자로서의 재조일본인 구성과 그 식민성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8-1, 한국도자학연구회, 2021; 엄승희,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엘리트들의 요업활동 본질과 조선통치론〉, 《한국전통문화연구》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21; 최혜주 외,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2018; 이규수, 《개항장 인천과 재조일본인》, 보고사, 2015; 고윤수, 〈1910~1930년대 대전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사회〉,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28, 도시사학회, 2021 등이 있다.

2) 전성현, 〈식민자와 식민지인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 세계》 48, 효원사학회, 2015, 37~41쪽

3) 지역의 재조일본인 사회와 관련된 연구는 류교열, 〈1930년대 식민지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죽음'의 폴리틱스〉, 《일어일문학》 49, 대한일어일문학회, 2011; 한현석,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신사 : 개항기(1876년-1910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역사와 경계》 51, 부산경남사학회, 2004; 김승, 《근대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문화변용》, 선인, 2014; 이창언, 〈식민지시기 구룡포지역의 일본인 사회〉, 《민속학연구》 2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2010; 조윤수, 〈1910~1930년대 대전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사회〉,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18, 도시사학회, 2021; 김일수, 〈일제강점기 김천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화〉, 《사림》 56, 수선사학회, 2016; 배수형, 〈1910년대 재경 일본인사회의 교육사업 : 경성학교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철규,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 : 191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6, 부산경남사학회, 2005; 강호강, 〈일본인의 晉州 移住와 일본인 사회의 형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1; 이성우, 〈1910년대 대전의 일본인 사회 동향과 《조선대전발전지(朝鮮大田發展誌)》 편찬〉, 《탈경계 인문학》 13-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0; 박준형, 〈용산 지역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 1882~1945〉,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오미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사회와 지역 단체 :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4, 역사문제연구소, 2015 등이 있다.

년대 평택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평택역 일대는 기존의 평택인과 일본인 사이에 경제권을 둘러싸고 보이지 않는 총성이 울렸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은 관변적 성격이 강한 조합 등의 단체들을 조직하여 경제권을 장악해나갔다. 물론 이들 단체에는 평택인들도 참여하였으며, 나름 경제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전시체제기 이후에는 대부분이 일제 지배에 협력하였다.

평택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사회는 평택 지역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평택지역은 진위군의 중심지인 북면 봉남리가 행정과 경제 등 사회적으로 중심이었지만 경부선 부설과 평택역이 개설되면서 평택역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지금의 원평동, 비전동, 통복동은 그야말로 일본인들이 잠식하였으며, 근대 도시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다. 뿐만 아니나 이들은 안중, 팽성, 서정리, 서탄면 일대에 토지를 개간하거나 매입하여 크고 작은 농장을 경영하였다. 그중에서도 평택이 가마니와 배로 유명해진 것은 이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일본인의 평택 이주와 활동을 농업과 상업, 행정, 교육, 관변단체 등 분야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시 발간되었던《매일신보》,《경성일보》그리고《조선신문》등을 주로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다만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평택지역 일본인 연구의 시론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 일본인의 이주와 일본인 사회 형성

해방 전 평택지역에 이주한 일본인은 어느 정도였을까. 통계 수치가 많지 않아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몇몇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915년 경기도에서 발행한《경기도 안내》에는 다음 〈표 1〉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표 1〉 1910년~1914년의 평택 중심지 일본인 현황[4]

연도	조선인		일본인		계	
	가구수	인구	가구수	인구	호수	인구
1910	60	309	59	223	119	532
1911	77	325	65	258	142	583
1912	85	362	85	307	170	669
1913	91	463	91	310	182	773
1914	91	466	92	327	183	793

위의 〈표 1〉은 일제 강점 직후인 1910년부터 1914년까지 평택역 일대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통계이다. 지금의 원평동을 포함하여 비전동, 통복동 일대로 추정된다. 이 시기 즉 1910년대 초반 이 일대는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조금 많았지만 가구 수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자료에 의하면 1914년의 일본인 가구 수는 131호이며 남자 236명, 여자 191명으로 427명이 평택지역에서 살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은 평택역 주변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택지역 일본인 통계는 많지 않지만, 1921년 3월 7일자《매일신보》에 의하면 평택지역 일본인은 호수 203호, 남자 400명, 여자 327명으로 모두 729명이 거주하였으며,[5] 1927년 4월 21일자《동아일보》에 의하면 평택지역은 일본인 가구 116호, 642명이 거주하였다.[6] 그리고 1929년《진위군군세 일반》에는 176호로 남자 344명, 여자 322명으로 총 666명의 일본인

4) 조선총독부 경기도,《경기도 안내》, 糀谷인쇄소, 1915, 35~36쪽.

5) 白錦生, 〈근역지(61)〉,《매일신보》1921년 3월 7일. 평택지역의 인근 수원지역은 796호, 남자 1675명, 여자 1460인, 합계 3135명이 있었다.

6) 평택 일기자, 〈곡물 所産은 全鮮에 굴지, 교통이 편리한 평택〉,《동아일보》1927년 4월 21일.

이 평택지역에서 살고 있었다.[7)]

세 자료에 의하면 1921년에 일본인이 가장 많았으며, 1927년이 가장 적었다. 1921년이 1927년보다 87명이 더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27년부터 1929년까지 2년 동안 일본인은 불과 24명이 늘어났다. 이는 평택지역에 일본인 증가는 비교적 많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로 볼 때 해방 전까지 평택지역 일본인은 1천 명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1929년 평택의 인구는 남자 34,383명, 여자 32,711명으로 총 67,094명이었다. 평택지역에 정착한 일본인은 평택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6월에 발행된《진위군 군세 일반》에 의하면 일본인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1938년《진위군 군세 일반》 평택지역 일본인 거주 현황[8)]

구분	호수	남	녀	계
평택면	151	313	306	619
송탄면	21	35	40	75
북면	8	15	16	31
서탄면	1	2	3	5
고덕면	1	2	2	4
오성면	6	12	8	20
청북면	5	5	2	7
포승면	2	2	0	2
현덕면	4	10	7	17
팽성면	9	24	25	49
합계	208	420	409	829

〈표 2〉에 의하면, 1938년 평택지역의 일본인은 208호, 829명이었다. 10년 전인 1927년 666명에 비해 163명이 증가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평

7) 경기도 진위군,《경기도 진위군 군세일반》, 1929. 이 자료는 종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8) 〈표 3〉의 일본인 통계는 1937년의 통계이다.

택역이 있는 평택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평택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로《경기도 도세 일반》에 의하면 1926년부터 1930년까지 평택지역의 일본인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경기도 도세 일반》의 평택지역 일본인 거주 현황[9)]

발행연도	호수	인구
1926.9	166	642
1927.11	182	669
1928.11	177	669
1929.10	174	651
1930.10	175	666

그렇다면 이들 일본인의 평택지역 이주는 언제부터일까 하는 점이다. 일본인의 조선 이주는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부산과 인천 등 개항이되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조선시대 부산 초량에 왜관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개항 이후였다.

일본인은 다양한 이유로 한국으로 건너왔다. 외교관이나 공관 직원, 일확천금을 노린 상인들이 개항과 더불어 이주하였다. 그렇지만 개항 직후 평택에 정착한 일본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인이 이주한 곳은 주로 서울이나 개항지였기 때문에 평택에는 정착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1900년대 들어서면서 평택지역에도 일본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평택에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바에 의하면 1904년이다. 기록상 가장 먼저 정착한 일본인은 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와 와다(和田常市)이다. 야마다(山田)은 일본 도야마현(富山縣) 네이군(婦負郡) 미야가와촌(宮川村) 출신으로 1904년 일서면(현 서

9)《경기도 도세 일반》은 현재 종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대지지자료(https://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ng)에서 원문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탄면) 금암리에 이주하였다. 1906년 황무지 170정보를 구입하고 4년 후인 1910년 말에는 85정보를 개간하여 진위흥농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지배인으로 활동하였다.[10] 1908년 8월 진위공립보통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향교를 수리할 때 2환을 기부하기도 하였다.[11] 1911년 12월 2일 병파면과 여방면 국유지 소작인조합을 창립할 때 농업개량에 대해 연설하였다.[12] 1923년 초 진위와 안성을 흐르는 안성천과 진위천을 활용하기 위해 진안수리조합기성를 결성하였을 때 발기인 총대를 맡은 바 있다.[13] 1924년에는 경기도 평의원,[14] 1929년 진위군농회 평의원(서탄면)에 당선되기도 하였다.[15] 1930년 11월에는 금암교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대일본 농회 농사개량 장려 규정에 따라 농사공로자로

10) 《매일신보》 1913년 6월 12일자.

11) 《황성신문》 1908년 8월 5일자. 당시 기부자는 다음과 같다.
郡守 金英鎭 三十圜, 郡主事 尹秉緯 十圜, 前議官 高濟恒 五十圜, 訓導 鄭範時 十圜, 副訓導 李必善 十圜, 馬山面長 李鎬榮 二圜, 一北面長 前宣傳官 韓弼鎬 五圜, 二北面長 權東洙 五圜, 前侍徒 尹箕善 五圜, 一西面長 韓相玉 二圜, 一炭面長 崔昌和 二圜, 前土事 金元植 三圜, 松庄面長 元之鶴 二圜, 元厚德 二圜, 前主事 申錫璣 五圜, 城南面長 李鍾泰 닞圜, 五朶面長 朴承九 五圜, 所古尼面長 李圭필 二圜, 可頭面長 李承轍 一圜, 金教軾 一圜, 山田顯義 二圜, 金正賢 五圜, 裁判所書記 權泰亨 一圜, 梁弼洙 十五圜, 前主事 朴東勳 十圜, 郡內面長 李裕昆 五圜, 柳承基 五圜, 前先達 邊春一 七十圜, 前都事 朴昌勳 五十圜, 進士 李輔善 三十圜, 梁柱元 五十圜, 李錫璣 五圜, 柳聖九 五圜, 金仁培 五圜, 李容夔 十圜, 二北面 十八圜, 一北面 一百三圜, 一西面 五十九圜, 西面 三十五圜, 一炭面 百圜, 一炭面 一百二十圜, 馬山面 百圜, 松庄面 七十圜, 所古尼面 七十圜, 余方面 百圜, 丙坡面 一百二十圜, 城南面 百圜, 古頭面 一百四十圜, 五朶面 百圜, 金道心 二圜, 書記 柳珍基 五환, 書記 邊奭煥 二환, 崔希春 四환, 學徒 柳蒙致 五완, 朴鎬珍 三환, 林英完 一환, 合金一千六百八十圜.

12) 《매일신보》 1911년 12월 5일자.

13) 《매일신보》 1923년 1월 18일자.

14) 《조선신문》 1924년 3월 15일자; 《매일신보》 1924년 3월 26일자. 당시 진위군 경기도 평의원 후보자는 야마다 아기요시 외에 尹 承敏, 元河昇, 鄭雨興, 柳昌根 등이었다. 이중 야마다와 유창근이 당선되었다.

15) 《조선신문》 1929년 5월 3일자. 이외에 병남면 朴元用, 북면 韓弼鎬, 고북면 申贊雨, 현덕면 鄭雨範 등이 당선되었다.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16] 이외에도 지방민심의 융화와 지방개량의 공로로 경기도[17]와 지방교화 사업 공헌으로 평택군청[18]으로부터 각각 표창패를 받았다. 와다(和田)는 규슈 오이타현(大分縣) 우사군(宇佐郡) 다카에촌(高家村) 출신으로 1881년 3월 부산을 거쳐 원산에서 약재상, 인천에서 무역상, 서울에서 수입무역점 등을 운영하다가 1904년 평택역 인근으로 이주하여 수백만 정보의 토지를 개척하고 1908년부터 일본 담배를 재배하였다.[19]

이어 평택에 정착한 일본인은 미야자키 부사키치(宮崎房吉)이다. 미야자키(宮崎)는 후쿠오카현(福岡縣) 와카마쓰시(若松市) 고이시(小石) 출신으로 1905년 평택으로 이주하였다. 평택역 인근에 정착한 미야자키(宮崎)는 미곡무역업에 종사하면서 비전동 일대에서 과수원을 경영하였다. 특히 미야자키(宮崎)는 평택에 배(梨)를 보급하고 가마니(叺)로 평택을 알리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20]

이를 계기로 평택지역에도 점차 일본인이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 3월 1일 《황성신문》과 3월 2일 《대한매일신보》에 의하면 진위군 금복들(金福野)에 '외인(外人)' 즉 외국인이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에 대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한 바가 있는데, 당시 외국인은 일본인이었다. 이는 평택지역에 이주한 일본인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08년 팽성읍에도 일본인 두 가구가 있었다.

이보다 늦은 시기 평택에 정착한 인물로는 모리 겐키치(森賢吉)가 있다. 《조선인사흥신록》에 의하면 모리(森)는 1882년 10월 출생으로 일본 오이

16) 《조선신문》 1930년 11월 8일자; 《경성일보》 1930년 12월 2일자; 《조선신문》 1930년 12월 5일자.

17) 《조선신문》 1931년 2월 11일자.

18) 《조선신문》 1931년 2월 14일자.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20) 《조선신문》 1931년 2월 22일자.

타현(大分縣) 우사군(宇佐郡) 나카수쵸(長洲町) 출신이다.[21] 1902년 5월 한국으로 건너와 경북 왜관에서 활동하다가 3·1운동 전해인 1918년 평택에 정착한 모리(森)는 평택역 앞에서 잡화상을 경영하였으며 점차 사업을 확장하여 미곡상을 운영하였다.[22] 모리는 평택에서 평택학교조합 의원,[23] 진위수리조합 실행위원,[24] 평택전기주식회사 발기 및 전무,[25] 평택운송합동주식회사 감사와 평택번영회장,[26] 진위수리조합 설립위원,[27] 평택자동자주식회사 사장[28] 등 지역명망가로 활동하였으며, 1928년 추기 어대전 지방사찬 참례의 평택 민간인 대표로 선정되었다.[29]

평택지역에 일본인이 이주한 배경은 무엇보다도 드넓은 평택평야와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이었다. 지금은 이천 쌀이 유명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택 쌀이 더 유명하였다. 당시만 해도 평택은 미곡 생산지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

일본인의 평택지역 이주에는 1905년 경부선 부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평택역이 설치됨에 따라 평택역 주변으로 일본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평택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었다. 앞서 〈표 1〉에서 본 바와 같이 평택역 주변에는 1910년에 이미 60여 가구에 223명의 일본인이 거주하였다. 1920년대 후반에는 7백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 생활권도 평택역 주변에서 서탄면, 오성면, 서정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평택 중심가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점들도 점차 늘어갔으며, 외곽에는 농장과 과수원 등을 경영하였다.

2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22) 《조선신문》 1930년 8월 17일자.
23) 《조선신문》 1926년 8월 26일자
24) 《조선신문》 1927년 1월 22일자.
25) 《조선신문》 1927년 3월 30일자; 1930년 8월 17일자.
26) 《조선일보》 1928년 11월 8일자.
27) 《조선신문》 1929년 3월 13일자.
28) 《조선신문》 1929년 5월 13일자.
29) 《조선신문》 1928년 11월 3일자.

이처럼 일본인촌이 형성됨에 일본인의 이익과 식민지배에 협력하는 관변단체들이 조직되었다. 대표적인 일본인 단체는 소방조(消防組), 재향군인회, 애국부인회, 보덕회, 학교조합, 신사, 각종 조합 등이다. 특히 보덕회는 기본적으로 지방의 개량, 자치의 진흥, 도덕경제의 조화, 교육식산의 연계를 목표로 하는 단체이었지만, 일본인 니노미야 손도쿠(二宮尊德)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근대일본 국민도덕 교화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1927년 9월 15일 창립된 평택보덕회는 모리 겐키치(森賢吉), 가키우치 츠네타로(垣內恒太郎), 하다 노데츠지로(波多野哲次郎), 미즈노 히로다라(水野弘道), 시부타니 코오헤이(澁谷光平) 등 일본인이 중심이었다. 이후 평택지역에는 제2구보덕회, 욱(旭)보덕회, 중앙보덕회 등이 조직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일본인의 친목을 도모하거나 지역 발전을 위한 단체들도 점차 조직되었는데, 평택협찬회와 평택수양단 등이 있다. 평택 쌀을 일본에 널리 알리기 위해 1924년 11월에 조직된 평택협찬회는 니시무라 츠오레타로(西村折太郎), 모리 겐키치(森賢吉), 시부타니 코오헤이(澁谷光平) 등 일본인과 이학준, 성주한, 이성렬, 안종철, 이하선, 김경철 등이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체 역시 대부분 내선융화를 도모하였다. 이외에도 당구대회, 바둑대회, 사격대회 등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평택은 교통의 편리로 인해 군청과 경찰서 등 관공서를 비롯하여 서울에 본사를 둔 은행과 기업의 지점들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관공서와 지점 등에 근무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일본인촌은 점차 평택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갔다. 평택지역의 농업과 상권, 경제권을 서서히 장악하였고, 지역유지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평택역 일대는 가장 번화한 곳으로

변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평택선전가'[30]를 만들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기도 하였다.

3. 일본인 진출과 농업계 장악

한말 일본인 이주는 주로 농업 이민이 크게 작용하였다. 이 시기 농업 이주는 회사나 농장, 조합 개인 등으로 이루어졌다. 평택지역의 농업 이주는 회사 또는 개인에 의해 진행되었다. 1912년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한국흥업주식회사(韓國興業株式會社)'는 고덕면 동청리와 문곡리, 부용면 내리와 석봉리, 북면 하북리 일대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흥업주식회사는 1904년 일본 재벌인 시부자와(澁澤榮一) 등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일본 도쿄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평택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토지를 확보하고 일본인을 이주 정착시켰다. 조선총독부의 국책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도 평택지역에 상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한국흥업주직회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인의 이주와 정착을 적극 지원하였다.

개인으로는 나베시마 나오미쓰(鍋島直映, 도쿄도)와 마나베 사다이찌(眞鍋貞一, 수원군)는 고덕면 동고리에, 오오다케 구지로(大獄久治郎, 아이치현)는 부용면의 근내리 두리 석봉리에, 야마토 요지로(大和與次郎, 아산군)는 부용면 내리에, 야마다(山田近, 아이치현)은 부용면 석봉리에, 이와자키 구야(岩崎久彌, 도쿄도)는 북면 가곡리 갈곶리 견산리 봉남리 마산리 등지에, 사이죠(西淨隆興, 수원군)는 북면 하북리 등지에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베시마(鍋島)는 후작으로 1904년에 이어 1906년 다시 한국으로 건너와 통감부의 농업조사 촉탁으로 활동한 바 있는데. 이때 평택 일대에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자키(岩崎)는 미시비씨(三菱) 창업자 이와사키 야타로(岩崎彌太郎)의 장남으로 도잔농장(東山農場)을 설립한다. 서울에 거주하였던 와다(和田尙市)는 미개간 황무지에 관심을 갖고 1904년 평택역 부근에 정착하여 수백만 정보의 토지를 개간하였으며, 1909년부터는 일본 담배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일본인이 평택지역으로 이주, 정착하여 토지를 잠식하였다.

일본인이 발행한 《조선신문》에는 신년이나 창간기념일 등 특정한 일에는 지역별로 광고가 게재되었다. 평택지역에서도 그때그때 적지 않은 광고가 게재되었는데, 농업과 관련된 광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광고 중 일본인 농장으로 도쿠가와농장(德川農場) 평택출장소, 메라농장(目良農場), 니시무라농장(西村農場), 쇼와농장(昭和農場), 이시다농장(石田農場), 진위흥농주식회사 등이 있다.

1927년 3월 14일 《중외일보》에 의하면 평택지역에는 앞서 살펴본 도쿠가와농장과 72.9정보를 소유한 니시무라농장(西村農場, 소유주 西村篤雄)을 비롯하여 쇼와농장(昭和農場, 소유주 野坂茂三郎, 112.1정보), 메라농장(目良農場, 소유주 目良廣, 118정보) 등의 일본인 농장이 있었다. 이외에 부용면 두리에 이시다농장(石田農場)와 요시무라농장(吉村農場, 농장주 吉村謙一)이 있었다. 쇼와농장주 노자카(野坂)은 미간지 개간 공헌으로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에서 은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1929년에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하야시다농장(林田農場, 193정보), 아사미(淺見農場, 200정보), 사토농장(佐藤農場, 192정보)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으며, 평택을 포함하여 수원, 용인, 시흥, 안성 등지에 1,800여 정보의 토지를 보유한 대규모 도잔농장(東山農場)이 있었다.

평택의 대표적인 일본인 농장은 진위흥농주식회사이다. 진위흥농(주)는 1904년 서탄면 금암리에 이주 정착한 야마다(山田顯義)가 발의하여 설립한 회사로 1935년 7월 해산할 때 설립 30년이 되었다고 하였는 바, 이를 역산하면

30) 《조선신문》 1928년 11월 8일자.

1905년에 설립되었다. 주로 토지개간, 경작, 식수 및 부대사업을 비롯해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 농사에 필요한 가축을 기르거나 매매하고 농산물 매매업 등을 하였다. 해산 당시 진위흥농(주)는 논(畓) 108,401평, 밭(田) 274,874평, 임야 등 64,769평으로 총 44만 8천여 평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시가로는 8만 8천 원 정도였으며, 소작농 3백여 명이 넘었다.[31] 《조선은행회사요록》에 의하면 1913년 8월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표는 후카다(深田與三兵衛), 이사는 우치야마(內山芳治)와 센구치(片口安太郎), 감사는 츠다(津田榮太郎)와 모토무라(本村龜太郎) 등으로 모두 일본인이었다. 지배인 야마다(山田顯義)는 재향군인분회장, 농사장려회 부회장, 경기도농회 특별의원, 진위군농회 특별의원, 진위군 소작위원, 진위군진흥회 위원, 서탄면 협의원, 오산제2금융조합 감사 등 지역 유지로 활동하였다.[32]



〈사진 1〉 평택 배 '이치하라(市原)'

31) 《조선중앙일보》 1935년 7월 3일자.
32) 《조선신문》 1934년 11월 8일자; 《조선중앙일보》 1935년 5월 29일자

도쿠가와농장(德川農場)은 전남 송정리에 본점을 두고 장성과 평택 등지에 출장소를 두었다. 1922년 평택역 인근에 출장소를 설치한 도쿠가와 농장(소유주 德川賴倫)은 402.5정보를 소유한 대규모의 농장으로 농사개량, 수리사업, 종자보급 등의 공공사업을 전개하였다. 출장소 주임 이와미(石見龜藏)는 평택학교조합 의원, 분회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 평택은 쌀뿐만 아니라 배도 유명하였다. 《매일신보》 1936년 8월 16일자에 의하면 '평택에서 생산된 배'를 소개하는 사진이 크게 실린 바 있다. 내용은 〈배계(梨界)의 선구〉라 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에 배가 입하(入荷)되었다는 것으로, 평택에 배가 널리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도 평택에는 배밭이 산재해 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이 상당하였다. 이시노(石野)과수원을 비롯하여 하라(原)과수원, 후쿠다(福田)과수원, 데이(梯)과수원, 다카사키(高崎)과수원, 아가와(阿河)과수원, 사다(佐田)과수원, 미야사코(宮廻)과수원, 미야자키(宮崎)과수원, 시모우라(下浦)과수원, 츠엔무라(津園村)과수원 등 11개의 과수원이 있었다. 이중 다카사키(高崎)과수원은 1909년 가장 먼저 비전리에 개원하였으며, 11개 과수원의 면적은 780정보, 식재 수량은 1만 3천 본으로 대부분 배나무였다. 당시 평택에서 생산된 배는 '이치하라(市原)'이라고 불린 조생종이었다.

평택지역에 정착한 일본인이 경영하는 농업회사는 농정이나 과수원 외에도 농사개량과 관련된 것도 있었다. 대표적인 회사가 하야시다조선농사개량주식회사(林田朝鮮農事改良株式會社)였다. 이 회사는 1925년 3월 당시 병남면 평택리 185번지에 설립되었으며, 대표는 하야시다(林田春次郎), 이사는 하야시다 마사유키(林田政幸), 구마가야(熊谷平治兵衛), 하다(波多野哲二郎), 감사는 구마가야 오우(熊谷押), 모리(森半次) 등이었다. 주요 사업은 토지 수와 농사 개량이었다.

농업 이주한 일본인은 지주간담회, 평택과수조합(조합장 高崎利信), 평택미

곡조합(부조합장 垣內恒太郎), 진위수리조합, 평택곡물입검사소(지소장 瀨良彦三郎), 평택축우조합(부조합장 森賢吉), 진위군지정묘포조합(德田兼藏 등), 평택농업창고(주사 緖方尙), 평택곡물협회, 농촌진흥회 등 농업과 관련된 단체 조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대표 내지는 주요 임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유지로 이름을 알렸다. 그리고 평택의 농업계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택에 거주한 이들 일본인은 강점기와 식민지라는 시공간에서 식민지배정책에 협력적이었다. 평택 영향력을 점차 확장한 이들은 유무형으로 농업계를 장악해 나갔다.

4. 일본인의 평택 상권 잠식

1876년 강화도조약은 한국을 세계사에 편입되었다는 의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제의 침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강화도조약에는 당시 한국의 경제를 침탈하기 위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항구의 개방과 일본인의 통상 허가, 항구에 일본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의 수시 설치, 양국의 자유로운 무관세 무역, 일본 화폐의 통용 등인데, 이는 일제가 한국의 상권을 침탈하려고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인 상인들은 값싸고 질 좋은 상품으로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일제 강점 이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화되었고, 이른바 지방의 크고 작은 도회지까지 일본인 상인이 진출하였으며, 목 좋은 곳을 차지하였다.

평택도 일본인 상인들이 진출함에 따라 일본인 회사와 상점, 단체들이 늘어났고 상권을 잠식하였다. 일본어 《조선신문》 광고에 의하면 일본인이 경영하는 회사나 상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조선신문》(일본어판) 광고를 통해 본 일본인 상업계 명단

상점/점주	위치	주요취급품	기타
사카이(坂井)백화점	경부선 평택	화양잡화, 건축재료, 신탄 등	전화19
미야자키(宮崎)상점	경부선 평택역 앞	문방, 잡화	전화20
가키우치(垣內)상점	경부선 평택역앞	미곡, 잡곡, 가마니, 소금, 비료 등	전화9
노무라(野村)의원	경부선 평택	병원	
요누야(よねや)여관	경부선 평택역 앞	숙박업	전화31
카미타니(上谷)상점	경부선 서정리역 앞	잡화상	
야마노(山野)치과의원 출장소	경부선 평택 진위군청 앞	치과	
오쿠무라(奧村)상점	경부선 평택	칠기류, 도자기류, 화양금물류, 좌관재료, 망물류, 시멘트 등	전화24
나까세(長瀨)철공소	경부선 평택	차량 제작, 기계수전, 건축금물	전화25
평택치과의원	평택 군청 앞	치과	
隻鴻館	경부선 평택역 앞	중화요리	
보쿠이치루(北一樓)	경부선 평택	고급요리	전화38
가노(加納)여관	경부선 평택역 앞	숙박	전화7
가네모(カネモ)상회		미곡상, 발동기 특약점	전화10, 森賢吉
가나하시(金橋)상점	경부선 평택역 앞	농장경영, 화양잡화, 석탄, 도서, 매약	전화36
에도야(江戶屋)	경부선 평택	간이식당	
마루니시(丸西)여관	경부선 평택역 앞	숙박	전화31
나카와키겐소우(中脇源藏)상점	진위군 오성면 안중리	일본 서양 잡화, 식료품	
오까다(岡田)상점	경부선 평택	목재상, 매약	전화26
희락(喜樂)간이식당	경부선 평택역 앞	간이식당	
니시무라(西村折太郎)	경부선 평택	비료, 농구, 곡물, 석유 등	전화54
나카쓰야(中津屋)여관	경부선 평택	숙박	전화35
후지야(ふじや)	경부선 평택역 앞	회식요리	
세토 시노부오(瀨戶信夫)	경부선 평택	토목 건축 청부	
카메자와(龜澤)여관	경부선 평택역 앞	숙박	
이카고마루(生駒樓)	경부선 평택	회식 요리	전화38
도히 기타로(土肥儀太郎)	경부선 평택역 앞	안중리, 내기리 운행 운수	

〈표 4〉에 의하면, 일본인이 진출한 상권은 잡곡을 포함한 미곡상, 숙박업, 요리업, 건축토목 및 관련 재료업계, 차량 및 기계 관련 업종, 병원 등 다양한 분야였다. 특히 숙박업은 다섯 곳이 있었는데, 모두 일본인이 운영하였다. 이는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로 관청이나 단체 직원이 사용하

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택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본인 사회는 상권에 있어서도 역세권을 나름 활용하고 있다. 우선 교통이 편리한 평택역 부근에 가게나 상점을 확보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카이백화점을 비롯하여 가나하시상점 등 대부분의 일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은 '경부선 평택' 또는 '경부선 평택역 앞'이라고 하여 평택역 부근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부선 평택'은 현재의 통복시장 일대로 보이고, '평택역 앞'은 원평동 일대이다.

평택역 아닌 곳으로는 서정리역과 안중리 등에 한두 개의 일본인 가게가 있었다. 서정리역 앞에 있는 카미타니(上谷)상점은 점주인 가미타니 가메타로(上谷龜太郎)가 자신의 이름을 상호로 하였는데, 주로 여러 가지 물건 즉 잡화상이었다. 가미야마는 송탄 서정리의 유지로 1929년 10월 서정리에[서 양교리와 신포를 잇는 자동차를 허가받기 위해 시민대회를 주도한 바 있다. 안중에는 나카와키겐소우(中脇源藏)상점이 있었는데, 역시 자신의 이름을 상호로 하고 있으며, 일본과 서양의 잡화류와 식료품을 판매하였다. 가키우치(垣內)상점을 운영하는 가키우치 쓰네타로(垣內恒太郎)는 1901년 부산항에 상륙하여 부산 고쿠라(小倉)상회에서 근무하다가 1909년 독립하여 평택에 정착한 후 미곡상을 개점하였다가. 1933년에는 쌀 독점권을 확보하였는데, 생산액에 연 2백만에 달하였다.[33]

백화점의 어원은 '갖가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집'이라고 한다. 청나라 시기에는 모든 물건이 있다는 의미로 '만화점'이라고 하였는데, 방문한 황제가 찾는 물건이 없다고 해서 '백화점'이라고 고쳤다고 한다. 아무튼 백화점은 근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백화점은 규모가 큰 도시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평택에도 백화점이 등장하였다. 바로 사카이(坂井)백화점이었다. 처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것은 일본인이 발행하는《조선신문》1928년 11월 17일자 광고였다. 광고의 내용은 간단하였다. 위치는 경부선 평택, 전화 19, 안성에 지점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사카이백화점은《조선신문》에 모두 10회 광고를 게재하였다. 사카이백화점의 점주는 사카이 부헤이(坂井武平)이며 초기에 사카이 상점으로 출발하였다.

초기 취급 상품은 농기구, 잡화, 식료품, 의류 등이었지만 점차 품목을 재목(材木), 금물(金物), 매약(買藥), 자전거, 비료, 지물(指物), 석탄, 건축물 등으로 늘어났다. 1928년부터 백화점이라고 광고를 하였는데,《조선신문》에 의하면 서울의 혼마치(本町)의 대상점을 능가하는 내용 충실한 상점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인 상점뿐만 아니라 평택인의 상점을 들이 늘어나고 상권이 크게 형성되면서 은행지점, 금융조합 등이 설립되었다. 지점이나 금융조합은 평택인 외에 일본인도 참여하였다. 상업은행 평택지점에는 니노미야(二宮久一), 시마다(島田昇), 야마자키(山崎健藏), 다나베(田邊實), 와구다(和久田政) 등이, 평택곡물검사소는 세라(瀨良彦三郎), 이치카와(市川省), 니시시마(西島音平) 등이, 평택금융조합에는 우에노(上野進一郎), 이케다(池田養治), 마에가와(前川金藏), 고지마(小島純雄), 아라마끼(荒券定己), 다카시마(高島隆助) 등이, 안중금융조합에는 오노(小野雅文), 유(理鐸) 등이 지점장 또는 이사장, 이사 등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에서 유지로 활동하였는데, 이케다(池田)는 1928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농촌구제에 노력하는 등 농촌 생활 개선에 힘썼다. 그밖에 평택학교조합, 평택소방조, 평택재향군인회 등에도 참여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평택의 중요한 상권은 전기, 교통 등 기간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평택의 전기와 교통 등 기간산업과 관련된 사업체는 대부분 일본인이 장악하였다. 이는 일본인의 자금력이 컸기 때문이

3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기도 하였다. 평택전기주식회사는 1929년 4월 24만 원으로 창립되었으며, 사장 고세(小瀨守次郎), 전무 모리 겐키치(森賢吉), 이사 히구치(樋口虎三) 쿠라시게(倉重理良), 감사 나까시바(中柴萬吉)로 모두 일본인이었다.

교통 관련 회사는 평택자동차운수주식회사, 등이 있었다. 평택자동차운수(주)는 1929년 5월 창립되었으며, 초대 사장으로 모리 겐끼치(森賢吉), 전무에는 다카자키(高崎利信)가 취임하였다. 1932년 임원진은 사장에 이치카와(市川直衛), 전무 송병황, 이사에 모리 겐끼치, 가야마(香山弘), 나까세(長瀨熊次郎), 감사에 메라(目良廣)과 송륜헌 등이었는데, 일본인이 절대적이었다. 초대 사장 모리 겐끼치는 평택역 인근에서 농기구를 취급하는 가네모(カネモ)상회을 경영하고 광산업에도 뛰어들었다. 뿐만 아니라 평택학교조합 평의원, 병남면협의원, 평택소방조두, 경기도의원 등으로 활동하였는데 평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지역 유지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서정리운수합자회사가 있었으며 대표는 일본인 카미타니(上谷龜太郎)였으며, 평택합동운수주식회사는 사장은 이성열이었지만 오카다(岡田武吉)와 후지모토(藤本新二)는 이사로, 모리 겐끼치는 감사로 참여하였다. 국제통운주식회사 평택지점의 점주는 평택합동운수(주) 이사로 활동하든 오카다(岡田武吉)가 맡았다. 오카다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카다상점을 경영하였다.

5. 교육기관과 일본인 교사들

평택지역 첫 근대학교는 1899년에 설립된 진위공립소학교였으며, 1908년 진문소학교, 1909년 동명의숙 등 사립학교가 설립되면서 근대교육이 사회적 확산되었다. 일제 강점 이후 평택지역에 설립된 공립학교는 진위보통학교(진위심상소학교→진위국민학교), 청북보통학교(청북심상소학교→청북국민학교), 고덕보통학교(고덕심상소학교→고덕국민학교), 내기보통학교(내기심상소학교→내기국민학교), 서탄보통학교(서탄심상소학교→서탄국민학교), 부용보통학교(부용심상소학교→부용국민학교), 서정리보통학교(서정리심상소학교→서정리국민학교), 평택보통학교(성동심상소학교→성동국민학교), 안중보통학교(안중심상소학교→안중국민학교), 평택공립심상고등소학교, 진위공립간이농업학교 등이 있었다.

이들 공립학교는 일본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 근무하였다. 초기에는 초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보통학교는 일본인 교사가 대부분 1명에 불과하였지만 일제 말기로 가면서 점차 늘어났다. 진위보통학교의 경우 1910년에는 일본인 교사가 1명(한국인 교사 2명)이었지만 1925년에는 2명(한국인 교사 8명), 1935년에는 3명(한국인 교사 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3.1운동과 전시체제로 인해 식민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점기 학교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장은 반드시 일본인이 맡았다.

진위공립간이농업학교는 진위보통학교 일본인 교사 1명과 한국인 교사 2명이 맡아 겸직하였다. 평택공립심상고등소학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현재의 일제 말기에는 중학교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 심상고등소학교는 일본인 교사만 임명되었는데, 1912년에는 1명이었지만, 1922년에는 3명, 1934년에는 4명, 1940년에는 5명의 일본인 교사가 근무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립학교는 식민교육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교사가 교육의 중심이었다. 각 공립학교의 일본인 교사의 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일제강점기 평택지역 교육기관 근무한 일본인 교사 현황[34]

학교명	이름	재직기간
진위보통학교 (심상소학교,국민학교)	大皷矢五一	1910
	岩佐米次郎	1911~16
	植村良藏	1917~18
	長友眞喜哉	1919~22
	原口峰三郎	1923~24
진위보통학교 (심상소학교,국민학교)	菊川貞子	1924
	白井模一郎	1924~27
	松浦マツ	1925
	橫山政吉郎	1926~27
	村田セスエ	1926
	後藤春治	1928~32
	北村知	1928
	古川ツイ	1928
	辻高義	1929
	德原霞	1932~39
	田中勇	1933~37
	附田鎭廈	1935~36
	瀧澤龍雄	1937
	土屋勝司	1938~40
	土橋鶴雄	1940
	島ノ江寅夫	1940~41
	岩月周夫	1942~43
안중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種子島久	1923~25
	蓮問森信	1925~26
	吉田熙	1927~34
	進藤利明	1930~31
	依田多助	1932~34
	佐藤龜市	1934~36
	石見利明	1934~37
	名執國之	1935~37
	金原辰五郎	1937~38
	近藤利仲	1938~41
	岡本利春	1938~41
	前平榮	1939~41
	松井政壽	1939~41
	沼田世民	1939~41
	豐島靖夫	1943

34) 〈표 5〉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조선총독부 직원록》에서 정리한 것이다.

학교명	이름	재직기간
청북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井關學	1927
	淵上九郎左衛門	1928~31
	橋本忠吉	1937
	和田和夫	1937
	豐田章一	1940
	大槻寬一	1940~41
	細川巴之市	1941
고덕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大塚欣一	1932
	日高雄三郎	1933
	山本稔太	1934~35
	早津隆平	1936~37
	重信美保	1938
	小川巳代治	1939~40
	德原從文	1940~41
	本田稔	1940
	原元鐵雄	1941
	山口秀子	1941
	末廣正路	1941
내기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島田淸	1930~33
	石黑春	1934~36
	藤本武夫	1937~38
	郡山淸香	1939~41
	豐田川本	1941
	日村藤枝	1941
서탄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石橋兵矣	1931~33
	山本新一	1934~38
	野村義男	1939
	大竹作市	1940~41
	西原淸吉	1941
	信川美枝	1941
	丸山恭二	1941
	白川睦人	1942~43
평택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谷本榮吉	1913~17
	石井龜藏	1917~18
	赤堀董	1918~21
	山本勝大	1919~24
	松村近太郎	1920
	杉浦逸夫	1922~23
	伊藤幾太	1922~24
	阿宅鈴子	1923~27
	久原吉次	1924
	渡邊定雄	1925~27
	井關學	1925~26

학교명	이름	재직기간
평택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吉田久勝	1927~28
	林新兵衛	1928~29
	村田ヤスヱ	1928~32
	小島秀一	1929
	宮里貞德	1930~32
	田中靜夫	1930
	中岡義彦	1931~32
	伊藤兵吾	1933~42
	竹澤繁之	1933~37
	泰敏	1934
	塚崎清明	1934~36
평택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更田上	1934~36
	武內三千代	1935~39
	澤田稔	1937~38
	稻石平吉	1937
	鳥飼三義	1937
	古川誠治	1938~40
	三木彌榮麿	1938
	名執國之	1938
	田部數衛	1939~41
	富士本義春	1939~41
	山下大生	1939
	千葉昌治	1943
	笛木傳三郎	1941
	松本健一	1941
	佐藤實	1941
부용보통학교 (심상소학교, 국민학교)	小武愛人	1928~29
	小島秀一	1930~31
	淵ノ上士龍	1932~34
	間森信	1935
	蓮間森信	1936~37
	佐藤只三郎	1938~40
	今野邦一	1941
	平岡一夫	1941
	松岡義子	1941
	香田茂一	1941
평택심상고등소학교	井山勘三	1912
	澁谷郡治	1915
	長谷川馨	1915~19
	見原正治	1917~19
	赤堀董	1920
	楠二郎	1920
	小山暢雄	1921~22

학교명	이름	재직기간
평택심상고등소학교	山室恭一	1921~22
	藤崎ヤスヱ	1922~23
	澤幡虎夫	1923~24
	石橋兵矣	1923~24
	村田ヤスヱ	1924
	荻田鐵雄	1927
	進直好	1926~27
	中川巖	1928~30
	吉村宗雄	1928~30
	定岡榮	1928
	野津美代	1929
	森田サキ	1930
	木野一夫	1933~38
	梁瀨次郎	1933~34
	前崎初子	1934~36
	大野朝子	1934
	小黑博	1935~36
	市丸村次	1935~41
	濟湯キク	1937
	菅原哲治	1937
	永田良日出	1938~40
	三方淸三郎	1938~39
	簑毛千代香	1938~39
	植田夏彦	1939~40
	齋藤重家	1940
	市丸ユエキ	1940~41
	矢內ちよ	1940~41
서정리보통학교	沖原南海	1923~28
	西村淸治	1924
	橫田彦胤	1925~29
	進直好	1929~33
	大塚欣一	1930~31
	神島源淸	1932~36
	鳥原光好	1934~35
	岡本利春	1934~37
	松崎正雄	1936~39
	松田龍一	1937~38
	江並幸郎	1938
	高橋靜一	1939~40
	高山貞子	1939~40
	繁山一秀	1940~41
	小島藤衛	1940~41
	森吉恒夫	1941

학교명	이름	재직기간
서정리보통학교	山根吟子	1941
	山本仁淳	1941
	石見富子	1941
	靑木明	1941
	越智通雄	1942~43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인 교사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을 한 학교에서 근무하였지만 대부분은 2~3년 정도였다.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에서 근무하였던 일본인 교사들이 〈표〉에서 본 바와 같이 적지 않았지만, 그들의 출신이나 근무지에 대해서 확인하지는 쉽지 않다. 물론 관련 자료에 의하면 근무지는 나름 확인이 가능하지만, 출신과 경력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자료가 남아 있는 몇몇 일본인 교사를 살펴보자.

진위공립보통학교에서 근무한 이와사 요네지로(岩佐米次郞)는 1911년 12월 2일 병파면과 여방면의 국유지 소작인조합 창립회에서 〈농업교육의 설명〉에 대해 강연한 바 있으며, 1914년 10월 총독부에서 소학교 및 보통학교 교장을 선발하여 도쿄부 주최의 전국교육자대회에 조선교육회 대표로 선발되어 견학하기도 하였다. 진위심상소학교 교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1938년 국방헌금으로 18원 70전을 내기도 하였다.

이와츠키 치카오(岩月周夫)는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출신으로 1913년 조선공립소학교 교사로 근무한 이래 용산공립심상소학교 교사, 양곡공립보통학교장 등을 거쳐 1942년부터 1943년까지 진위국민학교장으로 활동하였다. 사토 카메이치(佐藤龜市)는 미야자키현(宮崎縣) 출신으로 1912년 한국으로 건너와 여러 학교를 거쳐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안중보통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노브 나오요시(進直好)는 평택심상고등소학교와 서정리보통학교에서, 이세키 마나부(井關學)는 평택보통학교와 청북보통학교, 나집 쿠니유키(名執國之)는 안중보통학교와 성동심상소학교 등 이른바

관내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하야시 신베에(林新兵衛)는 평택보통학교장을 퇴임하면서 평택 재근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 교육회 5원, 보통학교 학부형회 10원, 청년회 야학부 5원, 학교조합 10원, 재향군인회 10원, 소방조 10원을 기부한 바 있다. 그런데 기부받은 이들 단체들은 대부분 관변단체였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토 효고(伊藤兵吾)는 1942년 3월 성동국민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문교의 조선》이라는 잡지에 〈대동아전쟁과 초등교육의 중점〉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는데,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로 볼 때 일본인 교사들은 일제의 식민지배에 적극 협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까지도 미화시키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군청과 경찰서 등 행정기관과 일본인

강점 직후 평택지역은 경기도의 진위군과 충남의 평택군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진위군과 평택군이 통합되어 진위군이 되었다. 이후 1938년 진위군에서 평택군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평택역과 평택역을 중심으로 일본인 사회가 형성되면서 전통적 중심지였던 진위군 봉남리 일대의 행정기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기관들이 교통의 중심지이며 역세권인 평택역 일대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강점기 일본인 유지와 이에 동조한 평택 유지들은 행정 지명을 병남면에서 평택면(후에는 평택읍), 진위군을 평택군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1938년 평택군이 되었다. 이에 따라 평택지역은 행정구역이 개편되기 전에는 두 개의 군이, 개편 후에는 1개의 군이 있었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상황에서 군수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까. 일제

강점기 군수는 식민지배 정책에 협력하였다는 점에서 친일 인물로 분류된다. 거꾸로 생각하면 식민지배에 협력하지 않으면 군수가 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이나 협력자들이 군수를 역임하였다. 평택지역은 일본인보다는 한국인을 군수로 임명하여 '일선융화'를 도모하였다.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에서 군수를 지낸 인물은 김복규(1910~1913), 김동항(1914~1918), 고원식(1919), 주영환(1920~1922), 최익하(1923~1929), 이원보(1930~1931), 김진민(1932~1937, 이상 진위군수), 이기(1910), 유원종(1911), 임연상(1912~1913, 이상 평택군수) 등 한국인이었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가 확립되면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모리야마(森山淸吾, 1938~1940), 미스하라(瑞原世中, 1941~43), 가네마쓰(金松秀明, 1943~1945) 등 3명이다. 이처럼 진위(평택)군은 군수는 대부분 한국인이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직은 일본인이 차지하였다. 1930년대 진위(평택)군청에 근무한 일본인 직원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1930년대 진위(평택)군청에 소속된 일본인 직원

이름	재직기간	이름	재직기간	이름	재직기간
道家武	1929~30	瀨良産三郎	1930	川路森藏	1928~33
宮迴曉	1930	井上一郎	1927~31	杉井平作	1929~31
吉村德三	1930~33	森山淸吾	1929~33	澄川正利	1931~34
中尾湖十郎	1932~35	鴇田庸雄	1932	西島明	1931~36
田吉秀	1930~33	武內貞雄	1933~38	田中計	1933~36
塚崎淸明	1934~36	長嶺政六	1934~36	岡末雄	1934~38
稻野勝三郎	1923, 34~35	三森善正	1935~37	小林愼治	1937~39
長井又三	1937~41	澤田稔	1937~38	伊籐亦吉	1937
川野鷹千	1937~39	林田磯次	1937~39	納富猪六	1936~37
折橋龍男	1937~39	永田良比古	1937	岡谷義雄	1938
松若鐵雄	1939~41	井口久祿	1938~40	武內貞雄	1933~39
三角喜代治	1938	肥後利盛	1939~40	田中耕作	1939~41
小坂橋英作	1939	田部數衛	1939~41	寒川豪	1939~41
小山安重	1939~40				

모리야마(森山)는 1923년 경기도 연천군 속(屬)으로 관에서 일을 시작하여 경성부, 수원군, 김포군을 거쳐 1929년 7월 진위군에 배치되었다. 《조선신문》에 의하면 그는 서무주임으로 재직 중 평택에서 미증유의 수해를 당하여 이재민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을 구조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농민들의 부업으로 가마니 생산을 적극 장려하였고 수해를 막기 위한 평택리(현 원평동) 제방공사 준공에도 많이 노력하였다. 1934년 인천부, 1935년 수원군, 1936년 개풍군, 1937년 양주군을 거쳐 1938년 진위군수로 발령되었다. 이후 1941년 안성군수, 1942년과 1943년 양주군수를 지냈다. 인천부로 발령받아 평택을 떠날 때 송별회를 가진 바 있는데, 지역 유지들이 기념품을 줄 정도였다. 진위(평택)군수로 있는 동안 국민정신총동원 평택연맹, 평택신사조영봉회 등 관변단체를 조직하는 등 식민지배에 적극 협력하였다.



〈사진 2〉 미스하라(瑞原) 평택군수



〈사진 3〉 모리야마(森山) 진위군수

미스하라(瑞原)는 경기도 이천군과 장단군수를 거쳐 1941년 평택군수로 부임하였는데, 장단군수로 재직 당시 군정에 진봉한 명군수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그만큼 식민지배에 충실하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평택군수로 재직할 때는 국민정신총연맹 평택군연맹 이사장으로 관내 각종 연맹 대표를 이끌고 부여신궁을 조성하는 노력 봉사를 하였다.

1943년 평택군수로 임명된 가네마쓰(金松) 군수는 부임 당시 "평택은 곡식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관문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므로 나로서는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미력이나마 성심전력을 다하여 생산확보에 노력하여 봉공할 터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그는 일제 말기 군수로 활동하면서 강제동원, 공출, 국방헌금을 강요하는 등 전시체제에 충실한 관료에 불과하였다.

경찰서는 이른바 치안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통치기관으로서 사찰 등으로 지역민에게 악명이 높았다. 물론 절도, 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검거하는 일도 기본적이었지만. 그러다 보니 경찰서는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일본인으로 배치하였다. 한국인도 경찰서에 근무하였지만 통역이나 경부보,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경부 등으로 지냈다.

우선 한국인으로 진위경찰서에 근무하였던 인물은 채규병(1914, 통역 겸 경부)와 주익상(1915~19, 통역 및 경부), 평택경찰서는 이상훈(1922~26, 경부보), 신형수(1927, 경부보), 강대규(1928~30), 서재욱(1931~35, 경부보), 이중수(1936~37, 경부보), 김일석(1938~39, 경부보) 등이 있었다.

경찰서장의 직급은 경부였으며, 진위경찰서장으로 확인되는 일본인은 사루와타리 타다스케(猿渡唯助, 1914), 오카모토 이노키치(岡本亥之吉, 1915~16), 이노우에 스에지로(井上末次郎, 1917~18), 오자키 리이치(小崎利一, 1919~20), 토미타 에에슌(富田英俊, 1921) 등이 있다. 진위경찰서는 1921년에 평택경찰서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근무했던 일본인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평택경찰서에 근무한 일본인들

이름	재직기간	이름	재직기간	이름	재직기간
富田英俊	1921	花輪庫次郎	1921	兼太郎	1921~22
藤田三四作	1922	岡稠松	1922	管野芳松	1923~24
長尾猛馬	1923	坂本爲之助	1925~27	田邊信治	1926~27
新海公	1925	夏井一雄	1928~30	田中傳次郎	1928~29
梅田新太郎	1930~31	渡邊武重	1931	野口謙吉	1932~34
岩崎良太	1932~33	岡村寬義	1934	矢野儀	1935~37
工藤鐵雄	1935~39	墓田藤藏	1935~37	通澤良三郎	1938~39
藤原友之助	1938	中川實次	1939	石邊治平	1940
本多三郎	1940	曾根喜吉	1940	富田政人	1941
宮尾治平	1941	芝山光雄	1941	萬藏雄	1943



〈사진 4〉 야노 평택경찰서장

위의 〈표 7〉에 의하면 진위(평택)경찰서는 대개 1~2년 정도 근무하였으며, 쿠토(工藤鐵雄)처럼 5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1935년 평택경찰서장을 역임한 야노(矢野儀)는 미아자키현(宮岐縣) 출신으로 일제 강점 직후인 1911년부터 조선총독부 순사를 시작으로 순사부장, 도경부보, 도경부, 용인경찰서장 등을 역임하고 1935년에 부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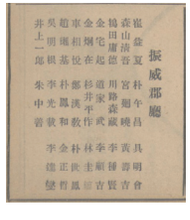
〈사진 5〉 우메다 평택경찰서장

이보다 앞서 1928년 경찰서장이었던 다나카(田中傳次郎)는 재임 시 독특한 수완으로 관민융화에 노력하였다고 하였으며, 특히 소방시설과 전염병 예방시설에도 공적이 컸다고 하였다. 그는 1930년 1월 17일 수원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지역 유지들이 진위군청에서 송별회를 갖고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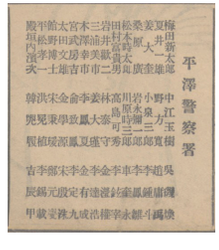
일제 말기 반쿠라(萬藏雄)는 평택경찰서장으로 부임할 때, 관민 유지들이 평택역에서 그를 맞이하였다. 반쿠라는 평택신사를 참배하면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였다. 그는 평택이 평야지대이므로 “식량증산과 치산치수에 경민일치(警民一致)로 9만 군민 각위의 노력을 얻어 멸사봉공할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1930년 경철서장이었던 우메다(梅田)는 부임 초기에는 도박단 검거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는데, 30여 명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그는치안 외에도 도로부설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교통로가 산업발달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므로 도로 확보에 노력하였다. 특히 홍수로 인해 유실된 평택교, 백봉교, 안궁교 등 복구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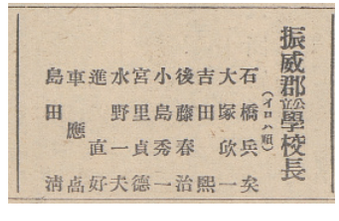
1940년 2월 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소네(曾根喜吉)는 경무쇄신, 한해대책, 미곡통제조합, 방범협회 설치 등의 공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10월 후진을 위해 용퇴하고 실업계에 진출하였다. 소네는 항공기 모형 및 그 자제의 가공 배급하는 조선항공기모형재료배급(유)를 설립하여 지배인이 되었다. 이처럼 경찰을 퇴직한 후에는 지역이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신문에 게재된 평택경찰서 광고〉



〈조선신문에 게재된 진위군청 광고〉



〈공립학교장 신문광고(조선신문 1932년 1월 30일)〉

7. 일본인 단체와 주요 인물들

일제강점기 일본인은 이른바 ‘1등 국민’이었다. 일제는 강점기 내내 동화정책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내선융화’를 강조하였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차별하였다. 예외적인 경우는 일제 지배에 협력하는 관계였다. 이른바 ‘친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일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인 중심의 민간단체 또는 자치단체를 조직하였다. 즉 이들은 모국과 동일화시킴으로써 식민지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할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에 사는 일본인에게 국가 의식을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단체이다. 일본인 중심의 대표적인 이들 단체는 소방조(消防組), 재향군인회(在鄕軍人會),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 경방단(警防團), 학교조합(學校組合) 등이 있다.

소방조는 일본인이 한국에 이주 정착하면서 조직된 단체이다. 일본인은 자신들의 거류지 내지 거주지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조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황성신문》 1910년 2월 19일자에 의하면 31개의 소방조가 조직되었다고 한 바 있다. 1918년에 이르면 전국적으로 7백여 개의 소방조가 조직되었다. 일본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되었지만, 조장이나 조두 등 간부들은 일본인이었다. 창립 20주년에는 기념식을 갖고 공로가 많은 조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소방조는 전시체제기인 1939년에 경방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군인정신의 보지(保持)’를 목적으로 하는 재향군인회는 제국재향군인회의 약칭으로 불리며, 1910년 본부가 조직된 이후 일본인 사회를 중심으로 분회가 조직되었다. 애국부인회는 박애사업을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군사원호사업과 일선융화를 사업내용으로 하였다. 서울에 본부가 있고 역시 일본인 사회에 분회가 조직되었다. 학교조합은 1909년 학교조합령에 따라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일본인 사회의 일본인 학교 설립과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들 관변단체는 일본인 유지들이 조직과 운영 등 주체가 되었으며, 정치와 경제, 교육 등 식민지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대부분 소방조가 조직되었으며, 당시 발행되었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팽택소방조 조직은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매일신보》 1916년 5월 9일자에 의하면 〈평택소방조 점검〉이라는 기사가 처음으로 게재된 바 있으며, 《조선신문》 1932년 5월 22일자에 '메이지(明治) 45년 3월 공인 창설 이래'라고 하였다. 이로 볼 때 평택소방조는 1911년 3월에 조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매일신보》 첫 기사에는 '경기도 경무부 관하에 있는 평택소방조'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자발적인 단체라기보다는 관 주도하에 조직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새로 소방기구를 구입함에 따라 다이라쿠(大樂) 순사부장이 출장하여 점검 연습을 하였고 성적이 매우 양호하다고 하였다. 평택소방조의 조직 당시 주요 인물은 확인되지 않지만, 1924년 4월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조장(助長)은 모리 켄키치(森賢吉), 소두(小頭)는 오쿠무라 세에지로(奧村政治郎), 이와미 카메조오(石見龜藏), 하마무라 미야나나(濱村宮七) 등이 선임되었다.

평택지역에는 평택소방조 외에 서정리소방조, 안중소방조, 봉남소방조 등 4개가 있었다. 이들 소방조에서 활동한 인물은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평택지역 소방조에 활동한 인물들

평택소방조	서정리소방조	안중소방조	봉남소방조
森賢吉, 奧村政次郎, 石見龜藏, 濱村宮七, 최영향, 정인창, 高崎利信, 龜澤莊次郎, 長瀨態次郎, 안종옥, 橋本柳助, 住田安次郎, 永井春吉, 藤本新二, 藤定準一, 岡田武吉, 伏見安男, 안종각, 橋本右一, 佐藤正吉, 장대완, 尾上霜吉, 藤本新次, 小笠原男, 김호길, 손언득, 손훈기, 김윤환, 小尾勇之助, 이명환, 小林鹿藏, 長谷幸太郎, 신기휴, 안경열, 김진한, 문도상, 김천수	多田仲太郎, 上谷龜太郎, 鳥越太郎, 三宮金治, 이재관, 한범교, 이남룡, 김종태, 이광룡, 박윤석, 유병렬	中村昇, 엄계긍, 김창서, 中脇源藏, 김덕성	勝紀藏, 우종룡, 安藤瀧藏, 박성백, 眞木淸五郎,

평택소방조 부조두였던 오쿠무라(奧村)는 시가현(滋賀縣) 가모우군(蒲生郡) 히노쵸(日野町) 출신으로 1909년 11월에 평택에 정착하여 20여 년간 평택지역 발전 특히 소방조에 가업을 희사할 정도로 적극 활동하였다. 평택역 인근에서 칠기와 도자기, 시멘트, 금속류 등 잡화를 취급하는 오쿠무라상점(奧村商店)을 경영하였다. 태평양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1944년 3월에는 국방헌금 1천 원을 납부하기도 하였다.

초대 모리(森賢吉)에 이어 1933년 1월 조두로 임명된 하시모토 유이치(橋本右一)는 야마구치현(山口縣) 구마겐군(熊毛郡) 무로쯔미쵸(室積町) 출신으로 야마구치보병대에 입대하여 러일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09년 한국으로 건너와 평택에 정착, 학교조합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평택소방조의 훈련은 평택역 구내 광장에서 봄과 가을에 정기 소방연습을 가졌으며, 이날 운동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는데 1924년 5월 춘계운동회는 평택경찰서 연무장에서 개최되었다. 1929년 6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일본 국기로 알려진 스모(相撲) 선수단을 초청하여 경기를 가진 바 있는데, 평택과 서정리, 안중 등 평택뿐만 아니라 안성, 둔포, 성환 등지에까지 홍보하여 관객을 동원하였다.

소방연습은 경찰서장의 조원 및 기구점검, 펌프의 조작 교련, 가상연습 및 방수 시험, 강평 및 연습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 반에 종료되었다. 소방조의 주요 활동은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 1927년 1월 21일부터 21일간 일본인과 한국인 등 4명으로 구성하여 화재 및 도난방지 경계를 하는 한편 화재방지 소책자를 전 시내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특히 화재 진압과 홍수로 인한 재안구조, 야간 경계 등 소방조의 활동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평택지역의 재향군인회의 첫 기록은 조선총독부 일본어판 기관지 《경성

일보》(1924년 2월 23일)에 등장한다. 처음 명칭은 재향군인회 진위분회이다. 당시 진위분회는 사기를 고무할 목적으로 청일전쟁 당시 죽은 마쓰자키(松崎) 대위를 기리는 충혼비 참배를 겸한 원족회를 가졌다. 마쓰자키 충혼비는 성환에 있었지만 평택을 소개할 때 자주 언급되었다. 마쓰자키 충혼비는 일본인이면 참배해야 하는 주요 기념물이었으며, 일제는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재향군인회는 일왕의 조서(詔書)가 내리면 이를 봉독하는 의식을 가졌는데, 진위분회도 평택경찰서 연무장에서 조서봉독식을 가졌다. 봉독식에는 경성지부장 대리 다카츠카(高塚) 대위가 조서를 봉독하고 '우리(일본) 국민사상의 현상과 외국과의 대조', '국민통일 지도가 되는 영국의 노력' 등 군사 강연을 가졌다. 이 시기 분회는 니시무라 오리타이로(西村折次郎)가 회장, 아사노 야스유키(淺野保之)가 부회장을 맡았다. 니시무라(西村)는 평택역 앞에서 비료, 농구, 곡물, 석유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유지였으며, 아사노(淺野)는 평택역 도쿠가와(德川) 농장의 조선토산부 주임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였다.

《조선신문》 1927년 2월 18일자에 의하면, 2월 13일 개최한 역원(役員) 월례회에서 재향군인회 진위분회를 평택분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총회는 육군기념일에 맞추어 개최하였으며, 용산 조선군사령부로부터 장교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재향군인회는 전시체제기에는 국방헌금 모금, 출정군인 가정위문, 실전좌담회, 국방사상 보급, 시국강연 등 전쟁과 관련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전할 항공기 조선호 제작을 위한 국방헌금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재향군인회에 참여한 인물로 박병석(朴炳奭)이 있다. 그는 합정리에서 태어났으며 평택역 앞에서 미곡상을 운영하였다. 일본어판 신문인 《조선신문》과 《부산일보》의 지국장, 평택소방조 부조두, 재향군인회 명예회원, 평택면협의회 의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신문》은 그를 '일선융화의 선구자'라고 평가하였다.

애국부인회 평택분회는 938년 10월 22일 조직되었다. 그렇지만 주요 인물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설립대회인 제1회 총회에서 모리야마(森山)가 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총후부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1940년 1월 국방부인회와 함께 초회(初會)를 개최하고 표창장 전달식을 가는 한편 츠다(津田節子)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가진 바 있다. 애국부인회 오성지부는 1939년 국방헌금을 납부한 바 있다.

평택학교조합은 1911년 11월 9일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설립 당시에는 팽성면이 활동 구역이었지만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이후에는 병남면으로 구역을 옮겼다. 일제 강점 직후 평택에서도 학교조합이 설립되었지만 활동은 미미한 편이었다. 즉 1910년대 조합 의원과 활동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학교조합 활동은 1926년 7월 28일 《경성일보》에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내용인즉 학교조합 의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총선거를 위해 7월 24일부터 3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한다는 것이다. 21명이 입후보한 선거전은 치열하였고 그 결과 모리 겐키치(森賢吉), 메라 히로시(目良廣), 핫토리 고키(服部五畿), 오하시 카조오(大橋嘉藏), 니시무라 오리타이로(西村折太郎), 아사쿠라 카즈야(朝倉一彌) 등이 당선되었다. 평택학교조합은 관리자 1명과 의원 5명으로 구성되었다. 선거 입후보와 선거권은 납세 기준에 의해 주어졌다. 확인된 평택학교조합 의원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평택학교조합 의원 명단[35]

년도	평택학교조합 의원
1926	森賢吉, 目良廣, 服部五畿, 大橋嘉藏, 西村折太郎, 朝倉一彌

35) 〈표 9〉는 《조선신문》을 통해 작성하였다.

1929	橋本右一, 西村折太郎, 石見龜藏, 目良廣, 森賢吉, 粟屋寅槌
1932	目良廣, 澁谷光平, 西村折太郎, 西村義雄, 波多野哲二郎, 荒木倉一
1933(보궐)	西村折太郎, 波多野哲二郎 → 岡田武吉, 石見亀藏
1936	目良廣, 石見龜藏, 荒木倉一, 西村義雄, 岡田武吉, 澁谷光平

학교조합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였다. 관리자였던 모리(森)는 농업계뿐만 아니라 실업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었으며, 아사쿠라(朝倉)는 평택금융조합 이사를 겸임하였다. 특히 근 관민융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받았다. 하시모토(橋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택소방조 조두, 재향군인회 평택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특히 평택에 전화를 가설하는데 노력하기도 하였다.

위의 〈표 9〉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가시와기 쿠라키치(柏木庫吉)도 학교조합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10년대로 추정된다. 그는 오이타현(大分縣) 시모게군(下毛郡) 나카츠쵸(中津町) 출신으로 1906년 9월 한국으로 건너와 서울에 정착하였다. 시미즈 시게타로(清水繁太郎) 상점에 입사하여 용산지점 지배인이 되었다가 1910년 독립한 후 평택에서 잡화 무역, 소가죽, 대금업 등으로 경제적 부를 축적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평택청년회장, 평택거류민회 평의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일본인 단체는 기본적으로 관의 식민지배에 적극 협력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관제단체 또는 관변단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인의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조직되었지만, 이들 단체 역시 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관의 적극적 후원이 뒤따랐다. 이들 일본인 단체는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인 사회의 교류와 결속을 유지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전시체제기인 1930년대 이후에는 인적 물적 동원을 적극 후원하였다. 그리고 이들 관변단체에는 한국인들이 서성거렸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른바 친일 인물이 적지 않았다.

8. 해방으로 일본인사회 해체, 그들의 음과 양

평택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 확립하기 위해 일본인 중심의 각종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른바 학교조합, 소방조, 재향군인회, 애국부인회 등이다. 학교조합은 일본인 본위의 교육을 위한 조직이었다. 1906년 거류민단법의 공포로 당시 한국 내에 일본인들은 자치조직인 거류민단을 설치하는 한편 일본인의 교육에 관한 학교조합령을 발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평택에서도 학교조합이 조직되었다. 학교조합은 거류민단이 해체된 이후 일본인 사회의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가 되었으며, 평택지역 일본인 유지들이 운영의 중심이 되었다. 소방조는 화재를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였지만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소방조 조직은 조두과 부조두, 그 아래 부장과 소두, 소방수 등을 두었다. 조두와 부조두는 대부분 일본인들이 맡았다. 1915년 '소방조 규칙'이 발포됨에 따라 경찰서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변단체가 되었다. 평택지역에 화재가 발생하면 오늘날과 같은 소방서가 없었기 때문에 소방조의 역할이 컸다. 평택역 일대에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이 기사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인식도 호의적이었다. 재향군인회와 애국부인회는 철저하게 일본인 중심의 관변단체였다. 이 두 개의 단체는 원래 단체명 앞에 '제국'이란 명칭이 붙어있듯이, 제국 일본을 위한 단체였다. 재향군인회는 해군기념일 또는 육군기염일에 총회를 개최하여, 제국 일본군의 정신을 기렸다. 1927년 3월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는 〈러일전쟁과 구주전쟁〉이라는 강연을 통해 일본이 승리한 전쟁의 영광을 기억하고자 하였다. 이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려는 일본 정신이 그대로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인 단체는 일본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

였다는 점에서, 식민지배 체제와 맞물려 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시체제기가 형성되는 1931년 이후에는 전쟁 동원에 앞장섰으며, 철저한 내선일체 즉 황국신민화하는 데 적극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45년 해방으로 개항 이후 형성된 일본인 사회가 해체되었듯이, 평택지역에서도 일본인 사회도 자연 해체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인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려고 하였지만, 미군정은 무조건 송환을 발표함에 따라 평택지역의 일본인도 모국으로 돌아갔다. 해방 당시 평택지역의 일본인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아 그 동태를 확인할 수 없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빈털터리로 한반도를 떠나 일본 본토로 귀국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본 우익들은 이들을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요코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일제강점기 평택지역에 살았던 일본인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은 어떠했을까가 궁금하다. 이와 관련된 기록은 사실상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호의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인 평택주민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린치를 가하기도 하였다. 1932년 7월 평택경찰서 안중주재소에 근무하는 일본인 순사 가와하라(川原時三郎)은 22세 불과하였는데, 63세의 노인을 함부로 린치한 사건이 있었다. 가와하라(川原)은 새벽까지 술을 먹고 돌아가던 중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고 뒤쫓아 갔으나 찾을 수 없었다. 마침 63세 되는 주민 황영천을 만나 수상한 사람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목도(木刀)로 난타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우에나이(上內) 경기도 경찰부장이 해명을 했지만, 평택 지역민의 인식은 싸늘하였다. 가와하라(川原)는 이 살인사건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933년 5월 일본인 평택가마니검사원 삿사(佐佐)의 구타사건이 일어났다. 송탄 사는 청년 한원석은 가마니 검사에서 한국인 검사원에서는 상등급을 받았으나 삿사(佐佐)에게는 중등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억울함을 불평하였다가 삿사(佐佐)에게 무수하게 구타당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지역민은 폭행에 대해 비난하였다. 이는 그동안 일본인 검사원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일본인이 병남면 동삭리에서 평택지역민 5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살인사건은 동삭리 주민 30여 명은 일본인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주민은 일본인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들고 있던 절구공으로 반항하므로 결국 일본인을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지역민의 행위는 정당방위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주동 인물 2명을 살인죄를 적용하여 경성감옥으로 송치하였다. 이들은 결국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평택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회고록이나 구술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인의 삶을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본인이 발행한 《조선신문》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

소방조 조두와 부조두로 활동한 바 있는 모리(森賢吉), 오쿠무라(奧村政次郎), 나가세(長瀨熊次郎)는 다년간 소방 활동에 진력하였으며 평택에 소방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로 인해 평택지역에 화재가 나면 진화 활동에 적극 나섰으며, 수해가 발생하면 구호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모리(森賢吉)은 소방 활동과 소방시설의 구비 등 공적으로 평택경찰서와 조선소방협회로부터 수상을 받는 등 명조두로 이름을 알렸다. 이외에도 그는 평택의 여러 분야에서 공직을 맡아 평택지역 개발에 공적이 많아 일본인뿐만 아니라 평택지역민으로부터 신뢰가 크다고 하였다.

서탄면 금암리에서 진위흥농을 설립한 야마다(山田顯義)는 평택에 이주하여 황구지천 일대를 개간하여 농지를 확보하였으며, 진위흥농을 해산할 때에는 소작인들에게 분급하기도 하였다. 소작인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정도였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평택을 발전시키기 위해 평택발전회를 활용하였다. 평택발전회는 3.1운동 이후 평택 지역인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지만, 점차 일본인이 중심이 되었다. 1930년에 이르러 평택의 상징인 평택시가 중심에 있는 연못을 메워 시장을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앞장서 추진한 것이 평택발전회 회장 모리(森賢吉)이었다. 모리(森賢吉)는 평택 번영의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조선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모리에 대해서 "10년을 하루 같이 평택 발전에 힘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선전가를 만들어 부르기도 했다. 선전가는 조선에서 쌀 생산지는 평택평야, 역에는 산과 같이 쌓여있는 가마니 등으로 평택의 평야와 쌀, 가마니 생산을 자랑하고 있으나, 청일전쟁의 승리한 평택·성환전투를 찬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 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200년대 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생산한다고 할 때 일본에서는 "차라리 후지산을 물구나무 걸음으로 오르겠다고 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는 일본은 여전히 강점기 시기의 우월인식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일본의 코를 납작 눌렀다. 일본은 결국 OLED 생산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국은 세계 OLED 시장을 독점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들어 일제강점기 일본인 또는 일본인 관련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서도 이러한 일본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인식은 그만큼 암울했던 역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발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말과 일제강점기 평택에 이주 정착한 일본인과 일본인 사회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일본인은 두 가지 시선이 상존하고 있다. 침략과 식민지배, 근대 이양이라는 양면성이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마주할 때는 '늘 이겨야 한다'는 생각 즉 극일을 마주하게 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한말과 일제강점기 평택에서 살았던 일본인 사회를 조금이나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한다.



〈《조선신문》 1935년 11월 1일 6면 전면에 소개된 평택〉



〈《조선신문》 1931년 2월 22일자 6면 전면에 소개된 평택〉



〈《조선신문》 1932년 1월 30일 6면 전면에 소개된 평택〉

■ 참고문헌

《황성신문》
《매일신보》
《경성일보》
《조선신문》
《동아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조선총독부 직원록》
조선총독부 경기도, 《경기도 안내》, 糀谷인쇄소, 1915
경기도 진위군, 《경기도 진위군 군세일반》, 1929.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재조일본인 정보사전 편찬위원회, 《개화기·일제강점기(1876~1945) 재조일본인 정보사전》, 보고사, 2018
이동훈, 〈재조일본인 사회의 '발전사(發展史)' 간행과 식민자들의 창조된 '향토'〉, 《비교일본학》 52, 한양대학교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1
이가혜, 〈조선인 작가 문예물의 재조일본인 화류계 여성의 표상〉, 《일본학보》 128, 한국일본학회, 2021
엄승희, 〈일제강점기 요업활동 주체자로서의 재조일본인 구성과 그 식민성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18-1, 한국도자학연구회, 2021
엄승희,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 엘리트들의 요업활동 본질과 조선통치론〉, 《한국전통문화연구》 2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2021
최혜주 외, 《일제의 식민지배와 재조일본인 엘리트》, 어문학사, 2018; 이규수, 《개항장 인천과 재조일본인》, 보고사, 2015
고윤수, 〈1910~1930년대 대전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사회〉,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28, 도시사학회, 2021
전성현, 〈식민자와 식민지인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역사와세계》 48, 효원사학회, 2015,
류교열, 〈1930년대 식민지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죽음'의 폴리틱스〉, 《일어일문학》 49, 대한일어일문학회, 2011
한현석,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사회와 신사 : 개항기(1876년-1910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홍순권, 〈일제시기 부산지역 일본인사회의 인구와 사회계층구조〉, 《역사와 경계》 51, 부산경남사학회, 2004; 김승, 《근대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문화변용》, 선인, 2014
이창언, 〈식민지시기 구룡포지역의 일본인 사회〉, 《민속학연구》 2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2010
조윤수, 〈1910~1930년대 대전의 도시개발과 재조일본인사회〉, 《도시연구 : 역사·사회·문화》 18, 도시사학회, 2021
김일수, 〈일제강점기 김천의 일본인사회와 식민도시화〉, 《사림》 56, 수선사학회, 2016
배수형, 〈1910년대 재경 일본인사회의 교육사업 : 경성학교조합의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철규,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 : 191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6, 부산경남사학회, 2005
강호강, 〈일본인의 晉州 移住와 일본인 사회의 형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21
이성우, 〈1910년대 대전의 일본인 사회 동향과 《조선대전발전지(朝鮮大田發展誌)》 편찬〉, 《탈경계 인문학》 13-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20

박준형, 〈용산 지역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 1882~1945〉, 《서울과 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오미일,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 사회와 지역 단체 : 원산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4, 역사문제연구소, 20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해방이후~1960년대 농촌 마을의 공동 활동과 공동체 감각의 변화*)

- 평택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

양선아/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

차 례

1. 서론
2. 조사 자료의 특징과 상장례 관련 계 현황
3. 대동(大同) 행상(行喪) 조직의 결성과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
4. 공동 활동의 새로운 공간으로 마을의 부상
5. 결론

*) 이 글은 《실천민속학회》39(2022.02)에 게재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서론

한국학계에서 마을로 대표되는 소규모 단위의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는 현지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농촌사회학과 인류학, 민속학 등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195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이 분야들의 연구에서 1950~60년대 농촌 마을은 '전통적 공간'으로 표상되었다. 이 시기 농촌은 아직 도시화와 산업화 등의 영향이 적게 미쳤던 공간으로, 현지조사에서 접한 당시 농촌 마을의 사회·문화적 양상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분과학문이 제도화되는 초기,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그려진 농촌은 시대적 변화 속에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1] 이와 같은 관점은 이후 농촌 마을 연구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농촌의 변화를 다룬 연구라고 할지라도, 초기 연구에서 1950~60년대 농촌에서 추출한 전통적인 농촌 상은 본격적인 시대적 변화 이전에 있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2000년대 초부터 민속조사, 마을지 편찬 작업 등에 참여하면서 경기지역의 농촌을 조사하기 시작한 필자는 노년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젊은 시절인 1950~60년대 마을 일에 참여했던 경험을 들려줄 때 종종 어떤 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마을에서 들을 이야기가 뭐가 있겠냐며 인터뷰에 선뜻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이 겪었던 일들이 생생한 역사이고 책이나 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설득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젊은 시절에 했던 마을 일에 대한 대목에서 그들의 흥은 한껏 차올랐다. 그 흥의 실체를 따져보면 고생했으나 집안을 따지지 않고 어울려 일을 했던 경험에서 오는 것이었다. 이는 젊은 날의 과거 회상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황금시대의 오류'일 수도 있겠으나, 그들의 고생담 속에는 내가 만들어온 역사라는 어떤 자부심이 들어있었다. 그들의 회상 속에 1950~60년대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시대였으며, 그들이 사는 농촌 마을은 전통이 단순히 이어지는 공간이 아니었다.

본 연구의 관심은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해방과 새로운 독립 국가의 건립, 농지개혁,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는 격변기를 거친 농촌 마을은 주민들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움직임이 꿈틀대고 일렁이고 들끓는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에서는 경기도 평택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1960년대 농촌 마을에서 전개되었던 주민들의 공동 활동의 양상을 살펴보고, 전통의 변용이라는 차원에서 그 동력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000년대 이후 역사학, 인류학, 민속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해방 이후~1960년대 농촌 마을에 대한 연구는 시대상을 부각하면서도 마을의 구조 또는 문화의 연속성 상에서 마을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이들 연구는 주요 분석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경향으로 나뉘는데, 역사학계의 연구들은 주로 농촌 마을 내부의 권력 변화에 주목하면서 국가 권력과 '근대적' 요소들이 농촌 마을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역사학계의 연구들이 주목한 대상은 마을 내 청년 세대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이다.[2] 한편 인류학 및 민속학계의 연구들은 반상 관계 유제(遺制)의 해소라는 측면에 좀 더 주목하여 마을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의 연구들은 특별히 반상 관

1) 한국학계에서 농촌사회학과 인류학이 제도화되는 시기에 활동한 최재석과 한상복의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을 잘 보여준다. 최재석, 1975,《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한상복, 2011,《평창 두메산골 50년: 다시 찾은 봉산리와 용산리 1960-2010》, 눈빛 참조.

2) 김영미, 2009,《그들의 새마을운동: 한 마을과 한 농촌운동가를 통해 본 민중들의 새마을운동 이야기》, 푸른역사; 김영미, 2013,〈평택 대곡일기를 통해 본 1960~70년대 초 농촌마을의 공론장, 동회와 마실방〉,《한국사연구》161, 한국사연구회; 이용기, 2003,〈1940~50년대 농촌의 마을질서와 국가 — 경기도 이천의 어느 집성촌 사례를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10, 역사문제연구소 등.

계 유제가 강하게 남아있었던 상여 행상(行喪) 관행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새로운 조직의 출현에 관심을 기울였다.[3] 두 가지 경향의 연구들은 당시에 있었던 농촌 마을의 새로운 변화상을 보여주나, 각각의 연구들에서 그려지는 농촌 상을 보다 보면 다른 시대의 농촌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이는 사례 중심 연구에서 오는 사례의 개별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면도 분명 있으나, 사례의 개별성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농촌 마을의 변화에서 특별한 측면만이 부각된 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평택 서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먼저 인류학 및 민속학계 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행상 관행의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상장례 조직의 출현 양상을 살펴본 후,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새로운 공동 활동들을 소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연결점을 찾지 못했던 해방 이후~1960년대 농촌의 변화상에 대한 통합적인 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조사 자료의 특징과 상장례 관련 계 현황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평택 서부지역 사례는 안중읍·포승읍·현덕면 소재 19개 행정리에 대한 것으로, 평택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마을기록사업〉에 필자가 참여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필자는 이 사업이 처음 기획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업은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 평택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조사대상을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로 정하고,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마을의 변화상을 생활문화 차원에서 조사·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조사 마을은 일 년을 단위로 새로 선정되었으며, 연도별로 조사보고서가 발간되었다. 참여 조사자별로 조사 마을이 지정되었는데 일 년에 한 명의 조사자에게 보통 2개의 법정리, 4~7개의 행정리가 배정되었으며, 조사 자료는 법정리 단위로 정리되었다. 마을별 보고서는 인문지리와 개인별 구술로 구성되었다.[4] 이 중 인문지리 부분은 기획 단계에서 기본적인 조사 지침과 공통 조사항목을 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정리하도록 하였다. 개인별 구술 채록은 개인의 생애와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현지 자료의 수집을 통한 기록화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조사의 중심은 구술 자료의 수집에 있었으나, 개인이나 마을 차원에서 소장 중인 문서 수집도 함께 이루어졌다.

행정리를 단위로 한 개괄적인 기초 조사라는 특성상 조사 과정은 한 마을에 대한 심층적인 현지조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좀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수년에 걸쳐 공통 질문지를 가지고 인접한 여러 행정리를 조사한 결과 특정 항목에 대한 행정리별 현황과 분포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중의 하나가 상장례 계로,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3) 안승택, 2019, 〈근현대 향촌사회에서 상여를 메던 '아래것들'과 공동체의 '살갗': 경기남부의 사례〉, 《한국문화인류학》 52-1, 한국문화인류학회; 오창현, 2008, 〈농지개혁과 마을 공동체의 변형: 경기 동남부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정승모, 2002, 〈장례와 관련한 동계(洞契)의 변화와 '유학'계: 19세기 후반 이후의 경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5, 역사민속학회 등.

4) 이 글에서 이용한 보고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평택문화원, 2014,《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및 편찬 사업보고서》 희곡2·3리 편; 평택문화원, 2015, 《2015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운정리, 화양리, 현화리 편; 평택문화원, 2016,《2016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권관리, 기산리 편; 평택문화원, 2018,《2018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도대리, 방축리 편.

〈표 1〉 조사지역 행정리와 상장례 관련 계 현황 (해방 이후~200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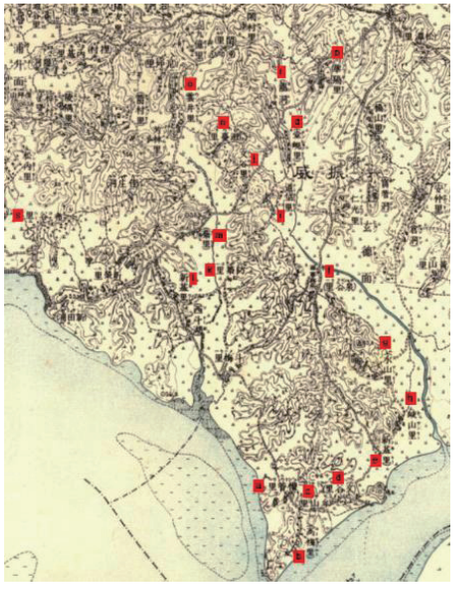
리		취락 분포*	거주 성씨	상장례 계			비고
법정	행정			명칭	범위	조직 시기	
권관	1	상하동	전주이씨 수성최씨 기타	연반계	1리	해방 이후	* 연반계 조직 이전 권관리 전체와 기산3리 기산 마을이 참여하는 상계 조직되어있었음
	2	고잔 버리미 [牟山] 강당	각성바지	연반계	2리	해방 이후	
	3	문곡 텃골 [基谷]	각성바지	연반계	3리	해방 이후	
	4	가사	각성바지	없음			* 1960년대 피난민 간척촌으로 조성
기산	1	아랫샘 골 [岐泉谷]	곡부공씨 함평이씨 남양홍씨 기타	연반계	1리	-	
	2	물미 [水山]	곡부공씨 (집성촌)	연반계	2리	-	
	3	기산	각성바지	연반계	3리	해방 이후	
도대	1	웃샘골 [道泉谷]	각성바지	연반계	1리	-	
	2	돛대 [道垈]	상주황씨 수성최씨 기타	연반계	2리	1952년	* 2006년 개정 연반계 계칙 전래 * 1957년 관대계, 차장계 조직, 관련 문서 전래
	3	글갱이 [文谷]	함평이씨 상주황씨 기타	연반계	피우치 글갱이 대정	1950년대 말	* 운정1리 피우치, 화양1리 대정 마을과 연반계 조직
방축	1	방죽말 새터	함평이씨 기타	연반계	1리	한국전쟁 이후	* 연반계 조직 이전 포승읍 신영4리 매상동 사람들과 운상
	2	국말	함평이씨 청주한씨 기타	연반계	2리	-	
운정	1	피우치	함평이씨 (집성촌)	연반계	피우치 글갱이 대정	1950년대 말	* 운정1리 피우치, 화양1리 대정 마을과 함께 연반계 조직 * 1989년 이후 연반계 문서 전래 * 1941년 피우치 이중계 조직
	2	구르물 [雲井] 검덩굴	함평이씨 (집성촌)	연반계	2리	해방 이후	* 해방 이전 가마 및 상여를 메는 일은 마을 내 하층민들이 담당
화양	1	당재 대정	〈당재〉 문화유씨 평창이씨 의령남씨 기타 〈대정〉 함평이씨 기타	연반계	화양리 전체	-	
	2	용골	평창이씨 의령남씨 창녕황씨 기타				
	3	행궁이 [華陽洞]	평창이씨 (집성촌)				* 1990년대 중반 안중읍 현화1리로 편입되면서 화양리 연반계에서 분리
희곡	2	일자촌 다락말 새터말 통뿌리	함평이씨 기타	대동친 목계	2·3리	1960년대	* 1958년 함평이씨 5대손 혼구계 결성
	3	원희곡 댓골 도랏말 소시비					

* 취락 분포에서 [ ] 안은 이명(異名)을 표기한 것이다.

〈표 1〉에서 법정리는 1910년대 행정구역 통폐합 당시 기존에 있었던 평균 2~3개의 리를 통합하여 새롭게 신설된 행정구역 단위이다. 학계에서는 기존 리를 구동리(舊洞里)라 칭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구동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행정리로 부활하였다.[5] 이와 함께 1910년대에 신설된 리는 법정리로 남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구분이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단위로서의 리는 행정리이기 때문에, 이후의 글에서는 행정리를 리로 칭할 것이다. 이 표에서 취락 분포는 하나의 리 안에서 서로 구분되어 불리는 거주 구역의 명칭을 기재한 것이다. 거주 성씨는 그 리에 많이 거주하는 대성(大姓)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뚜렷한 대성이 없는 경우에는 각성바지로 표시했다.

5) 김필동, 1999,〈촌락 자치 조직의 한·일 비교 — 양국의 사례 촌락을 중심으로〉, 《사회와역사》, 한 국사회사학회, 207~209쪽.

〈그림 1〉 1910년대 조사지역 일대
(조선총독부, 1914년 측도, 1919년 발행, 아산 도엽)



★ 권관리 : a~e
a 권관리(상하동),
b 고잔리, c 모산리(버리미),
d 문곡리, e 신기리(텃골)
★ 기산리 : f~h
f 천곡리(샘골),
g 수산리(물미), h 기산리
★ 도대리 : i~j
i 도대리, j 문곡리(글갱이)
★ 방축리 : k~m
k 방축리, l 신기리(새터),
m 국말
★ 운정리 : n~o
n 피우치, o 운정리
★ 화양리 : p~r
p 화양리(행궁이), q 당현리(당재), r 용동(용골)
★ 희곡리 : s
s 희곡리(희곡2·3리)

권관리, 기산리, 도대리, 방축리, 운정리, 화양리는 현덕면, 희곡리는 포승읍 지역에 속한다. 화양3리였던 행궁이는 1990년대 중반 택지개발 과정에서 안중읍으로 편입되면서 현화1리로 개편되었다. 현덕면과 포승읍은 조선시대 수원부 지역이었다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현 평택시의 전신인 진위군에 편제되었다.[6] 행정구역 자료와 1910년대 지형도를 검토한 결과 〈표 1〉의 리들은 권관4리 가사를 제외하고 모두 20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7] 가사는 1960년대 피난민 정착을 위한 간척사업 과정에서 형성된 마을이다. 조사지역은 바다와 접해 있으나 모든 마을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었다.

19개의 리 중 집성촌은 기산2리 물미, 운정1리 피우치, 운정2리 구르물·검덩굴, 화양3리 행궁이 등이 있다. 물미는 곡부공씨, 운정1·2리는 함평이씨, 행궁이는 평창이씨 집성촌이다. 포승읍과 현덕면 일대에는 함평이씨 집성촌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성으로 거주하는 마을들이 여럿 있는데, 방축1·2리, 희곡2·3리도 그중 하나이다.[8] 평창이씨의 경우 행궁이뿐만 아니라

6) 방축2리 국말, 희곡리 등 일부 지역은 경기도 양성현, 충청도 직산군 등에 속하는 월경지(越境地)이었다가 1895년에 수원군에 편입되었다. 한글학회, 1986,《한국지명총람 18: 경기편 하·인천편》, 390, 393쪽 참조.

7) 권관4리 가사를 제외한 18개의 리의 경우, 1914년 조선총독부의 행정구역 변경 이전의 행정구역 상황을 기재하고 있는《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朝鮮總督府, 1912)에서 현재의 리 명에 해당하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행정구역 단위인 리 명을 기재한 것이므로, 〈표 1〉의 모든 취락 명칭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권관2리의 경우 이 자료에는 고잔과 버리미의 한자명인 모산리가 기재되어 있으며, 강당이라는 이름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지금은 권관2리라는 하나의 행정리 안에 포함된 고잔과 버리미가 1914년 이전에는 독립된 리로 존재했던 것과 달리 강당은 행정적으로 독립된 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이 자료에서 조사지역에 해당되는 리 명은 다음과 같다. 권관리, 고잔리, 모산리, 문곡, 기곡(이상 권관리 지역), 천곡, 수산리, 기산리(이상 기산리 지역), 천곡, 도대, 문곡(이상 도대리 지역), 방축동, 국리(이상 방축리 지역), 피우치, 운정리(이상 운정리 지역), 당현, 용동, 화양동(이상 화양리 지역), 희곡(희곡리 지역). 이 리 명들은 1914년에 측도된《朝鮮五万分一地形圖》(朝鮮總督府, 1919)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도대1리 웃샘골과 기산1리 아랫샘골은 이 지도에서 분리되지 않고 천곡으로만 나오나, 행정구역 자료에서는 현암면 소속 천곡과 가사면 소속 천곡으로 별도의 리로 기재되어있다.

8) 함평이씨가 평택 서부지역에 정착한 것은 고려 말 사재감정(司宰監正)을 지낸 중길(中吉)이 포승읍 내기리로 은거한 것이 시초로 전해진다. 이 지역의 함평이씨들은 중길의 후손인 대교공파(待教公派)와 진사공파(進士公派)로 나뉜다.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평택시사 1: 자연 역사 인물》, 462쪽 참조.

현덕면 인광리에도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다.[9] 곡부공씨 집성촌으로는 물미 이외에도 같은 면의 덕목리가 있다.[10] 〈표 1〉에서 다른 리에 거주하는 함평이씨, 곡부공씨, 평창이씨는 주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동일 성씨에서 갈라져 나온 이들이다. 이 성씨들은 이 일대에서 반성(班姓)으로 꼽혔다. 집성촌을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권관1리 상하동의 주요 두 성씨인 전주이씨와 수성최씨, 화양리의 문화유씨 등도 반성으로 칭해졌다.

상장례 계는 마을 조직에 대한 항목에서 조사되었는데, 19개 리 중 18개 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장례 계가 없었던 가사는 1960년대 조성된 간척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세기 전에 형성된 마을에는 모두 상장례 계가 존재했던 셈이다. 조사된 계의 수는 리 수보다 작은 14개인데, 이는 운정1·도대3리, 화양1·2·3리, 희곡2·3리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리가 함께 계를 결성한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계는 리 단위로 조직되었다. 화양3리였던 행궁이의 경우 안중읍 현화1리로 편제되면서 화양리 계에서 분리되어 행정리 단위로 계가 새로 조직되었다.

계에는 계장 등의 직책과 관련 문서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문서가 남아있는 곳은 도대2리 돛대와 운정1·도대3리 등 두 사례뿐인데, 이 역시도 결성 당시 문서가 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계 관련 조사는 주민들의 구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두 사례를 제외하고 계 문서가 전하지 않는 것은 장례 문화의 변화와 함께 대부분의 계가 폐지되었거나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9) 화양리 평창이씨는 익평공파(翼平公派)로 입향 시기는 숙종~영조 대로 알려져 있다. 평택시사편찬위 원회, 2014, 앞의 책, 462쪽 참조.

10) 곡부공씨는 고려 말~조선 초 인물인 57세 어촌공(漁村公) 공부(孔俯)가 덕목리로 내려와 거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이 일대에 세거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 앞의 책, 452쪽 참조.

계원들은 상여를 메는 행상(行喪),[11] 묘지 조성과 관련된 산역(山役) 등의 장례를 포함하여 상례 전반의 일을 도와주었다. 계의 운영방식은 계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계에 따라 해당 리의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계도 있었지만, 가입이 의무 사항이 아닌 계도 있었다. 상주에게 부조하기 위한 목적 외에 계 차원에서 계미(契米)를 받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계미를 방채(放債)하여 계 기금을 증식하기도 하였다. 행상과 산역 시 걷은 돈의 일부는 상주에게 주고 나머지를 계 기금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여는 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계도 있었다. 계에서 상여를 소유·관리하였는가도 사례마다 달랐다. 운영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계들은 계원들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차등이 없었다는 점, 특히 행상 및 산역 등의 작업에 있어서 차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현재 기금이 남아있는 계는 실질적인 활동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해 연말에 열리는 마을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 계장이 별도로 있거나, 이장이 계장직을 겸임하기도 한다.

조사지역 상장례 계에서 특징적인 점은 계 명칭과 결성 시기이다. 계 명칭을 보면 14개 계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연반계'라 칭했으며, 희곡2·3리에서만 '대동친목계'라 했다. 결성 시기가 확인된 계는 9개로, 모두 해방 이후에 결성되었다. 해방 이전에 존재했던 계 사례로는 권관1·2·3리와 기산3리 사람들이 함께 결성했던 상계가 유일하다. 이 계는 해방 이후 사라졌으며, 리 별로 조직된 연반계가 그 뒤를 이었다.

마을 조직과 관련하여 해방 이후 또는 1950년대 이후의 변화가 중점적으로 파악이 된 것은 구술자의 연령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사 계획을 세울 때는 마을의 변화를 좀더 긴 시간 속에서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한 고령의 주민의 구술을 얻고자 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1920년대에 출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행상(行喪)은 상여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주검을 산소로 나른다는 의미의 동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생한 주민을 만나는 일은 어려웠다. 대부분의 구술자는 1930년대~40년대생이었으며, 조사 내용도 이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잘 기억하는 시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12)]

평택 서부지역 상장례 계 현황은 2010년대 후반에 수행된 구술조사의 시간적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나, 한편으로는 시대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4장에서는 모든 리에 대동 행상 조직이 있었으며, 결성 시기가 확인된 9개의 조직이 모두 해방 이후에 결성되었다는 점, 대다수의 조직이 리 단위로 조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사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경험한 시대적 변화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들이 만들어갔던 새로운 마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3. 대동(大同) 행상(行喪) 조직의 결성과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평택 서부지역에서 '연반계'라는 이름으로 확산되었던 새로운 형태의 상장례 계를 반상(班常) 구별 관행의 해소라는 사회사적 변화 속에서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는 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변 마을 간의 관계 변화도 수반하였음을 보여줄 것이다.

1) 대동 행상 조직의 사회사적 의미

12) 19개 리에서 구술을 들은 주민은 총 62명이다. 구술자의 연령 분포는 다음과 같다. 1921~1925년생 1명, 1926~1930년생 5명, 1931~1935년생 14명, 1936~1940년생 19명, 1941~1945년생 7명, 1946~1950년생 10명, 1950년대생 4명, 1960년대생 2명.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이 36명, 여성이 26명이다.

'연반계'라는 명칭은 조사 마을뿐만 아니라 평택 지역에서 상장례 계 명칭으로 많이 쓰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평택뿐만 아니라, 안성, 이천, 광주, 화성 일부 지역 등 경기도 남부권과 충청도에서 연반계의 존재가 보고된 바 있다.[13)] 연반은 '연번(延燔)'이 속음(俗音)화 되어 굳어진 용어로, 장례 때 등(燈)을 들고 가는 일을 가리킨다.[14)] 연반계는 1950년대 이후 농촌 지역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반상 구별 관행이 사라지면서 반상에 따른 차별 없이 상례를 치르기 위해 조직되었는데, 특히 행상이나 산역에 있어서 계원들은 평등하게 출역(出役)을 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상장례 조직의 등장은 명칭을 달리할 뿐 경기지역에서는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현상이다.[15)]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새로운 형태의 상장례 조직은 반상에 따른 차별 없이 계원들이 다 함께 상여를 멘다는 점에서 그 성격을 대동(大同)[16)] 행상(行喪) 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20세기 중반에 나타난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와 이와 함께 출현한 대동 행상 조직의 사회사적 맥락과 의미는 반상이라는 사회적 구별(social distinction)의 특징과 이와 같은 구별의 작동에서 상장례 등의 의례가 차지하는 상징적 측면에서 이해되어왔다.

조선시대 반상 구별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작동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조선시대 법적인 신분 개념은 양천(良賤)의 구분에 한

13) 김필동, 1999, 앞의 글, 227쪽; 안승택, 앞의 글, 72~73쪽.

14) 조선시대 왕실 의궤 자료에는 상례 시 동원되는 인력으로 담지군(擔持軍), 조묘군(造墓軍)과 함께 연번군(延燔軍)이 많이 거론된다.

15) 연반계와 유사한 형태로 경기 북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유학계, 경기도 화성·용인 지역에서는 사촌계가 보고된 바 있다. 안승택, 앞의 글, 63~67쪽, 오창현, 앞의 글, 103~104쪽, 정승모, 앞의 글, 140쪽.

16) 유학에서 기원하는 용어인 대동(大同)은 조선시대에도 많이 사용되었던 용어이다. 대동의 개념은 사상사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농촌 마을에서 '다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다. 안승택의 논문에서도 반상이 구별 없이 마을에서 같이 상여를 메는 경우를 가리켜 사람들이 "'대동'으로 멨다"라고 답하고 있다. 안승택, 앞의 글, 68~77쪽.

정되어있었으며, 19세기 말 갑오개혁 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관료의 후예이자 모집단(母集團)으로서의 양반은 가계의 위신에 대한 사회적 평판 또는 인정으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반상 구별의 특징에 주목한 사회사가들은 반상을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았다. 양반으로서의 상호인정의 기본 단위는 향(鄕), 다시 말해 군현(郡縣)이었다. 조선 후기 지역사회에서 양반이 양반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반 가문의 성원임을 증명하는 것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양반의 생활양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다. 17세기 이후 족보(族譜) 편찬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었던 문중(門中) 조직, 다시 말해 당내(堂內)를 넘어서는 부계친족조직의 결성 등은 양반 가문의 성원임을 증명하기 위한 움직임과 관련되어 있다. 조선 후기 지주소작 관계가 확대되고 양반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양반의 후손임을 자처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민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양반 가구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교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양반의 생활양식과 의례적 실천은 양반으로서의 사회적 평판 또는 인정을 얻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였다.[17]

반상이 가지는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특성은 전 계층적으로 양반의 생활양식을 지향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18] 그러나 양반은 상호인정 속에서 존재하는 신분이었던 까닭에 상민 이하 신분의 사람들이 양반의 생활양식을 실천한다고 하여 지역사회에서 양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으로 부를 획득한 상민 중에는 군현 단위의 지역사회, 더

17)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양반 개념은 송준호, 미야지마 히로시(宮島博史) 등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개진되었으며, 향촌사회사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 1996,《양반: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강, 41~47쪽 참조; 미야지마 히로시, 2013,〈조선시대 신분쟁 논쟁〉,《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136~150쪽 참조.

18) 미야지마 히로시는 하위 계층에서 향반 계층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양반 지향화'로 칭하면서, 19세기 조선사회에서 본격화된 양반 지향화가 20세기에도 이어져서 더욱더 가속화되어갔다고 보았다. 미야지마 히로시, 1996, 앞의 책, 243~268쪽 참조.

나아가 국가로부터 양반에 걸맞은 명예를 부여받음으로써 양반이라는 상호인정의 세계로의 진입에 성공하는 집안도 있었다.[19] 군현을 단위로 한 상호인정의 세계로의 진입이 쉽지 않은 상민들은 이보다 좁은 국지적인 범위에서 양반으로 행세하기도 하였다. 전 계층적으로 확산되었던 양반 지향화는 신분 간 모방과 함께 구별짓기 역시 촉진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양반과 아래 신분을 구별하는 여러 관행과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공고화되었다. 일상생활에서 양반과 아래 신분과의 구분은 하대(下待)로 표출되었다. 연령에 상관없이 상민을 포함한 아래 신분의 사람들은 양반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나, 양반은 이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였다. 양반들이 의례를 수행할 때 아래 신분의 사람들이 담당하였던 노동력 제공 역시 신분적 하대의 한 양상이었다.[20]

사회적 신분인 반상은 한말 법적 신분의 공식적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으며, 20세기 전반까지도 한국 농촌 지역에서 반상의 구별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 20세기 전반까지도 지속되었던 반상 관계를 사회적 신분의 유제(遺制)로 파악한 바 있는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은 성원의 지속성과 지주소작제의 강화라는 물적 토대가 이 유제를 지탱해주었던 것으로 진단하였다.[21] 사회학 분야에서는 반상 관계 유제를 사회·경제적 구조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면, 반상 관계 유제와 이의 해소와 관련된 인류학·민속학계 연구들의 주 관심은 의례적 실천 영역, 특히 상장례 시 상여 행상과 같은 민속의 변화 양상에 있었다. 혼례나 제례와 달리 상장례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였으며, 한 집안이나 마을에 예속된 소수의 아랫사람만으로는 격식을 갖춘 상장례를 치르기 어려웠다. 행상 인력을 확보하는 일은 하나의 마을을 벗어나서 좀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19) 김혁, 2008,《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 완문(完文)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485~539쪽.

20) 정승모, 2010,《조선후기 지역사회 구조 연구》, 민속원, 256~301쪽.

21) 정진상, 1995,〈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 연구〉,《사회과학연구》 13(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35~341쪽.

일이 많았다.[22] 누가 상여를 메는가 또는 메지 않는가는 지역사회에서 반상을 구별하는 날카로운 척도가 되었다. 반상 관계 유제와 관련된 연구들에 따르면 1950년대가 되면 드러내놓고 반상 차별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전환되어갔다.[23]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농촌에서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성원 간 차별 없이 상여를 메는 대동 행상 조직의 출현이다.[24]

특정한 정치적 사건 또는 제도 개혁으로 반상의 구별을 지탱해주었던 토대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 구별은 법적 제도가 아니라 관행, 다시 말해 문화적 차원의 실천을 통해 유지되었던 까닭에 이의 해소 과정은 시간적,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고 진행되었다. 대동 행상 조직의 경우에도 해방 이전에 결성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25] 반대로 대동 행상 조직을 결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반성들끼리 합의를 보지 못하여 실패한 사례도 있으며

22)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 있었던 해방 이전 행상 관행을 보면, 신분적·경제적으로 유력한 집안과 관련 된 아랫사람들이 그 일대의 행상 노동을 담당하였던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여러 마을의 아랫사람들이 모여서 주변 반촌의 상여 메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제시기 수원에는 전문적으로 행상 일을 하는 상여도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사람을 사 와서 상여를 메게 했던 마을도 있었다. 행상 담당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물질적인 대가를 지급받았다. 화성시, 2006,《화성의 민속》, 473~642쪽 참조.

23) 정진상은 해방과 농지개혁,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제 유제가 해체되어갔던 것으로 보았다. 세 가지 사건으로 신분제가 완전히 해체된 것은 아니었으며 신분제 유제의 파편들은 이후에도 남아있었다. 이 파편들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과 이와 함께 진행된 이농(離農)으로 농촌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그 시기는 1960년대였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정진상, 1995, 앞의 글, 341~349쪽 참조). 마을에 따른 반상 관계 유제의 해소 시기의 차이를 보여주었던 오창현 역시 농지개혁을 반상구별 해소의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농지개혁에서 제외된 토지가 많았던 마을의 경우 반상 구별에 기반한 민속이 1950년대 이후에도 늦게까지 지속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오창현, 앞의 글, 95~101쪽, 107~109쪽.

24) 양반의 후손들이 직접 상여를 멜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저항감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서 초기에는 양반들끼리만 상여를 메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정승모, 앞의 글, 150~151쪽.

25) 이용기, 2003, 앞의 글, 150쪽; 안승택, 앞의 글, 74~80쪽.

1990년대 와서 결성된 사례도 있다.[26]

평택 서부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해방 이후에 주로 연반계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대동 행상 조직은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와 동일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개된 현상이었을까? 연반계의 결성 시기는 평택 서부지역의 마을 역시 다른 농촌과 유사한 시대적 변화 속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평택 서부지역 마을조사에서는 구술자의 대부분이 1930년대 후반 이후에 태어난 관계로 계 결성 계기나 결성 이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결성 계기에 대해 "초상이 났을 때 동네 사람들끼리 도와서 장사를 치러주기 위해 만들었다"(도대2리 돛대)라거나, "초상집에서 대접할 음식이 변변치 않아서 각자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가자고 해서 결성되었다"(운정1리 피우치) 등의 구술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설명만으로는 연반계를 결성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반상 구별 관행 해소와 관련하여 대동 행상 조직 결성 계기와 이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던 계는 운정2리 및 권관1·2·3리·기산3리 등 2개의 연반계가 유일하다. 운정2리는 함평이씨 집성촌이자 일제시기에 이 일대에서 유명했던 대지주가 거주하였던 마을이다.[27] 운정2리에는 해방 전까지만 해도 혼상례 시 일을 봐주는 하인들이 있었는데, 해방이 되자 "세상이 바뀌었으니 장사를 지내는 것부터 사람을 가리지 말고 같이 해야 한다고 마을의 지도층들이 솔선해서 나서서 상여를 메기 시작하면서" 연반계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권관1·2·3리와 기산3리는 해방 이전에 함께 참여했던 상계가 해체된 이후 리별로 연반계를 조직한 곳이다. 기존에 있었던 상계는 상여를 메는 일을 담당했던 아랫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거나 또 남아있다

26) 안승택, 앞의 글, 69~72쪽.

27) 검덩굴의 이강헌은 일제시기에 천석꾼으로 평택 서부지역에서 유명한 지주였다. 이강헌의 재력에 는 미치지 못하나 검덩굴의 이종헌, 이계창, 구르물의 이국헌도 소작을 주는 지주였다.

고 하더라도 상여 메는 일을 피하면서 해체되었다.

위의 두 사례는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와 연반계 결성이 하나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사지역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연반계는 그 연원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기존 연구와 위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그 결성 배경을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례는 반성으로 인식되는 성씨들이 존재했던 마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반성이 없는 각성바지 마을에서도 대동 행상 조직을 결성했던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2) 대동 행상 조직의 지역적 확산과 마을 간 관계 변화

반성의 존재 여부로 보았을 때 평택 서부지역은 여러 유형이 마을이 있었던 곳이다. 지역에서 반성으로 인식되는 성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집성촌은 아니지만 반성이 한 마을에서 대성으로 거주하는 마을도 있었다. 한편 뚜렷한 반성이 없는 각성바지 마을도 있었다. 반성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지역에서는 리마다 연반계가 조직되고 확산되어갔다. 반상의 구별 없는 대동 행상 조직은 좀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조직되었던 상계를 대체하여 조직되기도 하였으나, 행상과 관련된 계가 별도로 조직되지 않았던 마을에서도 출현하였다. 반촌, 민촌을 가리지 않고 연반계가 지역적으로 확산되어갔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마을을 넘어서서 반상 구별 관행이 지역적으로 어떤 양태로 존재하고 있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평택 서부지역에서 반성으로 칭해지는 성씨와 집안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 일대에서도 반상에 대한 인식과 구별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준다. 화양리 평창이씨와 기산2리 물미 곡부공씨의 경우 현지조사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타성에 굽실대는 법"이 없었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마을의 사

람들에게서도 그들의 위세가 대단하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반상의 구별은 반성 집안의 일을 봐주는 하인(下人)들의 존재에서도 확인된다. 해방 무렵까지만 해도 기산1리 샘골에는 물미와 샘골에 거주하는 곡부공씨 집안일을 봐주는 하인이 있었는데, 부부와 어머니가 공씨 집안의 일상적인 집안일과 제례와 혼례, 상례 등의 의례에서 일을 봐주었다. 권관1리 상하동의 대성이자 반성으로 꼽히는 전주이씨와 수성최씨의 경우에도 두 집안 모두 종답(宗畓)을 경작하는 하인을 두고 있었다. 전주이씨의 하인은 상하동에 한 가구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제 제물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상여를 메는 일이나 가마 메는 일 등 전주이씨의 대소사에서 궂은일을 도맡아서 했다. 대신 이 하인은 30마지기 규모의 종답을 도지(賭地) 없이 경작할 수 있었다. 곡부공씨나 전주이씨 사례는 개별 양반 가구에 소속된 하인이 없어도 집단적 차원에서 두었던 소수의 하인을 통해 양반으로서의 의례적 실천을 유지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일대에서 상장례와 관련된 노동, 특히 행상과 관련된 일이 반상을 구별하는 하나의 척도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빈한한 양반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한 주민의 구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충남 천안시 성환 청주정씨 집안에서 방축1리 방죽말 함평이씨 가로 시집을 온 정용○씨(1933년생)는 남편이 상여가 나갈 때 요령잡이로 불려 나갔던 일에 대한 기억을 들려준 바 있다. 시댁은 시부모 대에 타지로 나가 살다가 자녀들이 출생하고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소유하고 있는 경지가 없어서 시부가 마을 서당 훈장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한다. 20대 초반에 혼례를 올린 후 서울에서 거주하다 1960년대 중반에 방죽말로 내려온 정용○씨 부부는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동네에서 품팔이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동네 행상 시 남편이 하게 된 요령잡이 일도 그중의 하나였다. 정용○씨는 친청은 양반 집안이었으며 자기 동네에서는 '중인'이나 그런 일을 했었기에 자기 부부가 동네의 이런저런 궂은일을 도맡아 해도 남편이 요령잡이로 불려 다니는 것은 쉽게 받

아들일 수가 없었다.[28]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남편을 말려도 말을 듣지 않자 남편의 큰형에게 "저 일만은 말려주시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큰형은 "이제는 그런 일이 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방죽말과 새터로 구성된 방축1리는 한국전쟁 이후 연반계가 조직되었으며, 그 전에는 인접한 신영4리 매상동 사람들과 같이 상여를 멨던 곳이다.[29] 권관1·2·3·기산3리 사례와 같이 세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같이 메던 시절에 계 조직까지 있었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으며, 행상 등의 일에 차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용○씨 부부의 일화는 이 일대의 사람들이 행상 일에 내포된 상징적이며 차별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이 사라지는 데는 개인에 따라서 시차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역에서 인정되는 유력 성씨의 존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반상 구별에서 중요한 지점은 반상 관계가 한 마을 차원을 넘어서서 일정한 지역 범위에서 작동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방 이전에 몇 개의 마을이 같이 상계를 유지해오다가 리 별로 연반계를 조직한 권관1·2·3·기산3리 사례에서 좀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권관1·2·3리와 기산3리는 현덕면 최남단에 위치한다. 권관1리는 상하동이라 하며, 다시 상동과 하동으로 구분된다. 권관2리에는 고잔, 버리미, 강당 등의 마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부를 때는 고잔이라 한다. 권관3리 역시 문곡과 텃골로 구분되나, 통칭하여 문곡으로 불린다. 기산3리는 기산이

28) 농촌 지역에서 중인(中人)은 하인(下人)과 비교되어 사용되었던 용어로, 반상관계에서 하인과 함께 아랫사람으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경기도 화성시 지역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에 있는 존재로 인식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상민과 마찬가지로 양반 집안의 사람들에게 하대를 받았으며, 상장례 때 상민들이 담당했던 일을 했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화성시, 2006, 앞의 책, 475~524쪽 참조. 정용○씨는 중인과 '상사람'이란 표현을 동일시하여 사용하였다.

29) 방축말과 새터는 들을 마주 보고 떨어져 있다. 포승읍 신영4리에 속하는 매상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새터와 주거지가 붙어있다.

라 한다. 상하동에는 전주이씨와 수성최씨가 대성으로 거주하였으며, 다른 마을은 여러 성씨가 거주하는 각성바지 마을이었다. 현지조사에서 연반계 이전 상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주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으나, 1930년대 전반에 태어난 주민 2명으로부터 이에 대한 구술을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상계에서 쓰는 상여는 상하동에서 보관하였는데 상계에 가입한 사람들은 타동에 살아도 이 상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 상여는 총 12명에 메는 상여였으며, 선소리꾼까지 포함하면 총 13명이 한 조를 이루었다. 권관리의 경우 거주 가구 모두 의무적으로 이 계에 가입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산에서는 거주 가구의 일부만이 상계에 가입되어 있었다. 계원이 아닌 경우 이 상여를 쓸 때 따로 세를 내야 했다. 상여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정기 회의가 매해 1회 상하동에서 열렸다.

상계 내에서 누가 상여를 멨는가에 대해서는 두 구술자의 설명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상하동 전주이씨 집안의 이종○씨(1934년생)의 구술에 따르면, "상계는 역사가 깊고, 연반계는 신식인 것"으로 상계가 있던 시절에는 집안마다 하인이 있을 때여서 이 사람들이 상여를 멨으나, 하인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워지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로 일을 하자고 하여 리 별로 연반계가 조직되었다고 한다. 그는 "예전에는 타성을 엄청 가렸어. 집안네만 다니지 타성 집에는 다니지도 않았거든. 연반계라도 만들어야 타성 일을 보러 가니까 만든 거지."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기산에 거주하는 백성○씨(1930년생)는 상여는 문곡 사람들이 멨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상여를 더이상 메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으로 메자 해서 우리도 상여를 메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리마다 각자 상여를 메게 된 이후에도 혼례 시 가마를 메는 일은 문곡 사람들이 주로 맡아서 했다. 행상을 담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여 운반에 있어서 계원들 사이에 차등을 두었던 이

상계는 이들 마을에서 반상에 따른 차별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술자에 따른 설명의 차이는 양반 집안에 속하는 사람과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의 경험과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하동 전주이씨 집안의 이종○씨는 상여를 멨던 사람들을 하인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그에게 있어 행상 일의 중심은 자기 집안과 수성최씨 집안일을 하는 하인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반면 각성바지 마을인 기산에 사는 백성○씨는 하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 상여와 가마 메는 일을 했던 사람들로 특정한 마을의 사람들을 지목했다. 상하동의 두 집안에 속했던 하인들은 기산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이들의 존재는 백성○씨 구술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마을이 참여하는 상계 내에서 행상 일을 도맡았던 문곡은 다른 마을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상하동 전주이씨와 수성최씨 하인은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일상생활에서 경험되는 신분적 차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반촌에 거주하는 두어 명의 하인으로는 최소 열 명 이상이 필요한 행상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문곡 사람들이 행상에 참여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계에 참여한 마을 간의 관계에서 문곡은 상대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곡 사람들은 상하동 전주이씨와 수성최씨 하인들처럼 양반 집안에 예속적으로 묶여 있는 존재는 아니었으나, 반상 구별이 통용되던 사회에서 아랫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인식되었던 것이다.[30]

상하동을 중심으로 조직된 권관·기산리 상계는 반상 구별 관행이 마을 내 개

30) 반상 관계에서 아랫사람으로 인식되는 이들 사이에도 다시 구별이 있었음은 정진상의 연구에서도 보여준 바 있다. 경남 진주 지역의 두 마을을 사례로 반상 관계 유제 양상을 조사한 정진상은 조사지역의 신분을 양반, 상민, 천민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천민은 양반 지주가에 예속된 이들로, 양반 집성촌 내에 거주하였다. 상민은 양반 지주가의 농토를 소작하였으며, 양반 집성촌과 이웃한 마을에 거주하였다. 정진상, 1995, 앞의 글, 335~341쪽 참조.

인 간의 관계를 넘어서 마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작동하였음을 보여준다. 반상으로 구별되는 상이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마을 단위를 넘어서서 좀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위계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은 역사학계에서 상하합계(上下合契) 또는 상하계(上下契)로 명명되는 동계(洞契) 연구에서 이미 주목했던 현상이다. 17세기 이후 등장한 상하계 형태의 동계는 양반과 이보다 아래 신분이 사람들이 함께 결성했던 조직이다.[31] 상하계는 양반과 상민이 혼거하는 하나의 마을 내에서 결성되기도 하고 반촌(班村)과 민촌(民村)이 하나의 동계로 묶여 결성되기도 하였는데, 대개 하나의 마을 범위를 넘어섰다. 상하계 형태의 동계는 사족 집단이 아래 신분의 사람들을 통합·통제하기 위한 사족지배기구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권관·기산리 상계는 동계는 아니나, 마을 간의 관계는 상하계 형태의 동계와 유사하게 위계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32]

상하동의 전주이씨와 수성최씨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상여를 구심점으로 하여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상계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이 상계의 상여가 상하동에 있었으며 매해 열리는 계회가 상하동에서 열렸다는 사실은 이 상계의 운영에 있어서 상하동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시대가 변하고 이전에 상여를 멨던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거나 상여 메는 일을 거부하면서 상하

31) 동계의 사회사적 전개 양상에 관한 향촌사회사 연구에 따르면, 16세기에 처음 등장한 동계는 시대가 흐르면서 참여 범위와 기능도 변하였다. 16세기 군현을 단위로 하는 향약(鄕約)과 더불어 출현한 동계는 사족들의 친목 모임의 성격을 띠었으며 그 범위 역시 광역적이었다. 이용기, 2006,〈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 전남 長興郡 蓉山面 語西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쪽 참조; 정승모, 2010, 앞의 책, 256~261쪽 참조.

32) 주류 향촌사회사 연구에서는 상하계 형태의 동계가 18세기 후반 군역에 대한 리 단위 공동납 추진과 신분 질서의 동요로 분동(分洞) 또는 분계(分契) 과정을 거쳐 자연촌락 단위의 동계로 분화되어갔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기, 2006, 앞의 글, 4, 10, 130쪽 참조. 그러나 상하계 형태의 동계 또는 이의 변형태의 상중하계는 19세기에도 여러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정승모, 앞의 글, 144~146쪽; 정승모, 2010, 앞의 책, 262~272, 286~301쪽 참조. 현재까지 동계 연구는 특정 지역 사례를 일반화한 까닭에 19세기 이후 상하합계의 변용에 대한 통합적인 역사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촌 단위의 동계가 19세기 이후 동계의 일반적인 양상이었는가는 재검토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동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상계는 해체되고 각 리마다 연반계를 조직하고, 상여도 장만하였다. 행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상하동이 주도하는 상계에 참여한 것은 상여를 쉽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통 사회에서 상여는 격식을 갖춘 장례의 필수품이었으나, 모든 마을에서 상여를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33] 조사지역 역시 연반계가 조직되기 이전에 리마다 상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권관·기산리 상계에서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이 상계에 기산3리 기산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상하동과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며 경작지 또한 떨어져 있는 기산 사람들이 상하동이 주도하는 상계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거리상으로 기산은 상하동보다 기산2리 물미와 더 가까웠다. 기산과 물미 사람들의 경작지는 대부분 도대천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서로 섞여 있었다.[34] 두 마을 사람들은 들일을 하면서 만나는 상대였으며, 매해 있는 도대천 물미보 축조에 함께 참여하였다. 그러나 두 마을 사람들은 두레싸움을 심하게 할 정도로 경쟁관계에 있었으며, 품앗이를 같이 하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기산의 백성○씨는 대한제국 시기에 탁지부 대신을 지냈던 어윤중(1848~1896)의 후손이 이 마을에 터를 잡으면서 물미 공씨 집안과 기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물미에 사는 공씨들은 양반이라고 이 일대에서 세도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치면 재무부장관 격인 인물의 후손이 기산에 내려와 살게 되자 일종의 "세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다. 동네 상여가 없었던 기산 사람들이 상하동이 주도하는 상계에 참여하게 되었던 데에는 물미 곡부공씨 집안과의 경쟁 관계도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권관1·2·3리와 기산3리가 참여했던 상계가 리를 단위로 한 연

33) 안승택, 앞의 글, 75~76쪽; 오창현, 앞의 글, 104쪽.

34) 농지개혁 이전 기산리 일대의 토지는 서울과 수원 등지에 사는 부재지주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었다.

반계로 교체되는 과정은 양반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상여를 멜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과정이었다. 이와 동시에 이 과정은 반상 구별에 기반하여 유력한 지위에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위계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마을 간의 관계 역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 독자적인 행상 조직을 결성한 각 리들은 상여까지 장만하여 상하동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권관1·2·3·기산3리 사례는 여러 마을이 참여하는 광역적 범위의 상계가 해체되고 리마다 연반계가 결성되어갔던 현상이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라는 하나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반상 구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을 간의 관계에서도 위계가 있었다. 평택 서부지역에서 나타났던 연반계의 지역적 확산은 이와 같은 사회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반상 구별 관행이 해소되어 가던 시기에 리마다 결성되었던 대동 행상 조직은 반상 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마을 간 위계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움직임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4. 공동 활동의 새로운 공간으로 마을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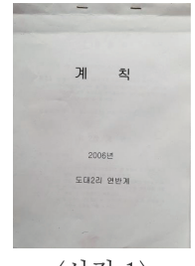
반상 구별과 연동된 마을 간의 위계적인 관계를 바꾸어나갔던 평택 서부지역 농촌 마을 사람들의 활동은 새로운 상장례 계의 결성에 국한되지 않았다. 대동 행상 조직을 결성할 무렵 조사지역의 여러 마을에서는 다양한 새로운 공동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1960년대 조사지역 마을들에서 있었던 공동 활동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와 함께 농촌 지역에서 나타났던 사회관계의 특징을 검토할 것이다.

1) 마을 공동 활동의 활성화와 청년층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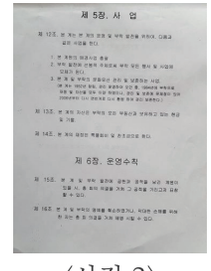
해방 이후~1960년대 평택 서부지역 여러 마을에서 나타났던 공동 활동은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대동 행상 조직의 결성뿐만 아니라 혼상례에 필요한 동네 유물(留物) 장만과 관련 계의 결성 등 전통적 의례와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오락행사 개최나 도박근절 운동, 새로운 형태의 작업반 조직 등 청년들이 중심이 된 활동들도 있었다. 이 시기에 마을회관을 처음으로 지은 리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도대2리 돛대는 상여만이 아니라 혼례 등 대사(大事)에 필요한 용품 마련과 사용을 위해 리 단위에서 여러 종류의 계를 조직한 사례이다. 이 마을의 주요 성씨는 상주황씨와 수성최씨이나, 타성도 많이 살았다. 돛대는 뚜렷한 반성이 없는 각성바지 민촌이었지만, 해방 이전에도 주변 마을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해진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은 거주 호수[35]와 부재지주의 비율[36]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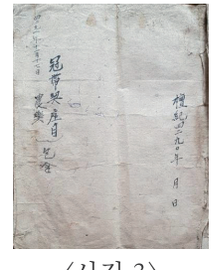
도대2리 마을회관에는 여러 종류의 마을문서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는 연반계와 관대계(冠帶契), 차장계(遮帳契) 문서도 포함되어있다. 연반계 문서는 2006년에 개정된 계칙 이후의 문서만 존재하나, 관대계와 차장계는 결성 당시 문서부터 남아있다. 연반계 문서는 개정된 계칙인 관계로 창립 연도를 제외하고는 결성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이 문서에 따르면, 돛대 마을 연반계는 1952년 결성되었다. 10대 후반에 돛대 마을로 시집을 온 원점○씨(1934년생)는 "내가 시집오고 나서 얼마 없어 집집마다 쌀 한 되씩을 걷어 연반계를 만들었으며 상여도 장만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37] 관대계와 차장계는 모두 1957년에 조직되었다. 두 문서는 모두 규약, 계원 명단, 회계장부 순으로 구성되어있다. 규약에 따르면, 관대계는 혼례 시 관대 사용을 위해, 차장계는 혼상갑(婚喪甲) 등 대사에 차장 사용을 위해 조직되었다. 두 계 모두 계를 결성하면서 계원들에게 쌀을 걷어 관대를 구입하고 차장을 제조하였다. 계원(契員)과 비계원(非契員) 모두 관대와 차장을 빌릴 때는 세를 냈으나 비계원은 세전(貰錢)을 더 많이 내야 했다. 관대계와 차장계 임원은 각각 8명으로 직위와 이름이 동일하다. 반면 계원 수는 관대계가 48명, 차장계가 42명으로 서로 다르다. 1957년 결성 이후 간헐적으로 신규 가입을 받았는데, 이 역시도 두 계가 그 내용이 상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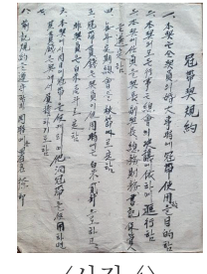
〈사진 1〉
도대2리 연반계 문서



〈사진 2〉
도대2리 연반계 문서



〈사진 3〉
도대2리 관대계 문서



〈사진 4〉
도대2리 관대계 문서

35) 돛대 마을의 호수는 예전부터 이 일대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였는데, 1950년대에는 50호가량 되었다. 호수가 많았던 돛대에서는 논매기 시 독자적으로 두레패를 구성할 수 있었으나, 도대3리 글갱이는 호수가 작아 운정1리 피우치 사람들과 어울려서 두레패를 조직했다. 도대1리 윗샘골 역시 비슷한 사정으로 기산1리 아랫샘골과 함께 두레패를 운영하였다. 돛대 마을 두레는 1960년대에 없어졌다.

36) 일제시기 돛대 일대의 들은 대부분 부재지주의 소유였는데, 宮本과 佐藤 등의 일본인과 수원에 거 주하는 나종식 등이 대표적인 지주였다.

37) 도대2리 연반계는 현지조사가 있었던 2018년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다.

계 문서만으로는 1950년대 후반에 돛대 마을에서 왜 이와 같은 계들을 조직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이전에는 이 마을에 이런 유형의 계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혼상례 용품 마련 및 사용과 관련된 계들이 조직되기 이전 이 마을에서 어떻게 혼상례를 치렀는지 역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는 알 수 없다. 인근 마을이나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혼상례 용품을 갖추지 못한 마을 사람들은 다른 마을이나 개인 집에서 대여하여 썼는데, 돛대 마을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혼상례 용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 1950년대에 연반계를 조직한 방축1리의 경우 마을 유물로 상여뿐만 아니라 대사 때 사용하는 차일과 사모관대, 한삼과 족두리, 기러기 등 혼례용품도 갖추고 있었다. 가마는 마을에서 끝내 장만하지 못해서 인근의 운정1리 피우치에서 빌려서 썼다.

1950년대 초반에 연반계를 먼저 결성하고 나서 몇 년 후 관대계와 차장계를 차례로 조직한 돛대는 리 차원에서 개인 의례에 필요한 유물을 적극적으로 구비해간 사례이다. 이 사례는 1950~60년대 농촌 마을에서 전개되었던 새로운 움직임이 단순히 혼상례와 관련된 계 결성과 동네 유물 구비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돛대 마을은 1960년대 마을 오락행사를 개최했던 동네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콩쿨대회를 열거나 연극을 준비하여 올렸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960년대 도대2리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콩쿨대회를 개최하거나 연극을 준비해서 올렸다. 무대는 철매에 있던 방앗간이나 지금 마을회관이 있던 자리에 꾸몄다. 마을회관이 있던 자리는 당시 멧갓이었다. 콩쿨대회나 연극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 다른 리에 가서 입장권을 팔았다. 여기에서 얻은 수익은 마을 청년회 자금으로 썼다. 청년들이 콩쿨대회를 열고 연극을 했던 것은 당시 농촌 지역에 특별한 오락거리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름을 없애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오락행사는 다른 마을에서도 있었다. 다음은 방축1리 사례이다.

> 1960년대에 방축1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주도하여 콩쿨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콩쿨대회는 추석 즈음에 열렸다. 큰 집 사랑을 빌려서 사랑방에서 표를 팔고 바깥마당에서 노래를 불렀다. 오락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이라 콩쿨대회가 열리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참여하였다. 당시에는 동네마다 콩쿨대회를 여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한 동네에서 콩쿨대회가 열리면 다른 동네 사람들도 참여를 했다. 콩쿨대회를 주최하는 동네에서는 상품권을 마련하여 등수에 든 사람들에게 주었다. 콩쿨대회는 5~6년 정도 열렸다.

방축1리 주민의 구술에서 볼 수 있듯이, 콩쿨대회 등의 오락행사는 유행처럼 이 일대 여러 리에서 열렸다. 콩쿨대회에는 다른 리 사람들도 입장권을 사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리 간에 경쟁적으로 행사를 여는 측면도 있었다. 새로운 오락행사 준비에 마을 청년들이 열심히 참여한 것은 당시 있었던 도박근절 운동의 일환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년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마을 오락행사 개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리 단위의 새로운 공동 활동의 중심에는 청년이 있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반촌으로 칭해지는 집성촌 내에서 청년과 장년 사이의 세대 간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아래는 연반계 결성이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었던 운정2리에서의 세대 간 갈등에 대한 자료이다.

> 함평이씨 집성촌인 운정2리는 크게 구르물과 검덩물로 나뉜다. 처음에는 운정2리 전체로 연반계가 조직되었으나 검덩굴의 가구 수가 줄게 되자 구

르물에서 따로 연반계를 운영하여 2~3년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쳐졌다. 이와 같은 분리에는 일할 사람이 많았던 구르물과 그렇지 못한 검덩굴 간의 갈등이 깔려있었다. 검덩굴 사람들은 구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했으며, 자식들도 일찍 유학을 가 외지에 많이 나가 살아 청년들이 별로 없었다. 연반계를 조직하고 함평이씨들이 모두 상여를 메게 되자 검덩굴 주민들이 나이나 항렬을 거론하면서 상여 메는 일에서 빠지려고 하였다. 이에 구르물 청년들이 "삼촌이니 조카니 항렬을 따지지 말고 모두 나와서 일을 하자"고 하여 분리를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구르물 청년들의 주도하에 마을 청년회가 조직되었던 때로, 이들은 일제 말에 축조된 저수답 제방을 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마을 일을 해나갔다. 청년들이 새로 제방둑 다리를 놓기 전에는 제방둑을 관리하는 보주(洑主)가 따로 있었으며, 제방둑 물을 쓰는 작인들이 쌀을 거둬서 보주에게 수고비로 주었다. 이렇게 걷은 쌀을 '보쌀'이라 했다. 제방둑을 보수한 후 청년들은 보주를 없애고 관리까지 맡았으며, 보쌀을 마을 자금으로 돌려 마을금고를 운영하였다. 구르물 청년들은 모내기 작업반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반면 검덩굴은 외지로 떠난 사람들이 많아서 작업반을 따로 조직할 수 없었다.

위의 운정2리 사례에서 볼 수 있는 표면적인 갈등은 한 리 안에 있는 구르물과 검덩굴 간의 대립으로 표출되었으나, 그 내면을 보면 농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일가의 장년들에게 가지는 불만이 내재해 있었다. 마을 내 부유한 일가의 자식들이 서울이나 수원 등 외지에 나가 교육을 받고 도시에 정착했던 것과 달리 고향에 남은 이들은 일가의 일을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앞서 제시했듯이 운정2리 연반계가 결성된 시기는 해방이후로만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운정2리 연반계가 한시적으로나마 둘로 분리되었던 시기는 1960년대 후반이다. 마을에 남은 청년들은 항렬이나 연령 등을 내세워 행상에서 빠지려는 장년들에게 반기를 들어 연반계를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회를 조직하여 여러 가지 공동 사업을 주도하면서 기금까지 조성해갔다.

집성촌과 달리 여러 성씨들이 거주하는 리에서는 청년들이 중심이 된 공동 활동이 대성 중심의 마을 권력을 재편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함평이씨가 대성으로 거주하였던 희곡2·3리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희곡2·3리는 행정구역상 분리되었지만 대동친목계가 하나로 운영되었던 곳으로 주민들은 희곡2·3리를 한 마을로 여겨왔다. 두 리는 1910년대 행정구역 재편 이전에 희곡이라는 하나의 리로 존재했던 곳이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길게 뻗은 구릉 위에 몇 채의 가옥들로 구성된 소규모 취락들이 흩어져있는데, 이와 같은 공간적인 특징도 행정구역 분리 이후에도 두 리가 하나의 마을처럼 지내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희곡2·3리는 조사지역에서 유일하게 대동친목계라는 명칭을 사용한 곳이며, 결성 시기도 1960년대 중반으로 다른 리에 비해 시기적으로 가장 늦다.

희곡2·3리 대동친목계 초대 계장이었던 곽영○씨(1935년생)는 마을에 모내기 작업반이 새로 조직되면서 마을 분위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동친목계도 만들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곽영○씨의 구술에 따르면, 자신이 1958년 군에서 제대하여 이장을 처음 보기 시작할 때는 함평이씨 8촌들끼리만 참여하는 공동작업반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곽영○씨 주도하에 타성과 8촌에 포함되지 않는 함평이씨들을 모아 별도로 작업반을 조직하였다. 새로 결정된 작업반에서는 집별로 농사 규모, 일소 수를 먼저 파악한 후 모내기 날짜를 잡아서 순서에 따라 작업을 했다. 이때 일소가 있는 집이라고 해서 먼저 작업을 하거나 맘대로 소를 부릴 수 없었으며, 식사는 농사 규모가 많은 집에서만 준비하는 것으로 하였다. 품값은 높이고 밥값은 싸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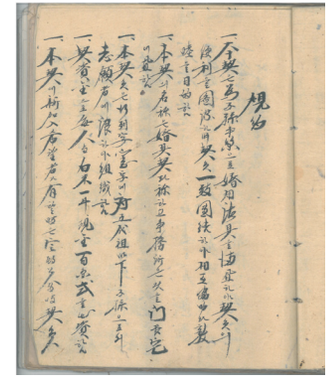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기에 이 작업반의 인기가 좋았으며 결국 이 작업반을 기회로 2리와 3리가 함께 운영하는 대동친목계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함평이씨들끼리만 참여하는 계가 있었는데, 대동친목계를 만들면서 성을 가리지 않고 2리와 3리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다. 상여는 예전부터 마을에 하나가 있었는데, 대동계를 결성할 때 이 마을 출신 국회의원의 기부를 받아 새로 구비하였다. 이때 상여뿐만 아니라 차일, 사모관대, 족두리 등 혼례 용구도 같이 장만하였다. 대동친목계가 조직된 시기를 곽영○씨는 1960년대 중반 국회위원 선거가 있었을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

1961년 마을에서 4H구락부, 농사개량구락부, 생활개선구락부 등이 조직되었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마을회관까지 짓게 되었다. 마을회관이 처음 지어진 곳은 희곡2리에 속하였다. 희곡3리 마을회관은 1972년에 지어졌다. 희곡2리에만 회관이 있자 이를 불편하게 여긴 주민들이 3리에도 회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짓게 되었는데, 3리 역시 마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자재를 마련하고 부역을 하여 완공을 보게 되었다.

희곡2·3리에서는 대동 행상을 포함한 대동친목계의 결성에 앞서 대성으로 사는 함평이씨들의 중심적 위치를 흔드는 일련의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타성의 청년들이 있었다. 1960년대 희곡2·3리의 변화를 주도했던 곽영○씨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이장을 맡기 시작하였으며, 4H, 농사개량, 생활개선 등 관 주도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마을의 공동 활동 역시 주도한 인물이다. 당시 부유한 집안의 함평이씨 자제들은 서울, 수원 등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일이 많았다. 반면 곽영○씨를 비롯한 타성 출신 젊은이들은 관에서 주도했던 마을사업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함평이씨 중심의 마을 분위기를 바꿔 나갔다.



〈사진 5〉
희곡리 함평이씨 혼구계 문서



〈사진 6〉
희곡리 함평이씨 혼구계 문서

희곡리 사례에서 특징적인 점은 상대적으로 늦은 대동 조직 결성 시기뿐만이 아니라, 대동 조직 결성 이전에 있었던 반성으로 일컬어지는 대성의 독자적인 움직임이다. 곽영○씨 구술에 따르면 대동친목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희곡리의 중심적인 함평이씨들은 8촌 범위에서 작업반과 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곽영○씨가 언급한 함평이씨 계는 1958년 음력 1월 15일에 결성된 혼구계(婚具契)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계의 좌목(座目)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었다. 좌목에 따르면, 함평이씨 5대조 이하 자손 중 가입을 원하는 자들로 구성된 이 계는 "자손사업으로 혼용제구(婚用諸具)을 구비하야 계원의 편리를 도모하여 계원 일치단결하야 상호협조와 돈목(敦睦)을 목적"으로 하였다. 함평이씨 작업반이 결성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혼구계가 결성된 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1950년대 후반에 희곡리에서 대성으로 거주하는 함평이씨가 가까운 일가들만 참여하는 조직을 만든 것은 주변 다른 리에서의 양상과는 뚜렷하게 비교되는 현상이다. 희곡리 함평이씨들이 폐쇄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던 이유에 대해서 이 집안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설명을 들을 수 없었으나, 이 역시도 반상

구별 관행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대응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농촌 주민들의 공동체 감각의 변화: 차별적인 관계에서 균등한 관계로의 전환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평택 서부지역 농촌 마을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동 조직과 활동들이 등장하고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리에서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한 것은 대동 행상 조직으로 대표되는 전통 의례와 관련된 조직이었으나 점차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갔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 활동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현상은 실질적인 행정단위인 리를 단위로 하는 활동의 증가 경향이다. 당시 있었던 국가의 농촌 행정과 정책은 리를 단위로 한 활동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1950년대 전북 임실군 삼계면의 면직원이 작성한《삼계일기》나 1960년대 평택시 청북면의 한 농민이 쓴《평택 대곡일기》는 국가의 농촌 행정과 정책이 농촌 주민 한 명 한 명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장(里長)과 동회(洞會)를 경유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38] 리를 단위로 한 국가의 개입은 1950~60년대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다. 일제가 추진했던 농촌진흥운동과 국민정신총동원운동 등에서 활동의 단위는 리에 해당되는 '부락'이었다. 전시체제에서 일제는 농촌 동원의 단위로 '부락'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 농촌 조사의 방향도 마을의 단체성을 부정해왔던 것에서 단체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39]

38) 이정덕 외, 2021,《1950년대, 공무원 이강운의 〈삼계일기〉》,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경기문화재 단·(사)지역문화연구소, 2007,《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I: 평택 대곡일기(1959~1973)》.

39) 이용기, 2008,〈일제의 洞契 조사와 식민주의적 시선〉,《사림》, 수선사학회.

해방 이후 전개된 리를 단위로 한 공동 활동의 활성화에서 국가의 행정과 정책이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있었던 농촌 마을 내의 여러 움직임들을 국가의 힘에 의한 동원과 강제의 직접적인 결과로만 보는 것은 제한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시 농촌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공동 활동들은 국가의 동원과 강제라는 틀로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 사회적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역사학계에서 수행된 구술사 중심의 농촌 마을 연구는 해방 이후~1960년대 있었던 농촌 마을의 새로운 변화상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를 포착하면서 이를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들이 주목한 대상은 청년 세대의 등장과 그들의 역할로, 마을 내 권력 관계 재편의 중심에 보통교육과 군대 등의 '근대적' 경험을 통해 소양을 쌓은 새로운 청년 세대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40] 이와 같은 시각에서 반상 구별 관행은 '근대적' 경험에 의해 사라져갔던 과거의 유습이었을 뿐이다.[41]

그러나 '근대적' 경험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설명방식은 두 가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농촌 지역에 남아있었던 반상 구별 관행은 인류학·민속학계의 연구들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둘째 여러 형태의 새로운 공동 활동에서 나타났던 당시 농촌 사람들의 지향점은 단순히 '근대적인' 동기와 욕망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있었던 활동 중에는 유습으로 평해지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들도 있었으나 소위 전통적인 것의 재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경기도 이천의 마을 연구에서는 '근대적' 요소들이 가져온 결과를 강조했던 이용기는 이후 전남 장흥 지역 연구에서 1950년대에 있었던 '재전통

40) 김영미 2009, 앞의 책; 김영미, 2013, 앞의 글; 이용기, 2003, 앞의 글.

41) 해방 전에 청년회를 결성하며 반상을 가리지 않고 상여를 메기 시작했던 이천의 한 반촌의 사례를 연구했던 이용기는 학교 교육 등 '근대적' 경험을 통해 반상 차별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소멸해갔던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용기, 2003, 앞의 글, 148~149쪽 참조.

화' 현상에 주목한 바 있다. 그는 농촌의 재전통화를 정치적 층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층위에서 고찰하면서, 전후 농촌 지역에서 나타났던 전통적 가치·규범과 혈연적 관계망의 재강화, 주민들의 상호부조와 공동체적 결속 강화 등을 재전통화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평택 서부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일대에서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던 대동 행상 조직의 결성도 이용기가 포착했던 공동체적 결속의 강화를 보여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용기는 이와 같은 공동체적 결속을 전후 아노미 상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보면서, 농민들에게 익숙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와 규범이 농촌사회의 질서를 재정비하기 위한 상상력과 문화적 자원으로 활용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그는 1950년대 농촌의 재전통화라는 주제를 자신의 초기 마을 연구와 연결하여 재전통화의 이면에는 근대적 세례를 받은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새로운 에너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42]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 또는 확대는 '근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이 뒤섞인 채로 전개되었던 1950년대 농촌 마을의 변동에 대한 진일보한 시각이라 평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재전통화 이면에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근대적'인 것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설명방식은 전통적인 관행 내부에서의 균열과 변화를 포착하지 못하고 '전통과 근대'라는 이분법을 재생산하고 있다.

평택 서부지역 농촌에서 나타났던 대동 행상 조직은 전통적 방식의 의례를 실천하기 위해 결성되었지만, 전통의 단순한 복원 또는 재생으로 볼 수 없다. 대동 행상 조직은 이전의 차별적인 반상 관계에서 벗어나 성원 간의 균등한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차별적인 생산 관계가 해소되어 이전보다 좀 더 균등해진 사회 공간에서 양반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 역시 양반과 같이 번듯하게 의례를 치르는 것을 지향하게 되었고, 반상 관계의 유제를 끊

42) 이용기, 2014,〈전후 한국 농촌사회의 '재전통화'와 그 이면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사례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어낸 마을들은 앞다투어 상여 등의 동네 유물을 장만하고 제대로 된 상장례를 치르기 위한 상례 조직을 결성해갔다.[43]

해방 이후 농촌 지역에서 확산되어갔던 대동 행상 조직은 농촌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공동체 감각(sense of community)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공동체 감각이란 소속 집단에 대한 개인의 인식, 이해, 태도, 감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44] 공동체 감각은 부르디외가 말했던 실천 감각(practical sense)[45]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서, 해방과 농지개혁, 한국전쟁, 이농 인구의 증가, 교육 기회의 확대 등을 거치면서 농촌 사람들의 공동체 감각은 지각 변동의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상 구별 관행이 유지되던 시기에 농촌은 서로 다른 신분의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혼종의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서 양반과 아래 신분의 사람들은 호혜적인 상호의무의 관계를 맺었으나, 그 관계는 불평등한 것이었다. 양반 집단은 의례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고 아래 신분의 사람들로부터 의례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며, 노동력에 대한 답례는 물질적인 형태로 주어졌다. 양반 개인 또는 종중 소유의 전답과 산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의례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43) 오창현은 경기도 양평군 산음리 사례에서 마을별로 계를 결성하여 상여와 혼례 용품들을 장만하고 의례를 치르게 된 과정을 '유교적 인간화'로 개념화한 바 있다. 오창현, 앞의 글, 112~113쪽.

44) 공동체 감각(sense of community)은 미국 도시사회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조보다는 공동체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감정, 심리적 감각 등은 사회구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된다. McMillan, D.W., & Chavis, D.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pp.6~23 참조.

45) 부르디외(Bourdieu)에게 있어 실천이란 사회적 공간에서 행위자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지향성(intentionality)을 가지고 행하는 전성찰적인(pre-reflective) 행위를 가리킨다. 실천은 구조라 할 수 있는 사회적 장(field)과 아비투스(habitus) 간의 조응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전성찰적인 실천 감각에 의해 이와 같은 조응이 이루어진다. Bourdieu, 1980, The Logic of Practice, Polity Press(translated by Richard Nice), pp.80~97 참조.

대가로 주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의무의 교환은 신분적인 하대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것이었다.

반상 관계는 대부분 하나의 마을을 넘어서서 구현되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호혜적 교환의 경계 역시 마을 단위를 넘어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자연마을이라는 경계는 반상 관계가 유지되던 시대에 생활 전반의 총체적이고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하지 않았다. 국지적인 수준에서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힘은 유력한 양반 가문이나 양반 중심의 친족집단에 있었으며 상민을 포함한 아래 신분의 사람들은 동등한 성원의 자격이 아니라 불평등을 받아들인다는 조건에서 교환의 장이 성원이 되거나, 그 장의 주변을 떠도는 존재로 있었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여러 역사적 사건 등을 거치면서 농촌 마을은 신분적·경제적으로 차별적인 혼종의 공간에서 좀 더 균등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신분적 정체성 속에서 상호 관계를 맺어왔던 농촌 마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신분적 정체성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리를 무대로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해갔다. 전통의 외피를 한 것이건 아니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것이건, 반촌과 민촌을 가리지 않고 유행처럼 리마다 비슷하게 나타났던 공동 조직과 활동들은 다른 리에 뒤지지 않는 마을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당시 농촌 사람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신분적 차별이 공적 공간에서 사라지고 경제적으로 좀 더 균등해지면서, 국가 행정과 동원의 단위인 리는 성원 간의 균등한 교환에 기반한 공동체성이 출현할 수 있는 무대가 되었다. 함평이씨에 대응해서 새로 조직된 희곡리 작업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원 간 균등한 교환은 한편으로는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계약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계약적 성격은 공동체성을 약화하는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운정2리 연반계의 일시적 분리와 통합은 농촌에서 반상 구별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어갔던 공동체의 불안전성을 보여주는 일화인 셈이다.

5. 결론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동안 평택 서부지역 농촌 마을에서는 여러 유형의 공동 조직과 활동들이 등장하고 전개되었다. 대부분의 리에서 시기적으로 먼저 등장한 것은 대동 행상 조직으로 대표되는 전통 의례와 관련된 조직이었으나, 점차 마을 오락행사 개최나 도박근절 운동, 새로운 형태의 작업반 조직, 마을회관 신축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어갔다. 이와 같은 공동 활동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다. 이 시기 농촌 마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46] 이런 일들이 모든 마을에서 벌어졌던 것은 아니며, 있었다 하더라도 시기별 편차가 있어서 해방 이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던 마을이 존재했는가 하면 1970년대 이후에야 이런 일들을 경험한 마을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은 여러 마을에서 생겨났으며, 다른 마을로 확산되어갔다.

해방 이후~1960년대 농촌 마을은 민속의 담지자로서 전통의 공간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에 여러 리에서 나타났던 공동 조직과 활동들은 전통의 외피를 한 것이건 아니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것이건, 이전 시대와는 다른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반상 구별 관행이 해체되는 시점에 주목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마을의 변화를 공동체 감각의 변화라는 틀에서 해석하고 당시에 있었던 다양한 움직임들에

46) 1950년대 전북 임실군 삼계면사무소 직원이 쓴《삼계일기》(이정덕 외, 2021, 앞의 책)와 1960년대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주민이 쓴《평택 대곡일기》(경기문화재단·(사)지역문화연구소, 2007, 앞의 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여러 역사적 사건 등을 거치면서 농촌 마을은 신분적·경제적으로 차별적인 혼종의 공간에서 좀 더 균등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반상 구별이 존재하던 시대에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을 간의 관계에서도 위계가 있었다. 반상 구별 관행의 해소는 마을 내 사람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마을 간 관계의 변화와도 연동되는 현상이었다. 농촌 사람들은 반상 관계에 내재해 있던 차별적인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리를 무대로 새로운 사회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형성해갔다. 변화되고 있었던 농촌 사람들의 공동체 감각은 리마다 확산되어갔던 공동 활동의 사회적 에너지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하나의 마을이 아닌 인접해 있는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의 변화상을 추적한 이 연구는 사례의 상세함이나 깊이 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을에서 벗어나 주변 마을로 시선을 확장함으로써, 이 연구는 한 마을에서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현상들의 의미와 사회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하나하나의 상세함이나 깊이 면에서의 부족함은 여러 마을을 대상으로 한 기초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라는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구술조사에 기반한 자료라는 제약이 크게 작용한다. 현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반상 구별 관행이 해소되어가던 시기에 주로 활동했던 이들로, 그들에게 반상 구별은 희미해져 가는 기억이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낯선 방문자 앞에서 굳이 그 기억을 떠올려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

구술조사의 한계는 연대를 구분하는 문제에서도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의 여러 마을에서 대동 행상 조직이 결성되었던 시점을 포괄할 수 있는 연대를 연구 시기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전과 이후, 농촌

개발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1960년대 이전과 이후는 상이한 국면으로 농촌 마을의 변화에 있어서도 국면마다 차이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각 국면의 차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현지에서 만난 구술자의 기억 속에 이 시기는 대부분 한 덩어리로 혼재해 있었으며, 연구자가 그들의 이야기에서 시기의 차이를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가령 연반계 결성 시기가 해방 이후로 조사된 마을의 경우, 해방 이후는 특정한 시점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그 이후의 좀더 긴 시간까지를 포함할 수 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하여 질문을 다시 하여 구체적인 시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마을도 있었지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연반계의 결성 시점은 해방 이후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농촌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개인 생애와 경험에 초점을 맞춘 구술자료에서 부녀회, 모내기 작업반 등 여성이 참여했던 공식적인 마을 활동에 대한 구술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기 파악이 불분명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여성의 활동을 포함하여 해방 이후~1960년대 농촌 지역에서 나타났던 여러 공동 활동들의 시대적 성격을 분명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책을 비롯한 기록 자료와의 비교가 필요하다. 구술조사에 기반한 본 연구의 한계는 이후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경기문화재단·(사)지역문화연구소, 2007,《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I: 평택 대곡일기(1959~1973)》, 807쪽.

평택시사편찬위원회, 2014,《평택시사 1: 자연 역사 인물》, 578쪽.

평택문화원, 2014,《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및 편찬 사업보고서》, 468쪽.

평택문화원, 2015,《2015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508쪽.

평택문화원, 2016,《2016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544쪽.

평택문화원, 2018,《2018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 보고서》, 745쪽.

한글학회, 1986,《한국지명총람 18: 경기편하·인천편》, 574쪽.

화성시, 2006,《화성의 민속》, 734쪽.

김영미, 2009,《그들의 새마을운동: 한 마을과 한 농촌운동가를 통해 본 민중들의 새마을운동 이야기》, 푸른역사, 407쪽.

김영미, 2013,〈평택 대곡일기를 통해 본 1960~70년대 초 농촌마을의 공론장, 동회와 마실방〉,《한국사연구》 161, 한국사연구회, 383~416쪽.

김필동, 1999,〈촌락 자치 조직의 한·일 비교 - 양국의 사례 촌락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55, 한국사회사학회, 195~241쪽.

김 혁, 2008,《특권문서로 본 조선사회 — 완문(完文)의 문서사회학적 탐색》, 지식산업사, 655쪽.

미야지마 히로시, 1996,《양반: 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강, 289쪽.

미야지마 히로시, 2013,〈조선시대 신분쟁 논쟁〉,《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 너머북스, 435쪽.

안승택, 2019, 〈근현대 향촌사회에서 상여를 메던 '아래것들'과 공동체의 '살갗': 경기남부의 사례〉,《한국문화인류학》 52-1, 한국문화인류학회, 53~97쪽.

오창현, 2008, 〈농지개혁과 마을 공동체의 변형: 경기 동남부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4-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77~121쪽.

이용기, 2003,〈1940~50년대 농촌의 마을질서와 국가 — 경기도 이천의 어느 집성촌 사례를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 10, 역사문제연구소, 123~178쪽.

이용기, 2006,〈19세기 후반~20세기 중반 洞契와 마을자치 — 전남 長興郡 蓉山面 語西里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9쪽.

이용기, 2008,〈일제의 洞契 조사와 식민주의적 시선〉,《사림》, 수선사학회, 215~253쪽.

이용기, 2014,〈전후 한국 농촌사회의 '재전통화'와 그 이면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사례를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94, 한국역사연구회, 417~465쪽.

이정덕 외, 2021,《1950년대, 공무원 이강운의 〈삼계일기〉》,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492쪽.

정승모, 2002, 〈장례와 관련한 동계(洞契)의 변화와 '유학'계: 19세기 후반 이후의 경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15, 역사민속학회, 139~156쪽.

정승모, 2010,《조선후기 지역사회 구조 연구》, 민속원, 351쪽.

정진상, 1995,〈해방직후 사회신분제 유제의 해체: 경남 진양군 두 마을 사례연구〉,《사회과학연구》13(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331~351쪽.

최재석, 1975,《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633쪽.

한상복, 2011,《평창 두메산골 50년: 다시 찾은 봉산리와 용산리 1960-2010》, 눈빛, 352쪽.

朝鮮總督府, 1912,《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087쪽.

朝鮮總督府, 1919,《朝鮮五万分一地形圖》.

McMillan, D.W., & Chavis, D.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pp.6~23.

Bourdieu, 1980, The Logic of Practice, Polity Press(translated by Richard Nice), p.333.

경기도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공연성과 전형성

최자운/세명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마당 구성
3. 경기 및 충청지역 거북놀이 공연 형태와의 비교
4.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전형성 확보 방안
5. 맺음말

1. 머리말

본 논문의 목적은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보존회에 의해 공연되고 있는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전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거북놀이 관련 선행연구는 지역별 거북놀이의 역사적 흐름, 현황 파악, 특징 도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거북놀이의 연원과 관련하여, 김종대는 거북놀이가 수수를 재배하던 밭농사권의 마을에서 발생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기는 삼국시대로 추정했다.[1] 김종대, 윤서옥은 경기지역 거북놀이가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한동안 전승이 단절되다가 1970년대 복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판굿과 농악이 개입되면서 거북놀이 주도 계층이 아이들에서 풍물패로 바뀌었다고 하였다.[2]

홍순석은 거북놀이가 거북 숭배의 민간신앙적인 차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집단놀이의 성격이 가미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정착되었다고 하였다.[3] 이필영은 거북놀이의 본질이 영물(靈物)인 거북을 놀려 줌으로써 인간에게 액을 가시게 하고 복을 불러주는 것이며, 놀이의 핵심은 지신밟기와 보름밥 얻어먹기 풍습, 영험·상서·장수의 상징인 거북의 결합이라고 하였다.[4]

다음으로, 지역별 거북놀이 관련 논의를 살펴보면, 홍순석은 경기도 이천지역 전래 거북놀이의 역사적 흐름, 놀이패 편성, 마당 구성, 놀이 소재 민요 등을 개관하였다.[5] 윤경식은 경기도 이천지역 전래 거북놀이보존회에서 1977년 중요무형문화재자료, 2001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과정

1) 김종대 외, 〈이천의 거북놀이〉, 민속원, 2006, 33-46쪽.
2) 김종대·윤서옥,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과 새로운 계승 양상》, 〈어문론집〉제60집, 2014.
3) 홍순석, 〈이천 사람들의 삶과 놀이〉, 민속원, 2004, 198쪽.
4) 이필영, 《거북놀이의 성격과 의의》, 〈역사민속학〉 제55호, 역사민속학회, 2015.
5) 홍순석, 《이천지역 민속문화와 문화환경》, 〈비교민속학〉 제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에서 발생한 등장인물 구성, 연행 순서, 춤사위 및 풍물 가락 변화 양상을 정리하였다.[6] 송재용은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마래리 거북놀이의 준비 및 제작 과정, 놀이 구성, 인원 편성, 구연 민요 등을 분석하고, 이곳 놀이 소재 소도구, 고사덕담의 특징을 예각화하였다.[7] 한양명은 충남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전래 거북놀이가 탈맥락화와 재맥락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이 마을 놀이는 주모 또는 기생, 그리고 유생과 장군 및 장사를 역사적으로 실존한 인물들과 겹쳐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현실적 질감을 확보했고, 사전에 정해진 배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형식의 공연이 특징이라고 하였다.[8]

다음으로,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관련 연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다. 김헌선은 경기도 평택 거북놀이의 인류무형유산적 가치를 논하는 자리에서 타 지역 거북놀이와의 비교, 이곳 거북놀이의 역사적 연원 및 전승 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보전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였다.[9] 임장혁은 평택 거북놀이의 역사적 배경, 전승 상황 및 과정을 정리하고, 공연 대본을 수록하였다.[10] 마지막으로, 박성복은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특징은 수장거북 1명, 거북잽이 4명, 일반거북 20명 등이 참여하는 것, 수장거북이 떡메를 치고 다니고, 일반거북이 수수잎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발을 구르며 복을 비는 것, 그리고 평택농악의 영향을 받아 지신밟기와 순서가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다.[11]

6) 윤경식, 《이천 거북놀이의 전승과 전승 창출》,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11.
7) 송재용, 《여주의 전통민속놀이 일고찰》, 〈동양학〉 제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
8) 한양명, 《홍성 내현리 거북탈놀이의 전승 양상과 성격》, 〈한국민속학〉 제54집, 한국민속학회, 2011.
9) 김헌선, 경기도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학술용역 완료보고서, 평택문화원·경기대 산학협력단, 2022.
10) 임장혁, 《평택 거북놀이 전승 연구》,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14.
11) 박성복,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과 특징》, 〈2020 평택학 학술대회 발제문〉, 평택문화원, 2020.

위 논자들의 연구를 통해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역사적 배경, 전체 놀이 구성, 변화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12)]

거북놀이는 경기도 여주, 이천, 용인, 광주, 평택, 수원 등과 충청도 진천, 음성, 천안, 홍성, 서산, 당진을 중심으로 전승되었고, 지역에 따라 무대 공연물로 창작되었다. 그간 이루어진 선행연구에서는 평택 거북놀이의 현재 공연 양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연출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놀이패, 구연민요, 진풀이 등의 의미 파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택 자료와 연장선상에 있는 경기와 충청지역 거북놀이 공연 형태를 살펴본 뒤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공연성과 전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마당 구성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와2리 와야골, 평택읍 화천리, 서탄면 내천1리 윗머드내, 평택읍 조개터, 서탄면 금각1리 쇠뿔마을, 안중읍 덕우1리, 진위면 은산리 등에서는 매년 추석에 10대 남자아이들이 수숫대로 거북 모형을 만들어 집집마다 다니며 거북놀이를 했다. 산업화로 인한 이농 현상으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전승이 중단되었으나, 2000년대 초반 노와2리 출신 상쇠 정덕근이 중심이 되어 전래 거북놀이를 복원했다. 이후 몇 번의 내용 변개를 거쳐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보존회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는 그간 2009년 경기도 민속예술제 장려상, 2013년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2014년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 장에서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 2018년 평택시 신장동에서 진행된 거북놀이

12) 김종대·윤서옥, 앞의 논문, 85-87쪽.

공연 실황 영상을 중심으로 이 놀이의 세부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길놀이다. 떡메를 가진 수장거북이 선두에 서고, 거북잽이 4인이 든 큰거북, 일반거북과 마을사람, 농악대 순서로 등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를 합창한다. 수장거북은 떡메를 들고 있으며 바지저고리를 입고 허리에 파란색 때를 둘렀다. 일반거북들은 수수잎으로 엮은 이엉을 머리와 어깨, 허리에 두르고, 수수빗자루를 잡고 좌우로 쓸면서 이동한다. 거북잽이 4명은 큰거북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문굿이다. 놀이패가 문 앞에 도착하면 수장거북이 집주인 내외에게 “문 엽소 문 엽소 수문장군 문 엽소. 천년만년 거북이가 오곡만복을 잔뜩 지고 들어갑니다.”라고 말한다. 주인 내외는 놀이패를 반기며 문을 열어주면, 놀이패는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 노래하며 집안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 우물굿이다. 우물 앞에서 수장거북과 마을 사람들은 반복창으로 “뚜루쇼 뚜루쇼 샘구멍 뚜루쇼 / 뚜루쇼 뚜루쇼 샘구멍 뚜루쇼 / 물줍쇼 물줍쇼 사해용왕 물줍쇼 / 물줍쇼 물줍쇼 사해용왕 물줍쇼 / 동해물도 땡기고 서해물도 땡기고 / 동해물도 땡기고 서해물도 땡기고”라고 노래한다. 그 뒤 수장거북은 “인간은 물을 먹어야 사는 법 칠년대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맑은 물을 펑펑 내주시고, 구년가뭄에도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 덕담을 마친 뒤 우물을 향해 일동 반절을 세 번 한다.

네 번째, 터주굿이다. 놀이패가 장독대 옆에 도착하면 수장거북이“누릅쇼 누릅쇼 터주지신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터주지신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천년지덕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천년지덕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만년지덕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만년지덕 누릅쇼”라는 내용의 고사(告祀)소리를 부른다. 가창 방식은 우물굿과 동일하다. 위 소리를 마치면 큰거북이 선두에

서고, 일반거북, 마을 사람들, 농악대 순서로 대청 앞으로 이동한다.

다섯 번째, 대청굿이다.[13] 고사를 지내기 지내기 전 수장거북과 큰거북을 중앙에 두고 농악대가 원으로 돌며 진풀이를 한다. 고사상이 준비되면 주인 내외가 재배한 뒤 정성을 드리고, 뒤이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잔을 올린다. 이때 수장거북이 이 댁 가중을 위해 축원 덕담을 올리자고 하면서 산세풀이, 살풀이, 가정 축원으로 이루어진 고사(告祀)소리를 부른다. 소리가 끝나면 일동 고사상을 향해 반절을 세 번 한다.

여섯 번째, 마당굿이다. 놀이패가 2열로 서서 원형으로 돌면서 합창으로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를 노래한다. 이때 큰거북가 무대 중앙에 자리잡으면, 거북잽이들이 큰거북을 들어 올리고 그 안으로 수장거북이 들어간다. 큰거북을 둘러싸고 농악대가 원형을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로, 일반거북들은 양옆에서 작은 원을 만들어 진풀이를 한다. 그 뒤 일반거북과 마을 사람들은 큰거북을 중심으로 크게 원을 돈다.

놀던 거북들이 갑자기 쓰러지고, 수장거북은 "대감마님 우리 거북이들이 서해바다를 건너오느라 지치고 배가 고파 쓰러졌으니, 먹을 것 좀 주시오."라고 한다. 주인 마님은 한가위에 먹을 것이 잔뜩 있으니, 마음껏 먹고 우리 집에 건강과 복을 잔뜩 달라고 한다. 잠시 후 마을 주민이 물 한 컵을 가지고 나오자, 수장거북은 음식이 적다며 "얘들아 울어라!"라고 한다. 그러면 거북들이 우는 흉내를 낸다. 이에, 집주인이 곳간에 있는 음식을 다 내오라고 하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 중 여성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어깨춤을 추면서 자진방아타령을 부른다. 노래가 끝나면 수장거북은 이 댁에서 배불리 먹었으니 그냥 갈 수 없다고 하면서 신명나게 놀고 가자고 한다.

일곱 번째, 거북뒷놀이이다. 큰거북을 중앙에 두고 일반거북들이 원형으로 돈다. 그 뒤 좌우로 두 개의 원을 만들었다가, 무대 옆으로 빠지면, 이어

13) 2018년 평택시 신장동 공연 당시에는 장승굿, 우물굿, 조왕굿이 생략되었다.

서 농악대가 무대 중앙으로 와서 2열로 서서 진풀이를 한다. 그 뒤 일반거북이 다시 등장하여 십자 형태로 진풀이를 한 뒤 모든 놀이를 마무리한다.

3. 경기 및 충청지역 거북놀이와의 비교

이 장에서는 전래 거북놀이를 기반으로 공연 형태로 만든 거북놀이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평택 거북놀이의 공연성과 전형성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 경기지역

경기지역 거북놀이는 여주와 이천에서 공연되었다.[14] 먼저, 여주군 능서면 마래리 전래 거북놀이에 기반한 공연에서는 질라아비, 거북이, 잡색, 소리꾼, 농악대가 등장한다.[15] 놀이패는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 앞에서 덕담을 하고, 마을 공동우물 앞으로 이동하여 우물굿을 한다. 이때 상쇠는 물이 잘 샘솟길 기원하는 내용의 고사소리를 한다. 대문 앞에 도착한 뒤 질라아비가 "문 여시오. 문 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갑니다."라고 소리치면, 주인이 문을 열어 준다. 거북을 앞세우고 집안에 들어가서 장독대 앞에 도열한 뒤 터주굿을 한다. 농악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다가 "잡귀 잡신은 물러가라." 합창하며 오른쪽 발로 땅을 밟으며 터줏가리 주위를 돈다. 놀이패는 뒤뜰에서 부엌으로 이동하여 "누르세 누르세 조왕지신 누르세."를 합창하는데

14) 경기도 오산에서도 2010년대 이후에 거북놀이가 무대에서 공연되었으나, 본래 놀이 성격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15) 놀이 내용은 아래 책을 참고하였다.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여주군사〉 제4권, 여주군, 2005, 72~73쪽.

터주굿 때와 같은 방식으로 원을 돌며 발을 구른다.

대청 앞에서 고사상이 설치되면 대청굿이 시작된다. 집주인이 고사상을 향해 재배하며 손비빔을 하고, 농악대 상쇠는 그 옆에서 산세풀이, 홍수풀이, 농사풀이, 달거리로 이루어진 덕담을 한다. 소리를 마치면, 상쇠가 집주인에게“이 거북이 저 동해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 기진맥진하니 먹이 좀 주시오.”라고 청한다. 주인이 떡, 고기, 술 등을 놀이패에게 내놓으면, 놀이패는 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마지막 절차인 마당놀이 때는 질라아비가 거북이에게 “배불리 먹었으니 여기서 한판 놀고 가자.”라고 말한다. 거북이가 일어나고, 상쇠가 쇠를 네 번 올리면 거북이가 동쪽을 향해 절을 네 번 한다. 그런 뒤 모두 함께 춤을 추며 논 뒤 퇴장한다.

다음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된 〈이천 거북놀이〉이다.[16] 이 놀이 주요 등장 인물은 질라아비, 어미거북과 새끼거북, 마을 사람, 농악대이다. 첫 번째 절차는 어미 거북과 새끼 거북 모형에 치성드리기로, 질라아비와 놀이패 3명이 거북 모형에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질라아비는 복거북이 동해바다, 태백산백을 지나 어렵게 이곳에 왔으니, 가가호호 다니면서 만복 수복을 빌어드리자고 하면서 놀이가 시작된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농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지는 않는다.

놀이패가 마을 공동우물 앞에 도착하여 우물을 향해 일동 반절을 세 번 한다. 질라아비는 이 거북이 동해 용왕의 아들이고, 농사도 잘 되고 물이 맑기를 기원한다는 내용의 덕담을 하고, 이어서 상쇠가 우물굿 고사소리를 한다.[17] 소리를 마친 상쇠는 풍년을 위해 다같이 농사풀이를 하자고 하면서

16) 이천 거북놀이 공연 내용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였다.
2021년 추석맞이 이천거북놀이 국립민속박물관 공연 영상
2021년 이천시 설봉공원내 다리원 공연 영상

17) 이천 거북놀이 자료집에는 우물굿 전에 장승굿을 한다고 되어 있으나, 2021년 공연에서는 장승굿을 하지 않았다.

고사반 중 농사풀이를 농악 반주에 맞추어 독창한다.

질라아비는 마을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만복을 기원하자고 한다. 이때는 기수가 앞장 서고, 길라잡이, 어미 거북, 새끼거북, 마을 사람, 농악대 순서로 이동한다. 놀이마당에서 거북이를 중앙에 두고 놀이패가 원형으로 돌면서 악기를 연주한다. 이때 갑자기 거북이가 쓰러진다. 질라아비가 깜짝 놀라, 거북이에게 머리, 다리, 허리가 아프냐고 물어보고, 그때마다 거북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이 거북이가 꾀병을 부린다고 하면서, 놀이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는다. 사람들이 거북이에게 침을 놓으라고 하자, 그는 말을 잘 못알아들은 척하면서 희극적 상황을 연출한다. 마침내 그가 수수잎 빗자루 손잡이로 거북이 뒷부분을 찌르면 거북이는 깜짝 놀라 일어나서 이리저리 다닌다. 전체 놀이패가 거북이를 중앙에 두고 원형으로 돌면서 어깨춤을 춘다. 이때 합창으로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 거북아 거북아 천석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를 노래한다.

놀이패가 이동하는 중 집주인이 선두에 선 질라아비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질라아비는 복을 드리되, 값을 좀 쳐주셔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집주인은 돈, 밥, 술, 떡도 줄 것이라고 한다.

놀이패는 집에 들어가기에 앞서 문굿을 한다. 농악 연주에 맞추어 합창으로 “들어가오 들어가오 만인간이 들어가오 / 문 엽소 문 엽소 수문장군 들어갑니다”라고 노래한다. 집 안으로 들어가 터줏가리 앞에서 터줏고사를 지내면서 한해 농사 잘 되고, 집안 사람들 소원 성취 바란다는 덕담을 하고,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 /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 누르세”라는 내용의 노래를 합창한다. 이 과정에서 어미 거북이는 몸을 상하로 움직이며 자유롭게 논다. 터주굿을 마친 놀이패는 조왕굿을 지내기 위해 부엌으로 이동하고, 질라아비는 집안사람의 건강을 기원하는 덕담을 한다.

대청굿을 지내기 위해 대청 앞에 도착하자 거북이가 또 쓰러진다. 질라아

비는 거북이가 꾀병 부리는 것 같지는 않고, 먼 길을 오느라 힘도 들고, 지쳐서 그런 것 같다고 하며, 집주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한다. 이에, 상쇠는 거북이 복을 주러 왔으니, 한바탕 논 뒤 음식을 먹자고 한다. 놀이패는 선후창으로 거북이에게 잘 놀라는 내용의 노래를 한다. 그런 뒤 상쇠는 복을 빌어주자고 하면서 산세풀이, 살풀이, 뒷염불로 이루어진 비나리를 한다. 이때 거북이는 마당 중앙에 가만히 누워 있고, 집주인을 시작으로 마을 사람들이 대청 앞에 차려진 고사상을 향해 재배한다.

마지막에 질라아비가 사람들을 향해 배부르게 먹었으니 다른 집으로 떠나보자고 하면서 놀이패를 이끌고 퇴장한다.

2) 충청지역

충청지역에서는 충남 당진과 천안, 충북 음성 세 군데 자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당진 볏가릿대 거북놀이〉에 등장하는 거북은 부모 거북 2마리, 새끼 거북 1마리로, 어미 거북은 2명, 새끼거북은 1명이 연기한다.[18] 첫 번째로 장승굿을 지낼 때는 장승 앞에서 좌상이 “동방에 청제지신 서방에 백제지신 남방에 적제지신 북방에 흑제지신 우리 마을 구비 살펴오십옵소서”라고 기원한다. 참가자들은 장승을 향해 두 번 반절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공동 우물로 이동한다. 거북이들은 놀이패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고, 단독으로 놀이판 주변부에서 어슬렁거린다. 우물 앞에 도착하여 우물굿을 지내는데, 상쇠는 “물리세 물리세 잡귀잡신을 물리세”라고 고사소리를 한다. 상쇠가 앞소리를 메기면 놀이패가 2열로 서서 우물을 돌면서 오른쪽 발을 구르면서 후렴을 받는다. 우물굿을 마친 뒤 상쇠가 액막이타령을 구연한다. 모든 소리를 마치고 어깨춤을 한바탕 춘 뒤 상쇠가“물줍쇼 물줍쇼 왕왕님전 물줍쇼”라고 한다. 소리를 할 때 거북들은 마당 앞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논다.

18) 충남 당진 볏가릿대 거북놀이 내용은 2003년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전 영상을 보고 정리하였다.

세 번째로, 볏가릿대 눕혀 길흉 점치기이다. 좌상이 “볏가릿대를 눕혀라!!”소리치면 사람들이 샘 옆에 세워두었던 볏가릿대를 눕힌다. 그는 오곡이 잘 붙었는지 확인하면서, 볏가릿대에 붙은 오곡 양을 보고 내년 풍흉을 점친다.

놀이패는 문 앞으로 이동하여 집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집주인 내외가 문을 열어주고, 거북이들을 선두로 일행이 마당 안으로 들어간다. 장독대 앞에서 터주굿을 지낼 때는 상쇠가 소리를 메기고, 놀이패가 2열로 서서 장독대 주위를 돌면서 “누르세 누르세 터주지신을 누르세”를 반복 합창한다. 이는 우물굿과 같은 형태이다. 모든 노래를 마치고 장독대를 향해 세 번 반절한다.

놀이패는 대청 앞으로 이동하여 원형의 진풀이를 하면서“모시자 모시자 성주지신을 모시세”라고 노래를 합창한다. 이때 거북은 놀이판 주변을 맴돌거나 놀이판 뒤편에 앉아 휴식을 취한다.

주인 내외는 앞마당에 고사상을 준비한다. 상쇠가 고사상 옆에서 산세풀이와 가정 축원으로 이루어진 성주굿 고사소리를 구연한다. 이때 집주인 내외는 대주상을 향해 재배하고 손비빔을 한다.

고사소리 구연을 마치면 거북이들이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여 마당놀이를 한다. 놀이패 전원이 마당에서 춤추며 노는데, 집주인 내외가 소반에 술, 잔을 가지고 나와 잔에 술을 따라 거북이를 먹이고, 실타래를 거북이 목에 걸어준다. 거북이의 등을 두드리기도 한다. 거북이들은 마당을 돌면서 악기 연주에 맞추어서 더욱 신나게 논다.

어울려 놀던 중 새끼 거북이 갑자기 넘어져 바둥거린다. 주변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쇠와 북을 연주를 빠르게 하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잠시 소란 끝에 어른 거북들이 새끼 거북을 일으키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서 마당놀이를 다시 시작한다. 이때 새끼 거북을 농악대원 한 명이 어깨 위에 태워 2무동 놀이를 하고, 모든 놀이가 마무리된다.

두 번째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와 군동리 전래 거북놀이이다.[19] 이곳 공연에서는 거북 안에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북이 대가리와 아래턱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길라잡이는 머리와 온몸에 수수잎을 엮었다.

먼저 장승굿을 지낼 때 때 놀이패는 장승 앞에서 반원형으로 서고 농악에 맞춰 일동 인사를 한다. 다음으로 마을 공동우물 앞에 도착한 뒤 상쇠가 고사소리를 한다. 이때 거북이는 장단에 맞추어 머리를 흔들며 논다. 우물에 반절하고 일동은 집 앞으로 이동한다.

대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상쇠가 집주인을 향해 "자 천석 들어갑니다. 만석 거북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면 만복이 들어오고 땅을 쓸면 황금이 쏟아져 나오니 대문을 활짝 열어주소서."라고 하고, 주인이 대문을 활짝 열어 준다.

마당으로 들어가자마자, 거북이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진다. 길라잡이와 놀이패는 거북이가 꾀병을 부린다며 재담을 이어가는데, 이는 앞서 살핀 이천지역 사례와 동일하다. 길라잡이가 거북에게 침을 놓은 뒤 놀이패는 거북에게 잘 놀라는 내용의 노래를 한다. 노래를 마치면 거북이가 천천히 일어나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한다. 놀이패는 거북을 앞세우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아 부엌으로 가서 조왕굿, 장독대 앞으로 이동하여 터주굿을 진행한다. 집안에서 이동할 때 길라잡이는 수수잎 비를 들고 쓸고 다니고 거북이는 그 뒤를 따른다.

대청굿을 시작하기 앞서 마당 앞에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상을 놓은 뒤

19) 참고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2021년 10월 9일 천안거북놀이 문화축제 공연 영상
황서규·홍순국 편, 〈천안의 거북놀이〉, 성환문화원, 1997, 86-108쪽.

쌀이 가득 담아 수저에 흰실타래를 감아 꽂는다. 상쇠가 산세풀이, 액막이, 농사풀이로 이어지는 고사덕담을 부르고 집주인이 고사상을 향해 재배하고 정성을 드린다. 이 사이 거북이는 마당 주위를 이리저리 다니며 놀다가 또 쓰러지고, 놀이패는 음식을 나누어 먹은 뒤 퇴장한다.

세 번째로, 충북 〈음성 거북놀이〉이다.[20] 이곳 놀이에는 두 명이 움직이는 거북 1마리가 출연한다. 거북이 모형은 다른 곳과 같이, 수수잎을 엮어 만들었고, 꼬리는 막대기 끝에 수수잎을 한묶음 달아서 제작했다. 질라래비는 잠뱅이에 오쟁이를 어깨에 메고 있는데, 거북이를 이끌고 다니면서, 상황에 따라 덕담을 한다.

놀이패가 문 앞에 도착하여 정렬을 마치면 질라래비는 거북놀이를 하러 온 거북이가 천석거북, 만석거북이니 이 집에서 놀면 만복이 쏟아질 것이라고 한다. 집주인이 대문을 활짝 열어 주면 질라래비가 우물 옆에서 샘물이 콸콸 솟길 기원하는 내용의 덕담을 하고, 상쇠가 우물굿 고사소리를 이어서 한다. 노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북이 무대 중앙을 이리저리 다니며 논다. 용왕굿을 마치고 인원이 반절을 할 때 거북이도 같이 절을 한다.

마당놀이가 시작되면 집주인이 대청 앞에 고사상을 차린다. 놀이패가 한참 놀고 있을 때 거북이가 갑자기 쓰러지면 사람들이 짚신을 벗어 바닥을 치면서 슬퍼한다. 질라래비가 "이 거북이 동해바다를 건너 이 산골짜기 오느라고 과로해서 병이 났나보다"며, 의원을 불러오게 한다. 의원이 와서 거북이의 대가리, 꼬리 등을 살펴본 뒤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다. 음식을 충분히 먹은 거북이가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은 기뻐한다.

질라래비는 거북이에게 "이댁 문전에 들어왔으니 마당 돌도 울안 돌고 잡귀잡신 흘 몰아다가 조선국 울릉도 깊고 깊은 물에 둥이 둥실 띄울지어다." 라고 말하며, 거북이로 하여금 큰절을 하게 한다. 놀이패는 부엌으로 이동하고,

20) 전체 놀이 과정은 충북 음성군 소이면 감산리 주민 67명이 출연한 1982년 제2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 영상을 보고 정리하였다.

상쇠는 그곳에서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의 덕담을 한다. 소리를 마친 놀이패는 장독대로 이동하여 터줏가리 앞에서 조왕굿을 한다.

집안 곳곳을 이동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북이 선두에 서고, 각 장소에서 고사를 할 때도 거북이는 무대 중앙에 위치한다. 길라잡이는 무대 한쪽에서 덕담을 하고, 놀이패는 마당 앞에서 개인적으로 춤을 춘다. 소리를 마치면 거북이는 마당을 돌면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고, 때로는 장난도 치기도 한다. 이곳은 앞서 살핀 다섯 군데 거북놀이 중 농악대, 마을 사람, 거북이가 어울려서 마당을 자유롭게 노는 내용이 가장 많다.

4.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전형성 확보 방안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공연 형태로 만들 경우 원형(原型)이 아닌, 전형(典型)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21]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몇 차례 개변이 일어난 상황에서 어느 특정 시기 형태에 대한 고수보다는 놀이의 핵심을 유지하는 선에서 현재 보존회가 처한 상황이나 관객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노와2리 토박이 정명섭(1928)과 정효재(1939)에게 조사한 내용을 기준 삼아 이 놀이의 전형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22]

앞서 살핀 지역들의 거북놀이 구성은 문굿, 우물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등으로, 평택 역시 그곳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북, 놀이패, 농악대 등 등장 인물들도 대동소이하다.

21) 전통 민속놀이의 원형(原型)과 전형(典型)은 아래 논문을 참조하였다.
송준, 《무형문화유산 '전형' 개념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 〈남도민속연구〉 제39집, 남도민속학회, 2019, 235-248쪽.
홍태한, 《은산별신제를 통해 본 무형문화재의 전형 문제》, 〈남도민속연구〉 제32집, 남도민속학회, 2016, 279쪽.

22) 두 제보자에게 조사한 내용은 아래 글에 수록되어 있다.
임장혁, 앞의 보고서, 23쪽.

반면, 평택지역만의 특징도 존재한다. 이천은 어미거북, 새끼거북 등 2마리, 당진은 부모 거북, 새끼 거북 등 3마리, 천안, 여주, 음성은 모두 1마리가 등장한다. 평택에서 등장하는 거북은 모두 3종류로, 큰거북[23], 수장거북[24], 일반거북이다. 사람이 들고 다니는 큰거북과 10여명으로 이루어진 일반거북은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길라잡이를 수장거북으로 부르고, 그가 떡메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1) 거북의 역할

대청굿 때 배가 고파 쓰러진 일반거북들을 향해 주인마님이 손비빔을 하며 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여기 음식이 많이 있으니, 이 음식 잡수시고 우리 집 대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에 부자 되게 기원하여 주시며 동네 사람들 부자되게 해주세요."(2013년 제 19회 경기민속예축축제 공연 영상)

위 대사를 통해 평택 거북놀이 소재 거북의 역할을 알 수 있다. 이 놀이의 핵심은 거북이 가정에 복(福)을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평택에서는 일반거북들이 일제히 쓰러지고, 수장거북이 집주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부탁한다. 놀이에 등장하는 3종류의 거북 중 가장 많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는 4명이 들고 다니는 큰거북이다. 그런 이유로 일반거북이 아

23) 노와2리 와야골에서는 큰거북을 거북등이라고도 불렀으나, 여기서는 큰거북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을 거북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4) 수장거북은 대장거북이라고도 불렀다. 대장거북은 큰거북과 의미가 겹치므로, 수장거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닌, 큰거북이 쓰러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3년 공연 중 대청굿 때 일반거북이들이 무대 중앙에서 비를 좌우로 쓸면서 이리저리 다니고, 농악대는 무대 가장자리에서 열을 맞추어서 악기 연주를 했다. 모든 놀이를 마칠 무렵 큰거북이 비로소 등장하여 앞장 서고, 앞서 놀던 일반거북이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퇴장했다.

2014년 공연 때는 놀이 시작 때부터 큰거북이 등장했다. 그러나 우물굿, 터주굿, 대청굿 때 중앙이 아닌, 무대 옆에 위치하였다. 마당굿 때 무대 중앙으로 나왔으나 제자리에서 입만 아래 위로 움직일 뿐 적극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농악대, 일반거북들의 진풀이 때는 무대 한쪽으로 밀려났다. 놀이 내내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라고 노래하지만, 정작 큰거북은 주변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큰거북이 놀이의 중심에서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2013년 공연 때는 수장거북이 등장하지 않았다. 농악대 복색의 쇠를 가진 이가 전체 놀이를 진행하고, 각 상황에 따른 덕담을 했다. 2014년 공연 때는 복장을 제대로 갖춘 수장거북이 등장했으나 놀이 진행 역할까지 수행하지 않았다. 길라잡이는 마을 사람과 같은 복색으로, 꽹과리를 들고 있었다. 2018년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공연 때 떡메를 가지고 놀이를 진행하는 수장거북이 등장했는데, 일반거북이 아닌, 일반 농악대 복색이었다.

앞서 살핀 다섯 군데의 거북놀이에서 길라잡이는 놀이를 이끌어가면서 각 굿과 관련된 덕담을 하고, 각 장소에 따른 고사(告祀)소리는 농악대 상쇠가 담당했다. 덕담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고사소리는 상쇠만 할 수 있다. 임장혁과 박성복이 작성한 글에서도 수장거북이 덕담을, 농악대 상쇠가 고사소리를 했다. 2013년 공연 때는 농악대 상쇠가 놀이 진행과 고사소리를 전담하고, 2014년과 2018년에는 우물굿, 터주굿, 대청굿 때 하는 고사(告祀)소리를 모두 길라잡이 혹은 수장거북이 했다. 놀이에 따른 의례성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사소리가 첨가된 점을 감안하면, 그간의 공연에서 길라잡이가 불렀던 고사소리는 상쇠가 맡아야 한다.

수장거북이 떡메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떡메로 땅을 두드려 터를 누르기 위해서이다. 충남 당진이나 충북 음성에서 놀이패가 터줏가리나 우물을 돌면서 오른발을 힘차게 구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2014년, 2018년 공연 때 수장거북은 떡메를 어깨에 지고 다닐 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일반거북과 동일한 복색을 갖추고, 떡메를 가지고 놀이를 이끌어 가는 전통적 형태의 수장거북이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셈이다.

10마리가 넘는 일반거북은 수수잎을 엮은 띠를 머리에 쓰고, 수수잎으로 엮은 도롱이 형태의 옷을 입었다. 전통적 형태의 거북놀이에서 일반거북들은 부엌, 우물, 대청 등 놀이판을 종횡무진 발을 구르고 장난을 치는 등 놀이 재미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2013년 경기도 대회 때 마당에 들어와서 우물굿을 하기 전에 일반거북들이 마당을 돌아다니며 수수빗자루를 좌우로 움직이며 쓸었다. 이는 그간 집안에 쌓인 액을 쓸어내는 주술적 행위이다. 2014년 공연 때는 놀이패가 마당에 도착한 뒤 이들은 가장자리로 빠져서 빗자루를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이리저리 다니기만 했다. 작년과 같이 마당에 들어와서 의례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앞서 주술적 목적으로 활용된 수수빗자루가 2014년부터는 유희성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농악대의 비중

충청 및 경기지역 전래 거북놀이는 십대 남자아이들의 무정형 놀이였다. 그런 이유로 충북 음성과 경기도 이천에서는 농악대가 참가하더라도, 보조 역할에 머물고, 진풀이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각 상황에서 거

북이가 마당을 자유롭게 노닐면서 자연스러운 놀음판을 연출하였다. 평택시 노와2리에서도 거북놀이 때 북수 한두 명이 참가했고, 1970년대 이후 볼거리를 늘리고 놀이에 흥겨움을 더하기 위해 다른 농악기를 첨가하였다. 이 시기에도 놀이의 중심은 거북이었다.

2013년 공연 때는 대청굿[25]을 하기에 앞서, 무대 중앙에서 농악대가 원형으로 돌면서 진풀이를 했다. 그 뒤 2열로 마주 보고 서서 놀이를 이어갔다. 일반거북들은 무대 가장자리에서 수수빗자루를 좌우로 쓸면서 다니지만 무대 중앙에서 진풀이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놀이판 주변부에 머물렀다.

대청굿을 지낸 뒤 일반거북들이 일렬로 서서 무대 중앙으로 나온다. 그리고 마당을 좌우로 쓸면서 원형으로 돌면서 다니다가 일동 그 자리에 쓰러진다. 수장거북이 집주인에게 거북이들이 배가 고파 그러니, 집주인에게 음식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동네 아낙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거북이들에게 준다.[26] 음식을 먹은 일반거북들은 수수빗자루를 좌우로 쓸면서 무대 중앙에서 원형으로 돈다. 그런 뒤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제자리에서 대형을 유지하면서 두 개의 원으로 만들었다가 하나의 원을 만든다.

2014년 공연을 보면, 대청굿을 하기에 앞서, 농악대가 무대 중앙에서 원을 돌면서 진풀이를 한다. 이때 일반거북들은 무대 옆에서 작은 원을 만들어 따로 논다. 마당굿 때는 큰거북을 중심으로 일반거북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십자 형태, 4개의 작은 원 등을 만들며 놀이를 진행한다. 그 뒤 거북들이 무대 옆으로 빠지고, 농악대가 중앙으로 나와 여러 가지 형태의 진풀이를 한다. 마지막에는 일반거북들이 무대로 다시 등장하여 농악대와 함께

25) 팽성읍 노와2리에는 거북이가 마을의 모든 집을 찾아가기 보다는 형편이 좋은 집을 골라서 갔다. 먹고 사는 문제가 녹록치 않던 시절 모든 집에서 음식을 얻어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청굿 때 집주인 내외가 정성을 드린 뒤 이웃 주민들이 고사상을 향해 재배하고 정성을 올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26) 마을 아낙들이 아닌, 집주인 내외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북이들의 방문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은 그 집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진풀이를 한다.

2018년 공연 중 마당굿 때는 처음부터 큰거북이 무대 중앙에 자리잡는다. 거북잽이들이 큰거북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수장거북이 들어간다. 그러나 수장거북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 뒤 큰거북을 둘러싸고 농악대가 원형을 유지하면서 단독으로 전후좌우로, 일반거북들은 좌우에서 작은 원을 만들어 진풀이를 한다. 최종적으로 일반거북과 마을 사람들이 섞여서 큰거북을 중심으로 원을 돌며 논다.

2013년 공연 이후 횟수를 거듭할수록 농악대 단독 및 거북이들과 함께 하는 진풀이 비중이 늘어났다. 문제는 농악대가 무대 중앙을 차지할 때는 큰거북 및 일반거북들은 무대 언저리에 위치함으로써 놀이패의 이원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의 정형화된 진풀이가 공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되지만 전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3) 민요 활용

평택 거북놀이에서는 세 층위의 민요가 활용되고 있다. 먼저, 전래 향토민요는 각각의 굿에서 구연되는 고사(告祀)소리와 2018년 공연 중 마당굿 때 사용된 자진방아타령이다. 이 중에서 우물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때 불린 고사소리 중 대청굿 고사소리 중 산세풀이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천계우주 하나리요 지계조축 땅생길재
국태민안 시화연풍 연년이 돌아든다
허대주대왕 등극시에 봉황이 어찌 생겼느냐
삼각산 기봉하고 인왕산이 조산되고
왕심산 청룡되고 종남산 안산되고

동구제 말리제 백호로다
삼각산이 솨산될적 한강수 독을 막아
여천지 무궁해라 만복을 구할적에
봉황이어찌 생겼구나 생각등에 대궐짓고
봉황허리에 물을대어 대궐앞에 육조로다
오 영문 하각수 각도각금을 마련할제(후략)

2013년 공연 때는 산세풀이, 살풀이, 가정 축원, 뒷염불이, 2014년과 2018년 공연 때는 산세풀이, 살풀이, 가정 축원이 노래되었다. 2013년 이후 등장인물, 복색, 놀이 방식 등은 조금씩 바뀌어도, 대청굿 고사소리 전체 구성 및 개별 사설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전래 민요를 현대적으로 수정한 노래이다. 2014년 공연 당시 거북옷을 만들 때 길라잡이와 마을 사람들이 선후창으로 부른 자료는 아래와 같다.

엮어보세 엮어보세 천년만년 엮어보세 / 엮어보세 엮어보세 어화술술 상사디야
이어보세 이어나보세 이엉을 이어보세 / 이어보세 이어보세 어화술술 상사디야
엮어보세 엮어보세 오복만복을 엮어보세 / 엮어보세 엮어보세 어화술술 상사디야

앞소리는 현재 상황에 따른 노동 권유가, 뒷소리는 노동 권유와 상사소리 후렴이 노래되었다. 기존 거북옷을 엮으면서 하는 소리가 없는 관계로, 상사소리를 상황에 맞게 변화시켰다.

2014년 공연 때 우물굿과 터주굿 때 구연한 고사(告祀)소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뚫으쇼 뚫으쇼 샘구멍 뚫으쇼 / 뚫으쇼 뚫으쇼 샘구멍 뚫으쇼
물줍쇼 물줍쇼 사해용왕 물줍쇼 / 물줍쇼 물줍쇼 사해용왕 물줍쇼
동해물도 땡기고 서해물도 땡기고 / 동해물도 땡기고 서해물도 땡기고

누릅쇼 누릅쇼 토지지신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토지지신 누릅쇼
누릅쇼 누릅쇼 천년지덕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천년지덕 누릅쇼
누릅쇼 누릅쇼 만년지신 누릅쇼 / 누릅쇼 누릅쇼 만년지신 누릅쇼

전통적으로 상쇠는 정초 지신밟기를 하면서 우물굿이나 터주굿 때 독창으로 고사소리를 불렀다. 거북놀이 공연 때는 길라잡이가 선창하고 마을 사람들이 앞소리를 합창으로 반복함으로써, 놀이판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로 순수 창작민요이다. 아래 인용문은 놀이패가 등장할 때,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진풀이를 할 때, 그리고 퇴장할 때 부른다.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 / 놀아 놀아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
백석 거북도 놀고 천석 거북도 놀아라 /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
천석 거북도 놀고 만석 거북도 놀아라 /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
이집에 사는 사람들 만수무강하시오 /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
이곳 찾은 사람들 무병장수하시오 / 거북 거북 놀아라 어화 영차 놀아라

위 노래는 2013년 공연 때는 합창으로, 2014년과 2018년 공연 때는 선후창으로 불렸다. 다른 지역 거북놀이에서도 이동이나 유흥 과정에서 '거

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가사가 들어간 노래가 불리지만 평택처럼 전체 과정에서 활용되지는 않는다. 구연 상황과 목적에 따라 기존 향토민요 기반의 새로운 노래 구연은 무방하지만 창작민요가 놀이 전반에 걸쳐 불리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다른 지역 거북놀이 공연 형태를 살펴본 뒤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전형성을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평택 거북놀이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문굿, 우물굿, 터주굿, 대청굿, 마당굿, 거북뒷놀이로 공연된다. 놀이에 등장하는 거북은 모두 3종류로, 큰거북, 수장거북, 일반거북이다. 사람이 들고 다니는 큰거북과 10여명으로 이루어진 일반거북은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길라잡이를 수장거북으로 부르고, 그가 떡메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특별한 사례이다.

이 놀이의 핵심은 거북이 가정에 복을 나누어 주고 그 대가로 음식을 먹는 것이다. 놀이에 등장하는 3종류의 거북 중 복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존재는 큰거북이다. 그런 이유로 일반거북이 아닌, 큰거북이 쓰러지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큰거북이 우물굿, 터주굿, 대청굿 때 놀이의 중심에서 가정에 복을 가져다주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수장거북은 일반거북과 동일한 복색을 갖추고, 떡메를 가지고 놀이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놀이에 따른 의례성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사(告祀)소리가 첨가된 점을 감안하면, 수장거북이 놀이 진행과 덕담을, 상쇠가 고사소리를 맡아야 한다. 그가 가지고 다니는 떡메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청 및 경기지역 전래 거북놀이는 십대 아이들의 무정형 놀이였다. 2013년 공연이후 농악대 단독 진풀이와 다른 등장인물들과 함께 하는 진풀이 시간 및 형태가 현격히 늘었다. 농악대가 무대 중앙으로 나올 때 거북이들은 무대 언저리에서 무리지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농악대 단독, 혹은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여러 형태의 진풀이가 공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되지만 전형성은 훼손될 여지가 있다.

거북놀이에서는 전래 향토민요,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노래, 그리고 순수 창작민요가 구연된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기존 향토민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노래를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창작민요가 놀이 전반에 걸쳐 불리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김종대 외, 《이천의 거북놀이》, 민속원, 2006.

김종대·윤서옥, 〈경기도 거북놀이의 전승과 새로운 계승 양상〉, 《어문론집》제60집, 2014.

김헌선, 《경기도 평택 와야골 거북놀이 학술용역 완료보고서》, 평택문화원·경기대 산학협력단, 2022.

박성복, 〈평택지역 거북놀이의 전승과 특징〉, 《2020 평택학 학술대회 발제문》, 평택문화원, 2020.

송재용, 〈여주의 전통민속놀이 일고찰〉, 《동양학》 제4집,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2008.

송준, 〈무형문화유산 '전형' 개념의 적용 현황과 문제점〉, 《남도민속연구》 제39집, 남도민속학회, 2019.

이필영, 〈거북놀이의 성격과 의의〉, 《역사민속학》 제55호, 역사민속학회, 2015.

임장혁, 《평택 거북놀이 전승 연구》, 한국문화유산연구소, 2014.

여주군사편찬위원회, 《여주군사》 제4권, 여주군, 2005.

윤경식, 〈이천 거북놀이의 전승과 전승 창출〉,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11.

한양명, 〈홍성 내현리 거북탈놀이의 전승 양상과 성격〉, 《한국민속학》 제54집, 한국민속학회, 2011.

홍순석, 〈이천지역 민속문화와 문화환경〉, 《비교민속학》 제29집, 비교민속학회, 2005.

홍순석, 〈이천 사람들의 삶과 놀이〉, 민속원, 2004.

홍태한, 〈은산별신제를 통해 본 무형문화재의 전형 문제〉, 《남도민속연구》 제32집, 남도민속학회, 2016.

황서규·홍순국 편, 《천안의 거북놀이》, 성환문화원, 1997.

조선중기 원연의 삶과 의병활동

김경록/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선임연구원

차 례

1. 머리말
2. 원연의 가문과 삶
3. 임진전쟁의 발발과 전황
4. 원연의 의병창의와 군사활동
5. 맺음말

1. 머리말

16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정세는 격변의 시대였으며, 명청교체로 인하여 청 중심 국제질서가 정립되는 시초가 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말미에 일어난 임진전쟁은 국제전쟁으로 성격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연구경향이 없잖아 많다. 이는 연구과정에 다루어야 하는 자료 및 분석해야 할 분야가 방대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중국학계는 임진전쟁을 중화주의 관점에서 조선을 구원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에서 전쟁을 분석했다. 또한, 요동의 군사, 정치, 인구, 경제 등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요동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국학계는 명군의 출병을 중심으로 전쟁사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일본의 전쟁 발발원인 및 종전협상을 관심있게 다루었다.[1] 임진전쟁에 대한 중국학계의 본격적인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를 계기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임진전쟁시기 명에서 중시했던 요동지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요동의 경제, 군사시설, 이여송 등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다. 도요토미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여 전쟁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후금의 흥기와 명 멸망원인을 임진전쟁 파병에서 찾는 연구, 군량수송문제 및 俞大猷, 李如松, 宋應昌, 陳

1) 李景温,《朝鲜壬辰卫国戰争 》, 商务印书馆, 1980; 张万钧,〈明朝两次出兵援朝抗日〉,《学术論坛 》, 1981-6; 楊昭全,〈論明代援朝禦倭戰爭中的和議問題〉,《朝鮮研究文集》1, 1981; 司今,〈中朝抗倭戰爭中的露梁海戰〉,《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1982-4; 台湾三军大学编,〈中国历代戰争史〉,《军事译文出版社》, 1983; 彭秀枢,〈明代土家兵抗倭事迹概述〉,《求索》, 1984-2; 王家骅,〈略論豊臣秀吉侵朝戰爭的原因〉,《日本研究》, 1985-3; 孙與常,〈明万历年间遼東人民的抗倭援朝斗爭 〉,《社會科學輯刊》, 1985-5; 王婆楞,《歷代征倭文獻考》, (臺北)正中書局, 1986; 姜守鹏,〈明末遼東勢族〉,《社會科學戰線》, 1987-2; 陈祺,〈明代遼東马市及其历史影响 〉,《东北师大学报 》, 1987-1; 佟铮,〈从努尔哈赤的經濟要求看明與后金之间的关系〉,《社會科學輯刊》, 1987-6; 楊昭全,〈論明代援朝禦倭戰爭的幾個問題〉,《中朝關系史論文集》, 1988; 张庆洲,〈抗倭援朝戰爭中的明日和谈内幕 〉,《辽宁大学学报(哲学社會科學版)》, 1989-3; 王振芳,〈唐五代海运勾沉 〉,《山西大学学报(哲学社會科學版)》, 1989-4; 赵连泰·左学德,〈太閤检地的历史作用〉,《世界历史》, 1989-6.

隣 등 참전 주요인물을 집중 조명한 연구 등이 있었다. 또한, 이순신 공적과 척계광의 병법, 임진전쟁의 국제관계사적 접근 등이 이루어졌다.[2]

한국학계뿐만 아니라 한중일에서 주목하는 임진전쟁연구에서 인물사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중국학계에서 참전한 명군 지휘관에 주목하였듯이 한국학계에서도 인물사 연구가 방대하게 이루어졌다. 주로 군사지휘관, 정치인에 집중되었는데, 전쟁에 대한 공헌과 관련하여 이순신에 주목하는 반면, 원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물론 전쟁극복 및 공헌을 통해 역사적 의미를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병장의 경우 특정 인물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경기도 진위의 의병장 원연이 있다. 원연은 원균의 동생으로 원연의 의병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임진전쟁기 의병에 대한 연구사를 정리하고자 한다. 평양에서 의주의 선조를 압박하던 일본군은 후방지역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어난 의병에 의해 전술적 변화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의병은 임진왜란 연구의 가장 방대한 성과를 냈다. 1960

2) 姜守鹏,〈明代遼東經濟〉,《社會科學輯刊》, 1990-3; 林世慧,〈略論明代遼東城鎮的兴衰〉,《社會科學戰線》, 1990-4; 盛巽昌,〈李舜臣和朝鮮壬辰卫国戰争 〉,《航海》, 1990-4; 蔡俊士,〈戚继光在浙江台州抗倭斗争述論〉,《杭州大学学报(哲学社會科學版)》, 1991-2; 宗惠玉,〈李如松與援朝御倭戰争 〉,《北华大学学报(社會科學版)》, 1992-2; 周曉紅,〈貢獻突出的抗倭援朝將領宋應昌〉,《社會科學輯刊》, 1992-6; 韋旭昇,〈萬曆壬辰之役所留下的中韓友誼佳話〉,《歷史月刊》59, 1992; 張存武,〈萬曆援朝抗倭之役的影響〉,《歷史月刊》59, 1992; 宗惠玉·金榮國,〈也論豊臣秀吉侵朝戰爭的原因〉,《東疆學刊》, 1993-4; 王志遠,〈明朝的援朝抗日戰爭〉,《歷史教學》, 1993-7; 杜家驥,〈抗倭援朝與明王朝的衰落〉,《歷史月刊》62, 1993; 张吉昌,〈俞大猷抗倭的策略思想〉,《历史教学问题 》, 1994-2; 孫文良,〈明代'援朝逐倭'探微〉,《社會科學輯刊》, 1994-3; 金荣国·宗惠玉,〈丰臣秀吉发动侵朝戰争给日本带来了什么?〉,《天池学刊》, 1994; 孫衛國,〈陳隣與李舜臣〉,《韓國學論文集》4, 1995; 朱亞非,〈明代援朝戰爭和和議問題新探〉,《中國史研究》66, 1995; 张士尊,〈明末遼東军食问题述論〉,《山东师大学报(社會科學版)》, 1996-2; 闫立新,〈简述后金與明朝关系的逐步演变 〉,《满族研究》, 1997-1; 蔣非非 외,《中韓關系史·古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998; 姚继荣,〈明代遼東马市述論〉,《辽宁師範大學学报 》, 1998-4; 赵建民,〈文禄·庆长之役與朝鮮文化的传播〉,《复旦学报(社會科學版)》, 1998-9; 徐祖白,〈抗倭英雄钱泮〉,《江苏政协 》, 1999-4; 董龍範·劉子敏,《明代中朝關系史》, 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1999; 유보전,《壬辰倭亂期朝明關係史研究》, 民族出版社, 北京, 2005.

년 이후 본격화된 의병연구는 학술성과를 축적하여 의병의 성격과 대략적인 활동을 가늠하게 한다.[3] 이후 한국학계에서 의병은 처음 국난극복의 자생적 노력으로 조망되었으며, 연구가 진척되면서 의병의 성격, 출신별 관계성, 의병장 중심의 활동, 지역별 의병활동, 실제 의병의 역할, 지역사회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인식과 의병활동, 관군과의 관계, 향촌사회에서 의병활동으로 인한 전후 영향, 학맥에 근거한 의병활동, 지역별 의병활동의 비교, 의병조직의 변화, 의병의 향토방위, 학파별 의병활동, 향촌 사대부의 전쟁경험과 의병 등으로 확대되었다.[4] 의병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측면도 있다.

한편, 임진전쟁은 전쟁사의 측면으로만 분석될 수는 없다.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었고, 조선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붕괴는 충격이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3) 최영희, 《壬辰倭亂中의 社會動態》, 韓國硏究院, 1975; 조원래, 《義兵將金千鎰硏究》, 學文社, 1982; 이장희, 《郭再祐硏究》, 養英閣, 1983; 김석희, 〈壬辰倭亂의 義兵運動에 關한 一考〉, 《鄕土서울》 15, 1962; 김윤곤, 〈郭再祐의 義兵活動〉, 《歷史學報》 33, 1967; 이재호, 〈壬亂義兵의 一考察〉, 《역사학보》 35·36, 1967; 이장희, 〈海西義兵에 對한 一考察〉, 《사단》 14, 1969; 최근묵, 〈壬亂때의 湖西義兵에 對하여〉, 《忠南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9, 1976; 송정현, 〈壬辰倭亂과 湖南義兵〉, 《역사학연구》 4, 1972; 김석희, 〈壬亂義兵에 관한 再考察〉, 《부산대학교논문집》 13, 1972; 허선도, 〈鶴峰 金先生과 壬辰義兵活動〉, 《국역학봉전집》 第3部論考, 1976; 이장희, 〈鄭文孚의 義兵活動〉, 《史叢》 21·22합집, 1977; 이봉화, 〈壬亂尙州義兵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논문집》 9, 1979; 김진황, 〈壬辰亂中湖西地方의 義兵活動과 地方士民의 動態에 관한 硏究〉, 《사학연구》 34, 1982; 문수홍, 〈壬亂中慶尙左道地方의 義兵活動〉, 《南道泳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1983; 김현길, 〈壬辰倭亂과 義兵將趙熊〉, 《湖西文化硏究》 1, 1981; 조원래, 〈長城南門倡義에서 본 壬亂義兵의 一形態〉, 《論文集》 2, 순천대학, 1983; 나종우, 〈壬亂義兵과 長城南門倡義〉, 《향토문화연구》 4, 원광대학교향토문화연구소, 1987; 송정현, 〈壬辰倭亂에 있어서의 湖南義兵〉, 《역사학연구》 XI, 전남대학교사학회, 1983; 조원래, 〈興德南塘倡義와 蔡氏一門의 義兵活動〉, 《한국사연구》 42, 1983; 허선도, 〈壬辰倭亂의 克服과 嶺右義兵〉, 《진주문화》 4, 1983; 조원래, 〈壬亂初期全羅義兵의 性格〉, 《史鄕》 2, 1985; 이석린, 〈壬亂初期義旅의 構成及性分分析〉, 《湖西文化硏究》, 1985; 〈趙憲을 中心으로 한 壬亂初期의 義兵分析〉, 《金龍德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8.

4) 김강식, 《임진왜란과 경상우도의 의병운동》, 혜안, 2001; 계승범, 〈의병의 개념과 임진의병〉, 《서강인문논총》33, 2012; 노영구, 〈임진왜란 義兵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새로운 이해의 방향〉, 《한일군사문화연구》13, 2012; 이석린, 《임진왜란과 청주 의병》, 서경문화사, 2014; 허태구, 〈金誠一 招諭 활동의 배경과 경상우도 義兵 봉기의 함의〉, 《남명학연구》41, 2014.

인한 사회, 경제적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으로 학계에서 사회변화, 향촌사회의 변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5] 사회변화 연구는 민간인피해를 분석한 연구가 시작된 이후, 주

5) 이숭녕, 〈임진왜란과 민간인피해에 대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의 피해보고 서적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학보》 17, 1962; 이현종, 〈임진왜란과 서울〉, 《향토서울》 18, 1963; 이장희, 〈壬辰倭亂中 民間叛亂에 대하여〉, 《鄕土서울》 32, 1968; 최근묵, 〈임진왜란때의 호서지방의 민간반란〉, 《백제연구》 5, 1974; 최영희, 《壬辰倭亂中의 社會動態》, 한국연구원, 1975; 황하현, 〈임진왜란과 국가재정의 파탄〉, 《경제연구》 1, 1979; 정진영, 〈壬亂前後 尙州地方 士族의 動向〉, 《民族文化論叢》 8, 1987; 이장희, 〈임란전후 한국의 사회동태〉, 《아시아문화》 8, 1992; 박주, 〈임진왜란과 旌表〉, 《한국전통문화연구》 8, 1993; 김성우, 〈임진왜란 시기 상인층의 동향과 사족층의 대응〉, 《한국사학보》 8, 2000; 차인배, 〈임진왜란기 도성 내 포도청의 치안 활동〉, 《동국사학》 40, 2004; 류해춘, 〈임진왜란의 체험과 가사문학의 변모〉, 《우리문학연구》 17, 2004; 이윤선, 〈강강술래의 역사와 놀이 구성에 관한 고찰〉, 《한국민속학》 40, 2004; 장동표, 〈임진왜란 전후 밀양 재지사족의 동향〉, 《역사와현실》 55, 2005; 김강식, 〈壬辰倭亂 前後 釜山地域의 社會變化〉, 《항도부산》 22, 2006; 김강식, 〈임진왜란 당시 함경도 백성들은 왜 조선 왕자를 일본군에 넘겼나?〉, 《내일을 여는 역사》 29, 2007; 권기중, 〈임진왜란 시기 향리층의 동향과 戰後의 향리사회 :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64, 2007; 허남린, 〈규율과 질서 : 임진왜란과 유교적 사회질서〉, 《국학연구》 14, 2009; 변광석, 〈임진왜란 직후 기장지역의 상황과 被虜人 沙器匠〉, 《한국민족문화》 33, 2009; 〈임진왜란 이후 동래부사의 동래지역 인식과 기억사업〉, 《지역과 역사》 26, 2010; 김만호, 〈임진왜란기 일본군의 함경도 점령과 지역민의 동향〉, 《역사학연구》 38, 2010; 정일영, 〈임진왜란 이후 "敎化"의 양상 -광해군대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34, 2010; 송기태, 〈풍물굿의 군사적 의미화 연구 -전남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36, 2010; 송은일, 〈임란 전후 보성·장흥지방 재지사족의 사회적 기반: 임란 당시 전라좌의병 지도층과 그 가문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50, 2011; 김현영, 〈16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왜란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이훈상, 〈어느 지방 이서의 임진왜란 증언과 전승 -경상도 인동의 향리 劉席珍과 그의 임진왜란 일기-〉, 《영남학》 21, 2012; 권순강, 이호열, 〈임진왜란이후 밀양도호부 읍성의 공간구조 변화〉, 《건축역사연구》 22(2), 2013; 김일환, 〈임진왜란기 內浦지역과 민의 동향〉, 《역사와실학》 52, 2013;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창녕 지역의 대응과 후대의 기억〉, 《한국사상사학》 46, 2014; 김만호, 〈임진왜란 시기의 유언비어와 사회상의 변화〉, 《역사학연구》 54, 2014; 유현재, 〈壬亂 이후 鑄錢論과 倭錢의 수입〉, 《동국사학》 56, 2014; 윤혜민, 〈조선후기 石星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70, 2014; 권기중, 〈용만 권기를 통해 본 임란 이후 재지 사족층의 동향〉, 《한성사학》 30, 2015; 류성룡, 〈임진왜란 전후 영남지방 건축의 전개〉, 《한국학논집》 58, 2015.

로 지역별, 신분별 동향과 사회변동을 정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향리층과 사족, 전쟁으로 인한 유언비어와 사회혼란, 일본군의 점령에 따른 민의 동향, 수시로 발생한 반란이 가지는 의미, 전쟁경험의 문학적 표현, 국가재정이 파탄되고 신분질서가 붕괴는 상황에서 조선정부의 대응(치안유지, 旌表, 敎化 등), 유교적 사회질서의 붕괴가 가져온 영향 등 다양하였다.

이상과 같은 임진전쟁에 대한 방대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위의 의병장이었던 원연에 대한 연구는 사실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가문에서 원연의 삶과 의병활동을 관련자료의 종합을 통해 정리한 성과물이 있어 원연연구의 큰 학술적 성과로 평가될 연구가 있다.[6] 이에 본 연구는 원연의 삶을 정리하고, 임진전쟁 전개과정 및 원연의 의병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원연의 가문과 삶을 살펴보고, 임진전쟁의 전황을 정리하여 원연의 의병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원연 연구의 가장 큰 장애는 관련 자료의 제한이다. 원연의 문집이나 관련 기록이 전무한 실정에서 단편적인 원연관련 기록을 검토하여 원연의 의병활동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전투에서 승리와 패배를 떠나 의병을 창의하고, 정유재란시기 전사한 의병활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7]

2. 원연의 가문과 삶

원연의 가문과 그 거주형태에 대한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고는 원연의 관직생활과 의병활동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원연의 가문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필요하다. 임진전쟁기 의병을 창의한다

6) 김해규, 《의병장 원연》, 원주 원씨 충효 선양회, 2022.

7) 본 연구의 제목에서 조선중기를 제시한 것은 원연에 대한 삶을 조명하기 위해 원주 원씨 가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기에 임진전쟁기가 아닌 조선중기로 제시한다.

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명망과 재력을 겸비해야 한다. 또한, 조선시대에 명망은 개인의 수준에서 성취하기보다 가문 수준에서 달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진위현에 정착하게 되는 경위부터 간략히 살펴본다.[8]

원주 원씨 耘谷公系, 原城伯系, 侍中公系 가운데 원성백계의 후손 元宣은 三司佐尹公派의 派始祖가 된다. 원선은 고려말 양주에 정착하였으며, 원선의 후손으로 이주한 인물로 진주 蘇氏와 혼인한 元蒙이 있다. 원몽은 진위현의 소씨 가문에 장가들어 이곳에 정착했다. 즉, 원연의 선조가 진위현 지역에 정착한 시점은 조선초기이다. 여말선초 학문에 정통하였던 원주 원씨와 진주 소씨가 혼인으로 진위지역에서 정착하여 삶을 영위했다. 원몽의 아들이 元淑偵이며, 원숙정의 손자가 元俊良이다. 원숙정은 학문에 정진했지만 관직에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아들 元建이 안동 권씨 집안과 혼인을 맺었다.

원건의 아들이 元彭壽로 1549년(명종 4) 식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종4품 宗簿寺 僉正을 역임했다. 원숙정의 둘째 아들 元任은 별다른 관직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슬하에 元遂良, 원준량, 元國良을 두었다. 이 가운데 원준량은 訓鍊院 習讀官을 역임하였다가 1538년(중종 33) 謁聖試 무과에 급제하고, 1546년(명종 1) 무과중시에 급제했다.[9] 원준량은 무관으로 춘천부사를 거쳐 경상도병마절도사까지 역임했다. 원준량은 중종대 선전관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탄핵을 받기도 했고, 명종대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제주의 왜구침입을 구원하지 않은 죄로 波知島에 유배되기도 했다.[10] 원준량은 무관으로 관직생활을 하며 대체적으로 탐욕스럽고, 거칠고 사나운 성격을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으로 자질은 인정받아 경상좌

8) 이하 원주 원씨 적성공파 가문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각주가 없으면, 김해규, 《의병장 원연》, 원주 원씨 충효 선양회, 2022을 참조한다.

9) 《嘉靖二十五年丙午十月十一日文武科重試榜》(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청구기호 : C1241774).

10) 《중종실록》 권102, 중종 39년 3월 27일(을축);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8월 28일(무인).

도 수군절도사로 복귀했다.[11] 뒤이어 원준량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경상좌도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고[12] 1566년(명종 21)에 길주목사로 관직생활을 하던 도중 탐학과 官庫의 물건으로 은을 구입한 죄로 파직되었다.[13] 비록 원준량은 관직생활에서 현관으로 평가받지는 못했지만, 무관으로 최고위직까지 역임하였다. 즉, 원주 원씨 적성공파는 원준량, 원팽수 대에 이르러 무관, 문관으로 중앙정계에서 현달하였다.

원준량은 슬하에 元均, 元垽, 元塤, 元壎, 元墀 등 8명의 아들을 두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원균은 처음 무과에 지원했다가 원준량이 추고받으며 무효화되었다가 1567년(선조 즉위) 무과 식년시 을과 2위로 급제했다.[14] 이들 형제 가운데 원균은 무과에, 원연은 문과에 급제하고, 다른 아들들은 과거에 급제하지는 않았다. 넷째 元坱은 원균의 휘하에서 주부를 지내며 원균의 아들 元사웅과 함께 칠전량해전에서 전사했다는 주장과 함께 살펴봐야 하는 기록이 있다. 공신책봉과 함께 공신들을 불러 국왕이 주관하는 회맹에 대한 기록인 《공신회맹록》이다.[15]

11) 《명종실록》 권23, 명종 12년 8월 2일(임오). 원준량의 수사임명에 대한 사관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12)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6월 21일(신묘). 당시 원준량은 과거의 절목을 어겨 아들 원균이 무과 초시에 응시하도록 하여 추고받기도 했다. 이때 원준량은 척신이었던 尹元衡에게 뇌물을 주어 무관의 자제들이 舊例대로 응시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무마받았다.

13) 《명종실록》 권28, 명종 17년 6월 10일(임술); 권29, 18년 10월 20일(을축); 권33, 명종 21년 12월 9일(을미).

14) 《隆慶元年丁卯十一月初二日文武雜科覆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 古6024-217).

15) 현재 《회맹록》은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소장처에 소장되어 있다. 본 필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十七功臣會盟錄》(일산古2513-21)과 《二十功臣會盟錄》(일산古2513-23)을 비교 검토하였다. 《회맹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十九功臣會盟錄》(k2-62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二十功臣會盟錄》(古4252.4-12)과 《二十一功臣會盟錄》(古4252.4-1) 등이 소장되어 있다. 필자가 확인한 《17공신회맹록》에서 대상으로 하는 공신은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定難,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등이다.

공신회맹은 매우 정치적인 국가행사로 조선의 역대 공신과 그 후손들을 불러 공훈을 기리며, 천진산천과 종묘사직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이다. 이는 국가기구인 녹훈도감에서 담당하여 함께 녹훈된 공신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공신간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행사이다. 정치적으로 해당 공신으로 봉록된 정치, 군사사건의 정당성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의미가 있음과 동시에 국왕과 공신간의 단합을 도모하는 결사의 의미가 있다. 특히, 인조는 이괄의 난 이후 17공신이라 하여 개국공신이후 역대 공신과 그 후손을 불러 회맹제를 열었다. 인조반정이후 정치적 위기의식을 반영한 정치행위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때 광국공신, 임진전쟁의 호성, 진무, 평난공신은 전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생존한 시기였다. 그러나 원균의 경우, 칠전량해전에서 전사하여 그 아들 원사웅이 참석하였다. 참고로 회맹제에는 원종공신은 참석하지 못하고, 공신이 생존하면 직접 참석하고, 사망하였으면 적장자가 참석하고, 적장자마저 사망하였으면, 적장손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점으로 보면, 원균의 경우, 원균은 전쟁 중 전사하였기 때문에 적장자 원사웅이 참석해야 한다. 또한, 해당 인물이 회맹제에 참석하지 못하면 《공신회맹록》에 공신의 이름을 적고,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적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사웅은 1604년, 1613년, 1625년, 1628년 모두 4차례 《공신회맹록》 및 《승정원일기》 등에 참석하였음이 확인된다.

인조대 공신회맹제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1625년(인조 3) 이괄의 난을 진압한 뒤, 1628년(인조 6) 柳孝立이 인성군을 추대하려는 사건을 마무리한 뒤, 1646년(인조 24) 黃瀷과 李元老 등의 고변으로 沈器遠이 懷恩君을 추대하려는 사건을 마무리한 뒤 열렸다.[16] 이 가운데 원사웅은 선조대, 광해군대 회맹제와 인조대 2번의 회맹제에 참석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원사웅

16) 고민정, 〈인조대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의 시행과 참여자 논상(論賞) -공신 자손 우대책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92, 2021, 275~304쪽.

은 임진전쟁기 전사하지 않고 인조대까지 생존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록 공신회맹제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선무원종공신에 포함되어 책봉받은 것은 원연의 삶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원연은 의병창의와 전투 중 전사하였다는 스스로의 공훈으로 선무원종공신에 책봉받았다. 물론 임진전쟁과 관련하여 원주 원씨 집안에서 모두 13공신이 배출된 점은 매우 특이한 경우로 전쟁극복에 공훈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임진전쟁의 공신책봉은 다른 공신책봉과 달리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임은 이미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로 밝혀져 있다.[17]

13명의 공신 가운데 원균과 관련된 공훈은 사실 대부분이라 할 것이며, 실제 공훈보다 선조의 정국운영에 필요한 정치적 목적이 작용하였다는 판단이 보편적이다. 그렇지만, 원연의 경우, 다른 인물들과 달리 경기도 진위현에서 창의하여 의병활동을 펼치고, 이후 원균 휘하에서 연락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전쟁 중 목민관으로 민심을 달래고 담당지역을 안정화시켰으며, 정유재란시 참전하여 전사한 공훈이 절대적으로 평가되어 녹훈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원연의 공신녹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이는 원주 원씨 가문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진위현 출신으로 녹훈되었다는 점에서도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원연의 삶에서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원균휘하에서 군사활동을 펼친 점이다. 실제 원연의 의병활동은 그 목적과 기개는 높았지만,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원연은 용인지역과 진위현에서

17) 박상환, 〈壬辰倭亂과 鄭湛 將軍〉, 《군사》 32, 1996; 최근묵, 〈壬辰倭亂期 錦山戰鬪의 殉節과 梨峙大捷에 대한 崇揚〉, 《충남사학》 12, 2000; 노영구, 〈공신선정과 전쟁평가를 통한 임진왜란 기억의 형성〉, 《역사와현실》 51, 2004; 장학근, 〈壬辰倭亂期 軍指揮官에 대한 法 適用 實態 :李舜臣·元均의 錄勳을 中心으로〉, 《군사》 56, 2005; 정해은, 〈충무공 이순신과 선조 : 호성공신 선정 논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11-1, 2009; 정호훈, 〈임진왜란과 17세기 조선 사회의 기억 : 元豪의 戰功과 조선 사회의 褒奬을 중심으로〉, 《역사와실학》 39, 2009.

지속적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기에 많은 위험이 있었을 것이다. 용인의 군사지리적 중요성 때문이며, 일본군의 강력한 진압작전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연은 자신의 형인 경상수사 원균의 휘하로 옮겨가 전쟁에 지속적으로 참전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전시상황이 되면 수군절도사와 같은 고위직 군사지휘관은 휘하에 막료로써 일정한 무관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생 원전, 아들 원사웅이 원균 휘하에서 활동하였던 점은 이순신 휘하에 장남 이회와 조카 이분, 이완, 이봉 등이 종사한 것과 동일하다. 물론 이들에게 관직을 부여하는 것의 기준은 있다.

학문을 평생 수학하였던 원연이 전쟁이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병을 창의하여 일본군과 대적하고, 원균 휘하에서 활동하였으며,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거듭 참전하여 전사하였다는 점은 유학자로서 풍모와 성향에 비해 배운 바를 실천하는 지식인의 모습이라 평가할 만하다.

일례로 1628년(인조 6) 9월 26일에 인조가 정사를 보며, 회맹제와 관련하여 가자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申景禛에게 輔國崇祿大夫를, 柳廷亮, 成祿, 金繼韓, 具宏, 金重信, 李慶全에게 崇祿大夫를, 鄭忠信, 元裕男, 洪瑞鳳, 金自點에게 崇政大夫를, 朴瑮, 沈器遠, 李士恭, 李應順, 張維, 邊濬, 權盼, 李[18][19]에게 正憲大夫를, 金起宗, 申景裕, 具仁垕, 金慶徵, 沈命世, 成大勳, 柳舜翼, 姜絅, 安夢尹, 元斗杓에게 資憲大夫를, 李沆, 奇宗獻, 金濈, 崔鳴吉, 申景禛, 李澥, 張紳, 李時伯, 崔來吉, 洪振道, 柳頲, 沈器成, 李愼, 李澤,

18) 《京畿邑誌》 권6, 人物.

19) 《經世遺表》 제4권, 考績之法. 즉, 수령의 업무수행을 평가하는 考功法에 《대명률》의 27가지 항목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조선에 있어 수령이 조정을 떠나올 때는 반드시 7事를 講하도록 하는데, 7사란 農桑을 성하게 하고 호구를 증가하도록 한다는 등의 과목이다. 당시 농상은 백성들이 스스로 힘쓰는 것이므로 勸勉하지 않아도 부지런히 하고 있으니, 수령이 손쓸 조목이 아니었다. 호구란, 즉 백성이 살기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 같은 것이니, 수령이 억지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南以雄, 李時方, 文晦, 李佑, 洪澤, 申埈, 高弘健, 沈倫, 李德演, 朴耆賢, 沈東明, 沈廷和, 崔山立, 尹鞏, 柳坡, 元士雄, 金夢祥, 李應明에게 嘉義大夫를, 李義培, 李靖, 宋英望, 李元榮, 姜得, 盧守元, 崔應一, 朴惟明, 李起築, 李復匡, 崔應水, 尹東老, 尹晥, 金得元, 金泰屹, 朴炡, 兪伯曾, 沈詻에게 嘉善大夫를, 李莯에게 通政大夫를 가자하였다.

조선 중기 임진전쟁시기 용인전투에 참여한 의병으로 알려진 원연의 본관은 原州이며, 字는 廣甫이다.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지낸 元俊良의 차남으로 진위현에서 태어났다. 원연은 백부 원수량에게 양자로 갔다. 원연은 1567년(명종 22) 사마시에 합격하였지만 벼슬길에 나가지는 않았다. 임진전쟁이 일어나자 개인 재산을 털어 의병을 조직하여 振威縣에서 대비하고 있던 중에 용인 김량장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 연기현감에 임명하였다가 적성현감 겸 양주진관병마절제도위를 제수하였다. 원연의 관직생활은 순탄하지 않아 결국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즉, 원연은 생애에 자체적인 공과에 의해 평가되기보다 의정부좌찬성 겸 판의금부사에 추증된 元均의 동생으로 더욱 알려졌다.

원연의 상훈이 재조명된 것은 1679년(숙종 5) 하사된 旌門이 평택시 송탄동 안골에 세워지면서였다. 이에 원연은 이조참의에 추증되었고, 1829년(순조 29)에는 관찬으로 편찬된 《壬辰倡義勳》에 포함되었다. 《양세충효정문》은 원연과 원사립의 충절과 효성을 기리는 정문으로 비록 조정에서 하사되었지만, 순조대 조상찾기분위기에서 세워진 점에서 원주 원씨의 청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경기읍지》 인물조에 의거하면 원연은 원균의 아우이며, 임진전쟁에서 스스로 의병장으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공으로 현감에 제수되었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20]

20) 임성수,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제15차 평택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평택문화원, 2022, 10~26쪽. 자세한 토지, 인구, 세금 등의 수치는 본 발표자료집 참조.

원연의 삶을 조명할 때, 임진전쟁초기 의병을 창의한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진위현에서 의병을 창의한 점은 원연이 진위현에서 명망이 있는 사대부였음을 반영한다. 또한, 전쟁기 의병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다. 향병이라 하여 지역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창의하는 경우이다. 지역사회를 장악한 지방유지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소작농을 중심으로 창의한 향병은 특정 지역사회의 방어에 집중한다. 반면, 충의에 기반하여 창의한 의병은 지역사회를 벗어나 근왕을 목표로 이동하거나 주변 의병과 연합하여 의병활동 범위를 확대한다. 물론 향병이든 의병이든 명분은 일본군의 침입을 야만으로 인식하고 종묘사직을 수호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원주 원씨 평택 적성공(장사랑공)파 종중이 원주 원씨 충효 선양회를 조직하고 원릉군 원균과 함께 원연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원연의 일대기라 평가할 수 있는 《의병장 원연》을 출판하기도 했다. 역사기록으로 원주 원씨 가문은 임진전쟁에 종군한 13명의 공신을 배출했다. 문제는 임진전쟁의 공신책봉은 당시에도 매우 정치적인 결정으로 전쟁 자체에 대한 공훈을 명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씨 가문에서 많은 공신을 배출한 점은 이 가문의 위상을 재검토하여야 함을 제기하는 것이다.

분명, 원연은 1592년 임진전쟁 초기 학문정신을 벗어나 전쟁극복을 위해 사재를 털어 의병을 창의하고자 했다. 의병창의는 진위현이란 지역사회에서 원연의 위상을 기반으로 가능했다. 이는 원연이 진위현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명망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보여준다. 의병창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모집한 의병을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군량과 무기를 관군이 조달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의병장이 중심이 되어 조달해야 하는 문제였다. 또한, 당시 기록에 원연이 창의한 의병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관군에 무리한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이는 원연이 전적으로 창의한 의병의 운영에 필요한 물자와 재력을 스스로 감당하였다는 의미이다.

원연이 진위에서 의병을 창의하였다는 점은 비록 진위현이 경기도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었지만, 진위현의 가장 명망있는 인물이자 집안이었음을 보여준다. 뒤에서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겠지만, 도성방위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역할론에 입각하여 진위현에서 창의한 원연은 용인의 김량장동에서 일본군과 전투하였다. 진위에서 창의한 원연이 당시 가장 일본군이 군사축선의 방어거점으로 삼았던 용인의 김량장동을 공격하였다는 점은 원연의 창의가 향병의 성격보다 근왕을 위한 의병의 성격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럼, 원연이 의병을 창의한 진위현은 어떠한 곳인가?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의 진위현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군현 가운데 가장 인구와 농지가 적은 군현이었다. 조선시대 지방관의 임무를 적시한 "수령 7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목민활동은 인구를 늘이는 것이었다.[21] 해당 지방에서 인구는 농사를 지을 인력이었으며, 세금의 납부자였기 때문에 인구증가는 농사의 결실과 국가세금의 안전한 납부를 위해 필수적이었다. 조선시대 평택현과 진위현의 인구와 토지는 상대적으로 해당 도에서 최하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토지는 조선시대 전세, 대동세 부과기준으로 국가재정이 토지에서 산출되었다. 또한, 인구는 각종 身役과 군사활동에 필수적이었다.[22]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경기도에 속한 진위현과 충청도에 속한 평택현이 각 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토지, 인구를 보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노동력의 결핍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군역의 부족을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조선은 세금과 군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호구조사에서 가구와 인원만을 통계적으로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임진전쟁 직전 진위현의 토지와 인구를 파악할 수 없지만, 세종대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범위는 파악할 수 있다.

2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22) 김경록,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播遷논쟁〉, 《민족문화연구》 92, 2021.

세종대 진위현은 1,420.5결, 밭 1,420결 등 전체 농지 2,840결이 있었으며, 호구는 22호, 인구는 535명에 불과했다. 물론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평택현은 진위현보다 작아 충청도 군현 55개 가운데 44번째 규모였다. 즉, 실제 경기도의 진위현과 충청도의 평택현은 모두 작은 농지를 보유하였다는 점은 다른 큰 고을에 비하여 매우 작은 고을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임진전쟁과 같은 국제전쟁으로 황폐화현상이 일어나면 토지와 함께 인구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전쟁이전에 이미 작은 고을이었던 진위현은 전쟁으로 더욱 많은 인구감소가 진행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호구 22호에 인구 535명이면 세종대 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임진전쟁 당시 6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진위현과 평택현은 충청도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이는 경기좌도 관찰사 겸 순찰사 成泳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과천, 용인, 양지, 죽산 등 큰 고을은 모두 일본군의 주요 주둔지였으며, 진위, 수원, 남양, 안산, 금천, 인천 등지는 일본군의 군사축선에서 벗어나 일본군이 수시로 약탈을 자행한 지역이었다. 이때 성영이 선조에게 보고한 바에서 진위, 수원 등지가 왜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고 주둔지로 선정되지 않았는가? 이는 임진전쟁 당시 일본군의 전쟁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진전쟁 전반에 걸쳐 전개과정은 논외로 하고, 임진전쟁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임진전쟁은 무엇보다 조선이 경험하지 못한 최대 국제전쟁이었다. 임진전쟁은 조선이 경험한 최대의 국제전쟁으로 조선군, 명군, 일본군의 치열한 전투와 군사외교가 펼쳐진 전쟁이었다. 전근대 조선이 비록 명 중심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있더라도 외국군대인 명군을 조선의 영토에 불러들인다는 점은 매우 위험한 정치적 결정이다. 이는 청병외교를 펼치며 조선이 가장 우려했던 사항이기

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군의 연전연패로 국왕이 파천한 상황에서 조선의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둘째, 개국이래 처음으로 국왕이 도성을 버리고 파천한 전쟁이었다. 파천은 종묘사직을 버리고 국왕이 피신하는 정치행위로 국왕의 통치권에 치명적이었다. 파천에 대한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파천을 결정하고, 왕세자 지명이란 정치적 타협을 이루었다. 세째, 삼남지방은 물론이고 경기, 강원, 황해, 함경, 평안 등 전국이 전쟁터로 황폐화되고, 물적 인적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다. 이는 조선인 모두가 참혹한 전쟁경험을 가졌으며, 삶의 터전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넷째,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처음으로 도성을 점령한 전쟁이다.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조선군이 일반적으로 국방정책으로 설정한 군사축선이 아닌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남한산성이 전혀 군사요충지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한강선을 따라 진격한 일본군은 한양을 바로 점령했다. 도성방어를 위한 주요 거점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일본세력의 침입은 왜구수준의 경상도, 전라도 등지에 한정된 지구전투로 마무리되었음에도 조선의 전통적인 북방세력에 의한 북쪽으로부터 침입에 대비한 국방책을 무용지물로 만든 전쟁이었다. 다섯째, 전쟁발발이후 전쟁주도권이 명과 일본에 의해 진행된 강화협상으로 결정된 전쟁이었다. 명군의 철저한 통제하에 조선군은 지구전투에서 일본군과 격전하였으며, 구체적인 전쟁지도는 명군에 의해 결정, 시행되었다. 여섯째, 유래없는 화약무기의 전쟁이었다. 기존 냉병기를 위주로 한 전쟁에서 조총과 화포를 주력 무기체계로 하는 전쟁이 전개되면서 조선은 전쟁 중에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비롯한 새로운 군사전술 및 전투법을 학습해야 했다.

이러한 임진전쟁의 특징은 조경남의 《난중잡록》에 상세히 역사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진위현의 임진전쟁기 성격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군의 진격로를 정리해야 한다. 일본군은 바다를 건너 병력을 보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단기간에 도성을 점령하고 조선국왕을 생포하여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병력을 순차적으로 집중하여 투입했다.

〈표 1〉 일본군 구성과 현황(1592년 6월 3일)

구 분	지휘관(병력)	전체병력
1번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7,000명), 소 요시토시(宗義智: 5,000명), 마츠라 시게노부(松浦鎭信: 3,000명),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2,000명), 오오무라 요시아키(大村喜前: 1,000명), 고토 스미하루(五島純玄: 700명)	18,700명
2번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0,000명), 나베시마 나오시게(鍋島直茂: 12,000명), 사가라 요시후사(相良頼房: 800명)	22,800명
3번대	구로다 나가마사(黒田長政: 5,000명), 오오토모 요시무네(大友吉統: 6,000명), 시마즈 요시히로(島津義弘: 10,000명), 모리 가츠모토(毛利吉成: 2,000명), 시마즈 다다유타(島津忠豊)와 타카하시 모토타네(高橋元種: 2,000명)	25,000명
4번대	후쿠시마 마사노리(福島正則: 4,800명), 토다 카츠타카(戸田勝隆: 3,900명)	14,000명
5번대	하치스카 이에마사(蜂須賀家政: 7,200명)	7,200명
6번대	초소카베 모토치카(長曾我部元親: 3,000명), 이코마 치카마사(生駒親正: 5,500명), 쿠루시마 미치후사(来島通総: 700명)	9,200명
7번대	고바야카와 타카카게(小早川隆景: 15,700명)	15,700명
8번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 10,000명)	10,000명

* 출처 : 李炯錫, 《임진전란사》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표 2〉 1392년 8월 일본군의 부대배치 현황

지 역	지휘관	병 력
平壤지구	小西行長	약 20,000명
鳳山지구	大友吉統	약 6,000명
白川지구	黒田長政	약 5,000명
開城지구	戸田勝隆	약 4,000명
江原道 방면	毛利吉成, 島津義弘	약 20,000명
京畿道 방면	宇喜多秀家	약 30,000명
忠州지구	蜂須賀家政	약 7,000명
開寧지구	毛利輝元	약 30,000명
錦山지구	小早川隆景	약 10,000명
釜山지구	羽柴秀勝	약 10,000명
咸鏡道 방면	加藤清正, 鍋島直茂	약 20,000명

* 출처 : 이형석, 《임진왜란사》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이들 병력은 신속하게 도성을 점령하고 선조를 추격하여 진격하였다. 이외 일본군은 미야베 나가히로(宮部長熙) 2,000명, 기노시타 시게카타(木下重賢)

850명, 가키야 츠네후사(垣屋恒總) 400명, 가메이 코레노리(龜井眞矩) 1,000명, 난쵸 모토키요(南條元淸) 1,500명, 이무라 히로히데(齋村廣英) 800명, 아카시 노리자네(明石則實) 800명, 벳쇼 요시하루(別所吉治) 500명, 나카가와 히데마사(中川秀政) 3,000명, 이나바 사다미치(稻葉貞通) 1,400명 등 12,000여 명을 후방지역에 남겨 후방경비를 담당했다. 이러한 일본군의 구체적인 전투과정은 조선 전역을 점령하기 보다 특정 군사축선을 확보하고 주요 거점을 점령함으로써 병력과 군량의 안정적인 운용을 담보하고자 했다.[23]

일본군은 선봉이 부산, 동래, 대구, 상주, 충주, 여주, 이천, 용인, 한양으로 이어지는 축선으로 진격했으며, 후진이 김해, 성주, 청주, 진천, 용인, 한양으로 이어지는 축선으로 진격했다. 이에 출발점은 상호 다른 경로를 거쳤지만, 용인에서 합류하여 한양으로 진입했다. 이에 용인은 일본군의 군사축선에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다. 즉, 일본군은 신속하게 한양을 점령하기 위해 이천을 경유하여 용인을 거쳐 도성에 입성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에서 한양까지 군사축선은 일본군에 의해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다. 반면에 경기남부지역에 있었던 수원, 진위, 평택 등은 상대적으로 일본군의 전력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당시 경기감사 權徵은 전쟁이 발발하자 선조를 호위하여 임진강방어선을 담당하였지만, 실제 전투에서 산중으로 숨어 군사를 지휘하지 않았다.[24] 沈岱로 교체된 이후 여전히 병력을 지휘하여 황해도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쳤다.[25]

이와 같이 임진전쟁기 진위현은 군사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결론부터 제시하면 이천과 용인을 거쳐 한양으로 향하는 일본군의 입장에서 진위현은 충청도에 인접한 지역이었기에 군사축선에서 제외되었던 지역이다. 전

23) 김경록,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2020.
24)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9일(무인); 권28, 7월 25일(임오).
25) 《선조실록》 권30, 선조 25년 9월 1일(무오).

통적인 조선의 국방체제에서 진위현과 평택현은 충청도를 거쳐 북상하는 일본군을 방어하는 중요 군사지역이었지만, 상주, 문경, 충주, 이천, 용인을 거쳐 한양 도성으로 입성한 임진전쟁시기 주요 점령지는 아니었다. 이 점은 이후 비록 작은 진위현에서 의병이 창의하여 군사작전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조선군의 입장에서 한양과 용인을 위협하는 군사요충지로 주목받은 곳은 수원의 독산성이었다. 이는 권율이 이곳에 주둔하여 독산성전투를 승리로 이끈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기간 중 일본군에 의한 피해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빌미로 각지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예를 들면, 1596년(선조 29) 충청도 일대에서 반란이 일어나 많은 지역이 토벌과 소탕작전으로 번잡했으며, 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극심했다. 감찰임무를 띄고 파견된 승지 柳熙緖의 보고에 의하면, 어사 유희서가 지나가자 진위현의 백성들이 길을 막고 온 고을사람이 농사일을 폐하고, 관아에서 피해를 호소함에도 지방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26] 즉, 진위현은 비록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지 않았지만, 약탈의 피해를 입었고, 농경지가 황폐화되어 먹거리가 고갈되고, 반란으로 인해 진압병력과 선전관 등이 왕래하며 이로 인한 고충도 많았다.

1578년(선조 11) 2월 18일, 경기도의 수원과 진위는 군인들의 군기가 엄정하지 못하여 죄인의 압송에 군인을 보내지 않거나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흩어져 죄인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27] 진위에 소속된 군인의 군기는 해당 진위현의 관리들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선조는 의금부의 계목에 따라 治罪했다.[28]

26) 《선조실록》 권77, 선조 29년 7월 26일(신묘).
27)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2월 2일(계미). 무안현감 全應禎이 관아의 곡식을 함부로 처분한 죄로 한양으로 압송되는 과정이었다.
28) 《선조실록》 권12, 선조 11년 2월 18일(기해).

임진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이었던 1591년(선조 24) 4월에 진위, 수원 등지에 비와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피해가 많아 경기감사가 국왕에게 보고하여 구호하도록 건의할 정도였다.[29] 경기도의 가장 작은 현이었던 진위현은 이와같이 엄정하지 못한 군인에 의해 방어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전쟁직전 재해로 큰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었다.

이와같은 전쟁기간 중 지역여건에서 원연은 의병을 창의했다. 그렇다면 원연의 부대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의 병력이라고 할 수 없었다. 400여 명 미만의 인구 가운데 절반은 부녀자로 본다면, 200여 명 미만의 남자 가운데 아동과 노약자를 제외한다면 그 숫자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한, 원연의 창의에 공감하는 여부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집안을 내버려두고 의병으로 전투에 참여한다는 점은 쉬운 결심이 아니다. 결국 원연이 모집한 병력은 100명 이내의 소규모 부대였을 것이며, 이를 지휘하여 금령역전투를 실행하였던 것이다.

원연은 용인 금령역전투에서 일본군에 패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검토한다. 이후 원연은 경기도에서 의병활동을 하다 1593년 원균의 경상우수영에서 주부로 활동하고, 1595년 연기현감, 1596년에 적성현감에 제수되어 목민관으로 활동했다. 원균의 수군에 서 주로 이순신의 전라수군에 연락관으로 활약했다. 낙향하였던 원연은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다시 창의하여 일본군과 전투과정에 전사했다. 원연은 의병창의 및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공헌으로 순조대 이조참의에 증직되고, 적성공의 시호를 받았다.

'양세충효정문'에 의하면, 임진전쟁 초기 의병창의 및 정유재란시기 전사한 원연의 충절과 아버지 원연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전쟁기간 시묘살이 대신 참전하였던 원사립이 전후 진주목사와 김해부사를 거쳐 시묘살이를 한

29) 《선조실록》 권25, 선조 24년 4월 4일(기해).

점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효에 해당하여 충효정문이 하사된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원연의 묘갈에 의하면, 적성현감 원연과 의인 진주 소씨가 祔左되어 있다.

3. 임진전쟁의 발발과 전황

1592년 4월 17일(병오), 조정에 긴급한 장계가 올라왔다. 이른 아침과 晡時(오후 3~5시)에 일본군의 침입을 알리는 경상좌수사 朴泓와 경상우병사 金誠一의 장계가 도착하자 평화롭던 조선 조정은 요동치기 시작했다.[30] 장계를 통해 임진전쟁 발발을 인지한 조선은 즉시 당시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무장 李鎰을 巡邊使로 삼아 중앙군을 이끌고 尙州로 내려가 일본군을 물리치도록 했다. 이때 조정에서 파견한 순변사 이일은 中路로, 左防禦使 成應一은 東路로, 右防禦使 趙儆은 西路로 내려가도록 하였다. 이는 장계를 통해 통상적인 단순 侵寇가 아님을 인지하고 戰線을 경상도로 한정하려는 의도였다.

조선에서 중앙 지휘관을 삼면으로 남하시킨 것은 첫째, 당시 중앙군이 부족하여 경과하는 지역에서 병력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둘째는 일본군이 상륙하여 전선을 확대하던 경상도를 포위하여 삼면으로 진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조선은 순변사 이외에 助防將 劉克良으로 竹嶺을, 조방장 邊璣로 鳥嶺을 지키고, 강계부사 邊應星을 慶州府尹으로 삼아 경상도의 전

30)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선조실록》은 晡時에 박홍과 김성일의 장계가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연려실기술》 선조조 고사본말은 경상좌수사 박홍의 장계가 이른 아침에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황상 제일 먼저 일본군의 침입사실을 직접 확인한 박홍이 도망하며 긴급하게 자신의 행적에 대한 변명으로 작성한 장계가 경상우병사 김성일이 경상좌병영의 연락을 통해 확인하고 작성한 장계의 보고시간은 반나절 이상은 차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른 아침에 박홍의 장계가, 오후에 김성일의 장계가 도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을 지휘하도록 했다.[31] 유력 무장을 경상도에 추가 파견하여 초기에 전쟁을 진압하려는 의도였다.

이런 초기 조선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경상도의 여러 고을이 점령되었다는 보고가 이어지자 조선 조정은 2단계로 병력을 징집했다. 전국의 군사를 징집하고, 사대부로 죄를 입어 파직되고 散職된 이들을 모두 대기하도록 하고, 무신으로 喪 중에 있는 자들을 모두 기복시켰다.[32] 뿐만 아니라 좌의정 유성룡으로 도체찰사를 삼아 전투와 군수 등을 총괄하도록 하고 무능한 洪汝諄을 대신하여 병조판서에 제수된 金應南을 부체찰사로 삼고 전 의주목사 金汝物로 參謀官을 삼아 전선의 무장들을 통제하도록 했다.[33] 전통적으로 조선이 전쟁이란 국가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전선의 무장과 이를 총괄하는 유력 문관인 대신으로 하여금 체찰하도록 한 대응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국왕-체찰사(문관)-전선 지휘관(무관)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에 한 단계를 추가했다. 즉, 무장을 순변사로 임명하여 국왕-체찰사(문관)-순변사(무관)-전선 지휘관(무관)으로 강화된 전쟁지도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전선의 지휘관을 일원적으로 지원하고 지휘할 군사지휘관으로 북방에서 무공이 높았던 申砬을 三道巡邊使에 제수하였다. 국왕은 신립에게 친히 寶劍을 하사하며, 전군에 "李鎰 이하 그 누구든지 명을 듣지 않는 자는 경이 모두 처단하라. 中外의 정병을 모두 동원하고 紫門監의 軍器를 있는 대로 사용하라."[34]고 천명했다. 이는 당시 조선의 위기의식과 기대감을 함께 보여준다.

조선은 전쟁이전 일정 수준에서 전쟁을 대비하였다. 임진전쟁 발발 전년

31)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32)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33) 《再造藩邦志》 1. 만력 20년 4월 16일.

34)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上親臨遣之, 賜寶劍一口, 曰李鎰以下, 不用命者, 卿皆斷之. 悉發中外精兵, 盡出紫門軍器. 都人皆罷市聚觀."

에 대대적으로 경상도와 전라도의 성읍을 수축했다. 지방관으로 이를 가장 성실하게 수행한 이는 경상감사 金睟였다. 김수는 영천·청도·삼가·대구·성주·부산·동래·진주·안동·상주·좌우병영의 성곽을 증축하고 참호를 설치했다.[35] 김수가 중점적으로 성곽을 증축한 경로는 부산에서 동래, 대구, 상주로 이어지는 한양길의 축선이었다. 일본군의 침입시 반드시 주요 전투가 벌어질 축선중심으로 대비한 것이다.

조선은 성곽의 수축뿐만 아니라 각종 군수, 통신체계도 점검했다. 임진전쟁에서 일본군의 상륙지이자 조선의 전선에 대한 배후기지였던 부산지역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면, 중종대 이후 부산지역에는 黃嶺山, 吾海也項, 鷄鳴山, 干飛烏山, 鷹峯 등의 봉수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 특히, 가덕도에 설치된 봉수와 연대는 일본군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조선의 최전선이었다. 가덕도는 실제 부산지역으로 들어오는 항로상의 길목이었기 때문이다.[36] 1510년(중종 5) 왜구가 부산포, 제포 등지를 침입하여 함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1544년(중종 39) 가덕도의 築城使 方好義가 復命하여 가덕도 상황을 보고하면서 군사상황을 건의한 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7] 조선이 대마도에 대한 방비책으로 중시한 곳은 경상우도의 熊川 등 各鎭과 경상좌도의 다대포 등이었다. 대마도에서 경상좌도에 들어오는 경로는 陶沙只島, 木島, 娚妹嶼를 경유하여 가덕도에 도착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가덕도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이미 중종대에 성을 쌓고 봉수와 연대를 설치하여

35) 《선조수정실록》 권25, 선조 24년 7월 1일(갑자). 수정실록을 편찬하였던 사관은 사론에서 그러나 김수의 성곽 수축이 부실하여 부역의 원성이 높고 전쟁에서 실효성이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에 입각한 평가이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있는 사론이라 할 것이다. 조선의 전쟁 대비 방어체계의 지향점이 어디 있었는가를 알려주는 사료라 할 것이다.

36) 《중종실록》 권11, 중종 5년 4월 8일(계사). 부산포, 웅천, 제포에 거주하는 왜인에게 물품납부를 독촉하고, 부역관련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마도의 병력을 불러들여 제포를 점령하고, 웅천을 포위하였으며, 부산포를 압박하기 위해 가덕도를 점령한 사건이었다.

37) 《중종실록》 권104, 중종 39년 9월 26일(임술).

대마도를 측후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덕봉수, 응봉봉수에서 대마도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연대를 설치하여 보고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임진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전쟁소식이 한양 도성에 보고되는 것은 매우 지체되었다. 비록 조선에서 이러한 대비를 하였지만, 전쟁에 임박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지다보니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쟁대비 훈련이 미흡한 한계였다. 조선은 일본의 침입을 기존 역사적 경험으로 왜구수준이라 판단하고, 대비하였다. 즉, 국제전쟁으로서 대규모 정예군대의 침입을 예견하지 못하여 정작 전쟁이 발발하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전쟁초기 전투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진전쟁은 치밀하고 오랜 기간동안 준비한 일본군과 전쟁 1년 전에 왜구수준의 대비하였던 조선군이 군사충돌한 전쟁이었다. 그 결과 개전초기 전투는 일본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이어졌다. 물론 조선군의 병력동원 및 대응책이 규정된 바대로 실시되어 부분적인 전투에서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군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선은 이러한 전쟁준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군사정보체계는 매우 부실했다. 당시 경상도의 전장과 한양 간에는 전황이 보고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4월 13일에 전쟁이 발발하였음에도 한양에 보고된 것은 4일 뒤 17일 오후였다. 물론 부산, 동래, 경상도의 지휘관이 침입을 인지하고 聞見한 바와 보고받은 내용을 장계로 작성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특히 국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므로 그 장계의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지연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기존 보고체계가 와해된 것은 부산진첨사 정발, 동래부사 송상현 등 지휘관이 전사하고, 많은 지방관이 도망한 점, 소문과 전해진 내용으로 보고한 점, 의도적인 오보, 보고의 지연 등으로 선조와 조정이 정확하게 전황을 인지하고 전쟁지도를 펼치지 못했다.[38] 이는 상주까지 진출한 일본군이 通事 景應舜을 통해 화친을 제안하는 기만전술에 선조가 이덕형을 파견하여 침략사유를 탐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덕형이 용인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이 이미 조령을 넘어 되돌아왔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9]

신속하지 못한 군사정보의 소통과 함께 부실한 보고내용도 선조의 전쟁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40] 일례로 4월 17일, 선조에게 보고된 침략한 일본군의 규모도 부정확했다.[41] 일본군은 병력 도합 158,700명으로 침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보고되는 침략군의 규모에 대해 많다는 수준의 보고였다. 물론 일본군이 일시에 부산지역에 상륙한 것은 아니지만 고니시가 지휘하는 1번대 18,000여 명만 하더라도 조선이 임진전쟁 이전에 대비하고자 했던 침략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였다. 부정확한 침략군 규모 및 전황보고는 선조의 명확한 전쟁인식을 저해했다.

小西行長이 지휘한 1번대는 4월 14일에 병선 700여척에 분승하고 오전 8시에 大浦項을 떠나 오후 5시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하였으며 당일 부산포에 상륙하였다. 부산진전투, 동래성전투에 승리한 뒤 방어선이 붕괴된 조선군의 군사위협 없이 양산·밀양·대구·상주·조령방면으로 진격했다. 한편,

---

38) 최효식, 〈임진왜란중 경주전투〉, 《경주사학》 10, 1991; 박성식, 〈진주성 전투〉, 《경남문화연구》 14, 1992; 김석희, 〈壬辰倭亂과 釜山抗戰〉, 《항도부산》 9, 1992;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1994; 최효식,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신라문화》 26, 2005;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신윤호, 〈임진왜란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역사학연구》 53, 2014; 김경록,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2020. 부산진전투, 동래성전투, 경주전투, 영천성수복전투 등 전쟁초기 해당 군사지휘관과 지역민은 결사항전한 반면, 경상병마사, 경상좌수사 등은 도망하며 허위 내지 부실한 보고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39)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40) 김경록,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播遷논쟁〉, 《민족문화연구》 92, 2021.

41)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加藤淸正이 지휘한 2번대는 대마도에서 부산에 상륙한 뒤 동쪽방면이었던 경주·영천·신령으로 진출하였다. 黑田長政의 3번대는 김해 죽도에 상륙하여 김해성을 공략하였으며, 毛利吉成과 島津義弘의 4번대는 김해에서 3번대와 합류하여 창녕·성주·개녕·추풍령으로 진출했다. 福島正則의 5번대는 4번대의 뒤를 따랐으며, 小早川隆景의 6번대와 毛利輝元의 7번대는 경상도 지역을 점령하며 후방지원을 담당했다. 宇喜多秀家의 8번대는 5월 초에 부산에 상륙하여 전군을 지휘하였다. 한반도에 상륙하지 않은 9번대는 4월 24일에 壹岐島에 留陣했다.[42]

국왕 선조는 최초보고를 받은 이후 며칠 사이에 부산진, 동래부가 함락되고 경상좌도의 주요 군사거점이 점령된 상황을 보고받고 비로소 위협적이라 인식하고, 신립에게 군권과 각 군의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임진전쟁 이전까지 조선은 어떠한 전쟁에 직면해도 군사지휘관에게 모든 군권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선조는 전쟁이전에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두고 경계하여 1년 전부터 각지의 군비를 강화했음에도 조선군이 처참하게 패전한 점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그럼에도 국왕 선조는 친림 및 보검 하사의 행사를 통해 조선군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보여주었다. 비단 선조뿐만 아니라 당시 한양의 백성들은 평생 한번도 보지 못한 장수의 출전 및 그 의식을 염려스러움과 호기심으로 지켜봤다. 이때까지만 해도 선조와 조정은 신립과 이일의 조선군이 경상도에서 일본군을 섬멸할 것이라 기대했다.

한편, 조선의 초기 전쟁대응에서 가장 문제점은 전선의 군사지휘관 임면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조는 일본의 전쟁의도 및 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상우병사 김성일을 징계하여 추포하고 한양으로 압송시켰다. 당시 김성일은 창원 마산포에 주둔하며 경상우도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에 대비하였다. 정작 일본군이 경상우도로 진출하려는 시점에 김성일의 추포령이 내려졌다. 지휘관이 추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자 경사우병영은 전투도 하지 못하고 흩어졌다.[43] 전쟁초기 부산진, 동래, 김해 등지에서 조선군이 연전연패 상황에서 정작 높은 전투의지로 군대를 지휘하던 장수를 추포하여 조선군의 지휘체계를 와해시킨 것이다. 이는 선조의 임진전쟁 인식이 초기에 매우 부족하고, 감정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선조는 경상도 남부가 일본군에 의해 유린되자 지역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성일을 경상우도 초유사로 임명하였다. 선조는 김성일의 특별사면 및 임명뿐만 아니라 함안군수 柳崇仁을 좌병사로 특진시키고, 僉知 金玏을 경상좌도 安集使로 임명하여 부족한 병력을 징병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 일본군은 경주를 점령하고 조선군 경상좌병영이 와해되었다.[44]

한편, 조선은 한양도성 방어책을 논의했다. 도성방어는 다양한 논의 속에서 혼선을 초래했다. 도성방어는 병조참의 沈忠謙이 방어를 위해 각도에서 군사징발을 건의하며 시작되었다. 軍務를 담당한 병조참의로써 심충겸은 전쟁이 일어나면 국왕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왕도에서 전선의 군대에게 군사위세를 보여줌으로써 전쟁의지를 고취해야 한다는 목적에서 제안하였다. 즉, 조선과 같은 왕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국왕의 전쟁의지 및 전쟁지휘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한양사수주장은 주목받지 못했다. 전황상 병력동원으로 지방 군현의 방비가 허술해질 것이란 박충간의 반대로 심충겸의 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45]

당시 조선이 인식한 임진전쟁은 일본군의 병력규모와 진격목표를 잘못 파악했다. 분명하게 도성점령과 국왕생포가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에 한정된 전쟁수준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침입지가 부산이란

42) 李炯錫,《임진전란사》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199~204쪽.

43) 《龍蛇日記》.

44) 《연려실기술》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45)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商山君 朴忠侃은 조선의 군제에 있어 지방 군사력을 왕도 방위에 동원하면 지방 군현의 방비가 허술해져 지방을 방어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점은 주변 삼남지방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이 박충간의 주장과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황해, 평안, 함경의 병력은 신속하게 한양으로 집결시킬 필요가 있었다. 일본군의 침입이 경상도에 한정되면 소집 병력은 한양에서 국왕의 전쟁의지를 보여주면 되었다. 그럼에도 신속한 병력 징발이 없어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군사지휘를 하지 못했다.

한편, 조선은 전통적인 전쟁관념에서 대응하여 조정 중신을 전쟁지휘관으로 임명하여 국왕과 전선의 지휘관 중간에서 전쟁을 총괄하도록 했다. 좌의정 유성룡을 도체찰사에 임명한 것 이외에 우의정 李陽元을 京城都檢察使에, 박충간을 도성검찰사에, 李誠中을 守禦使에, 丁允福을 東西路號召使에 제수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전쟁초기 대응은 상주전투에서 이일의 군대가 패배하고, 뒤이어 조령을 확보하지 않고 충주의 탄금대에서 전투를 치룬 신립군대가 패배하면서 도성까지 효과적인 방어선이 구축되지 못했다.[46] 신립의 패전은 다음 날 28일에 선조에게 보고되었다. 신립의 승전보를 기대했던 선조는 당황하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선조는 뜻밖의 의견을 제시했다. 즉, 播遷이었다.

왕조국가 조선이 건국이후 국왕이 파천한 사례는 없었다. 파천은 국가를 상징하는 종묘사직을 방기하고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가 붕괴됨을 의미한다. 민심이 이반됨과 함께 왕실을 호위하던 지배집단의 이탈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조선에 있어 지배층 사대부들이 왕조가 무너질 것이라 판단하고 이탈하면 외부의 침입보다 더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관료층이 왕실을 호위하지 않으면 국가의 통치질서는 붕괴된다.[47] 이를 방지하고자 전쟁이

46)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17일(병오); 이상훈, 〈신립의 작전지역 선정과 탄금대 전투〉, 《군사》87, 2013.

47) 《선조실록》권27, 선조 25년 6월 21일(기유). "初上之出京都也, 不但士庶皆言國勢必不復振, 有識縉紳輩, 亦以爲終必滅亡, 朝臣扈從者, 百無一二. 人心已去, 不可盡責."

발발하자 병조에서 국왕 선조에게 지방 병력으로 한양사수의 의지를 천명하자고 건의했다.

〈표 3〉 임진전쟁시기 일본군의 점령현황

구분	군현	점령
평안도	平壤, 中和, 祥原	○
	寧邊, 肅川, 成川, 定川, 安州, 龜城, 朔州, 昌城, 義州, 江界, 德川, 順川, 熙川, 雲山, 嘉山, 郭山, 宣川, 鐵山, 龍川, 渭原, 碧潼, 博川, 理山, 寧遠, 慈山, 价川, 甑山, 咸從, 江西, 永柔, 龍崗, 三和, 順安, 江東, 三登, 陽德, 孟山, 泰川, 殷山	×
황해도	黃州, 海州, 瑞興, 平山, 豊川, 鳳山, 谷山, 遂安, 信川, 安岳, 載寧, 白川, 新溪, 牛峯, 文化, 松禾, 長淵, 甕津, 康翎, 殷栗, 江陰, 長連, 兎山	○
	延安	×
경기도	廣州, 驪州, 坡州, 楊州, 水原, 富平, 利川, 仁川, 長湍, 南陽, 楊根, 豊德, 加平, 安山, 朔寧, 安城, 麻田, 高陽, 龍仁, 振威, 永平, 陽川, 金浦, 砥平, 抱川, 積城, 果川, 衿川, 通津, 交河, 漣川, 陰竹, 陽城, 陽智, 竹山	○
	江華, 喬桐	×
강원도	原州, 淮陽, 襄陽, 春川, 三陟, 江陵, 鐵原, 通川, 平海, 旌善, 高城, 杆城, 寧越, 平昌, 金城, 蔚珍, 歙谷, 伊川, 平康, 金化, 狼川, 洪川, 楊口, 橫城, 麟蹄, 安峽	○
경상도	慶州, 星州, 安東, 昌原, 金海, 密陽, 善山, 大丘, 東萊, 草溪, 蔚山, 梁山, 淸道, 醴泉, 永川, 興海, 金山, 咸安, 陜川, 慶山, 固城, 巨濟, 義城, 泗川, 鎭海, 開寧, 三嘉, 高寧, 宜寧, 河陽, 龍宮, 彦陽, 漆原, 仁同, 聞慶, 咸昌, 知禮, 玄風, 軍威, 比安, 義興, 新寧, 靈山, 昌寧, 機張, 熊川	○
	靑松, 寧海, 榮川, 豊基, 咸陽, 南海, 盈德, 居昌, 奉化, 河東, 淸河, 安陰, 丹城, 禮安, 迎日, 長鬐, 眞寶	×
함경도	安邊, 德原, 鍾城, 慶興, 文川, 高原, 三水, 端川, 洪原, 利城, 明川	○
충청도	忠州, 淸州, 淸風, 丹陽, 槐山, 文義, 堤川, 懷德, 延豊, 陰城, 淸安, 鎭川, 永春, 報恩, 永同, 黃澗	○
	公州, 洪州, 林川, 泰安, 韓山, 舒川, 沔川, 天安, 瑞山, 沃川, 溫陽, 鴻山, 德山, 平澤, 稷山, 定山, 靑陽, 恩津, 懷仁, 鎭岑, 連山, 尼山, 大興, 扶餘, 石城, 庇仁, 藍浦, 結城, 保寧, 海美, 唐津, 新昌, 禮山, 木川, 全義, 燕岐, 靑山, 牙山	×
전라도	珍山, 錦山, 龍潭, 茂州	○
	羅州, 光州, 南原, 長興, 順天, 潭陽, 濟州, 寶城, 益山, 古阜, 靈岩, 珍島, 淳昌, 金堤, 礪山, 靈光, 樂安, 昌平, 臨陂, 萬頃, 金溝, 綾城, 光陽, 龍安, 咸悅, 扶安, 咸平, 康津, 玉果, 高山, 泰仁, 沃溝, 南平, 興德, 井邑, 高敞, 茂長, 務安, 同福, 和順, 興陽, 海南, 求禮, 谷城, 長城, 珍原, 雲峯, 任實, 長水, 鎭安, 大靜, 旌義, 全州	×

* 출처 : 《조선선조실록》권39, 선조 26년 6월 5일(무자).

조선 최강의 무장 신립이 지휘하는 조선군이 패배하자 조선은 충격에 휘말렸다. 첫째, 조선의 최고 무장이 최정예 부대로 패전하여 조선군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점이며, 둘째, 남한강의 상류였던 충주에서 한양으로 이어

지는 길은 별다른 방어선이 없었다는 점이다. 조선은 도성방어와 파천을 두고 정책적인 결정의 순간을 맞이했다. 충주에서 남한강 길을 따라 한양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면 충분하여 조선은 공포감으로 혼란스러웠다.

조선국왕 선조는 도성사수론을 폐기하고 치욕스러운 파천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반대에 직면했다. 모든 대신과 대간이 반대하는 수준은 《선조실록》 해당 기사에 "부당함을 극언하였다"라는 서술에서 파악할 수 있다. 영중추부사 金貴榮은 종묘와 園陵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이냐며 반발했으며, 왕명출납을 맡은 승정원의 우승지 申磼 마저 종묘의 대문에서 자결할지언정 파천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 했다. 수찬 朴東賢은 국왕이 도성을 나가면 분노한 민심을 보장할 수 없어 국왕의 輦을 메는 인부도 연을 버려둔 채 달아날 것이라 반발했다. 물론 이들의 반발은 국왕 앞에서 쏟아내었기 때문에 목놓아 통곡하는 모양새를 띄었다.[48]

선조의 파천결정에 모든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영의정 李山海가 동의하였다. 국왕의 파천 주장에 만조백관이 반대해야 함에도 백관을 주재하는 영의정의 이런 주장이 파란을 일으킨 것이다. 이후 신하들은 국왕의 파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산해의 파면을 요청했다.

즉, 13일 전쟁이 발발하고, 17일 이를 보고받은 선조와 조정은 28일 신립의 패전보고가 올라오기 전까지 조선군의 승리를 기대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 및 전쟁에 대응했다. 반면, 28일 이후 국왕의 파천을 둘러싸고 선조와 신하들 사이에 충돌했다. 그 여파는 한양의 백성들에게 알려졌다.

48)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28일(정사). "忠州敗報至, 上召大臣, 臺諫入對, 始發去邠之議. 大臣以下皆涕泣, 極言其不可. 領中樞府事金貴榮啓曰, 宗廟園陵, 皆在此, 去將何往. 當固守京城, 以竢外援. 右承旨申磼啓曰, 殿下若不聽臣, 終至播越, 則臣家有八十老母, 欲自刎於宗廟大門之外, 不敢從殿下去也. 修撰朴東賢啓曰, 殿下一出城, 則人心不可保. 荷輦之夫, 亦將委諸路隅而走矣. 仍失聲痛哭, 上色變, 遽還內."

국왕과 신하들이 갈등하는 동안 신립의 패전소식이 퍼지자 민심이 동요했다. 민심의 동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작 파천하고자 하였던 선조마저 민심안정을 위해 전교를 내릴 정도였다. 물론 선조의 자발적 전교 하달은 아니었다. 신하들의 건의에 따른 조치였다.

한편, 28일 파천갈등이 한참일 때 선조는 宣政殿에서 徵兵體察使 李元翼, 崔興源, 우부승지 신잡 등을 인견했다. 이원익은 1587년(선조 20) 안주목사로 牧民하며, 기근에서 백성들을 구휼하고, 기율을 엄히 하고, 사람들을 안집시켰던 인물이었다.[49] 최흥원은 개성유수, 평안감사를 역임하여 해서지방에 대한 인연이 깊었던 인물이었다. 이에 이원익은 평안도에, 최흥원은 황해도에 파견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군사를 소집하여 거가를 영접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50]

이 과정에 선조와 신하들은 세자책봉이란 정치적 타협을 이루었다. 전황이 불리하여 도성이 위협받자 신하들은 세자책봉을 건의했다. 평소 같으면 역모죄로 강력 처벌하였을 선조이지만, 세자책봉으로 민심을 진정시키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재위 25년을 경과함에도 세자책봉을 미루었던 선조의 성향과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다. 먼저 국왕의 최측근에서 종사하였던 注書와 史官들이 제안하고 승정원 승지들이 동의하는 등 선조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수순도 절묘했다. 선조로써 세자책봉은 동요하는 민심과 신하들의 이탈로 인한 통치질서를 다잡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정작 문제는 누구를 세자로 책봉할 것인가였다. 대신들은 자칫 건저를 먼저 언급하였다가 역적으로 몰려 가문이 몰살당하는 사태를 염려하여 선조가 결정하도록 미루었다. 드디어 4월 29일, 광해군을 세워 세자로 삼았다.[51] 광

49) 《梧里續集》 附錄 卷1, 年譜. "移糶賑饑, 設禁捕盜, 流逋還集, 姦宄屛息."

50) 《연려실기술》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이원익은 李好閔을, 최흥원은 柳永慶을 종사관으로 삼아 당일 출발했다.

51)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29일(무오).

해군은 임진전쟁의 와중에 방계로 세자로 책봉됨으로서 어찌보면, 선조 스스로 그렇게 헤어나고자 하였던 방계출신 국왕이란 굴레를 이어가게 되었다. 즉, 국왕으로써 수월하지 않을 통치여정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建儲는 왕조국가 조선에 가장 중요하고 오랜 시일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특히 패전으로 파천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임진전쟁 초기 세자책봉은 선조의 전쟁인식과 대응이란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위기의식에 빠진 선조가 파천이란 정치적 주장을 하자 대신과 대간을 포함한 모든 관원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신하들은 민심 동요와 이반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선조는 민심 위무 차원에서 광해군의 세자책봉을 허락했다. 어찌보면 국왕과 신하들이 일정하게 정치적 타협을 본 것이었다. 세자책봉을 허락한 선조는 파천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신하들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성, 평양, 의주까지 이어졌다. 또한 평양사수를 주장하는 신하들에 대해 세자의 분조라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한양에서 파천을 정한 선조의 향후 전쟁대응 및 정치적 수순의 일환으로 결정한 사항이었을지 모른다. 이러한 과정으로 결정된 파천은 후속조치가 필요했다. 이는 도성방어를 통해 국왕의 파천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에 金命元을 도원수로, 申恪을 부원수로 삼아 한강을 방어하도록 하고, 邊彦琇를 留都大將으로 삼았다.[52]

국왕의 파천이 결정된 상황에서 도성방어는 임시방편의 허울좋은 모양새였다. 실제 한양도성은 전투를 위한 성곽이 아니었다. 넓은 성곽은 방어에 치명적이었고, 무엇보다 전투를 지휘할 국왕이 파천하여 수비하는 조선군의 사기는 최악이었다. 그 결과는 일본군이 한강 이남에 나타나자 별다른 전투를 치루지 않고 조선군은 도성을 버리고 개성과 양주로 퇴각했다. 조선군의 패배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현상은 관원들의 이탈과 민심의 이반이었다. 국왕이 파천하면 백성들도 함께 도망하여 유리하고, 정작 일본군과 전투를 치룰 병력을 소집할 수 없었다. 또한, 각지에서 일어나야 할 의병은 국왕마저 파천하는 상황에서 창의하기 어려웠다.

임진전쟁 초기, 조선군이 연전연패하자 조정은 한양방비를 강화했다.[53] 이는 선조의 파천에 대비한 것이었다. 선조는 4월 30일 丑時(새벽 1~3시)에 비 오는 날씨에 불구하고 仁政殿 뜰에서 백관과 인마와 함께 敦化門, 敦義門을 거쳐 碧蹄館에 잠시 머물렀다가, 야밤에 겨우 東坡館에서 하루를 묵었다.[54] 선조의 피난길은 전쟁상황을 반영하듯 비바람 부는 날씨였으며, 파천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모두 호종행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55] 이는 한양에서 파천하는 어가의 호종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성의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고 혼란스럽게 전개되면 자연스럽게 도성의 둘러싼 경기도의 민심과 전열은 일시에 붕괴되었다. 정작 도성에서 파천하는 국왕을 호종해야 할 관원들이 먼저 이탈하여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의정부, 승정원, 이조, 병조를 제외하고 모든 아문의 관원이 완비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호종의 실무를 담당할 병력과 시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는 파천결정 과정에 관원의 반대와 도망이 많았으며, 일반 백성들의 혼란과 동요는 더 심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통해 한양을 출발한 어가행렬은 험난한 파천을 시작했다.

52)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29일(무오); 30일(기미). 臨海君은 金貴榮과 尹卓然이, 順和君 李보은 韓準과 李墅가 호종하였다. 왕자행렬의 출발 명분은 함경도에서 근왕병을 모집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 모집 능력과 의지도 없었다. 이는 순화군을 호종하고자 하였던 黃廷彧과 그의 아들 黃赫을 號召使로 삼고 한준은 어가행렬로 소환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53) 《壬辰記錄》, 〈圃翁家譜略敍 草稿1〉. "二十年壬辰夏 倭奴入寇 京師戒嚴."

54) 《선조실록》권26, 선조 25년 4월 30일(기미). 신속한 이동을 위해 선조와 광해군은 말을 타고, 중전 등은 교자를 탔는데, 홍제원부터 비가 심해지자 淑儀 이하도 말을 탔다. 이때 호종인원은 궁인, 종친, 문무관을 합쳐 100명 미만이었다. 호종을 책임졌던 병조판서 金應南, 경기관찰사 權徵 등이 호종의 대열과 제반 식사 등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역부족이었다.

55) 《壬辰記錄》, 〈圃翁家譜略敍 草稿1〉. 내의원 제조 정탁은 어가행렬을 개성에서 합류하였다.

파천행렬은 첫날 東坡館에 머물렀는데, 밤에 임진나루에서 거센 바람과 물결로 도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 선조는 도강한 뒤 배를 침몰시키고 나루를 끊고 인근 인가를 철거시켜 일본군의 추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는 어가행렬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뒤쳐진 호종인원의 발길을 지체시켰다.[56]

5월 1일, 동파역을 출발한 파천행렬은 개성에 도착했다. 일본군의 위협이란 군사상황뿐만 아니라 관원과 백성들의 이반, 행세마저 갖추지 못한 어가행렬, 행렬을 따라오지 못하는 왕실 인원, 지방관원의 도망과 이반, 식사와 잠자리의 궁색함, 경복궁을 비롯한 왕궁에 침범한 난민의 횡패 등 총체적인 통치권위의 붕괴를 몸으로 경험한 것이다.[57] 비록 파천이었지만, 어가행차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위와 안전이었다. 장엄한 권위는 처음부터 고려할 수 없더라도 최소한 안전은 확보되어야 했는데, 전시와 파천이란 위기상황에서 호위 군졸마저 도망하여 국왕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했다. 둘째 날 경기감영 소속 吏卒이 도망하자 경기감사 趙仁得이 수습하지 못했다. 瑞興府使 南嶷이 휘하 병력으로 겨우 어가행렬을 호위할 정도였다.[58] 이에 선조는 윤두수를 어영대장으로 삼아 호위를 지휘하도록 했다. 결국 개성에

56) 《약포집》권4, 雜著, 避難行錄上. 4월 30일(기미). 국왕의 건강을 점검하는 藥房 업무를 보던 67세의 정탁은 어가행렬과 떨어져 늦게 한양을 출발했다. 파천 첫날 임진강을 건너지 못한 정탁은 다음 날, 겨우 임진강을 건너 동파관에서 어가행렬에 합류하여 이후 영변까지 호종했다.

57) 《연려실기술》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기대했던 신립군이 패배하고 일본군이 남한강을 따라 진격하는 상황에서 왕명의 하달과 실행이 차단될 정도로 관원들의 離散이 심했다. 백성들은 모병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정에 적대적이었다. 결국 시종과 군사들의 도망으로 인해 어가행렬이 최소한의 행세도 갖추지 못하고 야밤에 출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왕비를 제외한 모든 비빈이 말을 타고 행렬에 참여하다보니 멀미로 뒤쳐지는 후궁이 속출했다. 개성에 접어들기 전까지 지방관이었던 장단부사 具孝淵은 어가행렬을 영접하지 않고 도망할 정도로 파천은 그 시작부터 혼란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58)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1일(경신).

도착한 어가행렬을 향해 투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59] 국왕으로써 최악의 이런 경험은 개성에서 선조의 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쟁의 발발에서 국왕의 파천에 이르는 과정은 20여 일간 조선은 전혀 전쟁지도 및 대응을 하지 못했다. 파천은 조선군 지휘체계를 붕괴시켰으며, 부산, 상주, 문경, 충주, 여주, 이천, 용인, 과천, 도성으로 이어지는 일본군의 거침없는 진격에 큰 위기감을 가진 결과였다. 이 시기 도성의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광주, 수원, 진위 등의 지역은 전혀 군사적 대응도 못하고 있었다. 주요 지방관원은 도망하여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국왕의 파천소식에 민심은 이반되었다. 파천은 호위병력을 필요로 했는데, 실제 안전을 확보할 병력마저 없었다. 이에 선조는 개성, 평양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파천행렬을 호위할 병력모집을 강요했다.[60] 이상과 같이 전쟁발발에서 파천과정까지 경기남부지역은 도성방어에 기여하지 못하고, 별다른 전쟁지도를 받지도 못하고 허둥대며 일본군의 거점확보 및 약탈에 직면했다.

4. 원연의 의병창의와 군사활동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연의 의병창의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조선군이 전쟁초기 연전연패하여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관원들은 전쟁에 대해 지역방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보다 백성들보다 먼저 도망하여 행정공백을 초래했다. 전쟁의 가장 앞장서서 지휘해

59) 《연려실기술》 권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60)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5월 2일(신유). 정치, 군사적 위기의식에서 선조는 몇 가지 정치, 군사적으로 주목되는 주장을 했다. 군사적으로 선조는 일본군의 추격과 함께 당장 이반된 민심에서 느끼는 위협이 심했다. 이에 선조는 함경남도 兵使 申砧 의 親兵을 개성에서 어가를 호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하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양방어에 투입되고, 개성유수 洪仁恕의 930명이 호위하도록 했다.

야 할 국왕은 상주전투, 충주전투의 패배소식에 파천이란 가장 옹색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막무가내로 진행시켰다.

원연의 의병 창의에 앞서 임진전쟁 발발에서 12월까지 주요 전투를 월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592년 4월에 부산진전투, 동래성전투, 밀양전투, 김해성전투, 제1차 경주성전투, 제1차 상주부근전투, 문경전투, 충주전투, 거창-신창전투, 추풍역전투가 벌어져 조선군이 연전연패했다. 5월에 접어들며, 한강전투, 해유령전투, 임진강전투, 조선 수군의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진포해전, 사천해전 등이 벌어졌다. 6월에 접어들어 당포해전, 제1차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회양성전투, 무계전투, 용인부근전투, 구미포전투, 마탄전투, 동대원전투, 철령전투,왕성탄전투, 예천전투, 금화전투, 운암전투, 초계현 마진전투 등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7월 에 웅치전투, 이치전투, 한산도해전, 안골포해전, 제1차 금산성 전투, 우척현전투, 제1차 평양성전투, 해정창전투, 영천성전투, 의녕전투, 현풍전투, 영산전투, 안성전투 등이 벌어졌다. 8월에는 제2차 평양성전투, 청주성전투, 경주전투, 거창전투, 제2차 금산성전투, 제2차 경주전투, 제1차 성주성전투, 소천전투, 합원산성전투 등이 벌어졌다. 9월에 접어들며, 연안성전투, 부산포해전, 제3차 경주전투, 제2차 성주전투, 경성전투, 인동전투 등이 각지에서 벌어졌다. 이후 12월까지 일본군은 전력을 집중하여 의주의 선조를 압박했으며, 명의 파병과 참전이 결정되고 분주하게 준비가 이루어졌다. 10월에 접어들며, 창원성전투, 진주성외전투, 제1차 진주성전투, 삭녕전투, 길주 장평전투 등이 벌어져 함경도까지 전쟁터가 되었다. 11월에 함흥전투, 이원전투, 상주전투 등이 벌어졌다. 실제 이 시점에 일본군은 명군의 참전에 대비하여 평양성을 둘러싸고 전투대비 태세를 강화했으며, 상대적으로 도성과 그 이남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였다. 12월에 중화전투, 길주 쌍포전투, 제3차 성주성전투, 독성산성전투, 함창전투 등이 전개되었다.

〈그림 1〉 일본군의 경기도지역 점령 현황(1593년 6월까지)



한편, 경기도 지역은 도성의 근기지역이란 특징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일본군의 점령 및 점령경험이 있었던 곳이 많았다. 이는 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군의 도성점령 및 이의 보호를 위한 주변지역에 대한 강력한 군사통제 경향으로 의병활동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위현에서 의병을 창의한 원연이다.

진위현에 거주하던 원연의 입장에서 전쟁을 체감하게 되는 시점은 도성과 주변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든 파천결정이었다. 실제 파천의 소식은 유학자로서 결코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시대상황에 대한 최소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일본군을 본 일도 없지만, 전쟁으로 국왕이 파천하는 것을 직접 듣게 된 원연은 그 이후 삼남의 조선군이 근왕을 위해 수원에 집결하고 용인에서 일본군과 조우하여 대패한 소

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비록 소문으로 전쟁의 발발과 전황을 듣게 되었지만, 진위현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 대규모 조선군이 나타난 것은 원연을 비롯한 백성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다. 국왕은 파천하였더라도 5만 명의 근왕병이 바로 지척에 집결하여 일본군과 조우한 것을 문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용인전투는 6월 말에 이루어졌다. 조선군은 전라감사 李洸이 지휘하는 2만 명, 전라병사 崔遠, 나주목사 李慶祿, 助防將 李之詩, 전라도방어사 郭嶸, 광주목사 權慄, 助防將 白光彦, 고부군수 李光仁, 함열현감 鄭淵, 전라도사 崔鐵堅, 전주부윤 權燧, 나주판관 李福男, 남원부사 尹安性, 남원판관 盧從岭, 장성현감 白守宗, 고산현감 申景禧, 동복현감 黃進, 구례현감 趙思謙, 충청감사 尹國馨, 충청도순찰사 尹先覺, 충청병사 申翌, 충청도방어사 李沃, 충청도조방장 李世灝, 충청수사 邊良俊 등 충청병력, 경상도관찰사 金睟, 경상도방어사 趙儆, 조방장 梁士俊, 종사관 李睟光 등 경상병력 등이 합류하여 총합 5만 명의 대군이었다. 脇坂安治이 지휘하는 약 16,000명이 충돌한 전투였다.

전쟁초기 8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여 공주까지 북상하였다가 파천소식을 듣고 물러갔던 이광이 선조가 파견한 선전관을 통해 근왕을 결정하였다. 급하게 전라병력 2만 명을 동원하여 5월 20일, 북상했다. 경상도, 충청도 병력과 함께 온양에 주둔한 뒤, 수원에 행진하기로 결정했다. 이광은 선조에게 보병과 기병 6만 여명을 모집하여 수원에 주둔하고 양천을 거쳐 한강을 도강할 계획을 보고했다. 근왕병이 온양에서 수원으로 진격하자 조선의 백성들은 전황을 바꿀 승전을 기대했다. 분명 이 시기 원연 역시 근왕병의 수원진출 및 용인전투를 직접 목격하거나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당시 근왕병은 모두 문관들이 지휘하는 병력으로 철저한 훈련이 부족하고, 지휘능력도 실전에 적합하지 않았다. 도성과 경기남부를 방어하였던 와키자카 야스하루(脇坂安治)는 휘하 병력 1,600명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 병력을 도성

방어에 1,000명, 용인에 600명의 병력을 주둔시켰다. 자호헤(脇坂左兵衛)와 와타나베 시치우에몬(渡邊七右衛門)이 지휘한 600명은 용인 北斗門山과 文小山 등지에 柵을 만들어 지키고 있었다.

근왕병의 주력이었던 전라병력은 2개 부대로 나눠 직산을 목표로 북진하며 진위현에 집결하여 작전을 논의했다. 전라병력이 진위현에 임시 주둔하였을 때, 분명 원연도 전라병력을 목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6월 4일에 전라병력은 용인현성 남쪽 10리에 주둔하여 북두문산에 일본군의 산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광은 곽영으로 하여금 이를 공격하도록 했다. 일본군은 초기 조우전에서 패퇴한 뒤 도성에 구원을 요구하고, 산채를 최대한 방어했다. 이광의 공격명령으로 지리적 불리함에도 전라병력은 일제히 공격했다. 권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광은 전체 병력을 동원하여 일본군을 공격했다. 6월 5일, 부장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광은 일본군을 집중 공격하도록 했다. 불리한 지형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력이 혼전하는 양상으로 전투가 진행되었다. 한양에서 출발한 일본군 구원본진이 도착하자 조선군은 크게 당황하여 퇴패했다. 이 날 전투에 조방장 이지시, 백광언, 고부군수 이광인, 함열현감 정연 등이 전사했다.

6일 아침에 경계없이 조식을 먹던 조선군은 일본 기병의 기습공격을 받아 전군이 혼란에 빠졌다. 근왕병의 주력이었던 전라병력이 일본군에 대패하여 전라도로 물러나자 일본군은 용인을 근거지로 주변지역의 순찰과 약탈을 강화했다. 한편, 조선군은 용인전투에서 대패한 뒤 권율의 병력을 제외하고 침체되었다. 무엇보다 조선은 용인전투 패배이후 권율을 전라감사 겸 순찰사로 임명하고, 충청감사 윤선각을 삭탈관직하고 공주목사 許頊으로 하여금 교체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월 초 용인전투의 패배는 조선군의 전투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조선군은 연안성전투를 비롯한 각지에서 일본

군과 치열한 전투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 조선수군이 연승을 거두며, 일본군의 서해안 진출이 좌절되었다. 또한, 경상, 충청 등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일본군의 주요 군사축선을 위협했다. 대의를 내세우고 창의한 의병은 금산, 牛脊峴, 海江倉, 永川, 淸州, 慶州, 順安, 星州, 小川, 仁同 등지에서 크고 작은 전투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의병은 독자적으로 전투하거나 관군과 합동작전으로 일본군을 각지에서 위협했다. 熊峙, 梨峙, 永川, 淸州, 延安전투는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승전이었다. 이외에 국지전으로 全州, 鳳山, 玄風, 昌寧, 靈山, 順安, 茂溪 등지에서 일본군의 군사거점을 위협했다. 의병활동은 많은 희생이 따랐는데, 적지 않은 의병들이 전사하는 결과가 있었다.

함경도로 진출하였던 가등청정은 일부 병력만 길주에 남기고 주력을 물리기도 했다. 7월에 명군 선발대를 지휘한 祖承訓이 평양성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만력제의 대군 참전이 결정되고 9월 3일에 明使 薛藩이 명군의 참전을 알리는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왔다. 각지에서 의병이 창의하고, 명군의 참전소식과 조선군의 전열이 정비되는 시점에 도성과 인접한 경기남부에서 의병이 창의했다. 진위현의 원연이 용인전투의 경험과 지역사회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병을 창의했다.

원연의 의병창의에 큰 영향을 주었던 점은 일본군이 도성방어에 치중하여 주력병력을 도성에 주둔한 상태에서 주요 군사축선의 거점을 확보할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진위현은 순간적인 일본군의 약탈이 있었지만, 일본군이 자체적으로 주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또한, 강화도에 주둔한 김천일의 의병부대가 펼치는 활약상과 권율의 병력이 독성산성에서 일본군을 격퇴하는 등 전황이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김천일부대, 고경명부대, 곽재우부대, 김면부대, 정인홍부대, 조헌부대 등이 각지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던 점도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선조가 교서를 내려 전쟁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종묘사직을 위해 창의할 것을 요구한 점도 유학자로써 시대문제를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경기도의 의병은 당시 군무를 총괄하였던 유성룡이 남긴 기록에 경기도 의병 가운데 季男이 가장 勇猛하였고 그 나머지는 각각 그 鄕里에서 혹은 백여 명 또는 수십 명씩 모아 의병이라 이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경기도 의병이 많이 창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의병으로써 의를 드높이고 충절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 폐단도 있었다. 경기도 의병장으로 前府使 禹性傳이 이름이 높았다. 전쟁초 90대 노모를 모신 뒤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고, 강화도에서 김천일과 합동작전을 펼쳤다. 1593년 일본군이 남하하자 의령까지 추격하였다고 병을 얻어 부평으로 이동 중 사망했다.

일반적으로 의병의 창의과정은 지역 명망가가 격문과 완문으로 주변 지역의 유자들에게 창의를 제안한다. 이에 호응하여 각지에서 인물과 병력이 모여들면 이를 편제하고 임시 훈련하여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일례로 초유사 김성일의 종사관으로 활약한 安集使 金玏은 김성일과 연락하며 각지에 격문을 보냈다. 이에 호응하여 영천과 풍기의 士子 金大賢, 郭守智 등이 병력을 이끌고 모였으며, 前 한림 金垓와 진사 任屹, 그리고 生員 琴應勳, 李廷栢, 裴龍吉 등이 禮安과 安東에서 擧兵하고, 前 현감 李愈와 진사 李光玉, 權旭 등이 호응하였다. 그런데 원연의 경우는 의병창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다.

원연이 의병을 창의한 시점은 1592년 10월 말로 판단된다. 처음 원연은 의병부대를 지휘하여 충청도에서 도성으로 이어지는 일본군의 군사축선을 위협하는 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의병부대는 일반적으로 창의를 도모하며 격문을 통해 의병을 모집한다. 모집한 의병은 군량과 무기를 마련하여 일정한 훈련을 통해 군사작전을 시행하게 된다. 처음 창의하여 별도의 지역으로 이동하여 군사작전을 구사하기에는 병력과 훈련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창의한 의병부대를 정비한 원연은 11월에 용인

금령역 주변에 주둔한 일본군이 출몰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출정했다.

진위현는 경기 38개 군현 가운데 31번째로 매우 작은 군현이었다. 비록 조선후기 자료이지만, 《부역실총》을 통해 살펴보면, 진위현의 군역은 수어청에 399명, 병조에 363명, 감영에 20명이었고, 균역청,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 등 중앙군영에 소속된 인원까지 모두 합산하면 1,307명이었다.[61] 이들 군역은 해당 관아에 정해진 비율의 세액을 납부해야 했다. 실제 인구보다 군역이 많은 것은 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아에서 필요한 세금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원연은 진위현에서 창의한 의병을 지휘하여 용인의 금령역으로 향했다. 용인은 일본군이 도성의 남부에서 가장 거점으로 인식하고 정예병력을 배치한 곳이다. 삼남에서 올라오는 조선군을 방어하고 경기도의 의병으로부터 도성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조선군의 근왕활동을 좌절시킨 용인전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연이 공격하고자 했던 금령역은 金嶺川가에 위치한 역으로 용인현의 동쪽 30리에 있었다.[62]

이상과 같은 원연의 의병활동은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열악한 인적 배경에서 이루어졌지만, 도성에서 인접한 지역에서 일본군의 압도적인 세력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원연의 의병활동을 의병의 관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임진전쟁의 전개과정에 전황을 전환시킨 가장 큰 역할은 명군의 참전과 수군의 승전, 의병의 창의와 활약 등이었다. 이 가운데 시간의 관점에서 의병의 창의와 활약이 가장 먼저 일어났다. 의병은 전국적인 규모로 각지에서 창의하여 일본군의 군사축선을 공격함으로써 도성점령 및 국왕 생포라는 일본의 전쟁지도를 좌절시켰다. 일본군은 주력을 의주공격으로 배정하면서도 적지 않은 병력을 의병으로부

61) 임성수,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제15차 평택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평택문화원, 2022, 23~25쪽.

62)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0, 경기, 龍仁縣, 驛院.(奎貴1932-v.1-25)

터 군사축선 방어로 전환시켜야 했다.

그렇다면 의병의 창의과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임진전쟁 초기 문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참찬 成渾의 〈便宜時務〉이다. 성혼의 〈편의시무〉는 1592년 12월에 의주에서 명군의 참전을 기다리는 선조에게 제출되었다.[63] 편의시무는 모두 9개 조목으로 구성되었다. 첫 조목은 한양, 개성, 평양을 점령한 일본군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한 내용으로 행재소의 안전을 위해 평양도를 확보하고, 평양과 개성의 일본군을 공격한다는 전략하에 장수선발, 군사훈련, 양식모집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수는 출신과 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재능을 우선시하여 선발하고, 사졸의 훈련은 용력을 우선시하고 숫자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군량은 常貢과 常稅를 전용하되 각지에 募粟官을 파견하여 모집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성혼의 〈편의시무〉는 가장 근본적인 전략 다음으로 의병에 대해 논했다.

일본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의 전력이었던 관군과 의병을 일률적으로 지휘하는 체계가 필요하였다. 성혼은 이점을 강조하며, 1592년 12월 시점에 의병과 관군이 비록 하나로 만들 수는 없지만, 통합 지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의 전쟁지도는 국왕 선조의 파천으로 붕괴되었다.[64] 즉, 선조가 한양을 떠나면서 왕명은 전국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일본군이 진출하는 지역의 수령은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방 수령의 도망은 조선의 효율적인 전쟁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에 5월, 선조의 파천과 승세를 타고 북진하던 일본군은 점령지역을

63) 《선조수정실록》 권26, 선조 25년 12월 1일(정해).

64) 김경록,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播遷논쟁〉, 《민족문화연구》 92, 2021, 267~268쪽. 선조는 한양을 떠나기 전에 도성방어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개성을 떠나기 전에도 임진강과 개성의 방어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지도의 주재자가 파천을 거듭하면서 효율적인 전쟁지도는 불가능했다.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고 북진하고자 하였다. 조선 수령의 도망과 일본군의 위무책은 의외의 상황을 초래했다. 무엇보다 수령의 도망으로 많은 지역이 행정공백이 벌어졌다. 이에 난민들이 일어나 관아의 창고를 약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일본군의 위무책과 조선 수령의 도망은 적지 않은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민심이반은 무엇보다 병력징발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 조선의 입장에서 큰 어려움이 되었다. 또한 일본군에 순응하는 부류에 의해 일본군에게 군량 등을 조달하기도 했다.

6월에 접어들며, 각지에서 의병이 창의하여 일본군에 대응하고, 관군이 조직을 정비하여 근왕하면서 전황이 변화되었다. 전체적으로 일본군의 공세가 지속된 점은 명확했지만, 무엇보다 일본군의 전열이 의주에 집중되지 못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산에서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로 이어지는 군사축선의 보호를 위해 많은 병력이 각 점령지에 주둔하면서 병력분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도성 이남의 병력분산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주둔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군과 의병은 勤王의 소식을 전달하고, 의병 창의에 관련된 소집을 각지에 전달할 수 있었다.

성혼은 삼남의 의병이 창의하여 일정하게 전황을 변화시킨 공로로 의병을 모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 의병부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6월 이후 지방 수령의 호령을 받지 않았음에도 창의한 부대를 의병이라 하고, 수령이 軍民을 조발하여 元帥의 節制를 받는 경우를 관군이라 구분했다. 이때 의병은 대부분 鄕里의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어 일본군과 접전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은 반면, 관군은 과중한 세금과 폭정으로 이반된 민심 때문에 일본군과 교전다운 교전을 하지 못한다고 성혼은 분석했다.

한편, 성혼은 의병 가운데 전쟁중의 행정공백을 이용하여 횡포를 부리고 노략질하여 일본군과 교전도 하지 않고, 수령의 통제도 받지 않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특히 병력충원의 부담이 많았던 수령과 의병장 간에 대립과 갈등으로 의병과 관군의 융합은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의병장 대부분이 유학자였는데, 지방 수령이 전쟁 초기 근왕하지 않고 도망하는 것을 목격하고 지방 수령을 믿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고 봤다.

당시 조선은 전라감사 권율로 하여금 의병과 관군을 통합하여 통제하도록 했다. 성혼은 권율의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예상하고, 오히려 명망있는 이를 의병대장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병장 가운데 훌륭한 이를 가려뽑아 한 도를 담당하게 하거나 몇 명의 의병장을 임명하여 관군과 좌우에서 형세를 합쳐 일본군을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성혼이 판단한 당시 의병은 그 규모가 일정하지 않고, 상호 통제와 지휘체계가 일정하지 않아 일본군을 제어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비록 작은 전투에서 일본군의 일부를 격퇴할 수 있지만, 전쟁의 큰 전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혼은 의병은 연합하여 지휘체계를 갖추고 大陣으로 일본군과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 우참찬 성혼의 이러한 〈편의시무〉는 성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황에 따른 각종 보고를 접한 최고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성혼이 전황을 바탕으로 제시한 의견이었다. 즉, 1592년 12월까지 의주에 주재한 행재소에서 판단하기에 전황을 바꿀 정도의 의병의 대규모 전투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일부 전투에서 의병이 큰 활약을 하였지만, 대부분이 관군과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는 전투라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온 것이었다.[65] 청주성수복전투, 영천성수복전투 등 혁혁한 전투가 있지만, 모두 관군과 의병의 연합전투라는 점에서 성혼의 판단은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기타 의병이

65) 김경록,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2020, 175~177쪽. 연합의병부대를 결성하고 공성전을 성공시켜 경상좌도의 핵심지역이었던 영천을 수복하였던 영천성수복전투의 경우, 7월 24일까지 합류한 의병 병력은 3,560여 명이었고, 이후 權士諤 등이 100여 명을 지휘하여 참전하여 3,660여 명이었다. 이에 관군 4,000여 명이 참전하고, 경상좌병사 박진은 영천성수복전투를 듣고 권응수를 치하하며 군기·화약류를 지원하기도 했다.

독자적으로 치룬 전투는 일본군이 군사축선을 방어하기 위해 주요 거점에 주둔된 병력 가운데 일부 순찰 내지 노략질하는 소수 병력을 기습하여 목베는 수준이었다.

또한 당시 일본군의 부대 편제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당시 일본군의 강력한 무기였던 조총이 대규모 부대에 주로 편제되었다. 주로 의주를 공략하기 위한 평양 이북에 집중 편제되었다. 반면, 한양 이남의 군사축선 방어를 위한 거점에 주둔하던 병력은 그나마 수 천명 수준으로 주요 성곽을 방어했다. 일본군의 주요 번대 지휘관은 평양, 한양 등지에 주둔한 반면, 그 휘하에 부장들이 각지의 군사축선을 방어했으며, 부장 휘하의 일부 병력이 거점 주변의 각지를 노략질하며 군량을 약탈했다. 이들 일부 부장 휘하의 일부 병력을 대상으로 각지의 의병들이 군사활동을 전개하여 승리하거나 패배하였다.

전쟁은 전국에 걸쳐 큰 피해를 주어 농사를 망쳤다. 그나마 전라도는 일본군의 침입이 격퇴되어 식량추수가 가능했지만 나머지 지역은 농사가 불가능했다. 농사의 망침은 군량부족으로 이어졌다. 특히 행재소가 의주에 있는 상황에서 募粟官을 파견하고자 하여도 적임자가 부족하고, 모속관의 행로 역시 위험했다. 이에 성혼은 空名帖, 告身帖, 免役帖, 免賤帖을 지급하여 군량을 모으고자 했다. 특히, 군량의 수집은 다음 해 2월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는 새로운 농경으로 내실있는 군량모집이 불가능했다. 물론 성혼이 군량을 강조한 점은 곧 파병되어 참전할 명군의 군량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당시 성혼을 비롯한 조정은 전투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전투에서 전사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褒奬을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성혼이 언급한 전사자로 포장해야 할 인물로 劉克良, 高敬命, 趙憲, 邊應井 등과 宋象賢, 金鍊光 등이 제시된 점이다. 의병과 관군을 구분하지 않고 추증할 것을 건의한 것이다. 즉, 의병장으로 전사하면, 관군의 지휘관과 동일하게 공훈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관군의 기세를 높이고, 의병의 적극적인 전투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했다. 성혼의 이상과 같은 〈편의시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병의 역할은 이반된 민심을 안정시키고, 지방 수령의 통제력을 회복시켜 관군을 재정할 수 있게 한 점이었다. 물론 당시 의병의 이러한 역할론을 높이 평가한 인물로 李睟光도 있다. 영남의 곽재우, 호남의 김천일, 고경명, 호서의 조헌 등이 의병을 창의하여 주변지역에 격문을 돌려 소식을 전하자 많은 선비들이 이에 호응하여 의병을 창의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하였던 의병장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평가했다.[66]

이런 성혼을 비롯한 조정의 시각에서 주목하는 것은 의병의 역할론이다. 이를 원연의 관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원연이 창의한 진위현은 도성과 인접한 경기도라는 공간이다. 도성은 비록 전쟁기간이라 하더라도 국왕의 권위와 정치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이에 인접하였다는 점에서 조선과 일본의 가장 큰 관심공간이다. 관심이 높은 공간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주둔시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 조선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지만, 일본군은 다르다. 비록 전선은 평양이북으로 설정되어 병력이 이동했지만, 도성과 그 인접지역은 별도의 전쟁지휘부를 설치하고 이를 보장받기 위한 병력이 주둔한 공간이었다. 이런 이유로 임진전쟁기 일부 잔존병력이 주둔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지에서 많은 의병이 창의하여 활발하게 활동한 반면, 경기도는 도성을 중심으로 개성, 용인 등지에 강력한 일본군이 주둔하여 의병활동이 제약되었다. 무엇보다 도성에는 평양의 병력 못지않은 많은 병력이 주둔하였으며, 용인을 비롯한 지역에도 강력한 일본군이 주둔했다. 초기 5만 명의 근왕병이 패배했던 용인전투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공

66) 《지봉유설》 권3, 君道部賞功.

간적 위험 속에서도 의병을 창의하여 용인에 위치한 일본군과 전투하였던 점에서 원연의 의병활동은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

둘째, 의병의 개념 측면에서 제약이 있었음에도 의병활동을 전개한 점이다. 의병은 공식적인 군대가 아니다. 전통시대 왕국에서 국왕이 설립한 군대가 아닌 개인이 무장세력으로 의병을 조직한다는 점은 매우 위험스러운 일이다. 물론 전쟁기간이란 비상한 시기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은 기본적으로 사병의 성격이 있었기에 의병 자체에 대해서 국왕을 비롯한 지배층은 의구의 눈길로 바라보게 된다. 국가의 군대가 아니다보니 자연 의병의 모집에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인적, 물적 기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의병을 창의한 뒤 운영에 관련된 물품과 식량 조달을 위한 일탈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원연의 경우, 의병을 창의하여 용인 금령역전투 이후 경상도로 이동하여 원균 휘하에서 지속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한 점도 이런 어려움에 대한 대응이라 판단된다.

셋째, 의병의 창의는 절대적으로 혈연적, 지연적, 학연적 기반이 없이 불가능하다. 원연이 진위현에서 의병을 창의하였다는 점은 이곳이 혈연적으로 학연적으로 명망과 위상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원연은 유학자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었다. 조헌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 교유하여 학문적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 전쟁을 맞이하고 분연히 창의하였다. 또한, 조선초기 이후 진위현에서 혈연적으로 혼인관계 등을 통해 일정한 영향력을 가졌다. 이런 점이 원연의 의병창의에 기반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일반적 경향과 다른 의병창의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집안에 무관이 있어 고위직으로 근무하면 휘하에서 군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원연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원균의 휘하로 바로 가지않고, 지역사회에서 의병을 창의했다. 이는 매우 위험스러운 선택이었음에도 유학자로써 의와 충을 위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이 원연의 의병창의가 가지는 의미라 할 것이다.

넷째, 의병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인들을 연결하여 의병집단을 구성하는데, 원연은 독자적인 의병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남겨진 자료의 한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지만, 원연이 의병을 창의했을 때, 선봉장, 군량담당, 군무담당 등을 구체적으로 분장하지 않았다. 이는 원연의 의병부대가 규모측면에서 작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작은 의병부대는 안전과 활동의 범위 확대를 위해 연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연은 독자적으로 용인의 일본군을 공격했다. 이는 도성과 인접한 지역이라는 특징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주변에 연합할 의병부대가 부재하였을 개연성도 많다. 실제 경기지역 의병은 경기도에서 활동하기 보다 경상도로 이동하여 활동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원연의 의병창의 및 활동은 열악한 공간, 인적 상황에서도 의를 위한 활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맺음말

원연은 임진전쟁기 수군지휘관으로 유명한 원균의 동생으로 알려진 바는 있지만, 구체적인 삶과 활동은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성과 인접한 경기남부에서 의병을 창의하여 강력한 일본군이 주둔한 용인지역을 공격하는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원연은 조선초기 진위현에 정착한 원주 원씨집안 출신으로 무관을 배출하는 경향과 달리 문관으로 유학자의 삶을 살았다. 다양한 학자와 교유하여 학문을 넓히는 과정에 전대미문의 국제전쟁이었던 임진전쟁을 맞이했다.

임진전쟁은 일본군의 철저한 준비와 조선의 안일한 대응으로 전쟁초기 조선군의 연전연패로 전개되었다. 임진전쟁에 임하는 일본군은 신속하게 도성을 점령하고, 국왕을 생포하여 조기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전쟁지도에

따라 침략했다. 조선은 전쟁초기 경상도에 한정된 왜구수준의 도발로 인식하고 대응하였다가 경상도 조선군이 붕괴되자 신립을 비롯한 중앙군을 투입하여 총력적으로 대응했다. 일본군은 조선이 준비한 방어책과 달리 상주, 충주, 이천, 용인, 도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로 침입하여 도성을 점령했다. 국왕의 파천이란 비상한 방법으로 도성, 개성, 평양, 의주로 이어지는 동안 조선군은 근왕병을 모아 용인에서 일본군과 전투했다. 용인전투의 패배는 조선에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도성과 용인을 중심으로 지역은 일본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원연은 도성과 인접한 지역에 많은 병력을 주둔시켜 군사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병을 창의하여 용인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원연의 의병창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원연이 진위현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명망과 학식이 높은 인물로 인식되었기에 가능했던 의병창의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가진 진위현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이를 지휘하여 일본군과 전투하였다는 점에서 원연의 의병장으로써 역할과 활동을 분석할 수 있다. 원연의 의병활동은 그 집안이 대체적으로 무관으로 진출하는 경향과 달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학문과 혈연을 통한 영향력이 높았음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의병활동이후 원균의 휘하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활동을 펼친 점, 지방수령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 보여준 행정능력과 목민활동,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일본군과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점은 원연의 인물상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원연의 삶과 활동에 대한 연구가 향후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두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무엇보다 인물사 연구는 학문적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물론 해당 인물과 관련된 가문이나 입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학에서 인물사 연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단편적으로 남겨진 자료에 대한 해석에서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시대상황과 공간을 분석하여 해당 인물의 사상과 활동을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수집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학에서 인물사연구는 후대에 작성된 자료를 해당 인물의 시대에 대한 기록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연관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원연과 그 주변 인물의 삶과 활동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구체화될 것이라 기대한다.

■ 참고문헌

《중종실록》, 《명종실록》, 《선조수정실록》, 《선조실록》, 《재조번방지》, 《연려실기술》
《지봉유설》, 《신증동국여지승람》, 《약포집》, 《임진기록》, 《오리속집》, 《용사일기》, 《경세유표》, 《경기읍지》
《십칠공신회맹록》(일산古2513-21)
《이십공신회맹록》(일산古2513-23)
《嘉靖二十五年丙午十月十一日文武科重試榜》(중앙대학교 학술정보원 청구기호 : C1241774)
《隆慶元年丁卯十一月初二日文武雜科覆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청구기호 : 古6024-217)

김경록, 《조선중기 한중군사관계사》, 군사편찬연구소, 2022
김해규, 《의병장 원연》, 원주 원씨 충효 선양회, 2022
李炯錫, 《임진전란사》 상권, 임진전란사간행위원회, 1967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김경록, 〈임진전쟁 초기 선조의 전쟁인식과 播遷논쟁〉, 《민족문화연구》 92, 2021
김경록, 〈임진전쟁시기 영천성수복전투의 전개과정과 군사사적 특징〉, 《군사》 114, 2020
김석희, 〈壬辰倭亂과 釜山抗戰〉, 《항도부산》 9, 1992
박성식, 〈진주성 전투〉, 《경남문화연구》 14, 1992
신윤호, 〈임진왜란기 성주전투와 일본군의 동향〉, 《역사학연구》 53, 2014
이호준, 〈임진왜란 초기 경상도 지역 전투와 군사체제〉, 《군사》 77, 2010
임성수,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조선시대 평택의 사회와 경제》(제15차 평택학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평택문화원, 2022
최효식, 〈임란 초기 동래성의 항전에 대하여〉, 《신라문화》 26, 2005
최효식, 〈임진왜란 중 영천성 탈환전투의 고찰〉, 《대구사학》 47, 1994
최효식, 〈임진왜란중 경주전투〉, 《경주사학》 10, 1991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 원병의 실체

-임진왜란에 참전한 명(明) 원군(援軍)의 특수부대

안대회/성균관대학교 교수

차 례

1. 머리말

2. 《택리지》와 《연암집》의 원숭이 기병대

3.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난중잡록》 등의 원숭이 기병대

4. 《세전서화첩》의 원병(猿兵) 그림과 문헌

5. 편갈송의 원병(猿兵) 인솔

6. 명나라 문헌의 원병(猿兵)

7. 맺음말

1. 머리말

필자는 이중환(李重煥, 1690~1756)의 명저 《택리지(擇里志)》를 연구하여 충실한 정본과 역주본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1] 수십 종의 이본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참으로 대단한 명저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연구한 결과를 몇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였는데 그중에는 지역전설에 주목한 논문이 들어있다. 그 글에서는 수십 가지의 지역전설을 채록한 《택리지》를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수준 높은 구비문학 채록집이며, 한국 구비문학의 보고라고 자리매김하였다.[2]

지역전설 중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소사전투의 대승, 홍순언 사연과 명나라 장수의 추숭(追崇), 진도 벽파정과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다. 《택리지》에 수록한 지역전설은 다수가 다른 문헌에 잘 나오지 않고, 처음으로 문헌에 정착된 전설이 많으며, 채록한 시기가 1750년 전후로 매우 빠르고 명확하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세 가지 전설 가운데 홍순언 전설은 여러 문헌에 실려있어 널리 알려진 것이나 나머지 두 가지 전설은 오로지 《택리지》에만 실려있거나 다른 문헌에 실려있다 해도 《택리지》를 전재한 수준이다. 위 논문에서 두 가지 전설의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그것만으로도 《택리지》에 수록된 지역전설이 지닌 중요한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철쇄를 사용했다는 전설과 소사전투에서 원숭이 기병대, 곧 원병(猿兵)이란 특수부대가 전투를 대승으로 이끌었다는 전설은 가벼운 흥미거리 옛날 이야기 수준에 머물 주제가 아니다. 과연 역사적 실체가 있는 것인지를 추적하여 임진년 국제전쟁의 잊혀진 사실 한 가지를 복원해보고자 한다.

1) 안대회·이승용 외, 《完譯定本 擇里志》, 휴머니스트, 2018.

2) 안대회, 〈《택리지》의 口傳 지식 반영과 지역전설 서술의 시각〉, 《대동문화연구》 93호, 2016, 41~74면.

2. 《택리지》와 《연암집》의 원숭이 기병대

이중환은 《택리지》 〈팔도론·충청도〉에서 당시에는 충청도에 소속된 소사(素沙) 지역을 서술하면서 임진왜란 중에 벌어진 주요 전투의 하나였던 소사전투 또는 직산(稷山) 전투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소사 지역은 현재는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이다. 지금은 안성천(安城川)으로 불리는 소사하(素沙河)가 평택시를 지나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평야지대이고, 홍경원(弘慶院)이란 고려 초기의 고적이 유명한 교통요지이다.

먼저 소사전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여 남원에서 대승을 거두고 전라도를 공략한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주력부대는 공주를 거쳐 전의·진천에 이르러 한양을 향해 북진하였다. 그 일부인 구로다 나가마사[黑田長政] 부대는 직산까지 북상하였다. 9월 5일에 명나라 경리(經理) 양호(楊鎬)가 부총병(副總兵) 해생(解生), 우백영(牛伯英), 양등산(楊登山) 등을 남진하게 하여 직산 북쪽 소사평(素沙坪)에서 구로다가 인솔한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다. 일본군은 하루에 여섯 번 벌어진 전투에서 번번이 패하고 6일 새벽 전세의 만회를 꾀하였으나 다시 패하여 목천·청주를 거쳐 도주하였다. 다른 전투가 공성전(攻城전)이나 수비전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 전투는 평야에서 벌인 일대 회전(會戰)이었다. 전투에서 패한 일본군은 북진을 포기하고 호남과 영남으로 물러났다. 소사전투에서 거둔 대승의 결과 일본군은 한양으로 진격을 포기하였고,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은 승기를 잡게 되었다. 소사 전투는 평양 전투, 행주산성 전투와 함께 육상에서

거둔 삼대첩(三大捷)의 하나로 꼽힌다.[3)]

〈도판 1〉 조선시대 직산현(稷山縣)에 속해 있던 소사평(素沙坪)으로 국보8호로 지정된 홍경사비(弘慶寺碑)도 함께 표시하였다. 《대동방여전도(大東方輿全圖)》, 규장각 소장 사본.



《택리지》는 천안 인근 지역을 서술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와 지역전설의 하나로 소사전투를 묘사하였고, 그 글에는 다른 문헌에서 보기 힘든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대목을 아래에 인용한다.

3) 임진왜란을 포괄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저술 조경남(趙慶男)의 《난중잡록(亂中雜錄)》, 신경(申炅)의 《재조번방지(再造藩邦志)》, 저자 미상의 《선묘중흥지(宣廟中興誌)》에서 소사전투의 과정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이긍익(李肯翊, 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제17권, 〈선조조 고사본말(宣朝朝故事本末)〉에 실린 〈소사 전첩(素沙戰捷)〉에는 위에 든 야사 등을 종합하여 이 전투의 과정을 요령있게 정리하여 크게 참고할 만하다. 다만 이상의 저술에는 소사전투와 관련하여 원숭이 기병대의 활약을 거론하지 않았다.

천안과 직산은 남북으로 통하는 큰길에 인접해 있다. 직산으로부터 넓은 들을 20리 지나 들판이 끝나는 곳에 소사하(素沙河)가 있다. 소사하 북쪽은 경기도 남쪽 경계이다. 선조 정유년(1597) 왜적이 남원에서 양원(楊元)을 쳐부수고 전주를 지나 공주로 북상하였는데 적군의 기세가 대단히 거셌다. 당시 형개(邢玠)는 총독(總督)으로 요동에 주둔하고, 경리(經理) 양호(楊鎬, ?~1629)가 10만 군사를 이끌고 막 평양에 주둔해 있었다. 마침 연광정(練光亭) 위에서 한창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날랜 말을 탄 군사가 급보를 알리자 양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서 대포소리를 한 번 울리고 즉시 말에 올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기병이 허둥지둥 양호를 따라가고 보병이 뒤를 따르니, 평양에서 한양까지 700리 길을 하루 낮 두 밤을 달려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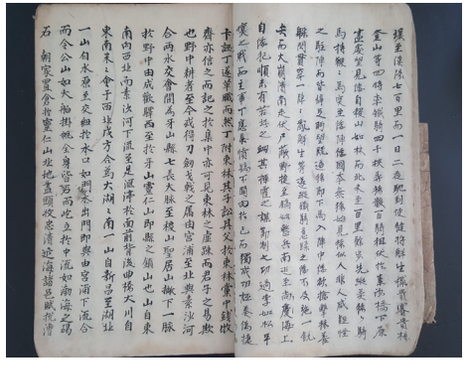
양호는 달단(韃靼, 타타르) 출신 장수 해생(解生)과 파귀(擺貴), 새귀(賽貴), 양등산(楊登山)으로 하여금 중무장한 기병 4000명과 교란용 원숭이〔弄猿〕 기병 수백 마리를 이끌고 가서 소사하 다리 아래 들판이 끝나는 곳에서 매복하게 하였다. 왜군이 숲처럼 빽빽한 대오를 이루어 직산으로부터 북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거리가 100여 보가 되기 직전에 먼저 교란용 원숭이를 풀어놓았다. 원숭이는 말을 타고 채찍을 잡고서 말에 채찍을 가해서 적진으로 돌진하였다.

왜국에는 본래 원숭이가 없었다. 원숭이를 처음으로 보게 되자 사람인 듯하면서도 사람이 아닌지라 모두 의아해하고 괴이하게 여겨 발을 멈추고 쳐다만 보았다. 적진에 바짝 다가서자 원숭이는 말에서 내려 진으로 뛰어들었다. 왜적들은 원숭이를 사로잡거나 때려잡으려 하였으나 원숭이는 몸을 숨기고 도망 다니기를 잘해서 진영을 꿰뚫고 지나갔다. 적의 진영이 혼란에 빠지자 해생 등은 신속히 중무장한 기병을 풀어서 적진을 유린하였다. 왜적들은 조총 한 발, 화살 한 발 쏴보지도 못하고 크게 무너져 남쪽으로 달아났는데 쓰러진 시체가 들을 덮었다. 승전보가 이르자 양호가 그제야

군사를 정비해 남쪽으로 추격하여 경상도 바닷가에 이르렀다.

왜군이 침략한 이래 우리는 이와 같은 승리는 거둔 적이 없었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번개같이 날랜 용병으로 적을 무찌른 공훈은 이여송(李如松)의 평양 전투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주사(主事) 정응태(丁應泰)는 양호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홀로 공을 세운 데 앙심을 품고 허위로 조작한 승전이라고 무고하여 상주하였다. 양호는 마침내 탄핵을 받아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명나라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중략) 들에서 밭을 가는 농부들이 지금도 간혹 칼이나 창 따위를 줍곤 한다.[4]

〈도판 2〉 소사(素沙)전투와 그 의의를 설명한 《택리지》의 〈팔도론·충청도〉, 필자 소장 사본.



4) 안대회·이승용 외, 《완역정본 택리지》, 서울: 휴머니스트, 2018(출간예정). "宣廟丁酉, 倭破楊元於南原, 從全州北上公州, 兵勢甚盛. 時邢玠以摠督駐遼東, 經理楊鎬率十萬兵, 新次平壤. 方夕食於練光亭上, 飛馬報至, 鎬下箸, 一聲砲, 卽上馬南下. 馬軍踉蹌先隨, 而步軍又隨後, 自平壤至漢陽七百里, 而一日二夜馳到. 使遊將解生·擺貴·賽貴·楊登山等四將, 率鐵騎四千, 挾弄猿數百騎, 狙伏於素沙橋下原盡處. 望見倭自稷山如林而北, 未至百餘步, 先縱弄猿. 猿騎馬執鞭, 鞭馬突陣. 倭國本無猿, 始見猿, 似人非人, 咸疑怪之, 駐陣而皆停足眄望. 旣逼, 猿卽下馬入陣中, 倭欲擒擊, 猿善躲避, 貫穿一陣. 陣亂, 解生等急縱鐵騎蹂之, 倭不及施一銃矢, 而大崩潰南走, 伏屍蔽野. 捷至, 鎬始整兵南追, 至慶尙海上. 自倭犯順, 未有若此之劻. 其揮霍之謀, 節制之功, 過李如松平壤之戰. 而主事丁應泰, 憤鎬不關由於己而獨成功, 誣奏僞捷, 鎬遂被劾去. 以此一事, 知皇朝不可爲矣. (중략) 野中耕者, 至今或得刀劒戈戟之屬."

앞뒤로 소사의 지리적 조건과 소사평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전투의 전개과정을 쓰고 중간에는 대승의 주요인으로 교란용 원숭이[弄猿] 기병대의 활약을 흥미진진하게 묘사하였다. 이 지역전설은 《택리지》의 수많은 이본에 대체로 빠짐없이 실려있고, 이본 사이에 내용의 차이도 거의 없다. 내용의 핵심은 명나라 원병 사령관 양호(楊鎬, ?~1629)가 중무장한 4,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농원(弄猿) 수백 기(騎)를 소사하 다리 아래 매복했다가 일본군에 돌진하게 하여 적을 혼란에 빠트린 다음 손쉽게 섬멸하였다는 것이다. 글이 박진감 넘치고 극적이며 환상적이다. 군담소설에 나올 법한 기묘한 전투이고, 《홍성탈출》을 비롯한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의 전투장면을 보는 듯 생생하다. 원숭이가 말을 타고 전투에 참가했다는 듣도 보도 못한 사실을 믿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허구로 간주하기에는 묘사가 생생하고도 구체적이다.

게다가 원숭이가 말을 타고 일본군을 교란시켰다는 이 원숭이 기병대의 존재는 다른 역사기록에는 나오지 않는다. 일본에는 원숭이가 없다고 쓴 잘못된 정보도 이 기록을 신뢰하기 주저하게 만든다. 《택리지》에는 이처럼 사실과 허구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지역전설이 적지 않기에 이 기록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다.[5] 필자는 소사 지역에 전해오는 조금은 신비한 전설로 허구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위 논문을 썼을 때는 이 기록이 지역전설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여 다른 문헌에서 관련한 기록을 찾았으나 겨우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이 지은 〈경리 양호 치제문(楊經理鎬致祭文)〉을 찾을 수 있었다. 전쟁 당사국인 중국이나 일본의 문헌도 대략 찾아보았으나 관련한 글은 나오지 않았다. 박지원이 쓴 제문에는 다음 구절이 보였다.

5) 〈팔도론·전라도〉에는 진도 벽파진 앞바다에서 철쇄를 이용하여 일본 수군을 섬멸한 명량해전을 기록하였는데, 이 역시 《택리지》에 등장하는 지역전설로서 사실과 허구 사이에 혼동을 일으킨다. 그 사실은 필자의 앞 논문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삼천 기병 풀어서	發騎三千
소사에서 적병을 맞을 때	迎敵素沙
강둑에 깃대 하나 꽂고	塘置一旗
묵묵히 살펴 깃발로 지휘하니	默察偃竪
천리 밖에서 승부를 결단하여	千里決勝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 했네.	如掌其覩
남쪽 하늘 아래 요기가 서려	妖氛南天
호접진(蝴蝶陣)을 펼치더니	蝴蝶爲陣
아침 해가 떠서 거울을 비추며	輝鏡朝旭
칼을 휘두르고 진격해왔네.	舞劍以進
그때 천자의 군사는	于時天兵
다리 밑에서 갑옷 입었고	浴甲橋下
농원(弄猿) 삼백이	***弄猿三百***
한꺼번에 말을 달렸지.	一時鞭馬
저 교활한 왜놈들을	狡彼倭奴
모조리 말굽 아래서 섬멸했네.	悉殲蹄間
이 한 번의 살육전이 없었다면	微此一鏖
수도 관문을 지키기 어려웠네.[6]	難保郊關

6)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역, 《연암집》 하권, 〈양경리호치제문(楊經理鎬致祭文)〉, 2012, 개정판, 돌베개, 283~289면. 번역은 이 책을 참조하되 필자가 수정하였다. 위 책에서는 '弄猿三百'을 '재빠른 삼백 기병(騎兵)'으로 번역하였고, 주석에서 그 근거를 "동진(東晉)의 화가 대규(戴逵)의 그림에 농원도(弄猿圖)가 있고, 마상희(馬上戱)의 하나로 원기(猿騎)가 있다. 원숭이는 동작이 민첩하여 '원첩(猿捷)'이란 성어가 있다."라고 하였으나 번역과 주석 모두 오류로 본다. 이 글은 정조가 이서구(李書九)에게 쓰라고 명한 것으로 이서구는 박지원에게 부탁하여 글을 받은 뒤 수정하여 완성하였다. 《척재집(惕齋集)》 권9에 〈經理楊公鎬祭文〉으로 실려있는데 '弄猿三百' 구절은 삭제돼 있다. 왕명을 받아 쓴 글이라 이서구는 이 기이한 사실을 감히 쓰지 못했을 것이다. 3쇄에서는 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번역과 주석을 수정하였다.

이 글은 선무사(宣武祠)에 치제(致祭)하기 위해 왕명을 받아 이서구(李書九)가 써야 할 글을 박지원에게 부탁했고, 그 부탁을 받아 쓴 글이다. 이 제문에 등장하는 농원(弄猿)은 틀림없이 《택리지》에서 언급한 교란용 원숭이 기병이다. 박지원은 그 숫자를 3백이라고 특정하였다. 양호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 때 핵심 전술의 하나가 원숭이 기병대의 활약이었음을 이 글을 통해 다시 확인하게 된다. 박지원은 《택리지》를 읽은 것이 분명하므로 그 책에서 원숭이 기병대 사연을 채택했을 수 있다. 그러나 3백 마리라는 구체적 숫자를 보면, 다른 문헌에서 얻은 정보로 보인다. 관련 정보를 충실하게 수집하여 글을 쓰는 박지원의 창작태도를 볼 때 문헌적 근거가 있었을 것이나 이 글만으로는 어느 쪽이라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 논문에서는 잠정적으로 이중환이 다른 지역전설을 채록한 방법대로 소사 일대에 전해지는 전설을 채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야사와 같은 문헌에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소사라는 지역의 토착민이 전해오는 전설을 채록한 것으로 보았다.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와 활약이 사실인지 허구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나중에 자료를 더 찾아보기로 하였다.

3. 《오주연문장전산고》와 《난중잡록》 등의 원숭이 기병대

과문한 탓이기는 하지만 《명사(明史)》를 비롯하여 중국의 임진왜란 관련한 저술에서 이 원숭이 기병대에 관한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본의 전쟁 관련 문헌에서도 마찬가지였다.[7] 당연히 이 주제를 다룬 논문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지 못했다. 《택리지》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밝혀보겠다고 생각했다. 더 살펴

7)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해제》, 문, 2010.

보겠다고 생각한 동기에는 18세기 후반의 학자인 무명자(無名子) 윤기(尹愭, 1741 ~ 1826)의 다음 언급에 자극을 받은 탓이 컸다.

그는 위에 인용한 《택리지》를 전재하여 소사전투를 서술하고 난 다음 이렇게 논평하였다.

> 소사전투에 대해서는 이중환의 기록이 분명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도 《명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언급하기는커녕 청산(靑山)과 직산(稷山) 어디에서도 접전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울산과 남원 등에서 허위 승전을 알렸다는 정응태의 중상모략에 휘말린 탓이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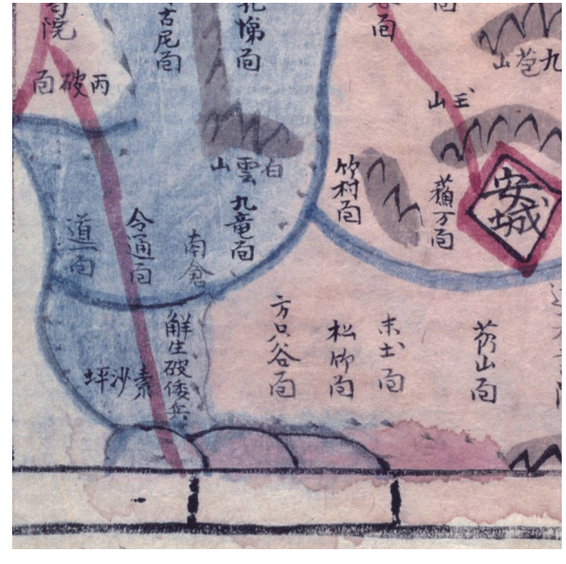
윤기는 《택리지》에서 묘사한 소사전투의 환상적인 원숭이 기병대의 활약을 사실로 믿었고, 《택리지》 말고도 다른 경로의 이야기가 전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가 말했다면 분명히 다른 저술에서도 나타날 듯하였다. 그렇다면 박지원이 쓴 글도 그렇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반영된 흔적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택리지》 외에는 그럴듯한 다른 이야기가 실린 문헌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중반의 학자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서 원숭이에 관한 여러 정보를 서술하는 중에 바로 소사전투에서 활약한 원숭이 이야기를 수록해 놓은 기사를 찾았다. 《택리지》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였다. 다음에 인용한다.

8) 윤기, 《무명자집(無名子集)》, 문고(文稿) 책10, '論壬辰事'. "至於素沙之戰, 非但李氏所記之分明, 亦有國人相傳之說, 而《明史》則不少槪及, 至以爲'靑山·稷山竝未接戰.'. 此則混入於蔚山·南原等僞捷之中者也."

〈도판 3〉 직산현 소사평(素沙坪) 지도. 소사평을 직산 위 안성 좌측에 그리고 그 옆에 "해생이 왜적을 격파하였다[解生破倭兵]"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소사가 임진왜란의 전승지로서 후대에 각인된 흔적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청구도(靑邱圖)》, 규장각 소장 사본.



야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임진왜란에 명나라 장수 경리 양호가 직산과 소사하, 금오평(金烏坪)에서 왜적을 베어죽일 때 군사들이 모두 붉은 옷이나 비단옷을 입고 등에는 원숭이 한 마리를 업었다. 원숭이는 채찍을 휘둘러 말을 내달렸다. 왜적이 들에 가득한 것을 멀리서 보고 모두 다리 아래로 들어가 붉은 옷을 벗고 청수(淸水)를 다시 착용하고 왜적에게 돌진하였다. 왜적은 모두 검은 옷을 입었고, 우리 군사는 왜군보다 수가 적었기에 처음에는 붉은 색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격렬한 전투가 반 시간쯤 지나자 붉은 빛이 비로소 번쩍번쩍하더니 나중에는 붉

은 색만 보이고 검은 색이 하나도 없었다. 비단옷과 청수는 탄환이 뚫지 못하였다. 게다가 원숭이가 좌충우돌하니 왜적이 처음 보고서 놀라고 혼란스러워 완전히 패하여 남은 이가 없었으니 원숭이 또한 전공을 세웠다고 하겠다.[9]

명나라 군사들이 붉은 색 옷을 입고 왜군과 오전(鏖戰)을 벌일 때 검은색 천지에서 천천히 붉은색 천지로 바뀌며 완전한 승리로 넘어가는 장면의 묘사가 일품이다. 이규경은 구체적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야사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인용하였다. 사실 임진왜란을 상세하게 묘사한 유성룡(柳成龍)의 《징비록(懲毖錄)》에서는 소사전투를 아예 다루지 않았고,[10] 가장 자세하다고 평가받는 조경남(趙慶男, 1570~1641)의 《난중잡록(亂中雜錄)》에는 소사전투를 상세하게 묘사하기는 하였으나 원숭이 기병대의 활약은 전혀 나

9)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권48, 〈猿猴辨證說〉, 하책, 명문당, 1982, 549~550면. "野史, 壬辰倭寇, 天將楊經理鎬之撕殺倭虜於稷山·素沙河·金烏坪也, 士皆紅襖·錦襖, 背負一胡孫. 胡孫揮鞭馳馬, 望見倭陣滿野, 俱入橋下, 脫紅襖, 淸水更著, 突入倭陣. 倭皆黑裝, 我軍比倭而少. 初不辨一紅, 酣戰半餉, 紅始閃閃, 只見紅而無一黑. 錦襖·淸水則丸不能入, 且胡孫東西衝突, 而倭初見驚怕眩怳, 一敗無餘, 猿亦有功."

10) 유성룡은 《서애집》 권16, 〈임진년 이후 병사를 요청한 일을 기록한다[記壬辰以後請兵事]〉(한국문집총간 52집)에서 "9월초 적병이 휘몰아쳐서 경기 경계까지 진출하자 도성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여 군사와 백성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윽고 적병이 직산에서 물러갔다[九月初, 賊兵長驅, 進至京畿界, 都城震恐, 軍民皆散. 旣而賊兵自稷山退去.]"라 하였고, 《징비록(懲毖錄)》에서는 "적병이 직산에 이르자 도성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중략) 적은 경기도 경계로부터 물러났다[兵至稷山. (중략) 賊從京畿界還退.]"(김시덕, 《교감해설 징비록》, 아카넷, 2013, 543~548면. 번역 일부 수정함)라 하였다. 유성룡은 소사전투를 완전히 건너뛰었다. 《청야만집(淸野漫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본, 古211-38) 권6 107면에서는 양호는 조선을 중흥시킨 공훈이 있는데도 유성룡이 지은 《징비록》에서 그 일을 전부 빠뜨리고 왜적이 저절로 물러간 것처럼 썼고, 소사의 승전이 사람들의 이목에 젖어 있는데도 오히려 양호에 대한 사적인 원망으로 《징비록》에서 서술하지 않았으니 유성룡의 큰 병통이라고 비난하였다. 《연려실기술》에서도 이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오지 않는다.[11] 이규경은 《택리지》를 매우 꼼꼼하게 읽은 사람이므로 일부러 《택리지》와는 맥락이 다른 이야기를 또 다른 야사에서 찾아 수록하였다.

이규경의 기록은 《택리지》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흥미롭지만 여기에서는 원숭이가 군사의 등 뒤에 업혀서 채찍을 휘두르는 점이 크게 달라졌다. 사실 원병(猿兵)이란 존재를 믿기가 어려워서 그 내용을 접한 사람은 대략 네 가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는 원숭이처럼 민첩한 병사, 하나는 털이 많이 난 중국 주변 국가의 소수민족 병사, 하나는 원숭이의 탈을 써서 변장한 병사, 그리고 하나는 원기(猿騎) 곧 마상재(馬上才)로 보는 것이다.[12] 여기서 네 가지 해석의 상세한 내용과 근거를 소개할 수는 없으나 어느 해석이든 원숭이 기병대의 존재를 상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앞에 인용한 몇 가지 문헌에서 묘사한 내용을 거칠게만 보아도 원병은 원숭이 자체이지 다른 것일 수 없다. 훈련받은 원숭이가 총을 쏘거나 말을 타고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닐뿐더러 후대에도 그와 비슷한 원숭이의 활용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숭이가 무기를 잡거나 말을 타고 전투했다는 사실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규경이 기록한 것처럼 기병의 등 뒤에 업혀서 전투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본다. 그 점에서는 《택리지》보다 있을 법한 일에 가깝다. 이규경의 기록을 접한 뒤에는 원숭이 기병대가 실제로 소사전투에 참전했다는 것이 전설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실체가

11) 정구복, 〈《亂中雜錄》의 사학사적 고찰〉, 《韓國史學史學報》 23호, 2011, 77~144면.

12) 이 원병 전설은 미와 다마키(三輪 環)의 《전설의 조선(伝説の朝鮮)》(東京: 博文館, 1919)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다. 조은애·이시준은 〈미와 다마키 《전설의 조선》의 일본 관련 설화에 대한 고찰〉(《외국문학연구》 제57호, 2015, 531~554면.)에서 전투에 참여한 원숭이는 실제 원숭이가 아니라 '원기(猿騎)' 곧 '마상재(馬上才)'와 관련이 있는 기병으로 추정하였다. 이익의 《성호사설》 등에서 원기(猿騎)가 임진왜란 중에 왜군을 물리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

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단정짓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난중잡록》을 다시 확인해보니 소사전투에서는 원숭이 기병대의 활약을 서술하지 않았으나 다른 대목에서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려있었다. 소사전투가 벌어진 다음 해 무술년 1598년 8월 27일자 일기로 남원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남원으로 집결하는 유정(劉綎) 부대를 묘사하는 내용이었다. 다음에 인용한다.

> 27일 제독 유정(劉綎)이 수만 명의 군사를 직접 인솔하여 전주로부터 임실에 도착하였다. 군졸이 먼저 남원에 이르러 사방으로 흩어져서 목재를 흑성(黑城)의 용두산(龍頭山)으로 들여보내 장수의 숙소와 군막을 안배하여 짓고, 목책을 설치하고 참호를 팠다. 이튿날 유정이 용두채에 이르러 진을 머무르게 하니, 전후 군사가 총 4만 7천여 명이었다. 군사 가운에 우지개(牛之介) 3명이 있어 키와 몸집이 일반인의 열 배였다. 해귀(海鬼) 4명이 있어 살찌고 검고 눈이 붉었으며, 머리카락이 솜털 같았다. 초원(楚猿) 4마리가 있어 말을 타고 다루는 솜씨가 사람과 같았다. 몸뚱이는 큰 고양이를 닮았다. 낙타와 산노루, 3종의 희생을 비롯한 온갖 물건을 다 가지고 왔다. 상인이 군사보다 먼저 왔고 그 숫자도 많았다. 적과 대치하여 다급한 때에도 상인이 먼저 가서 소를 죽이고 돼지를 잡아 끼를 자르고 베어서 불에 익히면 군졸이 은을 주고 사서 먹었다. 상인도 소속된 부대가 있어서 마음대로 왕래할 수 없었다.[13]

13) 조경남(趙慶男),《난중잡록(亂中雜錄)》3(조선고서간행회,《大東野乘》6권, 1910), 119~120면. "二十七日. 提督劉綎親率數萬兵, 自全州到任實, 軍卒先到南原, 散出四方, 輸入材木于黑城龍頭山, 排造將館及軍幕, 結柵鑿濠. 翌日劉綎至龍頭寨留鎭, 前後軍摠四萬七千餘名, 中有牛之介三名, 長闊十倍於人, 海鬼四名, 肥黑眼赤, 髮如細毛. 楚猿四首, 騎馬制引如人, 體類大猫, 駱駝·生獐三牲雜物, 無不持來. 興販先行, 其數亦多, 至於臨敵急遽之時, 販者在先, 屠牛殺猪, 裁割熟正, 軍卒給銀貿食. 興販亦有所屬之陣, 不得擅自來往."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으로 남병(南兵)을 이끌고 있는 유정(劉綎) 부대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은 구성원을 확인하고 기록하였다. 그 특별한 구성원은 우지개, 해귀, 초원, 낙타, 그리고 상인이다. 우지개는 여진부족 우디거[兀狄哈], 해귀는 포르투갈 출신의 흑인 용병, 초원은 곧 원숭이 기병대이고, 낙타는 물건의 수송에 쓴 낙타, 그리고 부대에 소속되어 복무하는 상인이었다. 조경남은 이들 특수 임무를 맡은 부대원 가운데 초원(楚猿) 4마리를 직접 보고 확인하였다. 초원(楚猿)은 곧 중국 형초(荊楚) 지역에서 온 원병(猿兵)이란 의미이다. 조경남의 묘사와 설명에 따르면, 말을 타는 기병이었고, 사람처럼 말을 잘 다루었다. 크기가 큰 고양이와 같았다고 하니 유인원 중에서 아주 큰 원숭이는 아니었던 듯하다. 조경남의 기록을《택리지》의 설명과 비교해보면 거의 완벽하게 부합한다. 말을 잘 다루는 원숭이 기병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기록으로 원숭이 기병대가 소사전투에서 특수부대로 참전한 사실은 허구에 바탕을 둔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는 분명한 기록이다.

유정 부대에 소속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는《난중잡록》뿐 아니라 다른 기록에서도 살짝 등장한다. 임진왜란 기간에 신녕현감(新寧縣監)으로 전투에 참가했던 손기양(孫起陽, 1559~1617)은 일기를 남겼는데 다른 시기의 일기는 모두 사라지고 1598년 무술년의 일기만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7월 21일의 일기에는 "집에서 부리는 종이 유정(劉綎)의 군진(軍陣)으로부터 돌아왔는데 그가 한 말에 따르면, 군대의 위용이 장엄하고, 또한 초원(楚猿)과 낙타가 있는데 원숭이는 능히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고, 낙타는 물건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한다"[14]라고 써 놓았다. 본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유정 부대에 들어갔었던 종의 눈에 비친 특이한 구경거리를 주인에게 보고하

14) 孫起陽,《聱漢文集》권4,〈日錄〉, 한국문집총간 속집 11집, [戊戌七月]. "二十一日. 家奴自劉綎陣所還, 言軍容壯嚴, 亦有楚猿及駱駝, 猿能焚敵陣, 駝能載運也." 원문에서 焚자는 奔자의 오자로 추정한다.

는 자리에 다시 나타났다. 앞서 본 조경남과는 거의 한달 사이밖에 안 되는 사이에 본 것이다. 손기양은 일기를 간단하게 쓰는 편인데 일기에 남길 만한 신기한 사실은 전투에 참가한 초원(楚猿)과 낙타였다. 호기심이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원숭이 기병대란 존재는 전쟁의 참혹함과 전투상황만큼이나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을 자아내는 신기한 주제였을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의 실기(實記) 기록을 통해서 원숭이 기병대의 실체는 더는 의심할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4. 《세전서화첩》의 원병(猿兵) 그림과 문헌

원숭이 기병대가 명나라 원군의 특수부대 일원으로 소사전투에 참여했고, 그 이후 왜군과의 전투에 끝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은 위에서 소개한 몇 가지 기록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 역사적 실체에 더 큰 확신을 갖도록 하는 귀중한 자료는 또 있다. 바로 경상도 안동의 풍산김씨 문중에 전해오는 《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이다.[15] 【도판4】에서 볼 수 있는 이 자료는 19세기 후반에 김중휴(金重休, 1797~1863)이 선대부터 내려오던 조상과 관련한 32점의 그림과 그림을 설명한 관련 문헌으로 제작되었다. 현존하는 그림의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이지만 그중 19점의 기록화는 이전 시기부터 전해오던 원본을 모사한 것이다.[16]

그중에서 상의원(尙衣院) 직장(直長) 김대현(金大賢, 1553~1602)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화 가운데 하나인 〈천조장사전별도(天朝將士餞別圖)〉를 주목해보아야 한다. 이 그림의 제작은 본디 형개(邢玠)가 본국으로 귀환하면

15) 김미영·박정혜, 《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 민속원, 2012. 뒤에 원본이 영인되어 있다.

16) 김미영·박정혜의 위 저술에 실린 논문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서 자신을 보좌하던 접대낭청(邢軍門接待郎廳) 김대현에게 선물한 것이다. 그림을 잘 그린 화가 김수운(金守雲)에게 부탁하여 그린 〈천조장사전별도〉와 시를 선물하여 고마움을 표현하였다.[17] 따라서 이 그림의 실물은 19세기에 제작되었으나 그림과 그 문헌은 1598년 당시의 원래 모습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다. 더욱이 그 내용을 검토하면 신뢰할 만한 사료로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도판 4〉《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의 〈천조장사전별도(天朝將士餞別圖)〉, 부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원병삼백(猿兵三百)"이라 쓴 깃발 아래 12마리의 원숭이 병사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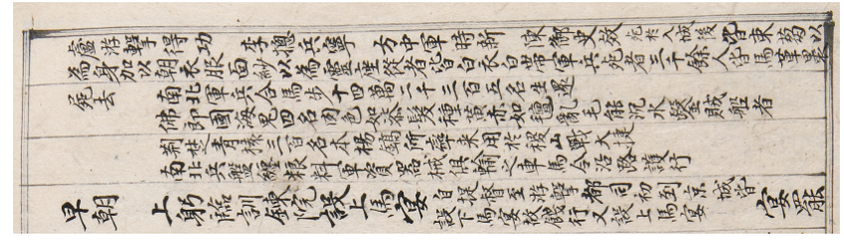
17) 위의 책, 257면. "軍門使旗鼓, 招支應色金大賢使之前, 曰: '數年同苦, 一心相敬, 久而難忘. 今當遠別, 耿耿懷想, 雲嶽迷茫. 使貴國工畫者金守雲, 繪贈餞別幅, 庸寓吳月之思.'" 이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선할 때 형개의 명으로 김수운이 제작하여 김대현에게 증정한 기록화이며, 후대의 그림은 이 원본을 모사한 것이다. 따라서 사료로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김대현의 문집 《유연당집(悠然堂集)》 권3, 〈기군문잡사(記軍門雜事)〉에는 관련한 더 자세한 사실이 밝혀져 있다.

이 문헌은 4폭의 기록화와 5장에 이른 관련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1599년 2월 조선에서 철수하여 본국으로 귀환하는 14만 대군이 철군하는 장면을 그린 기록화와 기록 문헌이다. 명나라 원군 대장 형개(邢玠)가 지휘하는 대군의 환송연은 한양의 훈련원(訓鍊院)에서 거행되었고, 홍제원(弘濟院)을 거쳐 철군하였다. 철군하는 군사행렬을 그린 4개의 기록화 가운데 두 번째 그림에는 대단히 흥미로운 몇 가지 장면이 보인다. 상단의 형군문(邢軍門, 邢玠) 아래 왼쪽 하단에 유인원(類人猿) 열두 마리가 칼을 들고 행군하는 장면이다. 그중 상당히 크게 그려진 원숭이가 이 특수부대의 대장이고, 이들 앞에 세운 깃발에는 "원병삼백(猿兵三百)"이라 썼다. 의심할 것도 없이 원숭이 병사 300명이란 의미이다.[18] 명칭만 봐도 앞서 살펴본 박지원의 제문에 나오는 "농원삼백(弄猿三百)"과 완전히 부합한다. 《택리지》와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실려 전하는 소사전투의 원숭이 기병대가 실체가 있고, 그들의 정식 명칭이 원병(猿兵)임을 이 기록화는 다른 어떤 문자 텍스트보다 인상적으로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시대 그림은 비중이 큰 사물을 중심으로 그린다. 전체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는 형개가 다른 인물에 비해 확대되어 그려진 것처럼 14만 군사 가운데 겨우 삼백 명에 지나지 않는 원병(猿兵)과 해귀(海鬼)가 큰 비중으로 그려진 사실은 그 특수부대를 바라보는 화가의 관심을 반영한다. 그리고 화가의 관심은 기록화 제작을 의뢰한 조선의 사대부와 명나라 장교들의 관심을 대변한다. 다시 말해, 1599년의 기록화에 나타난 원병은 앞서 조경남과 손기양이 실기에서 유독 원병에 주목하고 관심을 표명한 것과 똑같은 시선을 받고 있다.

〈천조장사전별도〉는 원병의 실체를 형상으로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록화이다. 또 화폭에 형상을 그리게 된 실체적 진실과 동기를 문자 텍스트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기록화만큼이나 가치있는 것이 그림을 해명한 문헌이다. 2월 15일 철군하는 명나라 원군의 전체 규모를 자세하게 밝힌 문헌이 바로 그것으로 【도판5】이다.

〈도판 5〉《세전서화첩(世傳書畫帖)》의 〈천조장사전별도(天朝將士餞別圖)〉, 부분,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원병삼백(猿兵三百)"을 설명한 글이 쌍



행주(雙行註)로 나온다. "형초(荊楚)의 청원(青猿) 삼백 명은 본디 양호(楊鎬)가 인솔해 왔는데 직산 전투에서 기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荊楚青猿三百名, 本楊鎬所率來, 用於稷山戰, 大捷.)"

두 줄의 작은 글씨로 쓴 직책과 인명은 철군하는 고위 장군 전체를 제시하고 있다. 안찰(按察)과 제독(提督), 도독(都督), 경리(經理), 유격(遊擊) 직책을 지닌 장수들이 누락없이 차례로 실려있다. 임진왜란 동정제장(東征諸將)의 명단으로 신뢰할 만한 문헌이다. 뒷부분 중간에는 낭중(郎中)의 직책을 지닌 남방위(藍芳威)란 인물도 보인다. 그는 명나라에 돌아가 《조선시선(朝鮮詩選)》을 편찬하여 간행함으로써 중국에 조선의 시를 널리 퍼지게 한 장본인이다.

18) 이 그림을 분석한 박정혜는 "원병삼백(猿兵三百)"이라 쓴 깃발을 여진족 출신 투항자들로 구성된 군인이 참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명기의 《임진왜란과 한중관계》(역사비평사, 1999, 129~130면)에서 거론한 임란 참전군인 달자(韃子)로 이해하여 그렇게 추정한 것인데, 원숭이가 참전했다는 기괴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탓에 그렇게 보았다. 앞서 박지원의 제문에 나오는 원병을 비유로 번역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숭이 병사라는 사실을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연구자의 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혜, 〈그림으로 기록한 가문의 역사: 조선시대 《풍산김씨 세전서화첩》 연구〉, 위의 책, 125~126면.

철군 군사의 명단은 뒤로 갈수록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한다. 정유재란 때의 가장 치열한 전투 가운데 하나였던 울산 도산성(島山城) 전투에서 전사한 유격 양만금(楊萬金) 등 장수 7명의 인형을 짚으로 만들어 조복(朝服)을 입히고 얼굴에는 면사포를 씌워서 영좌(靈座)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모두 흰옷을 입혀 조문 행렬로 만들었다. 다음에는 전사자 3천여 명의 시신을 모두 말가죽에 쌓아서 싣고 갔다는 사실도 기록되었다.

마지막으로 남병(南兵)과 북병(北兵)의 기병과 보병을 합하여 총 142,305명이 생환(生還)하였다고 하여 전체 병사의 숫자를 밝혔다. 그 숫자는 申欽의 자료와 매우 유사하며 당시 조선 정부나 원군이 내세운 원군의 숫자를 제시한 것이다.[19] 이 문헌을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체 생환자를 밝혔으므로 글이 끝나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 가지 사실을 더 설명하였다. 바로 해귀와 원병이다. 먼저 포르투갈 출신의 흑인 병사를 "불랑국(佛郎國)의 해귀(海鬼) 네 명은 피부색이 옻칠한 듯이 새까맣다. 머리털은 노랗고 붉으며 융모처럼 털이 어지럽다. 잠수하여 적선에 구멍을 뚫을 수 있다."[20]라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불랑국은 포르투갈이고, 해귀는 흑인으로 잠수를 잘하는 용병 군인이다. 해귀는 조선 사람에게 충격을 주어 그에 관한 기록은 《실록》을 비롯해 당시의 많은 기록에 등장하므로 자세히 논하지 않는다. 위 그림에서 "원병삼백(猿兵三百)" 위에 수레를 타고 가는 네 명의 흑인이 보이고 "해귀(海鬼)"라 밝혀놓았다.

해귀 다음에는 이 글의 주제인 "원병삼백(猿兵三百)"을 설명한 글이 나온다. "형초(荊楚)의 청원(青猿) 삼백 명은 본디 양호(楊鎬)가 인솔해 왔는데

19) 劉永連·段玉芳, 〈萬曆援朝抗倭戰争明軍兵力考〉, 《朝鮮·韓國歷史研究》 17호, 2016, 229~247면. 임진왜란에 투입된 명군의 숫자를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정유재란 시기에 명군이 92,000명으로 추산하고, 申欽이 〈天朝先後出兵來援志〉에서 142,700여 명으로 추산한 숫자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 김미영·박정혜, 위의 책, 254면. "佛郎國海鬼四名, 肉色如柒, 髮種黃赤, 如氈亂毛, 能沈水鑿賊船者."

직산 전투에서 기용하여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21] 매우 간명한 설명이지만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 먼저 원숭이 기병대의 출신지가 형초(荊楚)임을 밝혔다. 앞서 《난중잡록》과 손기양의 일기에서 초원(楚猿)이라 표기한 말이 형초(荊楚)를 줄여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원(青猿)의 청(青)은 원숭이의 색깔을 의미하기보다는 원숭이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으로 원숭이 기병대의 숫자가 삼백 명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 원숭이 기병대 삼백 명이 양호라는 장수의 통솔하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박지원의 제문을 살펴보았는데 그 제문에서 "농원삼백(弄猿三百)"이라 밝힌 병사의 숫자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택리지》에서 수백 명이라 말한 것에 비하면 숫자를 정확하게 말했다. 다른 곳에서는 짐승을 표현하는 "마리"로 표현한 데 반하여 사람을 세는 "명(名)"으로 표현하여 병사로 인정한 사실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직산 전투에서 참여하여 대승을 거두는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야사와는 성격이 다른 글로 과장 없이 이 특수부대에 관한 핵심 정보를 간명하게 밝혀놓았다. 그 설명이 《택리지》 이후 몇 가지 역사기록에서 밝힌 사실과 전투장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거의 모두 일치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임진왜란 중 정유재란에 장수로 참전한 양호는 특수부대로 원숭이 기병대를 조직하여 인솔해 왔다. 원숭이의 숫자는 삼백으로, 말을 잘 탔고, 기습공격을 잘하였다. 원숭이 기병대는 소사전투에서 큰 공훈을 세웠는데 다리 아래 매복했다가 말을 타고 불시에 일본군을 급습하여 혼란에 빠트리는 교란작전을 펼쳐서 대승을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양호가 정응태의 무고로 본국에 소환되자 그가 통솔하던 원숭이 기병대는 그대로 조선에 남겨두어 유정(劉綎)의 부대에 소속되었다. 유정의 부대를 확인한 기록과 그들이 다른 참전군인과 함께 귀환한 사실을 통해

21) 위의 글. "荊楚青猿三百名, 本楊鎬所率來, 用於稷山戰, 大捷."

임진 전쟁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편갈송의 원병(猿兵) 인솔

원숭이 기병대를 분석한 글을 2018년 여름 《역사비평》에 투고하고 그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이후 서울대 국문학과의 김명호 교수가 유주목(柳疇睦)의 《계당집(溪堂集)》과 1905년 간행된 《금고실기(今古實記)》에 원숭이 기병대를 통솔한 장수로 편갈송(片碣頌)의 행적이 나오니 검토해볼 것을 일러 주었다. 그 덕분에 편갈송의 행적에 집중하여 찾아보니 과연 관련한 기록이 몇 군데 등장했다. 자료는 대체로 19세기에 후손이 편집한 것이고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흥미로운 내용에 개연성이 있어 보여 보완하여 설명하기로 했다.

1905년에 간행된 《금고실기》 권1에는 공주 지역의 충훈(忠勳)의 인물로 편갈송을 들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명나라 사람 편갈송은 자가 경수(景修), 호가 모헌(慕軒)으로 절강 사람이다. 임진왜란에 병부상서를 따라 우리나라에 원병으로 와서 평양에 이르러 왜적을 쳐서 1285명을 베었다. 한양성으로 진격하여 주둔한 왜적을 공격하고 천여 리의 고토를 회복하였다. 정유재란에는 원군(猿軍)으로 소사의 왜적을 격파하여 왜적의 피가 흘러 내를 이루었다고 했다. 하늘 북이 세 번 둥둥 울려 남하하여 가는 곳마다 승전하니 선조께서 두 번의 어찰을 내려 사례하였다. 나중에 정응태의 무고를 받아 경주 금오산에 자취를 숨기고 살다 죽었다.[22]

22) 장세오(張世五) 편, 《금고실기(今古實記)》 권1, '公州',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 간본.

간략한 서술로서 소사 전투에서 원숭이 부대로 왜적을 격파한 공적이 있고, 무고를 당한 이후 귀국하지 않고 조선에 귀화하여 경주에서 살다가 죽었다고 했다. 편갈송의 사적이 충청도 공주의 인물에 실린 것은 그 후손이 공주로 건너가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더 자세한 기록은 1871년 후손에 의해 간행된 《동원기략(東援記略)》이다. 그에 따르면 편갈송은 임진년과 정유년에 조선으로 건너왔다. 정유재란에는 중군참장(中軍參將)의 직책으로 파병되었다. 경략 양호의 휘하 장수로 편입된 듯하다. 당시 양호는 절강의 원숭이 부대 300명을 평양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소사에서 벌어진 전투를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 계사년 9월 가등청정의 10만 군대가 서쪽으로 진격하니 바다와 육지에서 여러 장수들이 둘러보며 위축되어 감히 예봉에 맞서려 하지 않았다. 선봉부대가 벌써 소사평에 도착하여 깃발과 창검이 천리에 끊이지 않았다. 조야(朝野)가 떨며 두려워할 때 오직 제독이 중군 편갈송으로 하여금 차분히 지휘하여 은밀히 용맹한 정예 기병을 뽑게 했다. 해생, 양등산, 천만리, 파귀가 요충지를 차지하고서 군사를 숨기고 적을 맞아 공격하였다. 적과 서로 대치하여 결판이 나지 않았다. 적병은 수가 많고 우리는 수가 적어 두려움이 일어났다. 중군 편갈송이 원숭이 부대 삼백 명으로 적진을 교란시키고 이어서 3천 명의 철기(鐵騎)로 습격하여 크게 격파하였다. 또 유격 파새를 보내 2천 명의 기병으로 합세하여 섬멸하니 피가 흘러 내를 이루었다. 가등청정 홀로 몸을 빼내 도주하였다. 대포 소리가 3백리에 들리고 하늘북 소리가 세 번이나 울렸다. 엎어져 죽은 시체가 8십, 9십 리에 흩어졌다. 무술년 11월 경리와 도독이 중군 편갈송을 거느리고 경상도로 남하하였다.[23]

23) 편홍석(片弘錫) 편, 《동원기략(東援記略)》 권1, 〈편장군유적(片將軍遺蹟)〉,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사본.

소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과정이 간략하게 묘사되었고, 여기서 편갈송이 원숭이 부대를 지휘하여 적진을 교란시키는 장면이 등장한다. 앞서 살펴본 《택리지》에서 묘사한 것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나 양호 대신 편갈송이 원숭이 부대를 직접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등장했다. 원숭이 부대가 적진을 교란하는 단순한 역할로 묘사되어 상식에 가깝다. 이 글은 〈편장군유적(片將軍遺蹟)〉의 일부이고 이 글을 쓴 이는 그 후손이므로 편갈송의 활약이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을 수도 있다.

유주목의 〈편총절실기 뒤에 쓰다〉란 글에 따르면, 편대언(片大彦)이란 후손이 찾아와 이 책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이 글은 바로 위에서 언급한 〈편장군유적〉과 같은 글로 추정한다. 이 글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전하는데 그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정유재란에 소사 대전이 없었다면 왕경(王京)은 하마터면 두 번째 함락당하는 치욕을 면하지 못했으리라. 그러니 소사 대전을 4대 대첩의 하나로 꼽지 않을 수 있으랴? 또 소사 대전에서 전승을 거둔 이유가 원숭이 부대에 있지 않겠는가? 아! 적진을 마주하고 교전할 때 기발한 전술을 내어 승리를 거둔 일이 얼마나 많으랴! 하지만 원숭이 부대와 같은 일은 과거의 기록에서 보지 못했다. 그 일에 말이 미치면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어떤 명나라 장수가 행한 일인지를 몰라서 깊이 유감스럽게 여겼다. 얼마 전에 앞뒤의 명나라 원병 장군 명단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이여송과 마귀 등 여러 제독을 따라온 어양총절(漁陽總節) 편갈송(片碣頌) 공이라는 분을 처음 보았다. 하루는 편대언(片大彦)이 찾아와 공의 실기 한 권을 보여주며 내게 교정을 하고 뒤에 한 마디 해주기를 부탁하였다. 내가 책을 얻어 한 번 읽어보니 그제야 소사의 원군(猿軍)의 일이 편 공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됐다.[24]

원숭이 기병대의 활약을 전설로 들어서 알고 있던 중 그 부대를 지휘한 장수가 편갈송임을 알게 되어 기뻤다는 내용이다. 명망 있는 영남 학자의 글이므로 일단 신뢰할 만하고, 이 전설이 구한말까지 전해지고 있었다는 정황까지 알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이 부대의 실질적 지휘관이 편갈송이었고, 그 역시 정응태에게 무고를 당한 뒤 조선에 귀화했고, 그 후손이 국내에 살고 있다는 흥미로운 정보까지 얻게 되었다. 적지 않은 사실을 새로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근거가 있는 역사적 사실로 확정하기에는 여전히 망설여진다. 앞서 살펴본 기록이 대체로 객관성을 지닌 자료라면 편갈송을 알리는 문헌은 대체로 그 후손이 직간접으로 간여한 문헌이고, 그 내용 또한 앞선 기록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모두가 《택리지》보다 100년 뒤의 문헌이라는 점 때문이다. 의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으나 판단을 미루고 그대로 기록해둔다.

6. 명나라 문헌의 원병(猿兵)

명 원군에 합류한 원병은 명나라 남부 지역 절강성과 복건성에서 차출한 남병(南兵) 소속이었다. 조선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것처럼 본국에서도 그들을 보는 시선은 남달랐을 테고, 그들에 관한 기록이 명나라 문헌에 나올 법하다. 그러나 앞서 윤기가 말한 것처럼 《명사》나 곡응태(谷应泰)의 《명사기사본말(明史纪事本末)》을 비롯한 관련한 문헌에 원병을 언급한 기록이

24) 유주목(柳疇睦), 《계당집(溪堂集)》 권10, 〈편총절실기 뒤에 쓰다[書片總節實記後]〉, 한국문집총간 313집.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는 소사전투에 관한 설명도 자세하지 않다.[25] 소사전투를 승리로 이끈 양호와 그의 공로를 허위라고 명 황제에게 보고한 정응태(丁應泰)의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기록은 상당히 왜곡되어 전해진 탓이 크다. 양호가 임진왜란에서 세운 전공에 대한 평가가 조선과 명나라 사이에는 매우 큰 괴리가 있었다. 양호가 이끈 이 특수부대의 존재와 활약이 명측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데에는 이같은 이유가 있다.

양호는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자 6월에 경략조선군무사(經略朝鮮軍務使)가 되어 총독 형개, 총병(摠兵) 마귀, 부총병 양원 등과 함께 참전하였다. 소사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12월에 울산으로 내려가 왜적과 싸웠으나 도산성(島山城) 전투에서 패하고 1998년 3월 한양에 이르렀다가 6월에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도산성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보고한 사실이 들통나서 파면되고 만세덕(萬世德)으로 대체되었다. 뒤에 다시 재기하여 만주족의 침략을 막다가 사르후 전투에서 크게 패해 그 책임을 지고 처형되었다. 보통 경리(經理) 또는 경략(經略)의 직위로 불린다.

〈도판 6〉 양호거사비(楊鎬去思碑). 본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120번지에 자리 잡았던 선무사宣武祠에 있었던 비로서 현재는 명지대학교 경내에 옮겨 보존하고 있다. 생사당(生祠堂)으로 불린 선무사 건물은 일제강점기때 철거되었다. 양호거사비는 1598년에 세워졌고, 이정귀(李廷龜)가 지은 〈황명 도어사 양공호 거사비명(皇明都御史楊公鎬去思碑銘)〉이 새겨져 있다.

25) 李光濤, 〈明人援韓興稷山大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43本 1分, 1971, 1~14면. 이 논문에서 조선측 기록을 중심으로 소사전투를 대첩으로 인정했고, 명나라와 일본에서는 무시하거나 아예 거꾸로 서술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당시 조선에 파견된 정응태(丁應泰)란 명나라 조사관은 양호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다. 1598년 정응태는 양호가 울산 도산성 전투를 허위로 보고했다며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명나라 신하들이 양호의 억울함을 상소하고 선조도 그를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양호는 결국 파직되어 본국으로 송환되었다.[26] 조선에서 거듭 양호를 변호하여 나중에 명나라 조정은 양호를 요동도어사(遼東都御史)로 복직시켰다.[27] 조선에서는 양호를 소사

26) 李光濤, 〈丁應泰與楊鎬 - 朝鮮壬辰倭禍論叢之一〉,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3本 1本, 1982, 129~166면.

27) 조선 정부에서 양호를 옹호하고 정응태의 무고를 밝히는 무술변무(戊戌辨誣) 노력은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정귀의 문집에는 그와 관련한 많은 기록이 실려있다. 김우진,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의 대명(對明) 외교활동: 선조와 광해군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집, 2012, 115~151면; 孫衛國, 〈丁應泰彈劾事件與明清史籍之建構〉, 《南開學報(철학사회과학판)》, 17本, 2012.

전투를 대승으로 이끈 명장으로 간주하여 다른 장수보다 높이 평가하였다. 불명예로 본국에 소환된 것을 안타깝게 여겨 거사비(去思碑)가 세워졌고, 생존 시기인 선조 때에 벌써 형개(邢玠)와 함께 선무사(宣武祠)에 제향을 받는 대우를 받았다.[28] 이후에도 역대 국왕은 끊임없이 양호의 사당에 제향을 하사하였다.

중국의 문헌에 양호가 통솔한 원숭이 기병대를 직접 다룬 글은 나오지 않으나 명군(明軍)의 원병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기는 어렵다. 누가 보더라도 이 특수부대의 원숭이와 그 역할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헌을 조사해보니 명말의 야사로 심덕부(沈德符)가 편찬한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과 사조제(謝肇淛)가 편찬한 《오잡조(五雜組)》에 관련한 기록이 흥미롭게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에 차례로 인용한다.

> 소보(少保) 척계광(戚繼光)이 왜적을 정벌하러 강남에 이르렀을 당시에 사졸에게 산중에서 조총이나 화서(火鼠) 등을 쏘는 훈련을 하도록 명하였다. 마침 숲속에는 원숭이 무리가 있었는데 훈련을 구경하며 몰래 흉내를 냈다. 시간이 흐르자 원숭이의 기술이 병사보다 나았다. 하루는 왜적이 대거 몰려왔는데 척계광의 병사는 수가 적어 전투를 벌이면 반드시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은밀한 곳에 용감한 장정을 숨기고 날랜 병사로 적을 도발하여 거짓으로 패한 척하게 했다. 먼저 산중 은밀한 곳에 여러 가지 화기를 던져두고 왜적의 추적자가 뒤따라 이르렀다. 원숭이가 머리깎고 맨발의 왜적이 횡행하는 것을 보고 익히 보던 사람과는 다르자 특이한 짐승이 자기들을 물 것이라 의심하여 앞다퉈 불을 붙여 총을 쏘았다. 왜적이 크게 놀라 미친 듯 도망하여 죽은 자가 서로를 베게 되니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 드디어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
>
> 지난 병술년((1586) 정해년(1587) 사이에 충암(沖菴) 고양겸(顧養謙, 1537~1604)이 요좌(遼左) 지역을 순무(巡撫)할 때 바닷가에서 떨어진 왜적 수십 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모두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병사의 대오 사이에 편입시켰다. 큰 여진족 군사[大虜]가 섬오랑캐를 직접 보지 못했으므로 기이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하루는 여진족 기병[虜騎]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왜적 출신 병사에게 명하여 옛 복장을 차려입고 중군(中軍)에 숨어있다가 전투가 한창일 때 갑자기 칼을 잡고 일제히 뛰쳐나가라고 하였다. 여진족이 깜짝 놀라 진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서슬 퍼런 칼날이 말의 발을 베자 모두들 거꾸러져 죽었다. 나머지 기병은 도주하고 흩어졌다. 고양겸은 그로 인해 전공을 세웠다. 다른 날 여진족이 다시 침입하여 전과 같이 다시 명령하여 나가 싸우게 했으나 하나도 살아 돌아온 자가 없었다. 여진놈들이 그들의 기예가 여기에 그친다는 것을 알고 벌써 미리 대비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전단이 소의 꼬리에 횃불을 묶은 일이나 유심(劉尋)의 나귀는 모두 벌써 쓸모없는 물건이 된지라 다시 사용하면 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척계광이 기계(奇計)를 낸 것은 참으로 한바탕 웃을 만하다.[29]

28) 이정귀(李廷龜)가 지은 〈황명 도어사 양공호 거사비명(皇明都御史楊公鎬去思碑銘)〉(《월사집(月沙集)》 권45, 한국문집총간 70집)은 양호의 공적을 기록한 것으로 거사비 실물은 1598년에 세워져 현재 명지대학교 경내에 있다. 이 글 안에도 원병에 관한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29) 심덕부(沈德符), 《만력야획편(萬曆野獲編)》 권17, [奇兵不可再], 中華書局, 1997, 445면. "戚少保繼光, 初以征倭至江南, 命士卒於山中習放鳥銃火鼠之屬. 適林莽中有群猴, 見而竊效之, 久之, 猴之技勝於人矣. 一日倭大至, 而戚兵少, 度與戰必不利, 乃匿勇壯於隱處, 而以輕銳挑之佯北. 先擲諸火器於山嶼內, 倭之追者尋至, 猴見髡跣橫行, 不類所習覩, 疑為異獸將噬之, 爭燃火發砲. 倭大駭狂奔, 死者枕籍, 伏兵四起, 遂獲全捷. 往丙戌丁亥間, 顧沖菴養謙, 撫遼左, 俘得海上零倭數十, 皆貸命以實行伍. 私念大虜目未識島夷, 可以奇勝之. 一日報虜騎入犯, 命諸倭仍故裝匿中軍, 候戰酣時, 忽執刀跳躍齊出. 虜驚未定, 則霜刃及馬足, 皆踣仆就戮, 餘騎迸散, 顧因以奏功. 他日虜再入, 復命如前法赴闕, 遂無一人還者, 蓋虜奴知其技止此, 已先爲備矣. 乃知田單之牛·劉尋之驢, 俱已陳芻狗, 再用未有不敗者. 如戚少保出奇, 眞堪大噱."

복건성 복청(福清)의 석축산(石竺山, 石竹山)에는 원숭이가 많아서 백 마리나 천 마리가 무리를 이루었다. 소보(少保) 척계광(戚繼光)이 왜구를 물리칠 때 여기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군사들에게 화기(火器)를 쏘는 훈련을 시킬 때마다 원숭이들이 훔쳐보고서 익혔다. 이에 군사에게 명하여 원숭이 수백 마리를 생포하여 잘 기르게 하고 화기를 연습하여 일상사가 되도록 하였다. 왜적이 이르자 산골짜기에 복병을 두고 원숭이 무리로 하여금 적진으로 돌진하게 하니 왜적은 생각지도 않은 일이었다. 조금 있다가 화기를 모두 쏘니 벽력같은 소리가 땅을 뒤흔들었다. 왜적이 크게 놀라자 복병이 뛰쳐나와 적을 섬멸하였다. 옛날 침윤고(鍼尹固)가 타는 횃불을 코끼리 꼬리에 묶은 일이나 전단(田單)이 소의 꼬리에 횃불을 묶어 적진에 돌진하게 한 일, 강유(江逌)가 닭발에 불을 묶어 적을 물리친 일이 있다. 지금 척계광이 원숭이에게 화기를 쏘게 했으니 지혜로운 자가 서로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 대략 이와 비슷하다.[30]

두 편의 글은 모두 명말에 왜구를 소탕하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 척계광(戚繼光, 1528~1588)의 행적을 묘사하던 중 기발한 전술의 하나로 원병을 소개하였다. 서로 다른 기록으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똑같은 사실을 기록자의 견문에 따라 달리 서술하였다. 복건성 지역의 원숭이가 조총을 쏘는 군사들의 훈련하는 장면을 보고 총을 쏘는 법을 흉내내어 복병이 되어 기습공격을 했다는 내용이다. 왜구를 소탕할 때 기습공격을 중시했던 척계광의 전술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31]

30) 사조제(謝肇淛), 《오잡조(五雜組)》〈物部一〉, 上海書店出版社, 2001, 173면. “福清石竺山多狙 , 千百爲群. 戚少保繼光剿倭時, 屯兵於此, 每教軍士放火器, 狙窺而習之. 乃命軍士捕數百, 善養之, 仍令習火器以爲常. 比賊至, 伏兵山谷中, 而令群狙闖其營, 賊不虞也. 少頃火器俱發, 霹靂震地, 賊大驚駭, 伏發殲焉. 昔鍼尹燧象, 田單火牛, 江逌火鷄, 今戚公乃以火狙, 智者相師大約類此.”

31) 劉振仁, 〈戚繼光的軍事努力與創新〉, 《全人教育集刊》, 臺灣, 2016, 97~131면.

임진왜란에 조선에서 활약한 원병과 비교하면 적어도 두 세대 이전의 일로서 원숭이 기병대가 시작된 동기와 초기 단계의 활동상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기병대가 아닌 소총부대로서 매복하였다가 기습공격을 하는 특수부대로 가늠할 수 있다. 그에 비교하면 양호의 부대는 총을 쏘는 소총부대이기보다는 기병부대로 말을 타고 적진에 돌진하여 적을 혼란에 빠트리는 점이 다르다. 복병과 기습, 그리고 일본군을 상대로 하고, 적진을 혼란에 빠트리는 점은 공통이다. 초기의 원병이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습작전에 유리한 기병대로 진화시킨 것으로 추정한다. 심덕부가 경계한 것처럼 한두 번 기이한 계책으로 끝나는 특수부대가 아니라 다양한 전술의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부대로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두 편의 글은 모두 야사에 나오는 기록일 뿐이고, 정부측 기록이나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와 《연병실기(練兵實紀)》와 같은 전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명군이 특수부대를 운용했다면 그에 관한 기록이 어딘가에 등장할 법도 하다. 다만 정말 특수하여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특수부대를 정식 기록이나 전술서에 반영했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7. 맺음말

이중환의 《택리지》에 등장한 원숭이 기병대의 지역전설을 여러 가지 문헌으로 추적하여 그 실체를 확인해보았다. 이 소재는 역사를 뒤바꾼 동아시아의 큰 국제전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과 피해, 변화와 이야기에 비교하면 아주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믿기도 어려운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일이라 무시해도 좋은 일로 볼 수 있다. 소사전투가 일어난 지 거의 150년이 지난 1750년 전후한 시기에 채록된 지역전설이기에 사실이기보다는

허구에 가까운 전설로 판단하였고, 관련한 자료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하고 신기한 이야기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흩어진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본 결과 허구가 아니라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택리지》라는 문헌이 지닌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조선의 문헌에서 확인한 원숭이 기병대의 존재를 명 원군이나 일본 침략자의 문헌에서는 확인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안목이 아직 두루 미치지 못했을 뿐 저들의 기록에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더 자료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숭이 기병대의 흔적을 추적하면서 하나의 전투, 예컨대 소사전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도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에 놀라게 된다. 전쟁 참여자에 따른 차이는 물론이고, 조선과 명나라, 일본의 기록도 큰 차이를 보인다. 조선의 기록만을 놓고 봐도 기록자의 관심과 태도, 친분에 따라 큰 격차가 있다. 그렇듯이 위에서 제시한 원병의 문헌자료를 해석할 때도 필자와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전쟁은 끝나도 전쟁의 상처와 충격은 사람들의 기억과 전란의 현장에 깊숙이 각인된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도 이야기를 통해 트라우마로 남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중환의 《택리지》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깊이 각인된 저술이다. 조선의 산천 곳곳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스며 있어 사람들의 기억보다 더 선명하게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회상시켰다. 조선의 지리를 예리하게 분석한 이중환은 그 기억 가운데 가장 선명하고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불러내어 《택리지》에 서술하였다. 소사전투의 원숭이 기병대는 그런 기억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의 하나였다.

■ 참고문헌

김미영·박정혜, 《世傳書畫帖》, 민속원, 2012.

김시덕, 《교감해설 징비록》, 아카넷, 2013.

박지원 저, 신호열·김명호 역, 《燕巖集》, 개정판, 돌베개, 2012.

謝肇淛, 《五雜組》, 上海書店出版社, 2001.

송응창 편, 구범진 외 역주, 《명나라의 임진전쟁-송응창의 《經略復國要編》 역주》, 국립진주박물관, 2020.

안대회·이승용 외, 《完譯定本 擇里志》, 휴머니스트, 2018.

안대회, 《택리지평설》, 휴머니스트, 2020.

吳豊培 輯, 《明代援朝史料》 4冊, 本書編委會, 1981.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명문당, 1982.

趙慶男, 《亂中雜錄》, 朝鮮古書刊行會, 《大東野乘》 6권, 1910.

沈德符, 《萬曆野獲編》, 中華書局, 1997.

최관·김시덕, 《임진왜란 관련 일본문헌해제》, 문, 2010.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김우진, 〈月沙 李廷龜의 對明 외교활동: 선조와 광해군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1집, 2012, 115~151면.

孫衛國, 〈丁應泰彈劾事件與明清史籍之建構〉, 《南開學報(철학사회과학판)》, 17本, 2012, .

李光濤, 〈明人援韓興稷山大捷〉,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43本 1分, 1971, 1~14면.

李光濤, 〈丁應泰與楊鎬 - 朝鮮壬辰倭禍論叢之一〉,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53本 1本, 1982, 129~166면.

안대회, 〈《택리지》의 口傳 지식 반영과 지역전설 서술의 시각〉, 《대동문화연구》 93호, 2016, 41~74면.

劉永連·段玉芳, 〈萬曆援朝抗倭戰爭明軍兵力考〉, 《朝鮮·韓國歷史研究》 17호, 2016, 229~247면.

정구복, 〈《亂中雜錄》의 사학사적 고찰〉, 《韓國史學史學報》 23호, 2011, 77~144면.

조은애·이시준, 〈미와 다마키 《전설의 조선》의 일본 관련 설화에 대한 고찰〉, 《외국문학연구》 제57호, 2015, 531~554면.

한국 근대 공학과 스포츠의 선구자 안재학

황우갑/한경대학교 백두산연구센터 운영위원

차 례

1. 머리말
2. 한국 근대 공업화학의 선구자
3. 한국 근대 스포츠 발전에 토대를 놓다
4. 생활개신운동 실천과 조선어사전 편찬 지원
5. 맺음말

1.머리말

경기도 평택 출신의 민족지도자 민세 안재홍(安在鴻)(1891~1965)은 일제 강점기 국내 항일운동을 이끈 민족운동가·언론인·역사학자로서 해방 후에는 정치가 ˙ 정치사상가로서 그 분야마다 굵직한 자리를 차지한 '고절(高節)의 국사(國士)'였다. 또한, 그는 '동경삼재', '조선 삼재'로 알려진 이광수·최남선·홍명희 등과 함께 근대 석학의 대명사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민족운동가로 한국 근현대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안재홍 관련해서는 1978년《창작과 비평》겨울호에 후배 언론인이자 사학자 천관우가 '안재홍 연보'를 발표하고 안재홍 선집 발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행본으로 100권의 책이 간행되었으며 학위논문과 학술논문도 100여 편에 이른다.[1]. 그러나 이는 당대 다사가(多事家)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방대한 글을 쓴 안재홍 연구에 집중이 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안재홍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차원에서 안재홍과 관련 가계의 주변 인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재조명도 필요하다. 앞으로 재평가해 볼 만한 평택 출신의 인물로는 셋째 동생으로 일본과 독일 유학 경험, 스포츠 지원 활동,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 생활 개신 운동과 한글 운동 지원 등 대부분의 시기 형 민세와 함께 기거하고 활동하며 한국 근대 공업화학과 스포츠 발전에 초석을 놓은 안재학(安在學)(1896~1950)이 있다.

또한, 서정리 초등학교 2회 졸업생[2]으로 경성보고와 보성전문학교를 거쳐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부친을 수행하며 함께 활동했고 민세의 납북 이후에는 50~60년대에 혁신운동에 뛰어들어 3선 개헌 반대 등 반독재민주화운동에 힘쓴 장남 안정용(安晟鏞)(1915~1971)도 조명이 필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민세의 사촌 동생[3]으로 수원농림학교(서울대 농대 전신)를 나와 중앙고에서 초대 외무장관을 지낸 변영태와 함께 교편을 잡았고 해방 후 서울대 농대 농생물학과를 창설하고 한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한 안재준(安在俊) 등이 있다. 또한 평택 출신은 아니지만, 안재홍 가계 분석의 측면에서 안재홍의 여동생인 안재숙(安在淑)과 1929년 8월 결혼했으며 수원 출신으로 제헌의원을 포함 4선 의원을 지낸 매제 홍길선(洪吉善)(1904~1980)[4]이 있다.

그리고 민세가 1938년 첫부인 이정순(1889~1938)의 사망 이후 1941년 군산 출신의 김부례(?~2000)와 재혼하는데 그 오빠는 김종량(金宗亮)(?~1962)[5]으로 북촌 한옥마을을 조성해 일본인의 북촌 진출을 막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서 일본 유학시절 친구였던 민세의 조선일보와 신간회, 조선어학회관 건립 등에 지원한 정세권과 함께 건축가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업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해방 후 민세가 운영한 한성일보의 경영도 지원했으며 자신도 세계일보를 창간했고 고향 군산에 최초 지역신문인 군산신문을 창간하고 학교를 세워 교육발전에도 이바지했다.

사촌 안재준과 변영태(卞榮泰)(1892~1969)의 중앙학교 시절 교편 인연

1) 안재홍 관련 연구는 1983년 정윤재가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 석사논문으로 〈안재홍의 정치사상 연구〉를 발표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안재홍의 정치리더십 연구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평전, 연구논문집, 관련 자료집 등 100권 정도의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또한 정치학을 비롯해 역사학, 철학, 교육학, 언론학 등에서 다양한 논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학, 체육학 분야에까지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 1931년 안재홍의 형 안재봉이 고덕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이전이라 민세의 자녀 3명 안정용, 안민용, 안서용은 모두 서정리 초등학교를 나왔다

3) 부친 안윤섭(安允燮)의 동생 안태섭(安泰燮)의 아들

4) 홍길선은 수원 삼일학교를 나와 동경 무사시노 음악학교를 졸업했다. 삼일학교는 현재 삼일중학교, 삼일상고, 삼일공고의 전신으로 민세가 1907년 봄 고덕면 율포리 사립 진흥의숙을 거쳐 서울 황성기독교 청년회 학관에 들어가기까지 수개월 다닌 수원의 사립계 기독교 학교이다. 수원양조사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등도 지냈다.

5) 전북 군산 나포면 출신으로 히로시마 공고를 나온 건축가이다. 군산동산학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 김종량의 건축활동 관련 논문도 나와있다. 1941년 이후 거주한 민세의 돈암동 자택도 김종량이 지원한 것이라고 한다.

에다가[6] 1924년 연희전문학교에서 함께한 동생 안재학(화학공학)과 변영만(卞榮晩)(1889~1954)[7]의 인연에, 안재홍의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 후배로 1930년 7월 백두산행을 함께한 시인 변영로(卞榮魯)(1897~1961)의 관계 등이 연결돼 안재홍의 큰형 안재봉의 큰아들 안우용이 변영태의 딸 변복희와 결혼하면서 경기 부천의 삼변씨와 평택의 안재홍 집안이 사돈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이런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민세의 집안은 평택 고덕지역이 배출한 명가(名家)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언론인으로 활동한 민세는 온화한 성품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한국 근현대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기에 이런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안재홍 가계 재조명 작업의 하나로 그 안재홍의 동생으로 한국 공업화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야구 등 한국 스포츠 발전에도 크게 힘쓴 셋째 동생 안재학의 삶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겠다.

2. 한국 근대 공업화학의 선구자

1) 교토제국 대학 공업화학 1호 공학사 졸업생

안재학은 1896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11번지에서 부친 안윤섭의 3남으로 태어났다. 형 안재홍과는 5살 차이였다. 안윤섭의 장남 안재봉(安在鳳)(?~1935)은 1917년 봄에 타계한 부친 안윤섭[8]의 재산을 관리하

6) 안재준과 변영태는 중앙학교 교사로 안재홍의 넷째 동생 안재직(安在稷)(1909~1975)을 가르치기도 했다. 안재직은 재학 시절 럭비선수로 활동했다.

7) 경기도 부천출신으로 변영만, 변영태, 변영로는 3형제다. 변영만은 안재학이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있을 때 영문학과 교수로 함께 근무했다.

8) 안윤섭은 1917년 5월 25일 사망했으며 민세는 서울중앙YMCA 간사를 그만두고 낙향한다.

며 두 동생의 일본 유학을 뒷바라지했다. 또한, 안재홍에게 독립자금을 지원했고, 마을의 극빈자를 도왔다. 1931년에는 고덕초등학교를 설립 지역 인재 육성에도 힘썼다. 안재홍은 1910년 8월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을 졸업하고 9월 일본 동경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해는 아오야마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1911년 봄에 와세다대 정경학부에 입학했고 이때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는 인촌 김성수였다. 이 시기 민세는 송진우, 신익희, 정세권, 김병로, 문일평, 조만식, 현준호 등 훗날 독립운동과 조선 경제계를 이끄는 지도급 인사들과 교류했다.

김성수의 동생은 수당 김연수(金季洙)(1896~1979)[9]로 삼양사의 창업주였다. 안재학과는 1896년 동갑내기로 동경에서 함께 만난 친구였다. 이후 김연수와 안재학은 막역지우로 10대 청소년기를 일본 동경과 교토에서 함께 보낸다. 동경 와세다대에서 공부한 김성수는 중학생이던 동생 김연수의 일본 유학을 강력하게 권했다. 김연수는 1910년 결혼한 후 1911년 동경 아자브중(麻布中)에 입학한다. 이 학교는 당시 6년제였다. 안재학의 중학 학력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형이 다녔던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 졸업설이 있다. 이는 언론인 이관구가 안재학보다 1년 늦게 교토 3고를 마치고 1921년부터 1924년까지 교토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돌아와 조선일보에서 민세와 함께 근무했는데, 이관구의 민세 관련 회고에 의하면 안재홍이 1911년~1914년 와세다대 유학 중 여름방학이면 모교인 황성기독교청년회학관에 와서 후배들에게 일본 유학 생활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 증언이 있다. 또한 이 때 자신이 민세 선생의 형제 한 사람과 같이 공부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또 하나는 안재학의 중학과정 동경유학설이다. 김성수가 김연수의 동경유학을 권유했듯이, 안재홍도 동생 안재학의 일본 유학을 권유해 바로 일

9) 안재학과 함께 교토제국대 경제학과를 다녔다. 야구발전에 이바지했고 삼양사 회장, 전경련 초대회장 등을 역임했다.

본 유학을 왔을 가능성도 있다. 1917년 7월 여름 방학때 김연수는 안재학, 박석윤(朴錫胤)(1898~1950)[10] (후에 최남선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영국유학을 마치고 1928년 1월 독일서 떠난 안재학과 함께 귀국) 등 유학생 친구들과 함께 반도중학회를 만들고 야구단을 조직 서울과 개성에서 모국 방문 야구단 시합을 벌이며 근대 야구 도입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 이때 안재학이 일본에 있었다면 이는 중학과정을 일본서 다녔거나 황성기독교청년회 학관의 중학부 3년만 마치치고 일본 유학을 갔을 가능성도 있다.

교토 제국대학 조선인 재적생 졸업생 명부 (1897년~1945년)을 정리한 정종현의 연구에 의하면 안재학은 교토 3고를 졸업하고 1920년 교토제국대 공업화학과에 입학 1923년 3월에 졸업했다(정종현, 2020). 당시 일본의 학제는 초등 6년제, 중학 6년제를 거쳐 대학 예과에 해당하는 3고 (교토지역)을 거쳐 교토대학에 입학하는 절차로 3고 입학은 당시 일본 자연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교토제국대학 입학을 보장 받은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수재들이 다니는 학교였다[11].

이 시기 1896년 동갑내기로 충남 아산 출신의 윤일선(尹日善)(1896~1987)[12]이 1919년부터 1923년 6월까지 교토제국대 의학과를 다녔다. 윤일선은 후에 경성제대 의학부장과 서울대 총장, 대한민국 학술원장 등을 지냈다. 윤일선은 후에 교토제국대학 시절을 회고하면서 신문에 '나의 학문

10) 전남 담양 출신. 한국 야구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일본 조세이중(城西中)을 졸업하고 안재학과 함께 교토 3고를 마치고 동경제대 법학부를 졸업했다. 귀국후 영국 캠브리지대에 유학 1928년 1월 안재학과 함께 귀국했다. 매일신보 부사장을 지냈다. 한국전쟁중 사망했다.

11) 일본의 구제(舊制)고등학교는 메이지유신 시대에 설립되어 1950년까지 존속했다. 이학교는 오늘날의 대학 예과 과정 수업을 받았다. 메이지 시대에 동경 1고(동경대), 센다이 2고(동북대학), 교토 3고(교토대), 가나자와 4고, 구마모토 5고, 오카아먀 6고, 가고시마 7고, 나고야 8고 등이 세워졌다. 이 8개고는 넘버스쿨로 불리웠으며 경쟁률 1:1로 해당 지역 제국대학진학을 보장 받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2) 충남 아산 출신으로 윤보선 대통령의 사촌이다.

편력'이라는 글을 썼다. 당시 30여명의 조선인이 이 대학에 다녔고 이관구, 김연수, 최현배, 안재학 등도 동문으로 수학했다고 한다. 특히 김영우(金英雨)라는 유학생이 항일운동에 중심인물로 활동했으며 유학생들도 다수 항일운동에 함께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교토제대 YMCA 기숙사내에는 일본 경찰이 따로 파출소를 내고 유학생들을 감시했다(매일경제신문, 1987년 3월 3일자 9면). 당시 안재학은 형 안재홍이 1919년 11월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사건으로 대구 감옥에서 1차 옥고를 치르고 있었기에 일경에 의해 감시 대상인물이었을 것이다.

이 시기 교토제대로 유학을 온 조선인은 현재까지 236명이 파악되어있다. 교토제국대는 당시 이공 계열 일본 최고의 명문대학이었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학풍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1927년 신간회 교토지회 창립도 바로 이곳 YMCA 회관에서 열렸다. 1897년~1945년 사이 교토제국대 공업화학를 다닌 조선인은 총 13명이다. 안재학은 이 대학 공업화학과 출신 첫 졸업생이다.

안재학의 공업화학과 직속 후배로는 1928년부터 1931년까지 비날론 섬유 발명가로 유명한 이승기(李升基)(1905~1997)[13]가 있다. 후에 교토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고 교토제국대학 조교수로도 임명됐다. 해방후 이승기는 서울대 공대 초대학장을 지냈으나 월북하여 영변 원자력발전소 초대 소장 등으로 북한 공학 발전에 토대를 놓았다. 교토제국대 출신의 과학자로 한국 과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이태규(李泰圭)(1902~1992)다. 이태규는 히로시마 사범대학을 거쳐 1924년부터 1927년 3월까지 교토제국대 화학과를 다녔으며 1931년 조선인 최초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1943년에는 같은 대학 선배인 김연수 등의 지원을 받아 교토제국대 정교수에 임명되었다. 해방후 서울대 문리대 초대학장, 한국과학원 석좌교수,

13) 충남 예산 출신으로 한국 과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커서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큰아버지이다.

학술원 회원등으로 한국 과학발전에 기여했다.

이 밖에 일제강점기 민세와 함께 조선일보에 활동하며 신간회 발기인 등으로 활동한 언론인 이관구(李寬求)(1998~1981)가 1921년부터 1924년까지 경제학과를 대한체육회장과 문교부장관을 역임한 민관식(閔寬植)(1918~2006)이 1940년부터 1942년까지 농림화학과를 민세와 함께 한글수호운동에 힘쓰다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한글학자 최현배(崔鉉培)(1894~1970)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철학과를 다녔다(정종현, 2020). 이런 자료를 통해 볼 때 당시 안재학은 뛰어난 조선인 수재로 일본인들도 들어가기 힘든 대학예과에 해당하는 교토 3고에 입학했을뿐 아니라, 당시 이공계 최고의 명문대학인 교토제국대의 위상으로 볼 때 한국 공업화학의 토대를 놓은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 경험과 4살 터울인 관계로 형 안재홍과 가장 깊이 소통했던 안재학은 교토제국대학 학생으로 재학하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와서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열고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시기 안재홍은 김마리아, 황에스더 등과 함께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대구 감옥에서 1차 옥고를 치르고 있는 시기였다. 1920년 여름 안재학과 친구들은 동경유학생 학우회의 일원으로 부산을 시작으로 신의주까지 주요 도시를 돌며 강연회를 열었고. 학우회 강연은 6월 7일 동경을 출발 부산, 마산, 대구,경주, 공주, 청주, 경성, 재령, 황주, 평양, 진남포, 안주, 정주, 선천 등을 순회했다. 이때 함께한 주요 인물로는 안재학과 함께 김준연, 김연수, 최원순, 전영택 등이 있다(동아일보, 1920년 6월 5일자. 3면).

또한 졸업하기 전인 1922년 7월에는 제1회 교토유학생 학우회의 일원으로 하기 순회 강좌를 열어 동래, 대구, 광주 등 남부 지역과 공주, 재령, 경성, 평양 등 북부지역으로 나눠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 때는 안재학과 함께 이성환, 최현배, 이관구 등이 강사로 참석했다(동아일보, 1922년 7월 1일자. 3면).

2) 한국인 최초로 독일 막스프랑크연구소에 유학한 공학사

안재학은 1923년 3월 교토제국대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조선인 최초로 공업화학을 전공한 학사로 1924년 봄부터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이 시기 연희전문학교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럽대학 박사(스위스 취리히대)이자 서양철학 1호 박사로 후에 안재학의 형 안재홍과 함께 신간회 창립 발기인, 재만동포옹호동맹 위원, 조선일보 특파원을 역임한 이관용(李灌鏞)(1894~1933)이 막 해외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관용과 안재홍은 동갑내기였다. 안재학은 교토제국대에서 더 공부할 수도 있었으나 형 안재홍이 대표적인 배일 활동가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인 교수들도 제자로서 안재학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많았을 것이다. 당시 연희전문학교는 경신학교의 대학부로 운영되었고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교토제국대 시설처럼 연구 환경이 갖춰진 것은 아니라 안재학은 이론을 중심으로 청년 교육에 집중하고 응용화학에 대한 교양 강좌를 통해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일깨우는데 집중했다. 당시 신문 기사는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 조선여자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에 주최로 경성도서관(京城圖書舘))에서 토요일마다 부인강좌을 연다함은 여러 번 보도한 바어와 금일에는 공학사(工學士) 안재학(安在鶴)씨을 초청하여 응용화학의 실제라는 주제로 오후 7시 30분부터 강연을 시작한다는데 신구 가정부녀를 막론하고 상식을 넓히고자 하는바 많이 와서 들어주기를 바란다더라 (조선일보 1923년 11월 3일자 3면) (동아일보 1923년 11월 3일자 3면).

안재학의 연희전문학교 교수 시절은 불과 1년 정도로 길지가 않았다. 안

재학은 1925년 7월 독일 베를린으로 3년간 응용 화학연구를 위해 떠난다. 교토제국대학은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고 있었기에 이미 수개년간 수학을 통해 독일어는 능통했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학교에 근무한 이관용 등과의 교류를 통해 유럽의 사정과 유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응용화학과 같은 분야는 문헌 연구가 아닌 지속적인 실험실습 조건이 필요하기에 연희대 교수 활동은 안재학에게 많은 한계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여기에 안재학은 당시 종로구 평동 75번지[14]에서 형 안재홍과 함께 살고 있었기에 1923년 감옥에서 나와 1924년 4월부터 시대일보, 9월 조선일보 주필로 사회활동과 경제적 여건을 갖추기 시작한 형 안재홍과의 충분한 상의에 평택에서 부친 안윤섭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온 안재봉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을 것이다. 함께 유럽 유학을 떠난 친구이자 한국 최초 유럽 유학 화가였던 이종우(李鍾禹)(1899~1979)[15]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연희전문학교 교수 월급은 200원 정도로 술을 좋아했던 안재학은 식도원 등 식당에 외상값을 갚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당시 신문에는 두 사람의 유럽행이 최초의 일이라 안재학, 이종우의 유럽 유학 소식은 신문에도 실렸다.

> 수년 전에 일본 교토대학 화학공업부(化學工業部)를 졸업하고 그 동안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계속 시무하던 공학사 안재학(安在鶴))씨와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중앙고등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고있던 이종우(李鍾禹)씨는 그 동안 구라파(歐羅巴)에 유학코자 당국에 여행권을 청구하였든 바 최근에 모두 여행권이 발급되었으므로 7월말에 출발할 예정이라는데 안재학씨는 독일 베를린을 중심으로 약 3개년 동안 화학공업을 연구할터이고 이종우씨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약 수삼년 동안 미술을 연구하고자 함이라더라 (조선일보 1925년 6월 28일자. 2면).

14) 현재는 강북삼성병원내에 편입되어 있다. 경교장 맞은편이다. 안재홍은 1941년 김부례와 재혼한 후 성북구 돈암동 산 11-538번지로 이사했다.

15)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로 중앙학교 교사를 지냈다. 해방후 홍익대 미대 학장을 지냈다.

> 일찍이 일본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화학공업부를 졸업하여 공학사(工學士)의 학위를 얻은 후 귀국하여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의 교수로 교양하던 안재학(安在鶴)씨는이번에 더욱 참신한 구미의 공학을 연구하고자 약 3개년 예정으로 독일(獨逸)에 유학하게 되어 어제 14일밤 10시에 경성역을 떠나 학해(學海)의 원정을 떠났는데 오는 20일 고베(神戶)를 출발 열전환(熱田丸)을 타고 인도양(印度洋))을 거쳐가리라더라(조선일보 1925년 8월 15일자. 2면).

안재학은 화가 이종우(1899~1981)와 함께 유학길에 올랐다. 두 사람은 서울서 부산을 거쳐 일본 고베항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고 마르세이유에서 내려 이종우는 파리로, 안재학은 양조관련 공부를 위해 베를린으로 떠났다. 당시 좋은 기와집 1채가 1천원 정도였는데 유럽 가는 여비만 6백원 정도의 거금이었다. 파리에 있을 때 이종우는 녹담빌이라는 술집을 자주 이용했고 여기에 베를린에서 안재학도 가끔 들렸다고 회고 하고 있다(중앙일보, 1971년 8월 30일자). 1927년 6월 한국 최초 여류화가 나혜석(羅蕙錫)(1896~1948)[16]은 1년반 정도 일정으로 세계여행을 하며 종착지로 프랑스에 간다(조선일보 1927년 6월 21일자 3면). 이 나혜석의 프랑스 정착을 이종우의 지원으로 가능했다. 1927년 7월 19일 나혜석은 공항으로 마중나온 이종우, 안재학과 만났다(표정훈, 2019).

수원 출신으로 나혜석의 오빠인 나경석(羅京錫)(1890~1959)은 안재학의

16) 한국 최초 여성화가.

형 안재홍과 함께 1915년 경 중앙학교에서 학감과 교사로 일한 인연이 있었기에 안재학은 나혜석에 대해 알고 있었다. 현재 이화여대 박물관에 '독서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이종우가 그린 친구 안재학으로 추정되는 그림이 남아있다. 안재학은 일본 유학과는 달리 비용등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조선에 올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방학을 이용해서 베를린에서 파리로 와서 이종우 등을 만났을 것이다. 이종우는 프랑스 미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입선을 하고 안재학보다 3개월 늦은 1928년 4월 귀국해서 안재학과 함께 경신학교에서 근무한다. 유학시기인 1927년 월 이종우는 안재학의 형 안재홍이 주필로 있는 조선일보에 유럽 지역 유학생 관련 근황 등을 정리해서 '재프동포의 금석'이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 기고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27년 1월 8 일자. 3면)(조선일보, 1927년 1월 9 일자. 4면).

1925년 11월 21일자 조선일보에는 독일지역 유학생들이 고려학우회를 결성하고 등사판을 이용 회보를 간행하고 있는데 4호에는 당시 독일에 재학중인 학생과 공부하는 학과를 소개하고 있다. 당시 유학생중 눈이 띄는 인물로 후에 조선어학회 간사장으로 한글 수호에 힘쓴 한글학자 이극로, 이화여대 음대 교수를 지낸 계정식, 와세다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유학에 올라 이화여전 교수와 예술원 회원을 역임한 채동선,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등이 있다. 안재학은 화학 전공으로 소개하고 있다. 안재학은 동경제대와 교토제대를 통틀어 공업화학 1호 학사 취득자인 동시에 독일 유학시기에도 공업화학 관련 한국인 첫 유학생이라는 사실을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안재학이 유학한 빌헬름 2세 화학연구소는 2022년 현재까지 노벨상을 32명 배출한 세계적인 연구소이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독일의 기초과학과 공학발전을 위해 세운 연구소로 현재는 막스프랑크 연구소로 개칭 인류 과학발전에 크게 기여한 세계적인 연구소이다.

일찍이 독일에 유학하는 우리동포는 고려학우회(高麗學友會)라는 단체가 있어 그 기관으로 등사판에 박힌 회보 제4호가 간행되었는데 현금 독일에 재학중인 학생과 그 공부하는 학과는 아래와 같다.

김필수(金弼秀)(경제)김현준(金賢準)(경제) 김헌훈(金獻勳)(음악) 김상수(金上洙)(의학)김종성(金鍾聲)(미술) 김예숙(金禮淑)(문학)김백평(金栢枰)(생물) 이극로(李克魯)(경제)이석신(李錫申)(의학) 이의경(李儀景)(생물)이훈(李勳)(법률)이한호(李漢浩)(공학)박유진(朴有鎭)(법률)박주병(朴柱秉)(의학)박성구(朴盛求)(미상)정석호(鄭錫好)(음악)정세휘(鄭世輝)(미상)정상종(鄭商鍾)(경제)정석태(鄭錫泰)(의학) 최창현(崔昌顯)(공학)윤달중(尹達重)(법률) 윤동섭(尹同燮)(문학)배운성(裴雲成)(미술)백준(白浚)(철학(哲學)황우일(黃祐日)(경제)장원택(莊源澤)(미상)원형택(元亨澤)(역사)계정식(桂貞植)(음악)채동선(蔡東鮮)(음악)공인태(孔仁台)(수리)안호상(安浩相)(철학)장득우(張得宇)(공학) 안재학(安在鶴)(화학)(조선일보, 1925년 11월 21일자. 2면)

안재학은 유학을 마치고 1928년 1월 귀국하는데 이 때도 독일에 최초로 유학한 공학사였기에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는다. 이 때 함께 귀국하는 사람은 박석윤이다. 박석윤은 1917년 조사이중에 다녔으며 동경유학 시절에 반도야구단 주장으로 안재학과 함께 고국 방문 경기를 했으며, 교토 3고에서 함께 수학한 인연도 있다. 육당 최남선의 여동생의 남편으로 귀국후 매일신보 부사장등으로 일했다. 최남선의 동생 최두선(崔斗善)(1894~1974)[17]이 안재홍의 동경 유학 시절 친구였다.

일찍이 경도제대공학과(京都帝大工學科)를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더욱 연구를 하기위해 지금으로부

17) 경성방직 사장, 동아일보 사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다.

터 3년 전에 베를린으로 떠나 그곳《빌헤름2세 화학 연구소에서 2개년간 화학공업 연구를 마치고 디시 불란서 파리에 이르러 약 반년간 공업에 대한연구 시찰을 하던 안재학(安在鶴)씨는 구주(歐洲) 각지를 돌고 7일 오전 9시 50분 경성에 도착하는 특급차로 귀국할터이라 한다더라. 더욱 일즉이 동경제대법과(東京帝大法科)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시내 휘문고보(徽文高普)에서 교편을 잡다가 다시 영국(英國)에 건너가 캠브리지대학(劍橋大學)에서 오묘한 학술을 연찬하던 박석윤(朴錫胤)씨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안재학씨와 차를 같이하여 시베리아선으로 동일동시에 귀국한다더라(조선일보 1928년 1월 7일자. 2면).

당시 안재학은 1928년 1월 귀국하는데 이 때 여론의 많은 주목을 받는다. 여기에서 안재학은 독일 자연과학의 우수성을 이야기 하고 돌아와서 화학공업 분야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동안 독일 베를린에 있는 빌헤름2세화학연구소에서 약2개년을 두고 응용화학(應用化學)을 실지로 연구한 후에 작년 봄에 다시 불란서 파리에 가 있다가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독일은 대전후(大戰後)에 다수의 학자를 돈으로 힘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빼앗기었지만 과학(科學)으로는 아직도 세계에서 제일일것입니다그리고 학자 특히 자연과학자(自然科學者)를 극히 우대하는 까닭에 과학자들이 연구하기에 매우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구라파(歐羅巴) 어느 나라를 가보든지 좀 어려운 과학 서류의 저작자(著作者)가 전부 독일사람인 것을 보아도 능히 독일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된 나라인가를 잘 알줄압니다.

이번에 돌아오는길에 스위스,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구라파 제국을 방문하였는데 다른 데에서는 별로 특이한 것이 없었으나 이태리 영토에를 들러서 경계가 엄중하여 마치 계엄상태(戒嚴狀態))에 있는 것같이 심히 마음이 불안한 중에 겸하야 조선 사람이라고 더한층 엄중한 취재를 받고 그리 좋지 못한 대우를 받은 것은 무솔리니 독재수상을 연상하여 보아 그리 무리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스위스, 같은 평화하고 자유스러운 나라와 비교해 보아 매우 재미있는 대조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는냐고요? 글세요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개 소규모의 화학공업(化學工業)을 경영하려합니다(조선일보 1928년 1월 8일자. 2면).

귀국 후 안재학, 김법린 등 유럽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대규모 환영행사도 열렸다. 이는 식민지 시기에 온갖 고난과 차별을 이기고 학문적 성취를 통해 조선인 개개인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도록 했기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안재학의 유학을 지원한 형 안재홍은 1928년 1월 조선일보 사설 '보석 지연의 희생'으로 금고를 받고 복역중이라 환영식에는 함께 할 수 없었으며 이인 변호사, 송진우 동아일보 사장 등이 축사를 했다.

베를린《빌헤름화학연구소》에서 연구하고돌아온 안재학(安在鶴))씨와 영국《켐부릿지》대학에서 연구한 박석윤(朴錫胤)씨와 파리대학(巴里大學))에서 연구한 김법린(金法麟)씨와 베를린대학 교수로 있던 김중세(金重世)씨의 귀국을 환영하기 위하여 오는 28팔일 오후 7시에 시내식도원(食道園)에서 환영회를 열터인데 회비 일원오십전을 당일 지참하기 바라며 출석 여부는 28일까지 수요구락부 (전화1477)로 회답하여 주기를 바란다더라(조선일보 1928년 3월 28일자. 2면).

일본 유학 후 돌아와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의 과학계 현실은 충분한

실험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안재학은 귀국후 경신학교에서 교무주임으로 활동하면 청년 인재를 키우고 강연과 기고 등을 통해 공업화학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왔다. 안재학은 1930년 7월 조선일보 하계학술지상 강좌에 강사로 참여했다. 당시 신문광고를 보면 법학은 변호사 김병로, 문학은 정인섭, 사회학은 백남운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학은 안재학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조선일보, 1930년 7월 27일자 4면) 이 때 안재학은 '발효(醱酵)의 사적 고구(史的考究)'라는 제목으로 2차례에 걸쳐 조선일보에 연재도 했다.

> 발효(醱酵)란 사실 그중에도 주정발효(酒精醱酵)의 사실만은 유사이전(有史前)으로부터 인류에게 이용되었던것이니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든지 그리스의 《바쿠스》는 다 주신(酒神)이다. 여하간 이 발효(醱酵)의 현상(現象)—마치 비등(沸騰)하는 것과 같이 거품이 끓어오르고 가스가 발생하는 것만은 관찰하였지만은 이것을 그럴듯이 설명한 것은 최근 일이니 그 동안 경로를 간단히 소개하여보자(조선일보, 1930년 8월 9일자 4면)

3. 한국 근대 스포츠 발전에 토대를 놓다

1) 반도중학회 야구단원으로 활동하다

1910년대 후반부터 동경지역 유학생 학우회는 방학 등을 이용해 고국을 방문하고 강연단과 함께 정구단·야구단·축구단 등을 조직 친선 경기를 펼쳤다. 맹호단이라는 이름의 제1회 야구단 고국원정 경기는 변봉현(邊鳳現)(?~?)[18]이 이끌었고 2회 맹호단은 서상국(徐相國)(1897~1977)[19]이 이끌었다. 이들 유학생 야구단은 경성 체제비 마련에 곤란을 겪었고 경제력이 있는 유지 가정에 나눠 자기도 했다(동아일보, 1928. 7. 21일자 5면). 이 반도야구단에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한 사람은 김연수였다.

안재학은 일본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반도중학회 야구단원의 일원으로 반도야구단을 조직 1917년 조선을 방문했다. 이때 주장은 박석윤(朴錫胤)(1898~1950)으로 마산, 대구, 경성을 돌며 싸웠다. 후에 박석윤은 동경제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대구 청년회와는 2회전에서 한번 졌으나 경성기독교청년회 학관에는 참패했다. 이 때 반도군에는 안재학, 김연수, 김종원, 강종섭, 신홍우 등이 있었다(동아일보, 1929. 1. 2일자 4면).

2) 조선체육회 발전에 힘쓰다

안재학은 귀국후 돌아와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활동하며 국내 체육진흥에도 힘썼다.

1923년 11월 동아일보와 연희전문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전조선중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 심판부 위원으로 이관용과 함께 활동했다. 이 대회는 양정, 배재, 공주 영명, 송도고, 중앙고등보통학교, 협성, 경신, 청년회학관 등 8개 학교가 참여했다(동아일보 1923년 11월 3일자 3면). 또한 자료를 보면 안재학은 1920년 조선체육회 발족 이래 초창기 한국 체육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조선체육위원회 운동부장으로 한기악과 함께 활동했다.

---

18) 1918년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체육회 창립에 기여했으며 동아일보 기자를 지냈다.

19) 전남 함평 출신으로 와세다대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야구발전에 기여했다. 제헌의원과 2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조선체육회위원회(朝鮮體育會委員會)를 30일 오후 5시 공평동 동회회관에서 열고 위원장 기타상무의 사임에 대한 위원 보선(補選)으로 인(因)하여 아래와 같이 위원회(委員會)의 구성이 있었다 하며 금번 축구대회에 관한 토의가 있은 후 축구대회준비위원회를 다음달 4월3일 오후 2시에 같은 회관에 모여 영도사(永道寺)로 가서 협의한다더라.

위원장 김규면(金奎冕)▲상무 이병헌(李柄憲) 박영진(朴榮鎭)▲운동부 안재학(安在鶴) 한기악(韓基岳)▲ 서무부 선우전(鮮于銓) (조선일보 1925년 4월 1일자 2면).

안재학은 귀국 이후 경신학교에서 인재를 육성하며 스포츠 발전에도 많은 힘을 기울인다. 당시 자료를 보면 체육대강연회에 연사로 나서기도 하고 체육계의 유력인사로 활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씨름협회가 창립(創立)한 지 수개월에 그의 진용(陣容)이 굳게 충실(充實)됨을 따라 동회 연구부(同會研究部)에서는 조선에서 첫계획(計劃)이라할 만한 춘기체육대강연회(春期體育大講演會)를 본월 11일 오후7시에 경성(京城)에서 개최(開催)할터인바 (장소미정) 체육강연회(體育講演會)가 개최(開催)됨은 조선운동계(朝鮮運動界)에 있어 효시(嚆矢)인만큼 체육계(體育界) 그것을 통(通)하여 경종(警鍾)의 진파(振波)를 일으킬 것은 물론인바 벌써 만도(滿都)의《판》은 해당 대회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연사 제씨(演士諸氏)는 다음과 같더라.

▲박창하(朴昌夏)▲안재학(安在鶴)▲신기준(申基俊)▲여류연사1인 (조선일보 1928년 2월 7일자 5면).(동아일보 1928년 2월 7일자 2면)

1928년 1월 안재학이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조선 체육계도 3월에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열었다.

조선운동계가 바야흐로 발아기(發芽期)에서 성숙기(成熟期)에 걸음 걷고 있는 것은 운동계(運動界)를 위하야 투신한 그네들보다도 이에 생각이 튼 사람도 다같이 공식(共識)하여 경하(慶賀)함을 마지않는 바 그 중에도 안재학(安在鶴)씨 또는 박석윤씨(朴錫胤)씨는 독일, 영국 등지로 유학(留學)하여 저들의 체육방침(體育方針)을 연구(研究)한 바있어 이로써 조선운동계(朝鮮運動界)의 개혁(改革)를 부르짓게 되었는데 전기 양씨(前記兩氏)의 환영회(歡迎會)를 체육계(體育界)의 유지(有志)가 발기(發起)하여 돌아오는 14일 오후7시에 시내 명월관 본점에서 연다는바 회비(會費)은 매인 이원二圓)이요 일반체육계(一般體育界)의 활동하는 제씨(諸氏)는 물론(勿論)이거니와 그 외의 다수의 왕림을 바란다하며 회비(會費)는당일 지참하여도 좋으며 발기인(發起人)의 이름을 기록(記錄)하면 김규면(金圭冕), 서상국(徐相國), 민병(閔丙), 백금곤(白金坤), 신용인(愼鏞寅) (이상 무순(以上無順))(조선일보 1928년 3월 13일 5면).(동아일보 1928년 3월 13일 2면)

1928년 3월 동아일보는 세계 열국의 운동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주제로 선진국의 스포츠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는데 유럽은 박석윤, 독일은 안재학, 중국의 축구계는 현정주, 일본의 야구계는 손효준 등이 참여해서 경험을 공유했다(동아일보, 1928년 3월 3일자 2면).

안재학은 부흥 독일운동계의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유학 당시 경험한 독일 스포츠에 대해 기고를 했다. 안재학은 독일 유학중에는 학업에 전념하느라 일본에서처럼 활발하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스포츠 자체에 몰입해서 즐거움을 찾는 아카데믹한 스포츠 문화가 없다는 점과 격검(擊劍)

과 같은 군국주의적 특성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 독일 유학 중 실제 스포츠에 관련이 없던 나이다. 체험하지 못한 인상과 산만한 재료로 독자 제군에게 만족한 보도를 드리지 못한 것은 잘 아는 바이지만 이것이나마 혹시 운동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R형의 명령을 최후까지 거절하지 못했다. 각종 운동이 독일에 있어서도 역시 상당히 보급되어 있으며 저명한 선수도 적지 않지만 아카데미 스포츠가 전혀없는 까닭인가? 어쩐지 스포츠 기분이 매우 없는 나라이다. 격검(擊劍)만은 독일의 유일한 학생운동으로서 교내 대회는 물론 학교간 경쟁도 빈번이 있어 얼굴에 혈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처를 이리저리 찍어붙이거 오히려 리터잔을 기울이는 학생 신사를 음식점에서 예사로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라야 참으로 독일혼을 가진 자라고 누구나 인정하며 존경하는 바이다. 이것은 물론 지나가고 있지만 군국주의적 상무정신이 아직도 그들에게 남아있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줄 뿐이고 하등 스포츠의 맛과 감격을 받지 못했다(동아일보, 1928년 4월 20일자 5면).

또한 독일은 국가 차원에서 유산계급의 운동에 대한 애착과 풍부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아니라 무산계급의 운동에 대한 시설 지원 등도 완비되어 있어 스포츠 이전에 국민운동이나 국민 훈련과 같은 인상을 짙게 풍긴다고 봤다. 추운 겨울이 많은 지역이라 봄에서 가을까지 테니스장으로 쓰는 공간을 겨울에는 얼음을 열러 빙상장으로 활용하는 것,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주일에도 몇 번씩 현장학습을 나가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동아일보, 1928년 4월 21일자 2면). 안재학은 이해 10월에는 조선신흥 럭비축구 클럽 조직 발기인에 참여하고 간부에도 선임되었다. 이 클럽의 매니저는 이승렬, 주장 안재학, 간사 서상국, 박석윤, 이길용(조선일보 체육기자)였다(동아일보 1928년 10월 30일자 7면). 또한 1929년 6월에는 계동에 있는 휘문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제3회 중등학교 야구 연맹전에 경신학교 감독으로 선수들을 지휘했다. 이 행사에는 중앙고, 배재고, 휘문고, 경신고 4개 학교가 참여했다(조선일보, 1929년 6월 8일자 2면).

4. 생활개신운동 실천과 조선어사전 편찬 지원

1928년 1월과 5월에 조선일보 필화 사건으로 2차례 옥고를 치른 안재홍은 1929년 1월 조선일보 부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생활개신운동과 문자보급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생활개신운동은 민중과 접촉하기 쉽고 그들에게 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식·의식의 씨를 뿌려줄 현실 가능한 실천운동으로 색의단발, 건강증진, 상식보급, 허례 폐지, 소비절약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5월 30일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각계인사와 함께 생활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 신석우를 비롯해 윤치호, 김미리사, 최현배 등의 지지연설에 이어 각계 많은 지도자들이 참여했는데 안재학도 이날 상식보급부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조선일보, 1929년 5월 2일자 2면). 또한 이해 10월에는 야비한 유행가에 대한 퇴치택이라는 인터뷰에 응해서 유행가 문제에 대해 기분에 따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 갑자기 무엇이라고 말씀드릴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행가란 그렇게 쉽게없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학생시대에 그런 것을 불러도보고 또하고 싶었습니다 대개보면 가곡이 좋고 또 어떤

것은 가사도 매우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고로 유행가라는것은 장소와 하는사람에게 따라 다를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것을 누구나 하게되는 것은 보통학교에서 가르치는것은 너무나 단조한 까닭에 흥미를 느끼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내놓는 것이 제일이겠지요. 그럼으로 장소를 따라 혹은 하는사람의 기분에 따라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좋지못한 경우도 있을것임으로 대체로 보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조선일보, 1929년 10월 20일자 5면).

또한 안재학은 세종대왕 한글 창제 483년을 맞아 우리말 통일운동을 위해 추진한 조선어사전 편찬위원회 108명의 발기인 가운데 한사람으로 참여했다. 여기에는 당대 국내에 남아 활동하던 주요 인사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참여자를 보면 안재학과 형 안재홍을 비롯해서 이승훈, 이종린, 허헌, 송진우, 신석우, 안희제, 박승빈, 백인제, 최규동, 김미리사, 최두선, 한기악, 민태원, 홍명희, 조만식, 이관용, 박한영, 장지영, 최현배, 방정환, 이광수, 염상섭, 변영로, 현진건, 이은상, 김연수, 김성수, 백관수, 김법린, 이극로 등이다(동아일보 1929년 11월 2일자, 2면).

자료를 보면 1929년 11월에는 '오늘의 가정은 어떻게 움직이나'라는 주제로 안재학 가정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려있다. 당시 종로구 평동에서 형 안재홍, 동생 여동생 안재영, 남동생 안재직 등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이 자료는 당시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안재학의 과묵한 성격과 독일 유학비용을 형 안재봉과 안재홍 등 집안 형제들이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유일한 공학사로 일찍이 외국 유학을 마치고 지금은 시내 경신학교에 교편을 잡고서 온힘을 교화사업에 던지고 있는 안재학씨의 댁은 어지러운 시가를 비껴서 서쪽에 한가히 드러앉은 평동이었습니다. 크도 적도 않은 알맞은 집뜰에는 모두가 한얼굴 같이 보이는 5~6인의 어린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기자는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어머니 계시니?"하고 한 아이에게 물었더니 "녜"하고 안방을 향하여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기자는 바로 맞았다하고 안심하면서 부인의 안내로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에그, 방이 이렇게 어지러워서 하시면서 분주히 방안을 치웠습니다." "어린애가 있으니까 자꾸만 치워도 이렇게 됩니다" 하며 섣달이 돌이란 아드님을 받아 안으며 젓을 물렸습니다. "분주하시지요." 기자의 말에"예." 하는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별로 하는일 없습니다만은 그저 밤낮 분주만하지요. 식구란 자식 삼남매, 시아즈버님[20], 시누님[21] , 조카[22]들이지요. 애들은 거의 다 학교에 다닙니다." 하는 부인의 검소한 차림은 분주한 그 생활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선생(안재학)께서도 퍽 분주하시지요?" 하는 기자의 말에 "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에야 들어오시고 언제 집에 계시나요 아이들이 저렇게 학교에 다녀도 집에선 무엇하나 가르쳐주지못합니다. 그저 하면하고 말면 말고 가만히 버려두지요. 혹시 안 한다고 나무래기나 하지요. 살림살이도 그렇지요. 통히 잔말씀이라고는 없는 양반입니다." 하고 역시 약한 얼굴에 웃음을 띠었습니다.

"선생께서 유학하시는 동안엔 어디 계셨어요?"하고 기자는 그 동안 지내시던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여기 그냥 있었지요. 큰댁에서 여기 그냥 있는 것이 좋다 하시니까 지금 살림살이도 큰댁에서 돌아보시지만 그때 학비도 전부 집에서 보냈습니다. 참 어지간 했지요. 지금 저렇게 월급이라고 받습니다만은 무어 얼마되나요? 자기 용돈이나 겨우되지요"하며 어린애를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지나시든 이야기나" 하고 부인을 바라볼 때

20) 안재홍을 지칭.
21) 안재홍의 여동생 안재숙과 안재영.
22) 안재홍의 아들 안정용, 안민용 등

부인께서는 웃으시며 “사년되던 해에 나오셨습니다만 그 동안 시아즈버님께서 저렇게 사랑에 계셔서 퍽 마음이 든든해서요(조선일보, 1929년 11월 12일자 5면).

안재학 관련 기사는 1930년대 초까지 신문에 나온다. 1931년 5월에는 경신고 교무주임으로 당시 3학년생 2명, 4학년생 1명을 예수교의 교리에 반대하는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있어 이해 학생들이 동맹휴학을 한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학교의 방침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했고 (1931년 5월 9일자 동아일보 2면) 당시 논란이 되었던 시험 철폐 문제에 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들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시험 철폐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조선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나의 한 경험(經驗)에 지나지 안는 것이지만 여름에 시험(試驗)을 치르는 것처럼 곤욕(困辱)인 것은 없을것입니다. 더구나 조선학생(朝鮮學生)들의 생활수준(生活水準)은 다른 나라 학생(學生)들의 그것보다 월등(越等)한 차이(差異)를 가지되 저열(低劣)한형 편(形便)이어서 모기와 빈대 찌는듯한 염열(炎熱)이 못살게 구는 온돌방(溫突房)에서 밤을 새워가며 시험공부를 하는 그 난행고행(難行苦行)이야말로 어찌 입으로 다 형언(形言)해 말하겠습니까? 이러한 의미(意味)에 잇어서 이번 시험철 발안(試驗徹發案)은 그것의 첩경(捷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조선일보, 1930년 10월 16일자 4면).

안재학 관련 기사는 1930년대 현재까지 1930년대 10월 16일자 기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다. 이후 1932년 4월 안재홍이 조선일보 사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안재학도 경신학교 일을 그만두고 낙향했다고 한다. 형 안재홍이 국내 1급 감시대상이었고 한 집안에서 기거했기에 일제의 회유 등으로 더 이상 사회생활이 힘들었을 것이다. 1938년 민세가 군관학교 사건으로 8차 옥고를 치르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왔을 때 안재학이 마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갔다는 기록도 보이지만 눈이 띄는 사회활동은 하지 않았다. 안재홍의 장남 안정용이 보성전문학교를 마치고 민세 친구 정인보의 주선으로 유일한이 운영했던 유한양행에 취직했다가 1년 정도 다니고나서 조선효모공업이라는 회사에 관여하는데 이와 관련 분야가 공업화학이고 발효 산업 관련이라 작은아버지였던 안재학의 자문이나 관여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안재학은 종로구 평동에서 형 안재홍과 함께 살다가 후에 분가해서 서대문구 아현동에 거주했고 1950년 6.25 시기에는 서울 돈암동에 거주했다. 형 안재홍도 가까운 돈암동에 살았다. 안재학은 전쟁 중에 안재홍의 부인 김부례 여사의 협조로 김여사의 친정이 있던 전북 군산으로 피난 갔다가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했다(조카 안명희 등 증언). 한국 근대 공업화학의 선구자이자 스포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학자의 쓸쓸한 죽음이었다. 6.25는 안재홍 집안에도 큰 불행은 가져왔다. 안재홍의 납북, 동생 안재학의 죽음, 둘째 아들 안민용의 죽음과 큰형 안재봉의 아들 안우용의 납북 등 불행한 가족사가 이어졌다. 안재학은 자녀로 아들로 세용, 화용, 호용과 딸로 홍용, 경희를 두었다. 둘째 아들 안화용은 연세대 의대 교수로 활동하며 관절 분야의 권위자로 세광병원을 세워 운영했다. 안화용의 아들 안영준은 경찰병원 정형외과 과장을 거쳐 현재 서울에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안화용의 딸의 남편인 이춘성은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평택이 배출한 한국 근대 공학의 선구자 안재학의 유업은 자연스럽게 후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 독립과 통일에 헌신하며 민족지도자로 활동했던 안재홍의 동생 안재학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재학은 자연과학과 공학 최고의 명문인 일본 교토제국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1호 공학사였다. 또한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다시 독일 빌헬름2세 화학연구소(현 막스프랑크연구소)에 유학해서 서구의 새로운 응용화학 이론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역시 독일 연구소에 유학한 최초 공학사이기도 한다. 비록 국내의 실험 실습 시설의 미비와 여건이 성숙하지 못해 추가적인 연구를 하지는 못했지만 일제강점기 공학에 뜻을 두고 전세계로 시야를 넓혀 공부하고 돌아와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쓴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안재학은 동북아 무역물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평택이 배출한 대표적인 공학도였던만큼 향후에 기념거리 조성, 공공 건물에 이름붙이기, 관련 상 제정 등을 통해 그 뜻을 널리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안재학은 한국 근대스포츠 발전에도 토대를 놓았다. 일본 중학 유학시절 반도중학회 야구팀의 일원으로 고국을 방문해서 야구를 통해 심신단련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아니라 조선체육회 임원 등으로 활동하며 야구뿐 아니라 육상, 럭비 등 스포츠 발전에도 기여하고 선진국의 스포츠 최신 정보를 국내에 알리는데도 기여했다. 이는 1928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조선 체육계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연 것으로도 확인된다. 형 안재홍이 조선농구협회 초대 회장, 축구 경평전 개최, 조선역기경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동생 안재학과의 교감 속에서 건강증진과 억센조선의 건설이라는 대의 속에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남 함평군은 2회 유학생 야구단을 이끌고 고국 원정경기를 한 함평 출신 서상국의 뜻을 기려 전남야구장에 서상국의 동상을 제막하고 한국 야구발전에 토대를 놓은 그 뜻을 기렸다.

한국 스포츠 발전과 관련해서 안재홍가의 업적도 다시 평가해볼만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 농구협회의 전신인 조선농구협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낸 안재홍과 야구 등 스포츠 발전에 힘쓴 안재학, 숙명여고 시절 농구선수로 활동한 민세의 막내 여동생 안재영, 중앙고 시절 럭비선수로 활동한 막내 남동생 안재직 등의 활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향후에 평택에 지어지는 공공 체육시설 등에 안재홍가의 이름을 붙여 선양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셋째, 안재학은 형 안재홍과 함께 생활개신운동, 조선어사전 편찬 등을 지원하며 일제에 맞서 민족의 정신을 찾고 지키는데도 기여했고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 조선학운동을 주도하고 실천한 형 안재홍을 도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한민족이 나갈길에 커다란 공감대를 가지고 다양한 지원을 했다.

이러한 안재학의 활동은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향후에 안재학의 일본 교토 유학시절 관련 자료와 중학 유학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인과 성적표, 일본인 지도교수에 대한 정보와 학습 내용, 안재학 관련 일본어 문헌 자료 등에 대한 수집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또한 독일 빌헬름 2세 화학연구소 유학 당시 활동, 베를린과 파리에서 이종우 등 화가와 여러 인사들과의 교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이어져 한국근대 공업화학의 선구자 안재학의 활동에 더 깊고 넓게 연구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브레인시티 조성 등으로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을 거듭하는 평택에서 공학자 안재학의 삶과 활동이 시민과 청소년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평택공학의 상징 인물로 재평가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인식, 2007,《중도의 길을 걸은 신민족주의자》서울: 역사공간.

윤대식, 2018,《건국을 위한 변명: 안재홍》서울: 신서원.

이지원, 2007,《한국 근대문화사상사연구》서울: 혜안.

정종현, 2020,《제국대학의 조센징》서울: 휴머니스트.

표정훈, 2019,《혼자 남은 밤, 당신 곁의 책》서울: 한겨레출판.

정윤재, 2019,《안재홍 평전》서울:민음사.

황우갑, 2019,《성인교육자 민세 안재홍》서울:선인출판사.

황우갑 엮음, 2020,《민세 안재홍 연보 1》서울:선인출판사.

황우갑 엮음, 2022,《민족지도자 안재홍 공식화보집》서울:그림씨.

2. 신문 자료

《동아일보》, 1920년 6월 5일자. 3면

《동아일보》, 1922년 7월 1일자. 3면

《동아일보》, 1923년 11월 3일자. 3면

《동아일보》, 1928년 2월 7일자. 2면

《동아일보》, 1928년 3월 3일자. 2면

《동아일보》, 1928년 3월 13일. 2면

《동아일보》, 1928년 4월 20일자. 5면

《동아일보》, 1928년 4월 21일자. 2면

《동아일보》, 1928년 7월 21일자. 5면

《동아일보》, 1928년 10월 30일자. 7면

《동아일보》, 1929년 1월 2일자. 4면

《동아일보》, 1929년 11월 2일자. 2면

《동아일보》, 1931년 5월 9일자. 2면

《매일경제신문》, 1987년 3월 3일자. 9면

《조선일보》, 1923년 11월 3일자. 3면

《조선일보》, 1925년 4월 1일자. 2면

《조선일보》, 1925년 6월 28일자. 2면

《조선일보》, 1925년 8월 15일자. 2면

《조선일보》, 1925년 11월 21일자. 2면

《조선일보》, 1927년 1월 8 일자. 3면

《조선일보》, 1927년 1월 9 일자. 4면

《조선일보》, 1927년 6월 21일자. 3면

《조선일보》, 1928년 1월 7일자. 2면

《조선일보》, 1928년 1월 8일자. 2면

《조선일보》, 1928년 2월 7일자. 5면

《조선일보》, 1928년 3월 13일. 5면

《조선일보》, 1928년 3월 28일자. 2면

《조선일보》, 1929년 5월 2일자. 2면

《조선일보》, 1929년 6월 8일자. 2면

《조선일보》, 1929년 10월 20일자. 5면

《조선일보》, 1929년 11월 12일자. 5면

《조선일보》, 1930년 7월 27일자. 4면

《조선일보》, 1930년 8월 9일자. 4면

《조선일보》, 1930년 10월 16일자. 4면

《중앙일보》, 1971년 8월 30일자.

평택문화연구 제4집

발행일 :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 이보선(평택문화원장), 박성복(평택학연구소장)
발행처 :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 화 : 031-655-2002
팩시밀리 : 031-654-8807
인 쇄 : 나무기획

저작권자 2022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ISSN 2713-6884

※ 이 책의 저작권은 발행처와 저자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내용 및 사진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